중편소설

락동강

엄 단 웅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중편소설 《락동강》은 주체61(1972)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의 무력침공을 격퇴한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과 대전을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 도시들을 해방한후 남쪽으로의 진격을 계속 다그쳐나가던 주체39(1950)년의 무더운 여름철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최경민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뛰여난 군사실무능력,엄격한 요구성과 완강한 의지를 지닌 대대장이다. 그의 지휘하에 대대전투원들은 패주하는 적 한개 련대를 포위섬멸하는 전투와 그에 이어 진행된 락동강도하작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다. 대대장 최경민은 항일혁명투사인 오현무련대장의 깊은 관심과 로련한 정치일군인 김성태문화부대대장의 침착하고 웅심깊은 방조속에 참된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전사들을 돌보면서 말없이 경민을 받들어주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당원들을 발동하여 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다가 쓰러지는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의 형상은 깊은 감명을 안겨준다.

소설에서는 몸에 중상을 입고도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사코 뒤쫓아와서 불타는 락동강 물결우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앞장서 돌진하는 분대장 강호범, 남조선인민들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겨오겠다는 일념을 안고 불뿜는 중기관총을 어깨우에 떠받들고 내리꼰지는 적기를 무섭게 노려보며 바위처럼 버티고서있는 림태복전사를 비롯하여 인민군전사들의 각이한 모습들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중편소설 《락동강》은 의의있는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민을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던 50년대의 투쟁기풍으로 선군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편집부

주요 인물

최경민 인민군대대장

오현무 인민군련대장

김성태 문화부대대장

한명희 련대군의소준의

김봉수 최경민대대의 1중대장

강호범 1중대 분대장

1

서울을 해방시킨 인민군부대들은 낮과 밤을 이어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남으로 뻗어나간 신작로들은 행군하는 부대들로 꽉 덮여있었다. 꼬리를 물고 늘어선 보병들의 끝없는 행군대렬과 땅크와 자동포들, 모터찌클들, 포를 단 견인차와 탄약차들이 끝없이 흐르고 또 흘렀다. 원쑤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였다. 빨리 가야만 했다. 그래서 부대와 부대, 병종과 병종간에도 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앞을 다투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기계화부대나 포병들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법이다. 보병들은 길 한복판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길 량역에 길게 늘어서서 걸어나갔다.

땅크와 자동포들은 보병들이 내준 그 길 한복판으로 귀청이 미여지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질풍처럼 내달렸다. 그때마다 신작로에는 깊숙깊숙한 바퀴자국이 패이고 먼지가 구름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어마어마한 대구경포들도 지나갔다. 그 포들은 육중한 무한궤도에 끌리여 속력을 늦추고 천천히 보병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는데 길게 내뻗은 그 포신들에는 풀잎과 나무가지들이 덮여있었다.

인민군부대들이 물결처럼 흘러나가는 길목과 동구마다에는 남녘형제들이 늘어서서 수기와 꽃묶음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들은 군대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이 터지게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눈물과 땀에 얼룩진 그 환영군중들의 물결을 헤집으며

한 부대가 지나가면 다음 부대가 또 나타났다.
날씨는 무섭게 더웠다. 삼복의 뜨거운 해볕아래 대지는 불덩이처럼 확확 달아올랐다.
전선이 남쪽으로 옮겨질수록 더위는 더욱더 심해갔다. 한낮의 불볕이 내리쪼일라치면 풀밭의 개구리들은 물웅뎅이를 찾아 첨벙첨벙 뛰여들고 산과 들의 나무잎사귀들은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축축 휘늘어졌다.
전사들은 행군하다 물을 만나면 우선 마시고 머리에 끼얹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대렬속에 끼여들었다.
숨막히는 더위속에서 땅바닥을 짓누르며 질풍처럼 내닫는 땅크의 무한궤도를 따라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걸음걸음 내달리는 전사들의 발자국을 따라 전선은 빠른 속도로 남으로! 남으로! 옮겨지고있었다…

×

전선이 남쪽으로 멀리 옮겨지면서 부대의 행군은 주로 야간에만 진행되였다. 놈들의 항공대가 갈수록 더욱 발악했기때문이였다. 낮에는 개별적인 군인들만이 대도로를 지나다녔다. 대전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락동강이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한 신작로길로 젊은 군관 하나가 걸어가고있었다. 전투가방을 메고 허리에는 권총을 찼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기좋은 보통 키였다. 얼굴은 땀에 푹 젖고 배낭을 걸머진 잔등의 군복저고리는 살에 철썩 달라붙었으나 단추 하나 풀지 않고 허리가 아플만치 군관혁띠를 질끈 졸라매였다.
그의 몸에 착 달라붙은 맵시있는 전투복이며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혁띠고리며 구리단추만 보아도 그가 어제오늘 처음으로 군관복을 갈아입은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비록 그의 전투복은 물이 날고 땀에 푹 젖었

으며 군화에는 허옇게 먼지가 올랐으나 군무생활에서 자연히 몸에 밴 엄격한 생활질서와 꿋꿋한 그의 성미를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볕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얼굴에 남달리 큼직한 그의 두눈이 조용히 빛나고있었다. 상대방의 배속까지 빤히 들여다보는것 같은 그런 눈이였다. 량미간을 쪼프리고 침착하게 앞을 내다볼 때면 그의 두눈은 더한층 날카롭게 리지적으로 번쩍였다.

그는 이마를 타고내리는 땀방울을 문댈념도 아니하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짚고있었다. 그는 련대작전참모 최경민이였다.

최경민은 병원에서 나오자바람으로 보병대대 대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오늘아침 이른새벽에 길을 떠났다. 그가 이번에 가게 된 련대는 같은 사단관하의 련대였으므로 전혀 낯선 부대도 아니고 또한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것도 아니였으나 행군중에 있는 부대를 따라잡아야 하니만큼 어지간히 바쁜 걸음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몸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제까지 두주일 남짓하게 사단군의소에 들어가 있었다. 부대가 38선을 넘어 적의 중요한 군사요충지대의 하나인 《동두리》를 공격할 때 화선에 나가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왼쪽옆구리에 경한 파편상을 입었었다. 그때 상처는 경했을뿐아니라 걷는데도 별로 지장이 없었으므로 그는 련대군의소에 들려 처치만을 하고 돌아왔었는데 얼마전에 부상처가 다소 악화되여 련대군의소로 처치를 받으러 갔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련대군의장은 상처가 좋지 않다고 당장 입원치료할것을 요구하였다. 최경민은 그의 제기를 웃음으로 막아버렸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며 작은 상처라고 등한히 하다가는 걷잡을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련대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그리하여 최경민은 군의장에게 붙잡혀 사단군의소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록 얼마 안되는 입원기간이였으

나 그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만치 무료하고 초조한 나날이였다. 그는 귀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서 할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들을 찾고 생각해냈다.

전쟁이 개시된 이래 아직 소식을 전하지 못한 후방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도 쓰고 진격의 나날들을 더듬어 일기도 정리해보았으며 자신이 직접 관여한 중요작전들과 전투들을 회상하면서 유익한 경험들과 교훈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일로도 결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그동안 제1제대 부대들은 잠시 숨돌릴 사이도 없이 적을 쳐부시며 계속 앞으로 나갔다. 그들의 뒤를 따라 그새 사단군의소도 남쪽으로 몇차례 자리를 옮겨앉았다. 날에날마다 전방에서는 혁혁한 전과와 눈부신 진격의 새 소식들을 병원으로 전해다가 부상병들을 흥분시키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최경민은 초조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대로, 전선으로 내달리는 그의 초조한 마음을 더욱 걷잡을수 없게 뒤흔들어놓은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그의 병문안을 왔던 련대정찰참모가 최경민을 대대장으로 임명할데 대한 간부조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귀띔해주었던것이였다.

뜻밖의 이 기쁜소식은 그를 몹시 흥분시켰다. 전쟁이 개시되자 그새 군관들의 간부이동은 눈에 띄게 현저히 늘어났었다. 그가 알고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그중에는 전투구분대 지휘관으로 소환되여간 동무도 있었고 어떤 동무들은 같은 부대, 같은 참모부내에서 자리만 옮겨앉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동무들은 신입대원들을 훈련하기 위해 배낭을 걸머지고 먼 후방으로 들어간 동무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쟁승리를 위해 취해지는 상급의 이 정당한 조치를 선뜻 받아안고 말없이 자기 맡은 초소로 떠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소원, 즉 구분대를 거느리고 화선에 나가 직접 미국놈들을 쳐부시고싶은 그 한가지 간절한 심정만은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최경민은 모든 군무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행운이 이렇듯 뜻밖에 차례진데서 오는 흥분과 행복감에 취해 그날저녁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고 앞으로 자기와 같이 싸우게 될 친근한 군관들이며 미더운 전사들의 얼굴들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 전사들과 군관들을 이끌고 미국놈들을 족쳐댈 통쾌한 전투장면을 머리속에 그려보기도 하는것이였다.

최경민은 초조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담당군의를 찾아가서 퇴원날자를 독촉하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사람좋은 담당군의는 군관동무까지 그래서야 하전사동무들을 어떻게 교양하겠느냐고 웃음으로 일축해버리는것이였다. 최경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에는 학습에 달라붙었다. 그는 적들의 무력침공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신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비롯하여 미제의 본격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할데 대한 1950년 7월 8일 방송연설 그리고 대전해방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축하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였다. 최경민은 전쟁승리를 위해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수령님의 이 력사적인 연설과 명령들을 깊이 학습하면 할수록 더욱더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현단계에서는 놈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기동속도를 높여 적들을 포위소멸하라고 명령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전에 시간을 쟁취해서 놈들을 조국강토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계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인민군 전체 군무자들은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이 현명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

방전쟁의 최후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벌리고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준엄한 시각에 병원침대우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있는 일을 생각하니 죄스럽기만 하고 가슴이 죄여드는것이였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는 병원생활을 더는 참을수 없었다.

그가 사단군의소에 입원한지 두주일째 되던 날이였다. 그날아침 최경민은 부상병들이 아직 깨여나기도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준비를 갖춘 다음 담당군의앞으로 사과의 쪽지편지 한장을 써놓고 부대를 찾아 병원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한참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멈춰서버렸다. 군관동무가 그래서야 하전사들을 어떻게 교양하겠느냐고 하던 사람좋은 군의의 얼굴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군대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직 한번도 군사규률을 위반해본적이란 없는 그였다.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한다? 그는 길바닥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수없이 되돌아섰다. 어쨌든 수속만은 정식으로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때 병원에서는 뜻밖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하여 떠들썩소동을 일으키고있었다. 그러다가 최경민이 덜렁덜렁 다시 나타나자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군인들도 간호원들도 그리고 최경민자신도 웃었다. 사람좋은 군의는 한바탕 웃고나서 말없이 퇴원수속을 해주었다. 그 어떤 수단으로도 더는 최경민을 잡아둘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모양이였다.

그가 련대장지휘감시소에 나타나자 련대장은 어째서 벌써 나왔느냐고 의아해하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안놓이는듯한 안색으로 그의 부상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치료경과를 캐여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힘찬 대답이며 확고한 걸음걸이를 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간부참모를 부르더니 그를 ×련대 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한다는 상급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여태 크게 의지해오던 좋은 일군 하나를 빼앗긴데서 오는 서운한 얼굴로 자기와 저녁식사를 같이 나누자고 권하였다. 그러

나 최경민은 사업인계와 관련하여 할 일이 많다는것을 구실삼아 련대장지휘감시소에서 물러나왔다. 그것은 자신의 벅찬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적당한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오래동안 같이 지내던 참모부의 여러 친구들은 최경민에게 차례진 이 영광을 진심으로 기뻐도 하고 그와 헤여질 일을 생각하고는 섭섭해하기도 하였다. 오다가다 만나는 동무들마다 건네는 축하의 인사말들이며 그의 전투구분대생활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허물없는 롱담들, 련대후방부에서 그와 송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탁이며 비록 크지 않은 일들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사소한 사변들과 분위기는 그를 더욱 흐뭇한 정회와 행복감에 잠기게 하는것이였다. 그와 오래동안 같이 지내온 참모들과 작전서기를 비롯한 참모부내 여러 동무들은 정든 친구와 작별하게 되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지 못해 하루저녁 더 쉬고 떠날것을 진심으로 권하는것이였으나 최경민은 고집스럽게 출발을 서둘렀다. 한시바삐 새 위치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싶은 조바심때문이였다.

바람 한점없이 해볕에 달아오른 신작로는 숨이 턱턱 막혔다. 땅크와 자동포들은 밤마다 신작로에다 무수한 바퀴자국을 새겨놓았다. 그 바퀴자국마다에는 먼지가 괴여 걸음을 옮겨짚을 때마다 풀썩풀썩 발목까지 빠져든다. 한낮이 지나면서부터 대기는 더욱더 무섭게 달아올랐다. 이글거리는 열광을 쏟아붓는 태양의 위력앞에서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넋을 잃고 숨을 죽이는듯싶었다.

최경민은 잠시라도 그늘밑에 들어가 숨을 돌리고싶은 유혹을 물리치면서 걸음을 다우치고있었다. 7월의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확확 달아오른 대지를 밟으며 사색과 정열이 번쩍이는 두눈으로 앞을 내다보며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짚었다.

《군관동지！…》

갑자기 등뒤에서 애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경민은 주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단발머리 녀전사 하나가 달려오고있었다. 어깨에 위생가방을 둘러멘것을 보니 간호원인 모양이다. 혹시 내가 입원했던 사단군의소의 간호원동무가 아닐가?

그는 가까와오는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눈정기를 돋구었다. 그러나 사단군의소의 낯익은 간호원의 얼굴은 아니였다. 무슨 일일가? 최경민은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있었다. 처녀는 경민의 앞에 와서도 숨을 가라앉히느라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군복은 땀에 푹 젖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서운 이 불볕속으로 이렇듯 급히 달려온것을 보니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은 모양이다. 처녀는 그의 앞에 오더니 잠시 숨을 진정시키고나서 지나가는 부상병 두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한사람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등병이고 또 한사람은 분대장이예요. 사단군의소로 후송하는 도중에 없어졌어요. 나를 속이고말이예요.》

처녀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성급히 말하고나서 숨을 씨근거렸다. 최경민은 그에게 보지 못했다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간호원은 락심한 나머지 대번에 울상이 되여버렸다. 두눈에 눈물까지 핑 돈 처녀의 애처로운 모습앞에서 최경민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는 나어린 이 간호원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할지 궁리가 나지 않아 한동안 멍청하니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간호원은 이 무뚝뚝한 군관동무한테서는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인지 더 지체하지 않고 되돌아서서 오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어떤 동무들이기에 저 처녀를 저리도 안달굴가? 분명 그들도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한사코 전투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중대로 되돌아갔을것이다.

어느 부대 동무들일가? 최경민은 이런 생각에 잠겨 멀리 갈림길로 사라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짚었다.

2

련대지휘부는 대도로에서 약 5리쯤 들어간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골짜기어구 산기슭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있는 련대직속구분대들에서는 벌써 저녁식사준비들을 하고있었다. 경민은 우선 련대참모장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선이 머리태처럼 타래를 지어 들어간 련대참모부천막안으로 들어섰다.

련대참모장 서인규는 생기있는 작은 두눈과 가느다란 입술과 하삼각형으로 생긴 뾰족한 아래턱에 진한 검정수염이 한벌 덮인 성급하고 총명한 사람이였다. 자신이 인정하고 또 일반이 공인하는것처럼 그는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해제끼는 비상한 두뇌와 실무능력을 가지고있었다.

최경민이 방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작전서기와 마주앉아 문건을 검토하고있었다.

그는 돌아앉은채 최경민이 보고의 첫마디를 떼자 목소리로 벌써 그를 알아차렸다.

《경민동무구만, 거기 좀 걸터앉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늦었소?》 그는 얼른 돌아다보고나서 빠른 속도로 말을 건네였다.

경민은 시간이 지체된 사연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서인규는 그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전에 벌써 문건을 요구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작전서기에게 짜증을 내고있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경민에게 사업을 다 인계하고 왔느냐고 돌아앉은채 말을 건네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경

민의 대답이 다 끝나기전에 다시 작전서기에게 철자법이 잘못된곳을 꼬집어내여 하나하나 지적하는것이였다. 그리고나서 문건에 수표를 한 다음 경민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총명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눈으로 최경민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가느다란 그의 입술에는 가벼운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반갑소. 정말 반갑소. 앞으로 같이 싸워보기요.》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경민의 손을 꽉 잡고 왼손은 가볍게 그의 등우에다 올려놓았다.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그런데 이건 참 못할노릇이군. 난 동무를 보니 막 부럽소. 전사들과 함께 돌격선에 한번 나서봤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거야 뭐 말이 전선이지 후방사업이라니까. 순전히 사무일군이야.》하고 자기 직무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 말을 할 때의 그의 얼굴표정은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에게 자기 속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처럼 부드러웠다.

최경민은 말없이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것은 서인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자기 직무에 대해 얼마나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있으며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가인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최경민은 서인규를 군관학교시절부터 알고있었다. 그리고 바로 얼마전에도 행군길에서 그와 만난적이 있었다. 그에게는 타고난 급한 성미에서 오는 부분적약점이 없는것이 아니였으나 그 약점을 덮어주는 보다 많은 장점들로 하여 즉 자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 총명한 리해력과 실천적인 두뇌, 비상한 실무적능력, 사업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의 상하를 구별하지 않는 그 겸허성과 솔직성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것이였다. 그럴 때엔 그는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동등한 친구로 평등하게 대하는 미덕이 있었다.

《그럼 련대장동무한테 가보오. 며칠전부터 경민동무

를 몹시 기다리고있소. 그러되 저녁식사는 꼭 나하고 같이 해야 돼, 꼭 오지?! 기다리겠소.》

서인규는 이렇게 말하면서 최경민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련대장의 지휘감시소는 참모부에서 골안으로 좀 더 올라간 골짜기막바지에 자리잡고있었다.

최경민은 골짜기를 톺아오르면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리운 옛 상관앞에서 어떻게 첫인사를 올려야 할지 몰라 가슴이 자꾸 울렁거렸다.

련대장은 공교롭게도 나무그늘밑에 나앉아 리발을 하고있었다. 량볼이 불그스레한 애티나는 젊은 군관이 최경민의 앞으로 달려왔다.

경민은 그가 곧 련대장의 부관임을 알아차렸다.

《제1대대장으로 새로 배치되여오는길이요. 련대장동지한테 인사드리러 왔소.》

《좀 기다리십시오. 보다싶이…》

부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감나무밑을 가리켰다. 그런데 이때 귀에 익은 오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경민동무 아니요? 이리 오오. 어서 오라니까.》

최경민은 못마땅한 얼굴로 자기를 지켜보고 섰는 부관의 앞을 지나 몸에 백포를 두르고 나무토막에 걸터앉아있는 오현무의 곁으로 갔다.

《이제 도착했소? 오래간만이로군. 자 손이나 쥐여보기오.》

오현무련대장은 리발사에게 머리를 맡긴채 반가운듯 두눈을 치떠 그를 쳐다보면서 백포밑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자세가 낮았기때문에 최경민은 몸을 낮추며 그의 손을 잡아쥐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손은 최경민으로 하여금 따사로운 육친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

《그새 몸은 건강했소? 일없었다? 하긴 전쟁이니까… 그래 어떻소? 화약내를 맡아보니 맛이 어때?》

오현무는 내려덮인 눈섭밑으로 최경민의 얼굴을 연신 치떠보면서 말을 건네였는데 그때마다 그의 이마에는 깊숙한 주름살이 잡히군하였다.
나이 지긋한 상등병인 리발사는 이러다간 련대장의 머리를 망쳐놓을것만 같아 속을 태우면서 최경민이 서있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래그래 어서 깎소.》 그는 쾌히 리발사가 시키는대로 왼쪽으로 낯을 돌리면서 그에게 편리하도록 몸을 맡겼다.
그러나 오현무는 잠시후에 또다시 최경민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왔소. 난 며칠전부터 기다렸소. 기다리다 못해 오늘아침에 ×련대장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금방 떠났다지 않소. 원 사람두…》
리발사는 한숨을 내쉬며 또다시 련대장의 머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였다.
머리를 다 깎는동안에 오현무는 아직 멀었냐고 리발사에게 두번씩이나 독촉을 하였다.
리발사는 드디여 가위를 놓고 오현무가 둘렀던 백포를 털었다. 그리고 면도솔을 꺼내서 비누칠을 시작했다. 그러자 오현무는 몸을 툭툭 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소. 됐소. 면도야 후에 내 손으로 하지.》
그는 면도솔을 손에 쥔채 어쩔바를 몰라하는 리발사의 손에서 비누를 받아쥐고는 푸푸 요란한 소리를 내가며 세수를 한 다음 경민의 곁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볕에 타서 이전보다 약간 꺼매보였으나 몸은 더 뚱뚱해지고 혈기가 더 왕성해진것처럼 느껴졌다.
최경민은 련대장앞에서 자기가 지금 느끼고있는 벅찬 감회와 육친적인 존경의 정을 무엇인가 살뜰하고 친근한 말로 표현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평소에 말이 적고 불필요한 교제를 하지 않는데 습관된 젊은 이 군관에게는 그런 적절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련대장도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표정과 그의 목소리와 말하지 않는 사소한 움직임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었다. 지금 오현무의 기분은 마치 후대교육사업에 한평생을 바쳐온 늙은 교장이 자기손으로 키워낸 훌륭한 제자를 맞이했을 때와 같은 그런 심정이였다.

오현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강도 왜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시킨 다음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피어린 20성상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을 광복시킨 벅찬 그 감격과 흥분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항일혁명투사들앞에는 새로운 혁명과업들이 나서고있었다. 그것은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혁명과업이였다.

어떤 동지들은 인민주권을 건설하기 위하여, 또 어떤 동지들은 당건설을 위하여, 또 어떤 동지들은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위하여 공장으로, 농촌으로 제각기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섰다. 인민무력건설을 위한 새 군사후비육성사업, 이것이 오현무에게 부과된 새 전투과업이였다.

그가 최경민을 처음 알게 된것은 1946년 초겨울이였다. 그때 오현무는 새로 설치된 보안간부훈련소의 대원들을 초모하기 위한 어느 한 초모대원집결소에 나가있었다. 그날 오현무는 새로 도착한 초모대원들을 접수하기 위해 그들이 림시 빌려쓰고있는 학교운동장으로 나갔다. 그곳으로는 매일 각지의 공장과 농촌의 당단체들에서 추천해보낸 초모대원들이 모여들고있었다. 넓은 학교운동장 한복판에는 그날 새로 도착한 100여명의 신대원들이 대렬을 짓고 정렬해있었다. 오현무는 파송대원명부를 손에 쥐고 대

렬을 한바퀴 돌아보다가 한곳에 이르러 자기도모르게 주춤 멈춰서버렸다.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대렬 한끝에 서있었는데 그의 옷차림이 류별나게 초라하였기때문이였다. 그때 초모대원들의 옷차림은 일반적으로 험하였다. 오랜기간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억압 착취밑에서 시달리던 로동자,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아직 채 가셔지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다. 그래도 다른 대원들은 헌 무명옷이나마 깨끗이 빨고 기워입었으며 첫눈이 내린뒤여서 대체로 동내의 아니면 솜옷들을 입고있었다. 그러나 이 동무만은 땀에 얼룩진 어지러운 작업복을 걸친데다 다 꿰진 지하족을 신고있었는데 추위에 얼굴빛이 퍼렇게 질려있었다. 오현무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하던 때의 자신의 과거가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대렬을 짓고 선 초모대원들의 시선이 모두 오현무와 그 총각에게로 쏠렸다.

《동무는 어데서 왔소?》

오현무는 그에게 물었다.

《××광산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최경민입니다.》

그는 의젓한 눈길로 꺼리낌없이 오현무를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오현무는 선자리에서 손에 쥐였던 명부를 들춰보았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아무리 들춰봐도 그의 이름이 광산에서 보낸 파송명단에 없었다.

《좋습니다. 동무는 이따 사무실로 오시오.》

오현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나서 자리를 떠났다. 그는 초모대원들을 신체검사장에 보내고나서 광산에서 온 초모대원 인솔자에게 최경민이란 동무의 이름이 왜 없느냐고 물었다.

《말도 마십시오. 그 동무때문에 영 속이 타죽겠습니다.》
초모대원 인솔자인 광산로동부장은 오현무한테 우는 소리를 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광산에서 정식으로 추천되여온 초모대원도 아닌데 군대에 가겠다고 떼를 쓰며 이곳까지 수백리길을 따라왔다는것이였다. 광산에서 그를 추천하지 않은것은 다른 리유에서가 아니였다. 허우대는 커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는것이였다.
《토대는 참 좋은 동무입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로동하다가 왜놈들 손에 죽고 그후 어머니마저 병들어 억울하게 죽는바람에 고아가 된 셈이지요. 소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광산에 나와 어른들과 같이 로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결패가 있어 무슨 일에서나 장정들 못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긴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 어떻게 좀…》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오현무는 더 묻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김일성**장군 빨찌산에 보내달라고 그때 나는 얼마나 조직책임자를 졸랐던가. 씨름까지 해가면서…)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들어왔다.
《동무는 명단에도 없는데 어째 여기까지 따라왔소?》
오현무는 시치미를 떼고 짐짓 엄한 태도로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돌아가오. 돌아갔다가 명년에 오는게 좋겠소.》
그래도 그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이 동무가 벙어리인 모양이지?》
청년은 그래도 입을 봉한채 배포유하게 말없이 버티고 서있었다. 오현무에게는 끝끝내 자기의 결심을 굽히려 들지 않는 대바른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통하여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유격대에 입대시켜달라고 조르던 자신의 지난날을 보는것 같아 그를 한품에 부둥켜 안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하기요. 나하고 씨름을 해서 나를 이기면 군대에 받아주겠소. 어떻소? 자신 있소?》

총각은 처음엔 기가 막힌 모양으로 대답대신에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오현무가 정말로 씨름을 해보자는듯이 팔소매까지 걷어올리자 청년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그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말없이 꿰진 지하족을 벗어 사무실 한쪽구석에 조심스럽게 비켜놓았다. 그리고나서 마루바닥에 한쪽무릎을 꿇고 두손에 침을 턱턱 뱉았다. 정 그렇다면 한번 겨루어보자는 떳떳한 태도였다. 14살 때 광산에 취직하기 위해 어리다고 얕보는 감독놈앞에서 광차바퀴를 번쩍 추켜들어보이고 시험에 합격되여 어른들과 같이 광차를 밀며 잔뼈가 굳어진 그였으니 그럴 법도 한 일이였다. 오현무는 젊은이의 결패있고 의젓한 태도를 보고 말없이 히물히물 웃다가 그를 힘껏 껴안아주었다.

오현무는 이렇게 최경민을 알게 되였고 최경민은 또한 오현무의 세심한 보살핌과 지도밑에 세상눈을 뜨고 그후엔 보안간부학교를 거쳐 오늘처럼 떳떳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났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무력창설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광복후 조국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무력 후비양성사업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각별한 관심밑에 몸소 이 사업을 조직지도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현무는 젊은 새세대의 군사후비를 육성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해왔다.

그는 매해 진행되는 전투정치훈련의 판정검열에서 항상 자기 부대가 높은 성적을 올리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항상 자기 사업에서 부족점을 찾으려 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기 부하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애를 썼다. 그는 군인들속에서 무자비하리만치 강한 요구성을 제기했고 침식을 잃으면서 완강하게 사업하였다.

그러한 오현무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지난 5년간의 자기 사업을 총화짓는 하나의 판정검열이였다.

그는 전쟁의 첫날부터 예리한 눈초리로 전쟁의 모든 국면을 세심히 관찰하였다. 마치 포를 발사한 박격포수가 포탄의 락탄점과 흩어지는 파편들을 관찰하면서 포의 성능과 자신의 사격솜씨를 검토하듯이 그는 적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일거에 38선을 돌파한 자기 부대의 자랑찬 전투행로로부터 시작하여 영웅칭호를 받은 한 군관의 전투위훈이며 부상을 입은 한 전사의 실책에 이르기까지 구분대지휘관들의 협동동작이며 권선기를 둘러멘 유선통신수의 가선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을 자신의 지난 사업과 결부시켜 하나하나 관찰하는것이였다.

적으나마 자신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는 그 창조적결과들을 지켜보는 오현무의 가슴은 설레였으며 이 위력한 영웅의 군대, 불패의 군대를 키우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앞에서 새삼스럽게 머리가 수그러지는것이였다.

지금 최경민과 마주앉아있는 오현무의 흥분은 바로 이와 같은 감회와 결부된것이였다.

그는 바로 몇해전에 꿰진 지하족을 신고 초모대원들속에 섞여 자기앞에 서있던 이 더벅머리총각이 오늘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을 격파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한개 대대를 책임진 의젓한 군사지휘관이 되여 자기앞에 나타났을 때 벅차오르는 흥분을 어찌할수 없는것이였다.…

《1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관이 와서 련대장에게 알렸다. 오현무는 천막안으로 들어갔다.

《11번 전화받소. 성태동무요? 마침 잘 걸어왔소. 동무가 기다리던 대대장이 부임해왔소.》

오현무는 서둘러 최경민이 도착했다는 소식부터 상대

방에게 알려주었다.

오현무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였으나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내가 이전에 얘기한 바로 그 동무요. 앞으로 성태동무가 잘 도와야겠소.》

오현무는 상대방의 말소리를 한동안 듣고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옳소,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소. 대대장은 곧 내려보내겠소. 오늘저녁 아니면 래일아침에 그곳에 도착할수 있소.》

오현무는 통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동무네 대대 문화부대대장동무한테서 전화가 왔소. 지내보면 알겠지만 아주 좋은 동무요. 앞으로 문화부대대장동무의 도움을 잘 받도록 해야겠소.》

《들었습니다.》

최경민은 정색하며 대답하였다. 오현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버릇처럼 떠돌던 미소가 사라지고 두눈이 심중하게 빛났다.

《하긴 문화부대대장동무뿐이 아니요. 군사부대대장 전창걸동무도 그렇고 중대장들도 모두 좋은 동무들이요. 하전사동무들도 계급적각오들이 높고 전투에서 단련된 좋은 동무들이요. 동무가 가서 사업만 잘하면 어느 구분대에 못지 않게 훌륭한 전투구분대로 될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있소. 그러나 나는 동무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소.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을 다하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수백명 전사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경민동무를 믿으시고 경민동무에게 귀중한 우리 수백명 전사들을 맡기시였소. 모든 전사들은 지휘관을 믿고 전투에서 자기들의 생사운명을 전적으로 동무에게 의탁하고있소. 그런만큼 지휘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휘관은 전사들의 운명에 대

해서 최고사령관동지앞에,조국과 인민 앞에,매개 전투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앞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오.》

그는 최경민의 얼굴을 주시하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계속하였다.

《그때가 아마 1937년경이라고 생각되오. 장군님께서는 나를 중대장으로 파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였소.…모든 전사들이 항상 지휘관인 동무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전사들은 전투에서 동무의 낯빛을 보고 힘을 얻어 용감해질수도 있고 혹은 동무의 낯빛을 보고 사기가 떨어질수도 있소. 따라서 지휘관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전사들이 믿을수 있고 그들이 마음놓고 의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기둥이 되여야 하오.… 얼마나 뜻깊고 의미심중한 말씀이시오. 나는 경민동무도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부대관리에서나 간고한 전투행정에서 항상 부대의 믿음직한 기둥이 되기를 바라오. 그러자면 남모르는 고통과 난관이 제기될수 있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때만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담당해낼수 있소.》

최경민은 심각한 얼굴로 듣고있었다.

오현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전략적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하게 집행하는 문제요. 그러자면 우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군사전략적방침들과 명령들을 항상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군사활동에서 훌륭히 관철할수 있겠는가 일상적으로 사고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렬 앞장에 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진해야 하오. 현단계에서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전략적방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오?》

오현무가 물었다. 최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는 병원침대우에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과 명령들

을 체계적으로 재학습하면서 생각한바 있는 자기의 견해를 말하였다.

《놈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전에 놈들을 완전히 구축해버리는 문제입니다.》

《옳소. 바로 그것이요.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사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새로운 계선에서 방어를 강화할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저 밀고나가기만 해선 의의가 없소. 높은 기동과 련속적인 타격으로써 적의 유생력량을 소멸할데 대한 문제가 또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중요한 전략사상이요. 때문에 지역을 확보하는데만 머물지 말고 적을 소멸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락동강을 건너 조국을 완전히 해방해야 하오.》

두사람은 서로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현무는 부관을 불러 저녁식사를 독촉하였다. 식사준비가 좀 늦어진다는 부관의 말을 듣자 오현무는 전화수에게 사단지휘부와 그리고 몇몇 구분대를 련속 호출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최경민은 그새 골짜기에 내려가서 시원하게 세면이나 하고 오라는 련대장의 권고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

경민은 잡관목을 헤집으며 골짜기로 내려갔다. 골짜기에는 맑은 옥계수가 졸졸 흐르고있었다.

《…모든 전사들이 항상 지휘관인 동무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 전사들은 전투에서 동무의 낯빛을 보고 힘을 얻어 용감해질수도 있고 혹은 동무의 낯빛을 보고 사기가 떨어질수도 있소. 따라서 지휘관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전사들이 믿을수 있고 그들이 마음놓고 의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기둥이 되여야 하오. …》

언젠가 장군님께서 오현무련대장에게 들려주셨다는 이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경민은 련대장이 일깨워주는 의미심장한 그 말들이 어쩐지 앞으로

벌어질 벅찬 자기 생활의 그 무엇을 예언해주는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는것이였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대체 어떤 동무일가? 그리고 군사부대대장은?)

최경민은 그늘밑에 앉아 혁띠를 풀며 깊은 생각에 파묻혔다. 련대장의 말로 미루어보아 대대간부들뿐만아니라 중대장들도 모두 끌끌한 군관들인듯싶었다. 문화부대대장이며 군사부대대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군관들과 전사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최경민은 가슴이 뒤설레이기도 하였다.

대대에는 상급부관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결원이라는것이 좀 유감스러웠다.

(련대장한테 제기해서 그것도 이내 보충받게 하자. 하긴 상급부관의 사업쯤이야 내가 당분간 겸해서 할수 있을것이다. 어쨌든 빨리 내려가보자.)

맑게 개였던 하늘에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고있었다. 경민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야전가방에서 세면도구를 끄집어냈다.

3

경민은 련대지휘부로 되돌아왔다. 감시소천막안에서 오현무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경민은 그 웃음속에 전선에 있는 그들의 생활에서는 드물게만 들을수 있는 가늘고 부드러운 녀자의 목소리가 섞여있는것을 감촉했다. 아니나다를가 천막안에 들어서보니 낯선 녀성군관하나가 오현무와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최경민이 들어서자 하던 말을 끊고 얼굴을 다소곳이 숙인채 앉은 자세를 크게 허물지 않고 몸매를 가다듬었다.

최경민은 련대장에게 경례를 붙이고 의자에 가앉아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간호원동무는 군의장동무한테 비판을 받고 다시 부상병을 찾으러 떠났어요. 제가 이곳으로 떠날 때까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것으로 보아 그 동무들을 찾느라고 길가에서 헤매고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는 2대대에 가는 걸음에 우선 련대지휘부에 알려야 되겠기에 들렸어요.》

그는 오현무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숱많은 두눈섭을 내리깔아버렸다. 오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에게 물었다.

《그 동무들이 1대대 1중대 동무들이라는것이 분명하오?》

《네, 둘이 다 1대대 1중대 1소대의 같은 1분대 동무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요?》

《제가 직접 병력서를 확인해보지 못했기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른다? 허허… 서울 가서 박서방 찾기로군!》

오현무는 시름없이 껄껄 웃었다. 녀준의는 낯이 확 붉어졌다.

《너무 근심마오. 마침 대대장동무가 대대로 곧 내려갈테니까 그 동무들을 군의소로 보내줄게요.》

오현무는 의미있게 최경민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녀성군관은 숱많은 아름다운 두눈을 들어 최경민을 일별하고는 다시 눈을 내리깔아버렸다. 경민은 오고가는 대화를 통해 이 녀성군관이 련대군의소의 군관이라는것과 지금 그들의 말이 아까 행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간호원과 얽힌 사연이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종적을 감춘 두 부상병때문에 녀준의는 여간만 근심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최경민은 그 두 부상병이 공교롭게도 바로 자기가 맡은 제1대대 동무들이라는데로부터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

다. 그러나 오현무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더 신경을 쓰지 않고 부관을 찾더니 저녁이 늦어진다고 독촉을 하였다.

《저는 이젠 떠나겠습니다.》

녀성군관은 모자를 쥐고 일어섰다.

《안되오. 내가 허락하기전에는 떠날수 없소.》

오현무는 단호하게 그가 여기서 저녁식사를 하기전에는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녀성군관은 난처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동무도 없이 혼자 다닐 필요가 없소. 패잔병들이 준동할수 있소. 마침 1대대장동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 식사를 하고 같이 떠나는것이 좋겠소.》 오현무는 그에게 최경민을 소개하였다. 그 녀자는 하는수없이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으나 점적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저녁식사가 들어왔다. 오현무가 최경민을 위하여 특식을 준비시켰기때문에 소박하나마 제법 여러가지 음식이 들어왔다. 오이랭국에다 국수가 들어왔고 이 지방의 특산물인 죽순찜이며 우엉잎이며 가죽나물 등이 있었다. 식탁이 따로 없었기때문에 련락병은 야전책상우에다 음식들을 차려놓았다.

《경민동무, 나앉소. 동무들도 다 오오. 준의동무도 어서.》

련대장이 련대지휘부내 성원들을 모두 식탁으로 청하였다. 보매 오현무는 평소에 부관이며 련락병이며 전화수며 기타 련대지휘부내 모든 성원들과 소박하게 한자리에 모여앉아 식사를 하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련대장의 부관은 오늘 련대장에게 손님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들은 자리가 좁아 따로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거듭 사양하는바람에 오현무는 하는수없이 먼저 식사를 하자고 최경민에게 권하였다.

련대장이 한복판에 앉았었기때문에 최경민은 상을 가운데 놓고 녀준의와 마주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으로 하여 그 녀자가 더욱 거북해하는것이 곁보

기에 알려졌다. 식사도중에 그는 한번도 낯을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가 곁에서 식사를 하고있는 것조차 감촉할수 없을만치 소리를 안내가며 몸과 입을 적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빨리 음식을 먹었다.

《이건 왜 들지들 않소. 경민동무는 이전에 이 죽순을 자셔봤소?》

오현무는 죽순찜이 담긴 늪그릇을 두사람앞에다 밀어놓으면서 물었다.

《처음입니다.》

경민은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이 죽순을 보니 지난 항일빨찌산때 일이 생각나오. 그때 우리는 때로 식량이 떨어지면 풀뿌리를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먹어가며 싸웠지만 그래도 모두 락관적이였소. 모여앉으면 자주 광복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자기 고향 자랑들을 했소. 그때 우리 중대에는 경상도에서 온 동무가 있었는데 그가 고향자랑을 할 때면 의례히 이 죽순얘기가 나오군했소. 장군님의 덕분에 조국을 다시 찾구 여기 와서 이 죽순을 먹어보니 그때 일이 감회깊게 돌이켜지누만!》

련대장의 얘기에 정신이 팔려 그들은 잠시 굳어져있었다.

《어서 식사들을 하오. 그런데 명희동무는 어찌된 일이요? 어째서 국수그릇에만 매달려있소?》

오현무는 두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음식을 먹여보내려고 애를 썼다.

《이제 먹겠습니다.》

녀준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낯을 붉히며 얼굴만 약간 쳐들었다 놓았다.

경민이도 어쩐지 그 녀자와 마주앉아 있는것으로 하여 몸가짐이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그 녀자는 끝내 다른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고 국수만을 다 먹고나서 조심스럽게 저가락을 놓았다.

《허, 알고보니 명희동무는 여간 고집쟁이가 아니로군.》
오현무는 못마땅한듯이 혀를 찼다.
식사가 끝날무렵에 서인규참모장이 련대장한테 문건을 비준받으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포병부련대장과 후방부련대장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관하 구분대며 사단참모부로부터 전화들이 걸려왔다. 그래서 오현무는 그들과 같이 더 앉아있을 사이도 없이 분주히 돌아갔다.
최경민은 오현무로부터 당면한 보충적인 몇가지 지시를 받은 다음 대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두사람 다 초행길이였으나 아무데건 지도 한장만으로 다니는데 습관된 최경민은 낯익은 길을 걸을 때처럼 앞에 서서 서슴없이 걸음을 다우쳤다. 큰 도로를 횡단하여 소로길로 꺾어들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 령길을 톺아오르기도 하였다. 최경민이 앞에서 걷고 준의가 조금 떨어져 그의 뒤를 따랐다.
넓은 길을 걸을 때에는 길 한복판을 사이에 두고 길 량쪽에 갈라져서 묵묵히 걸었다. 두사람 다 입을 봉한채 아무도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경민은 낯선 이 준의와 단둘이서 길을 걷는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을 파는 일도 없이 꿋꿋이 앞을 내다보며 걸었다. 마주바라보이는 산봉우리너머에서 재빛 회색구름이 솟아오르며 그들의 머리우를 스치고 지나갔다. 금시 한소나기 퍼부을듯 사위가 컴컴해졌다. 그들은 비내리기전에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나 그들이 령마루에 채 오르기전에 서늘한 찬바람이 휘 스쳐지나더니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굵은 비방울이 쏴―하고 골짜기의 나무잎사귀들을 소란하게 후려갈겼다. 경민은 걸음을 멈추고 배낭속에서 서둘러 비옷을 끄집어냈다.
《이걸 걸치십시오.》

경민은 뒤를 돌아다보며 그 녀자앞에 불쑥 비옷을 내밀었다. 그러자 녀준의는 펄쩍 뛰며 사양하였다.

《전 일없어요.》

《자, 어서.》

경민은 단호하게 재차 권하였다. 그러자 녀준의는 당황하여 두어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제 근심은 말고 어서 쓰세요.》

순간 최경민은 낯이 확 붉어졌다. 그는 더 권하지도 못하고 난처하여 어쩔바를 몰라 망설이다가 하는수없이 비옷을 팔에 걸친채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더 기세를 돋구었다.

잠시간에 그들의 몸은 비에 푹 젖어들었다.

《비옷을 입으세요. 어서요. 저때문에 공연히…》

녀준의는 등뒤에서 안타까이 애원하다싶이 웨쳤다. 그러나 최경민은 들은체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자, 여기 놓겠소.》 그는 뒤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길옆에 있는 바위우에다 비옷을 올려놓고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마나!》

등뒤에서 그 녀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최경민은 한참 걸어나가다가 슬며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녀자는 비옷을 입지 않고 팔에 걸친채 몸에 비를 그냥 맞으며 따라오고있었다.

그들이 령마루를 넘어섰을 때야 비는 멎었다. 그러나 이미 옷들은 젖을대로 젖었었다.

《날씨도 고약하군…》 경민은 속으로 두덜거리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구름장사이로 저녁해살이 내리비치고있었다.

길이 두갈래로 갈라진곳에 와서 최경민은 걸음을 멈

추었다.

《저기 보이는 저 부락이 2대대가 자리잡은 위치입니다.》

최경민은 마주보이는 부락을 손으로 가리키며 준의쪽을 돌아보았다.

《알겠어요.》

녀준의는 얼굴에 달라붙은 몇오리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렇게 말하고나서 손에 들었던 비옷을 조심스럽게 최경민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 대대에 가시거든 부상병동무들이 돌아갔나 알아보시고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며 낯을 약간 붉혔다.

《좋습니다. 가서 곧 알아보지요.》

최경민은 비옷을 접으며 대답하였다.

《저때문에 비를 맞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가보겠어요.》

녀준의는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마음속으로 서로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4

한명희가 2대대에 가서 일을 마치고 군의소에 되돌아온것은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솟아오른 이슥한 밤이였다.

갈 때 비를 흠뻑 맞은데다가 왕복 20리나 되는 길을 걸었기때문에 몸이 여간만 피로하지 않았다. 언제나 롱담으로 그를 대하군하는 제2대대 상급부관은 밤중에 혼자 다니다가 범한테 업혀간다고 거듭 만류하였으나 명희는 일을 끝마치자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말았다. 명희는 군대에 입대하여 전선생활에 첫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의 생활준칙을 수립하고 언제나 그 준칙을 어김없이 지켜왔다. 그것은 모든것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나간다는 그런 원칙이였다.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그는 대학 2학년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후대교양사업에 한평생을 바쳐온 량심적인 한 교원의 외딸로 태여난 그는 군복을 갈아입기전까지 이미 반백이 된 부모앞에서 응석을 부려오던 귀염둥이 소녀에 불과했다. 그가 전선으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부모앞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결심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량부모들은 자기들에게 새생활을 가져다주신 **김일성**장군님과 고마운 인민주권을 위해 몸바쳐 싸우려는 딸의 기특한 소행을 기뻐마지않으면서도 한가지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려는 너의 결심을 부모인들 어찌 막겠느냐마는 한가지 근심되는바가 없지 않다. 네가 싸움터에 나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겠는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아버진 참, 별걸 다 근심하시네. 지금 중학생들까지 총을 메고 전선에 나가는데 제가 뭐 어린앤줄 아세요.》

명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언제 어데 가나 성실하게 남의 손가락질을 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남을 돕고 사회를 위해 보탬을 주지 못할망정 남의 짐이 되고 남에게 페를 끼쳐서는 안된다. 남정들도 힘든 싸움터에 나가 나어린 녀성의 몸으로 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라 일을 돕지 못할망정 오히려 짐이 되고 공무에 지장이나 된다면 그게 무슨 꼴이겠느냐. 누구나 말은 쉽지만 행동은 다 힘든 법이니라.》

평생을 통해 오직 량심과 성실성을 지조로 지켜 살아온 아버지의 이 말은 명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남의 짐이 되지 않도록 명심하

겠어요.》

명희는 그 순간부터 전선으로 가지고 떠날 자기의 짐을 어머니의 손을 빌지 않고 제손으로 꾸렸다. 그리고 입대후 자기앞에 부닥치는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에게 있어서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자립적으로 훌륭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서 동무들의 사업을 협조하는것, 그것은 곧 당과 수령님앞에서의 충직성을 의미하였으며 원쑤들을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도 되는것이였다.

련대군의소는 골짜기에 자리잡은 어느 한 농가의 사랑채와 그 집 안채의 한칸을 빌려쓰고있었다. 바로 이틀전까지 부상병들을 사단으로 다 후송했기때문에 요즘 군의소는 조용하였다.

명희는 농가의 사랑채에 들려 군의장에게 갔다온 사업정형을 보고하고나서 그가 쓰고있는 안채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간호원들이 주런이 드러누워 깊이 잠들고있는데 춘옥이 혼자만이 위생가방을 펼쳐놓고 휴대품들을 정리하고있었다.

《춘옥이, 왜 아직 자지 않니?》

명희는 방안에 들어서며 그에게 물었다.

《어마나!》 춘옥은 두눈이 휘둥그래지며 마주 일어섰다.

《대대에 갔다 이제 오는길이예요?》

명희는 그렇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누구하고 같이 갔댔어요?》

《혼자 갔다와.》

《아니 이 밤중에 혼자 왔단말예요?》

춘옥은 가뜩이나 큰눈을 더 크게 뜨며 명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명희는 춘옥의 이 티없이 맑고 큰 두

눈이 언제나 마음에 들었다.

고중을 다니다 전선에 탄원해나온 춘옥은 자기보다 두살 우인 명희앞에서 곧잘 응석을 부리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춘옥인 아직 어린애야. 군인이 밤길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그래 찾으러 갔던 부상병들은 어떻게 됐니?》

춘옥의 둥실한 두눈에 어렸던 생기가 갑자기 죽어들고 그의 얼굴은 침울해졌다. 그는 대답대신 머리를 떨군채 어린애처럼 손에 들었던 수건을 입으로 물어뜯고있었다. 더 물으나마나한 일이였다.

《춘옥동무! 그 동무들의 병력서를 이리줘요.》

명희는 모처럼 찾아갔다가 련대장에게 부상병들의 이름도 대지 못해 면구스럽던 일이 되살아나서 두 동무의 병력서를 받아쥐고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성명 강호범, 년령 25살, 소속부대명 제×련대 1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 직무 분대장, 출생지 경상남도 ×군 ×면 ×리, 상처부위 좌측상박부에 파편상…》

《…리종활… 32살. 제×련대 1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 전사. 출생지 함경북도 ×군 ×읍, 상처부위 머리에 파편상…》

명희는 병력서를 확인하고나서 풀이 죽어 앉아있는 춘옥에게 돌려주며

《너무 근심 말고 어서 쉬여요. 이제 그 동무들이 제발로 우리한테 찾아올거예요.》하고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춘옥은 믿기 어렵다는듯이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그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명희는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낮에 새로 배치되여가는 1대대 대대장동무에게 이 일을 직접 부탁해놓았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춘옥은 그제사 마음이 놓이는듯 자리에 가서 드러누웠다. 명희도 그의 곁에 가서 누웠으나 웬일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춘옥은 어느덧 쌔근쌔근 잠이 들었다.

(구분대들은 초저녁부터 행군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퍼그나 앞으로 나갔을거야. 지금쯤 대대장동무는 대대를 따

라잡았을가?)

그의 눈앞에는 낮에 자기에게 비옷을 권하며 어쩔바를 몰라하던 대대장의 얼굴이 되살아났다. 련대장동지앞에서는 그렇듯 태연하고 침착하던 그가 자기와 단둘이 되면서부터 몸이 굳어져서 곁눈질 한번 해보는 일 없이 그토록 거북해하는것으로 보아 이만저만하게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였다.

(참, 두고두고 웃을 일이야.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둘이 말 한마디 못해보고 갈라졌을는지도 모르지. 고집이 세다고 속으로 나를 나무라지 않았을가? 그건 그렇고 정말 미안한 일이야. 나때문에 그토록 비를 맞게 했으니. 어쨌든 보기 드물게 순박한분이지. 이제 대대에 부임하면 필경 모든 동무들한테서 존경을 받을거야. 내가 부탁한 두 부상병동무들도 틀림없이 보내줄게고.)

밤은 깊어가는데 명희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데선지 먼 우뢰소리와 같은 야간폭격기의 은은한 폭음이 들려오고있었다.

5

최경민이 행군중에 있는 대대를 따라잡은것은 머지 않아 동이 틀 새벽이였다. 대대는 어둠속에서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저벅거리는 발걸음소리며 휴대용장구들이 부딪치는 절거덕소리가 어둠속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전사들의 몸에서는 땀내가 풍기고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최경민은 흔히 행군에서 지친 전사들의 힘겨운 걸음걸이며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들의 얼굴이 어둠속에서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는 한 전사에게 대대부가 어디쯤 있

느냐고 묻고나서 걸음을 재우쳐 앞으로 걸어나갔다. 대대는 제2제대로서 행군하고있었기때문에 대렬속에서는 명랑한 전사들의 이야기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니 키 작다고 근심말고 미국놈 때려잡을 생각이나 하게. 전쟁이 끝나면 장가는 내가 책임지고 보내줄테니…》

무슨 얘기의 계속이였는지 대렬속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걱정말고 어서 제 코나 씻게. 키꺽다리치고 싱겁지 않은 녀석 없다더라.》

어둠속에서 수세에 빠진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차피 키가 작아서 장가갈 때 말은 못탈테니 우리 집에 있는 하늘소를 빌려줌세. 내가 소시적에 타고다니던놈인데 귀도 크고 아주 귀엽게 잘 생겼거던. 그놈에게 자네를 앉혀 유치원아이들에게 고삐를 쥐여주면 아주 제격일거네.》

키작은 전사가 되받았다.

《동무가 소시적에 하늘소를 타고 다녀? 옳ㅡ아. 짜개바지밑에 작대기를 끼구 동네방네 뛰여다녔단 그 말이로군. 엉덩짝을 두드리며 붕ㅡ붕ㅡ 제법 자동차 발동소리까지 내면서말이지.》

대렬속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경민은 그들의 곁을 지나 앞으로 나갔다. 다른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러니깐 잡곡은 먹지 않아도 된다이. 거기다 또 꿀이 있지, 산과실이 흔하지, 개울에 나가면 산천어가 득실거리지… 광복전에는 사람 못살 고장이라고 소문났지만 지금이사 정말 벌방부럽지 않다이. … 이것이 다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이지.》 그는 감회에 잠긴듯 한동안 말을 끊었다.

경민은 그의 말을 채 듣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나갔기때문에 그가 말하는곳이 어느 고장인지 알길이 없었다. 최경민이 한동안 앞으로 걸어나가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집 아바이와 같이 벌에 나가 봤는데 이 고장의 땅은 참 좋더군. 어찌나 비옥한지 걸죽한 팥죽같더라니까. 이 좋은 땅을 가지고도 풀뿌리를 캐여먹고 살아왔다니 참 기막힌 노릇이더군. 그래 그 아바이에게 이제 장군님께서 이 고장 농민들에게도 땅을 나누어주시구 인민주권도 세워주실게라고 했더니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더군. 미국놈과 지주, 자본가놈들만 없으문사 그런 고생을 왜 하겠나.》

그는 말을 끊고 한숨을 내쉬였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른 목소리가 끼여들었다.

《그러기에 놈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씨종자를 없애야 돼. 락동강만 넘어서면 부산이 코앞인데 그놈들이 뛰면 어디로 뛰겠나.》

이때 움직이던 대렬이 갑자기 우뚝우뚝 멈춰섰다. 끄덕끄덕 졸며 걸어가던 전사들은 앞사람을 떠받기도 하고 밀리여 뒤로 물러서기도 하였다.

《제길! 하마트면 코등이 날아날번 했네. …》

《그러기에 졸지 말라고 하지 않아?!》

최경민은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고 서있는 전사들의 곁을 지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도 몇걸음 더 못가서 멈춰서고말았다. 겨우 달구지 하나가 지나다닐수 있는 좁은 길이 전사들로 꽉 메워져서 발을 옮겨짚을 자리도 없었다. 그는 전사들속에 끼워 한동안 서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사들은 밤새 힘든 행군을 해왔으나 여전히 지칠줄 몰랐다. 그들은 막힌 길이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롱담과 익살을 섞어가며 쾌활하게 말들을 주고받았다.

최경민은 어둠속에 서서 락천적인 그들의 이야기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다가 뜻밖에도 자기의 얘기가 전사들의 입에 오르자 저으기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점적하여 낯을 붉히며 숨을 죽였다.

《우리 대대에 대대장동지가 새로 배치돼온다는 소리

를 들었나?》 한 전사가 불쑥 꺼낸 말이였다.

《못들었네. 누가 그러던가?》 다른 한 전사가 반문했다.

《어제 대대부에 갔다가 들었는데 대대 지휘관동지들이 모두 기다리고있더군.》

《그래 어데서 온다던가?》

《어느 련대참모부에 있었다나봐.》

《련대참모부에?…》

한동안 말이 끊어졌다.

《참모부에 있었으문사 규정은 들고꿰겠소.》 다른 한 전사의 말이였다.

《이전에 사단참모부에서 내려와 훈련판정검열을 할 때 영 혼이 났소. 내무규정과 무기보관취급법에 대해서 묻길래 어물어물 대답해넘기려다가 단단히 지적을 받았소. 참모부군관들이사 규정에 들어서는 영 귀신들이두군.》

그러자 이번에는 말에 참녜하지 않았던 다른 전사가 볼멘 소리를 하였다.

《전쟁판에 그까짓 규정이 다 쓸데 있나. 규정대로 단추나 닦고 목달개나 갈아달고… 체! 우리 1중대장동무처럼 그렇게 텁텁해야 돼. 그러면서도 싸움만 잘하니 그만이 안야. 군대라는건 그저 싸움을 잘해야 돼.》

《우리 군사부대대장동지는 또 어떻구! 통이 크고 전사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그러다가도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범처럼 펄펄 뛰더군. 나도 여러곳에 돌아다녀봤지만 그저 우리 대대지휘관들이 제일이라니까!》

최경민은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사들이 활기를 띠며 술렁거렸다. 어둠속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며 몰켜섰던 행군대렬은 시계태엽이 풀리듯 하나,둘씩 앞으로 흘러나갔다.

최경민은 그들의 뒤를 따라 한동안 앞으로 걸어나가서야 여태까지 행군을 지체시킨 원인을 알게 되였다. 앞에는 작

은 도랑물 하나가 흐르고있었는데 행군대오는 그것을 건느느라고 조금씩 지체하다가 마침내 대렬뒤끝에서는 반시간이나 지체된것이였다. 도랑을 건너선 전사들은 대렬을 잇느라고 한동안 달음박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덧 먼동이 희밋이 밝아오고있었다.

행군대오는 한곳에 이르러 잠시 멈춰서더니 이윽고 구분대단위로 지정된 숙영지를 향해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경민은 대대지휘부가 자리잡았다는 어느 한 농가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뜰앞에는 큰 느티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최경민은 이 며칠동안 마음속에 그렇듯 그리던 대대간부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자꾸 울렁거렸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머리를 때리는 그 어떤 생각에 부딪쳐 주춤 굳어져버렸다. 그리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은 큰 길에서 한키로메터쯤 떨어진 산기슭에 이삼십호의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있는 그리 크지 않은 부락이였다. 날은 이미 다 밝았으나 하늘이 찌뿌둥하니 흐렸기때문에 주위가 어둑시근하였다. 날이 흐렸기때문에 이맘때쯤이면 의례히 대도로 상공을 한바퀴 돌아쳤을 적의 비행기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요즘 적비행기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미쳐날뛰는데 대대가 이렇게 대도로 연변에 있는 주민구역에 숙영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그가 집안에 들어서자 맨먼저 그를 맞이한것은 대대련락병이였다. 그는 아직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한 20전의 몸이 실한 젊은이였다. 그는 최경민을 보자 벌써 신임대대장임을 알아차리고 인사를 하고나서 대대장을 위해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있었다. 대대부에는 대대서기며 직일전화수며 기타 몇명의 하전사들이 있을뿐 군관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련락병은 최경민에게 자리를 권하고나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군관 두사람과 같이 다시 나타

났다. 한사람은 수염자국이 퍼런 얼굴에 침착하고 부드러운 두눈이 조용히 빛나는 나이 듬직한 군관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장대한 체구를 가진 군관이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입니다.》 장대한 체구를 가진 군관이 먼저 인사를 하였다. 최경민은 자기 소개를 하고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상대방의 손은 류달리 크고 억세였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입니다.》

문화부대대장은 점적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소개하고나서 최경민의 손을 힘껏 잡아흔들었다.

최경민이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는사이에 뒤를 이어 대대선동원과 위생소장 그리고 몇몇 직속구분대장들까지 모여들어 뜰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그들은 진심으로 최경민의 도착을 기뻐하고있었다.

최경민은 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앉은 자리에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주로 그의 부임과 관련하여 두서없이 이것저것 진행되였다. 흔히 초면인사를 나눈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하듯이 이야기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속에서 가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왕청같은 이야기가 뒤섞이기도 하면서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경민은 자기를 에워싼 모든 사람들의 말과 얼굴마다에서 공통된 하나의 심정 즉 자기에게 돌려지고있는 호의와 신뢰와 은근한 존경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와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은 각별하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은 시종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특징적인 걸걸한 목소리로 동강난 이야기를 이어주기도 하고 혹은 통쾌한 웃음으로 탈선한 화제를 바로잡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즉 온 대대가 모두 한결같이 대대장의 도착을 고대하고있었다는것, 대대는 그새 대대장의 결원으로 사업에서 적지않게 애로가 있었다는것, 그러니 이제 대대장동지의 도착을 알면 전사들의 사기가 부쩍 오를것이며 자기는 이젠 숨을 돌리게 됐다는 등 진정으로 모

두 최경민의 도착을 환영하는데로 화제를 집중시켜나갔다.
최경민은 그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에게서 절도있는 동작과 정중한 례절과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군인다운 풍격을 감촉할수 있었다. 그는 장대한 자기 체구에 어울리게 군인다운 도고한 기상이 몸에 밴 그런 사람이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군대생활보다 사회생활이 더 몸에 밴, 군대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직 낡지 않은 군모와 손때가 채 묻지 않은 군관혁띠며 몸에 착 붙지 않는 훌렁훌렁한 군복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앉았다가 드문드문 필요한 대목에 가서 이야기에 끼여들군하였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그의 말씨며 침착한 그의 태도로 보아 겉보다 속이 더 늙은 그런 축에 속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말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따금씩 끼여드는 한두마디와 말없이 짓는 부드러운 미소를 통해 최경민의 도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신의 내부적감정을 겉에 드러내군하였다.
최경민은 이렇게 한동안 자기의 도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뜨거운 동지적분위기에 사로잡혀있었다.
《허, 이 정신봐라.》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불현듯 련락병을 찾더니 대대장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아닙니다. 아침식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최경민은 군사부대대장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먼저 한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필 대도로근방에다 이렇게 숙영지를 정했습니까? 놈들의 폭격도 고려하지 않고말입니다.》
최경민은 물음이 담긴 시선으로 전창걸의 얼굴을 바라보

았다.
《일없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렸기때문에 놈들이 얼씬도 하지 못할겁니다. 만약 덤벼들기만 하면 한대 갈기지요. 바로 그저께 고사총으로 〈F－80〉형 한대를 쏴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사놈이 어찌 바빴던지…》
전창걸은 비행사놈이 락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공교롭게 키높은 버드나무가지에 걸려 살겠다고 발버둥치던 광경을 설명하면서 한바탕 웃음까지 터뜨렸다. 그러나 최경민은 정색을 한채
《지금까지 숙영지를 매번 이렇게 정해왔습니까?》 하고 재차 물었다.
《그렇습니다.》
전창걸은 정색을 하며 대대장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대대장이 무엇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지 알수 없다는듯한 의문의 그림자가 어려있었다. 최경민은 이때 군사부대대장뿐만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군관들도 역시 같은 얼굴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주민구역에 비해 야영한다는것은 잠자리도 식사조건도 불리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편안한 잠자리와 바꿀수 없습니다. 날씨라는것은 아침에 흐렸다가 낮에 가서 개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경민은 군사부대대장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한동안 지켜보고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걸은 씨원씨원하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최경민은 이 문제처리를 이것으로써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
《군사부대대장동무! 이제라도 숙영지를 옮기는것이 어떻습니까? 골짜기의 수림속으로말입니다.》
최경민은 전창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나서 좌중을 한바

쥐 둘러보았다. 모두 입을 봉한채 잠자코 앉아있었다.
최경민은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때 김성태는 담배 한대를 새로 꺼내 이미 피우던 담배꽁초에 대고 불을 붙이고있었다.
《문화부대대장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경민은 동정이라도 구하려는듯 그를 향해 말을 던졌다. 여태까지 부드러운 미소가 떠돌고있던 김성태의 얼굴은 어느덧 신중한 안색으로 바뀌여졌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자기 한몸에 쏠리고있는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고 한동안 생각하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는 최경민을 향해 이렇게 한마디 대답해놓고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제 생각에는 대대장동무의 의견이 옳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의미한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서도 안되고… 아무튼 우리가 여직껏 적의 항공습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시해온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째서인지 대대장의 얼굴은 보지 않고 아까와 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채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하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은 아무 말이 없었으나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약간 침울해보였다.
최경민은 더 말하지 않고 야전가방에서 지도를 끄집어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집중되고있었다. 최경민은 지도를 마루바닥에 펼쳐놓고 지형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한곳에다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몸을 바로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대대숙영지를 골짜기의 수림속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그는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말하고나서 군사부대대

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숙영지 이동을 직접 조직지휘해주십시오. 그러되…》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될수록 짧은 시간내에, 늦어도 30분이내에 끝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명령하고나서 잠시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하고 물었는데 그 억양속에는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된 문제이니 의견이 다소 있더라도 접수하고 집행되여야 된다는 지휘관의 확고한 결심이 풍겼다.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전창걸은 정중하게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시간을 맞춰놉시다.》

최경민은 자기의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김성태는 곁에 앉은 군사부대대장이 주머니에서 류달리 큰 회중시계를 끄집어내는것을 보았다.

그 회중시계는 여태까지 대대의 기준시간으로 되여있었다. 중대장들이나 혹은 김성태가 간혹 시간을 물을라치면 그는 천문대의 시계는 틀릴수 있어도 이 시계만은 틀림이 없다고 롱담삼아 자랑하군하던 시계였다. 실상 그 시계는 여직 한번의 고장도 없었으며 시간도 정확하였다.

《그 시계는 지금 몇시입니까?》

최경민이 남달리 큼직한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있는 전창걸에게 물었다. 그는 7시 03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최경민은 다시한번 자기의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현재 7시 05분이라는것을 알렸다. 모든 군관들이 저마끔 7시 05분에다 자기들의 시계를 조절하고있었다. 김성태는 자기곁에 앉아있는 전창걸이 내키지 않는 서운한 얼굴로 회중시계의 분침을 잡아돌리고있는것을 보았다. 지금 어느 시계가 맞고 어느 시계가 틀렸는지 알길이 없다. 그러나 군대의 시계는 언제나 상관의 시계를 기준으로 거기에다 일치시키기로 되여있다. 그래야만 지휘관의 의지대로 행

동할수 있기때문이다.
《지체하지 말고 곧 행동합시다.》
최경민은 군사부대대장에게 말하였다.
《들었습니다.》
전창걸은 대대장앞에서 정중하게 다시한번 몸을 바로 잡았다.

6

신임대대장 최경민의 결심대로 대대는 즉시 골짜기의 수림속으로 숙영지를 이동하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숙영지 이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휘하였다. 전창걸은 아까 숙영지 이동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쪽배를 타고 동해의 험한 파도를 헤치며 자라난 배군으로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험한 풍랑속에서 자라난 든든한 배짱으로 하여 적앞에서 비굴성을 최대의 수치로, 모욕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는 탄알이 비발치는 돌격전에서도 낯색 하나 흐리지 않았으며 포탄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리는 지휘관이나 전사를 보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의 성격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만사에 대범한것이였다. 그는 잘고 옹졸하고 사무적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대대장이 새로 온다는 기별을 들었을 때부터 자기처럼 우선 통이 크고 배짱이 실한 든든한 싸움군이 와주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최경민이 도착하자마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숙영지 이동조치는 그에게 그리 호감을 주는 일이 못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급의 명령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군사적의무앞에서의 충실성과 말

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으로부터 그는 지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정확히 숙영지 이동을 끝마치였다.
그는 구분대들을 지정된 골짜기에다 배치하고나서 대대부로 돌아오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대대련락병 주영훈을 만났다. 련락병은 그에게 대대장의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그것은 반항공직일중기가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알아보고 중기좌지가 적의 공중감시로부터 위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위장을 철저히 시키라는 지시였다. 그는 말없이 발걸음을 돌려 대공화력이 배치된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이때 최경민은 문화부대대장과 함께 새로 자리잡은 숙영지를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대대지휘부로 돌아오고있었다. 두사람은 같이 돌아다니면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 원래 최경민자신이 평소에 말이 적고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교제를 좋아하지 않는 성미인데다가 문화부대대장 김성태 역시 그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있는 밑의 일군들과는 흉금을 털어놓고 허물없이 지내는데 습관되여있었으나 낯선 사람이나 상급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서먹서먹하고 교제도 서툴렀다. 그래서 그들 두사람은 아까 대대지휘부를 떠난이래 직속구분대 숙영지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몇가지 일들을 상론한외에는 서로 침묵을 지킨채 걸어다녔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전쟁전까지 지방당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전쟁과 함께 군대에 소환되여왔다. 그의 반생은 간부리력서 직업란에다 불과 두어줄밖에 더는 써넣을것이 없을만치 단순한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광복전까지는 손에 쇠망치를 쥐고 철판을 잡아두드리던 오랜 제관공이였고 광복후에는 어느 군당위원회에서 조직사업을 맡아보던 당일군이였다. 그것이 그의 경력의 전부였다. 그에게 있어서 군무생활은 생소한 직업이였다. 그는 전쟁이 개시되여 당의 소환을 받고 군복을 갈아입은 첫날부터 준엄한 전투환경속에서 군대생활의 여러가지 복잡한 국면에 부닥

치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사업을 통해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당이 맡겨준 어려운 새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처음에 그는 군대내 당정치사업은 복잡한 지방당사업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수월할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극히 단순해보이는 그 사업들이 실은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였을 때 저으기 놀랍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평범하고 단순해보이던 평소의 그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직접 사람들의 생사운명을 좌우하며 전투의 승패를 판가리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때문이였다. 그는 수백명 전투원들의 운명이 한데 얽혀있는 대대라는 하나의 큰 무장집단을 이끌고 전투마당에 나갈 때마다 여직 느껴보지 못한 당적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군하였다. 무거운 이 당적책임감은 이 집단을 책임지고 마땅히 주인노릇을 해야 될 대대장이 없는것으로 하여 더욱 무겁게 그의 량어깨를 짓눌렀다. 그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여 이미 있던 대대장은 그와 낯도 채 익히기전에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떠나간것이였다. 대대장이 없는동안 그는 군사부대대장 전창걸과 손을 맞잡고 긴밀하게 협조했기때문에 대대는 그동안 사고없이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그러나 김성태는 때로 어렵고 복잡한 정황에 부닥칠 때마다 집에는 일가식솔을 거느릴 호주가 있어야 하듯이 부대에는 역시 책임적인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생활의 진리를 절절하게 몸으로 느끼군하였다.

그것은 특히 군사사업에 대한 깊은 파악이 아직 없고 군대생활에 대한 체험이 적은 그에게 있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유능하고 책임성있고 믿음직한 대대장만 곁에 있어주었으면 밤에도 두발을 펴고 깊이 잠들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김성태는 련대에 올라갈적마다 대대장을 속히 보내줄것을 제기하군하였었는데 오늘 그 소원이 풀린것이였다.

최경민대대장이 김성태에게 안겨준 첫 인상은 크게 나무랄데가 없었다. 비록 나이는 젊고 성미는 좀 급해보이지만 령리하게 빛나는 그의 두눈이며 리지적인 그의 판단력이며 군사지휘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부하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이며 이 모든것들은 김성태로 하여금 어덴지 모르게 믿음직한 신뢰감을 품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김성태는 앞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대대장의 사업을 정치일군으로서 자기가 적극 뒤받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최경민의 도착과 함께 방금전에 조성되였던 숙영지 이동문제와 관련한 점적한 분위기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대장과 하부일군들과의 관계를 옳게 조절해나가며 대대장의 사업을 잘 뒤받침해주는것은 전적으로 정치일군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였다.

그들이 대대지휘부에 돌아오자 때마침 군사부대대장 전창걸도 고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전창걸은 최경민에게 명령대로 숙영지 이동을 다 끝냈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최경민은 고지에 배치된 대공직일화력의 배치상태를 비롯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더 물어보고나서 군사부대대장으로부터 대대문건을 인계받기 시작하였다.

7

최경민은 바위돌우에 걸터앉아 인계받은 문건을 뒤적이며 구분대장들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부임인사겸 대대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 구분대장들로부터 조회보고를 받자는것이였다. 회의시간이 되자 구분대장들이 하나둘씩 수림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록 년령과 생김생김은 달랐으나 싸움터에서 한결같이 볕에 그을린 거뭇거뭇한 얼굴과 화약내 풍기는 퇴

색한 군복들을 입은 믿음직한 군관들이였다.
맨 먼저 회의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련대에서 키가 제일 크기로 소문난 박격포중대장이였다. 그의 키는 정말 여느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커보이는 후리후리한 구척장신이였다. 그는 부모들한테서 물려받은 분에 넘치는 이 장대한 체구로 하여 혹시 낯선 대대장앞에서 실례나 되지 않을가 저어하는듯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고를 하고나서 멀찌감치 뒤에 가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만약 그가 앞에 나가 앉는다면 앞이 안보이니 물러나달라고 동무들이 늘 시까스르기때문이였다.
그의 뒤를 이어 도착한것은 대대의 《쌍차》라고 불리우는 제2,제3중대의 두 중대장이였다.
이전에 있던 대대장은 구분대장들의 능력을 형상적으로 장기판에 비유하여 설명하군하였었다. 아무리 바쁜 모퉁이라도 2,3중대를 들이밀기만 하면 어떤 난국이라도 타개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쌍차》라고 불렀었다. 이처럼 떳떳한 싸움군으로 온 대대에서 공인을 받고있는 두 중대장은 둘이 다 비슷비슷하게 키는 과히 크지 않으나 체격이 다부지게 생겼다는 인상들을 주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최경민의 앞에 거의 동시에 나타나서 같이 보고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되는대로 비뚜름히 머리에 올려놓은 모자채양에다 손들을 갖다붙이고 서투르게 뜨적뜨적 보고들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를 끝마치고 물러설 때의 그 동작만은 어찌나 맵시있는 제식동작을 취하였던지 보는 사람을 얼떨떨하게 만들지경이였다. 그들은 오른손을 모자채양에다 갖다붙인채 멋들어지게 한바퀴 빙그르르 돌아서서 어찌나 절도있게 두 발꿈치를 갖다붙였던지 거의 동시에 딱! 딱! 하고 요란한 발꿈치소리가 났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왼발을 쭉쭉 내뻗치며 활기있게 앞으로 걸어나가는것이였다.
전후가 모순되는 그들의 이 보고동작은 최경민에게 이

렇게 말하는상싶었다.

(여보소 대대장동무, 당신은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것을 아직은 모를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게 되겠지요. 훈련에서 땀을 얼마나 흘린 사람들이고 미국놈들을 얼마나 때려잡은 싸움군들이라는것을…)

최경민은 말없이 자기앞에서 물러가 한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두 중대장을 지켜보고있었다.

뒤를 이어 회의장소에 도착한것은 제1중대장 김봉수였다. 최경민은 김봉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그것은 군사부대대장으로부터 그가 군사지휘능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전사들속에서는 가장 신망이 높은 지휘관의 한사람이라는것을 들었을뿐아니라 오늘새벽 야간행군로상에서 우연하게 주고받는 전사들의 몇마디 대화를 통해서도 이 중대장이 얼마나 전사들과 깊이 단합되여있는가를 알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최경민앞에 나타난 김봉수는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고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텁수룩한 군관이였다.

그의 뒤를 이어 성미가 몹시 꽁하고 고지식하게 생긴 중기중대장이 나타났다. 그는 목달개를 갈아달고 면도까지 하고 나타나 남달리 눈에 띄는 사람이였다. 그는 보고도중에 두차례씩이나 말이 막혀 낯이 벌개지면서 겨우 보고를 끝맺고 돌아섰다. 련이어 우스개와 익살스럽기로 대대에서 유명하다는 통신소대장이며 대대공급소대장 그리고 반총소대장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도착하는 차례로 초면인 대대장에게 점잖게 혹은 활기있게 혹은 능청스럽게 제가끔 자기나름대로 보고를 하고나서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들을 피워가며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은 아까부터 전화통에 매달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분대장들을 독촉하는가 하면 련락병에게 무슨 임무를 주어 어데론지 떠나보내기도 하였다.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한 대대련락병은 뛰여다니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어있었다. 그는 더위에 익어 벌겋게 된 얼굴에다 여전히 유쾌한듯 명랑한 미소를 띠우고 군사부대대장이 주는 임무를 받아가지고는 신바람이 나서 어데론지 급히 달려가군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다시 회의장소에 나타나서 둘러앉은 군관들과 최경민대대장을 번갈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생긴듯이 긴장한 얼굴표정으로 조심조심 군사부대대장에게 접근하여 곁에서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지 소곤소곤 말하고나서 다시 어데론지 사라지군하였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아까부터 사람좋은 미소를 얼굴에 지으면서 몇몇 군관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최경민은 이때 자기를 둘러싸고 빼곡이 들어앉은 여러 군관들의 시선을 몸에 느끼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급의 지시를 받기만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많은 군관들에게 자신이 직접 임무도 주고 그들이 묻는 일에 대답도 주어야 하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도 져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가슴이 벅차오르게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슴이 죄여들게도 하였다. 그것은 특히 오늘새벽부터 그가 대대에 도착해서 받게 된 강한 하나의 인상, 즉 대대는 그가 상상하던것과는 달리 결코 그 어느 구분대에 못지않게 훌륭한 전투원들과 전투경험을 가진, 또한 그것으로 하여 서뿔리 다룰수 없는 만만치 않은 구분대라는 그 인상으로 하여 더욱 그러했다.

그는 방금 직속구분대를 한바퀴 돌아보면서도 그것을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름름하고 만만치 않아보이는 지휘관들과 락천적이며 믿음직한 전사들, 침착하고 태연자약하며 자기 긍지와 신념에 가득차있는 개개 군무자들의 말없는 시선과 사소한 움직임들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는것이였다.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잡니까?》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의 물음에 최경민은 상념에서 깨

여나 정신을 가다듬었다.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복장을 바로잡았다.

《군관동무들!》

군사부대대장의 구령에 의해 군관들은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최경민은 전창걸의 보고에 답례를 하고 둘러선 군관들을 돌아보며 침착하게 부임인사를 하였다. 그리고나서 군관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 그들로부터 조회보고를 받았다. 맨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대대의 전반적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것이 끝나자 최경민은 구분대장들로부터 구분대실정을 보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캐여묻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람수로부터 시작하여 무기, 탄약은 말할것 없고 취사장의 밥그릇이 몇이나 되고 치중마의 마철과 가죽띠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져물었다. 둘러앉은 구분대장들은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있었다. 말끔한 면도자리, 단정한 군복차림, 반들거리는 군화며 군복단추, 이 모든것들을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었다.

특히 남의 배속까지 빤히 들여다보는것 같은 그의 특징적인, 빛나는 두눈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나이는 젊지만 어딘지모르게 만만치 않다는 인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있었다.

최경민은 박격포중대장으로부터 조회보고를 청취하면서 포탄의 보유량이 얼마나 되고 말은 몇필이며 말의 장제는 언제 했는가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나갔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1포의 실태에 대해서 말해주시오.》

《네!》

박격포중대장은 최경민의 까근까근한 물음앞에서 잠시도

지체함이 없이 척척 대답해나갔다. 보매 그는 기억력도 좋거니와 워낙 자기 맡은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고있었다. 그는 자기 중대 제1포의 전투경로에 대해서 마치 부모들이 자기 아들의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듯이 신바람이 나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박격포는 38선을 넘어온 적들에게 26발의 포탄을 안겨 170여명의 적을 쓸어눕혔으며 한강도하전투에서는 18발의 포탄을 안겨 대안의 적을 140여명 쓸어눕히고 보병들의 대안근거지점령을 보장하였으며 제3차전투는… 이리하여 오늘까지 24차의 전투에서 적 1,350여명을 살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는 몸에 두차례의 상처를 입었는데 한번은 적의 기관총탄알이 포신을 할퀴고 지나갔고 또 한번은 적의 105미리 포탄파편이 날아왔으나 조준수가 포신을 끌어안아 몸으로 막았기때문에 포신에 약간의 상처를 새겨놓았을뿐 포사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후…》

최경민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물었다.

《그 조준수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무는 의정부뒤 ××고지에다 묻고왔습니다.》

박격포중대장은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기침을 깇고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금 그 박격포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최경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약간 갈린듯했다.

《포 성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포의 발사소리가 이전보다 약간 달라진것 같은 감이 납니다. 늙은이의 기침소리처럼 좀 웅글은 소리를 내는것 같습니다. 또 포수들의 말에 의하면 포가 나이 들고 늙었기때문에 노여움을 타서 포판을 좋은데 앉히고 쏘지 않으면 성이 나서 펄쩍펄쩍 뛴다고들 합니다.》

둘러앉은 구분대장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최경민도 따라 웃었다. 박격포중대장의 뒤를 이어 제2중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회보고를 하다가 보병삽의 수자가 대대통계와 차이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고 최경민이 캐여묻는바람에 한동안 땀을 흘렸다.

그의 뒤를 이어 제1중대장 김봉수가 구분대실정을 보고하였다. 그는 다소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재간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떠듬거리는 조회보고는 허식이 없고 소박하며 실무적인 구체성을 띠고있는것으로 하여 최경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자기 중대 개개 전사들의 출생지며 생년월일이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며 그의 성격과 취미는 무엇이며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것까지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 있었다.

최경민은 구분대장들의 보고가 끝나자 잠시 휴식을 선포하고나서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는 어제 오현무련대장이 자기에게 하던 말이 빈 인사말이 아니였다는것을 느꼈다. 얼마나 좋은 지휘관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전사들인가. 그는 이 믿음직한 구분대장들과 같이 지내게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설레였다.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만족하거나 해이되여서는 안된다. 훌륭한 이 대대의 앞으로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하게 일하고 자신과 동무들에게 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해야 된다.)

최경민은 생각에 잠겨 담배를 붙여물었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결은 아까부터 말없이 최경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는 구분대장들의 조회보고를 들으면서 최경민의 얼굴에 나타난 움직임들을 통해 대대장이 겉으로는 딴전을 부리지만 속으로는 몹시 흡족해한다는것을 눈치채고있었다. 그가 도착하자바람으로 숙영문제에 과도한 신경을 쓴것은 아직 전투구분대생활에 생소하고 전투원들의 실생활감정과 동떨어진 오랜 참모부일군의 과민증에서 나온것일것이였다.

(이제 한달만 같이 지내보라지. 이 끌끌한 군관들과 전투원들의 생활에서 흠을 잡다니? 구분대장들의 말만 듣고도 저렇게 흡족해하는것을 보니 이제 우리가 한바탕 미군놈들을 족쳐대는것을 보면 입을 딱 벌리겠지. 한달이 다 뭐야, 앞으로 사흘만 지내보라지…)

그러나 전창결의 예측과는 달리 회의가 속회되자 최경민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동무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고 구분대실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간 동무들은 원쑤들을 족치며 여기까지 나오면서 전과도 많이 올렸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동무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

구분대장들은 생각지 않던 이 말에 한결같이 긴장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것은 첫째로 동무들중에는 외모와 복장정돈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오늘 이 회의에 참가한 동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기중대장동무는 이런 면에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동무들이 있다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경민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군관들을 둘러보다가 앞에 서있는 김봉수중대장에게 물었다.

《동무는 어째서 수염을 깎지 않습니까?》

김봉수중대장은 모여선 군관들중에서 수염이 제일 텁수룩하였다. 그는 예상치 않던 전혀 뜻밖의 이 질문에 당황하여 얼굴이 대번에 벌겋게 되여버렸다. 그는 둘러선 군관들의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있는것을 느끼며 갑자기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 어물거렸다.

《동무의 목달개는 왜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그 리유를 좀 설명하시오. …》

김봉수중대장은 더욱더 대답에 궁해졌다.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곁에서 보기에도 딱할만치 벌겋게 물들어갔다.

《좋습니다.》

최경민은 그에게 더 묻지 않고 자리에 앉힌 다음 그의 곁에 앉아있는 2중대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2중대장동무! 앞으로 나오시오.》

《네!》

2중대장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까 하던식으로 맵시있게 빙그르르 한바퀴 돌아서는 두 발꿈치사이에서 딱!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절도있게 몸을 바로잡으며 대렬을 면하고 섰다. 그러자 최경민은 대렬을 향해 말하였다.

《자,보시오. 이 동무의 견장과 신발이 어떻게 되였는가.》

군관들의 시선은 일제히 2중대장에게로 쏠렸다. 그의 견장은 비에 맞고 해볕에 졸아들어 가랑잎처럼 쭈글쭈글 오그라들었다. 군화는 진흙과 먼지투성이였다.

《동무는 그 견장을 달고 중대대렬앞에 나가서 대렬검열을 했습니까? 전선에 나와서 군화를 닦아본적이 있습니까?》

최경민은 본인을 향해 물었다. 2중대장은 안색이 약간 해쓱해졌을뿐 아직 침착성을 잃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생각지 않았던 질문에는 이내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다. 그러자 대대장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동무는 위장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안했습니까?…그 리유를 설명하시오.》

《부주의로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2중대장은 허심하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동무는 자신의 그 〈부주의〉가 자기가 데리고있는 수많은 전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을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최경민이 재차 따져물었다.

2중대장은 가슴에 짚이는데가 있는듯 낯빛이 약간 달라졌다. 그는 대답을 못하고 서있었다.

《좋습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오.》

최경민은 그를 제자리에 돌려보냈다. 군관들은 이때 제

가끔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슬그머니 혹은 능청스럽게 비뚤어진 모자를 바로잡기도 하고 목걸개를 채우는가 하면 혹은 조심스럽게 혁띠를 졸라매기도 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한 심리가 나타나고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도 언제 불리워나갈지 모르겠다는 은근한 근심이였다.

최경민은 그들을 둘러보며 그 모든것을 감촉하였으나 우정 모르는척하였다.

《둘째로 말해야 될것은 일부 동무들은 정해진 회의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민은 대렬중에 섞여있는 군관 하나를 지적하였다.

《동무는 어째서 3분씩이나 늦었습니까?》

그는 대대공급소대장이였다. 몸집이 약간 뚱뚱하고 량볼이 불룩 처진 대대공급소대장은 평소에 비위가 매우 좋은 사람이였다. 그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상관앞에서도 천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아까 문건을 들여다보고있는줄로만 알았던 대대장이 뜻밖에도 자기가 3분 늦게 도착한것까지 알고있는 사실앞에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급소대장뿐만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이 깔끔한 대대장이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것 같은 그 눈으로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의 일을 꿰뚫어보고있을 일을 생각하니 한결같이 마음이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공급소대장은 태연한 얼굴로 자기가 늦어진 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은 대대장의 령리하게 반짝이는 눈길이 마음에 걸려 자기도모르게 자꾸 헛기침을 깇어가며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하며 불필요한 접속사를 련달아 늘어놓았다.

《좋습니다.》

최경민은 그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중도에서 막아버리고 구분대장들을 향해 말했다.

《보십시오. 저 동무는 말도 저렇게 애매하게 합니다. 군인들의 말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수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규률이 좀 해이되고있습니다.》

최경민의 목소리는 그리 높거나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였으나 매섭고 날카로운데가 있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규률은 곧 군대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규률과 질서를 좀먹을수 있는 일체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완강하게 요구할 결심입니다.》

최경민은 이렇게 말을 끝마치고 모두다 들으라는듯이 군사부대대장에게 큰소리로 지시를 주었다. 그것은 앞으로 위장을 하지 않거나 외모와 복장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은 사람은 회의에 한사람도 참가시키지 말라는 엄격한 내용이였다.

《군관동무들！》

전창걸의 구령에 따라 군관들은 일제히 차렷자세를 하고 몸들을 바로잡았다. 최경민은 경례를 붙여 답례한 다음 자리를 떠났다. 회의는 이렇게 끝났으나 구분대장들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앉소. 모두 그 자리에들 앉소.》

대대장이 자리를 뜬 다음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군관들 틈에 끼여앉아 담배갑을 꺼내놓고 피우라고 권하면서 자신도 한대 피워물었다.

김성태는 회의도중에 줄곧 생각에 잠겨있었다. 대대장 최경민이 첫 군관회의에서 일으킨 파문이 그의 가슴속에도 일정하게 충격을 준것이였다. 비록 몇몇 군관들속에 나타난 결함이긴 하였지만 지적을 받고보니 이 구분대의 정치사업을 책임진 자신의 지난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마땅히 그런 결함들을 미리 포착하고 시정했어야 됐을것이였다.

대대장의 엄격한 요구들과 지적은 전적으로 옳은것이였다. 그러면서도 김성태는 다른 한편으로 최경민의 사업에 무엇인가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성태는 대대장 최경민한테서 느끼게 되는 그 부족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서뿔리 속단하거나 아직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보고싶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금 군관들의 얼굴마다에 나타난 무엇인가 서운해하는 기색을 감축하고 구겨진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일군인 자신이 사업해야겠다고 생각한것이였다.

《왜 모두 말없이 앉아들 있소?》

김성태는 얼어붙은듯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하여 정다운 시선으로 둘러앉은 군관들을 돌아보며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중에는 대대장동무가 부임하자바람으로 엄혹한 이 전쟁판에 어울리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한다고 못마땅해하는 동무가 있는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이사람 저사람 바라보며 차근차근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와 같이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러나 잘들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반부인민앞에 나선 첫 인민의 군대입니다.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의 군대란말입니다. 남반부인민들은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글쭈글한 견장을 달고 그들앞에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좌석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군관들은 한결같이 숨을 죽여가며 문화부대대장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김성태는 음성을 높이거나 말을 재치있게 수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으나 듣는 사람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말에 끌려들어 숨을 죽이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동무들은 전투원동무들을 직접 책임지고있는 지휘관들입니다. 아까 2중대장동무는 대대장동무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부주의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주의란 말이 어느 한 전사동무의 입에서 나왔다면 대대장동무도 그렇게까지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을것입니다. 지휘관의 견장이 삐뚤어지고 지휘관의 군화가 어지럽다는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전사들도 그의 본을 받아 옷차림을 되는대로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찌 대대장동무가 중대장의 견장이 삐뚤어진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수 있겠습니까. 동무들은 평화시기에 무엇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단추를 닦고 목달개를 갈아달고 장화를 닦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필요한 조직성과 규률을 배양하고 단련하기 위한것이였습니다. 군대의 강철같은 규률과 조직성,그것은 평화시기뿐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전쟁시기에 더욱 필요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대대장동무도 말한바와 같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차례의 연설과 명령들에서 규률은 군대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은 몇차례의 전투승리에 자만하여 그것이 지금 해이되고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대대장동무가 제때에 이것을 포착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군관들은 여전히 말없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결같이 그 어떤 흥분과 자책의 그림자가 물결치고있었다.

이때 갑자기 상공에서 쌕—하고 바람을 째는 아츠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태는 말을 중단하고 둘러앉은 군관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적의 전투기들이 수림상공을 스쳐지나고있었다. 뒤이어 구라망편대가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또 들이닥쳤다.

짜르릉! 짜르릉! 쾅! 하는 폭탄터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그와 거의 동시에 등뒤에서 귀청을 째는듯한 우리의 대공직일중기의 발사소리가 들려왔다. 즉시적인 우리의 대공화력에 조우한 적항공편대는 상공에서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잠시후에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전창걸은 중기중대장과 함께 대공화력이 배치되여있는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새벽에 대대가 자리잡고있던 바로 그 마을이 불타고있었다. 아침에 그렇듯 꽉 뒤덮였던 검은 구름은 어느덧 간데 없고 맑게 개인 창공으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있었다. 전창걸은 생각에 잠긴 심각한 얼굴로 피여오르는 검은 연기를 지켜보며 한동안 움직일줄 모르고 굳어져있었다.

8

최경민이 구분대장회의를 하고있던 바로 같은 시각에 련대지휘감시소에서는 참모부성원들이 오현무의 결심채택을 돕기 위해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바로 1시간전에 사단련락군관이 사단장의 전투명령을 가지고 도착한것이였다. 련대앞에는 긴급한 새 전투임무가 부과되고있었다. 당시 조선인민군의 맹렬한 공격앞에서 혼비백산한 적들은 황급히 남쪽으로 도망치고있었는데 전선동부에서 어느 한 계선을 유지하려다가 퇴로를 차단당한 괴뢰군 한개 련대가 앞으로 사단의 공격정면을 통과하여 락동강을 건너 빠져나갈 기도가 보이는것이였다. 적들은 패잔부대들을 락동강이남에 집결하여 일본에서 건너온 미제침략군부대들과 합세하여 락동강방위선을 형성하려고 혈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대로 놈들이 강을 건너 미군과 합세하기전에 소멸해버려야 했다.

도망치는 이 괴뢰군부대를 전진로상에서 포위섬멸할데 대한 사단장의 결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사단의 제2제대로 행군을 해오던 오현무가 지휘하는 련대는 제1제대로 전투에 진입하게 되였다.

련대장의 결심채택을 위한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실정을 타산하여 최경민의 제1대대를 적을 앞지를수 있는 지름길로 진출시켜 대도로상의 요충지대인 《괴암동》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케 하고 나머지 2,3대대는 련대장의 인솔하에 전진로상에서 적을 따라잡아 3면포위진을 형성할데 대한 결심이 채택되였다.

시간이 긴급한 사정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전달하기 위해 서인규참모장이 1대대로 파견되였다. 서인규참모장이 대대에 도착한것은 놈들의 비행기가 마을을 폭격하고 도망친뒤였다. 최경민은 구분대장들을 회의장소에 그대로 눌러앉게 한 다음 대대부직간부들과 함께 서인규참모장으로부터 오현무의 전투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는 대대에 부임하자바람으로 미처 숨돌릴사이도 없이 긴급한 전투임무를 이렇게 접수하게 되니 어느정도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흥분으로 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은근히 죄여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그것은 곁에 있는 하부일군들이 자기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다는,자기 위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때문이였다.

그러나 그는 서인규참모장이 적정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흥분으로 하여 낯빛이 달라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서인규에게 물었다.

《괴뢰군 ×련대라니요? 동두리에 주둔하고있던 바로 그놈들이란말입니까?》

《그렇소.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보니 바로 그놈들이요. 민병일이라는놈이 지휘하는 바로 그 련대요.》

서인규는 자기 말을 의심하는 최경민을 납득이나 시

키려는듯이 야전가방에서 다른 문건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사단정찰과에서 받은 정찰통보자료였다.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경민의 눈앞에는 바로 한달전에 있은 동두리해방전투때의 일이 되살아나는것이였다.

×

최경민이 전투에 참가하여 몸에 부상을 당한 동두리는 38선 근방에 자리잡고있는 그리 크지 않은 남녘의 한 촌락이였다. 그러나 이 동두리는 북남을 련결하는 교통상위치와 지형상특성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적들은 이곳에 1개련대의 괴뢰군을 주둔시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군사도발행위를 감행하여왔었다.

이 동두리공격전투때 최경민은 직접 주공방향을 담당한 대대에 나가 전투에 참가하였다. 땅크부대와 배합된 인민군보병부대들의 맹렬한 공격앞에서 적이 둥지를 틀고있던 이 군사요새는 장시간에 걸친 치렬한 전투끝에 함락되였다. 전투의 마지막결속은 놈들이 7문의 곡사포와 10여문의 중기를 걸어놓고 집요하게 저항하던 촌락의 남산고지를 제압하는것으로 끝냈었다. 땅크들은 맹렬한 포화력을 놈들의 머리우에 들씌우면서 통로마다에 설치된 차단장애물들을 짓뭉개면서 적의 턱밑으로 육박해들어갔다.

최경민은 땅크와의 화력련계밑에 마을을 지나 남산고지를 3면으로 압축해들어가는 보병대대와 함께 전진하였다. 마을은 텅 비여있었다. 대문들은 꽁꽁 닫혀있고 사람들은 물론 짐승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전투의 피해를 면하려고 인민들이 마을을 이미 비워버린것이였다.

놈들이 쏘아대는 박격포탄이 곳곳에 쾅쾅 터져오르며 집벽체들을 무너뜨리고 초가지붕이 무너져내리군하였다.

최경민은 빨리 마을을 벗어나려고 내달렸다. 그런데 이

때 웬 전사 하나가 무슨 일때문인지 마을한복판에서 급히 왔다갔다하고있었다.

《여기서 왜 어물거리고있소?》 최경민은 그에게 소리를 쳤다.

《물!… 우물을 찾습니다.》

전사는 숨을 헐떡거리며 대답하였다. 순간 최경민은 무엇인가 깔깔한 물체가 자기 목에 걸려 목구멍이 갈라지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가 상기시켜준 물이라는 한마디말이 아까부터 참고 견디던 갈증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준것이였다. 침을 삼킬래야 삼킬수 없었다. 한나절이나 계속된 장시간의 전투에서 땀을 흘릴대로 흘린데다가 물 한모금 보충 못한 그들이였다.

《참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하오.》

최경민은 엄하게 명령하였다. 두사람은 내달렸다. 그들은 걸음걸음 화력전투를 진행하면서 남산고지로 돌진해올라갔다. 전투는 갈수록 치렬해졌다. 놈들의 맹렬한 기관총화력에 조우하여 전진하던 보병들은 잠시 산턱을 의지하고 멈춰서있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웬 녀인 하나가 마을로부터 무엇인지 머리에 이고 그들이 있는 보병산병선을 향해 달려나왔던것이다. 탄알이 비발치는 화력구역으로 난데없이 뛰여든 이 녀인의 출현은 전투원들을 아연하게 하였다. 달려오는 녀인의 발밑에서 탄알이 풀썩풀썩 먼지를 일으키군하였다. 전사들은 모두 가슴이 죄여들어 손에 땀을 쥐였다. 탄알이 언제,어느 순간에 그의 가슴을 꿰고 지나갈지 모를 일이였다.

《엎드려!》 전투원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 녀인은 고집스럽게 탄우속을 헤집으며 이쪽을 향해 그냥 달려올라와서는 동이를 머리에 인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나이 50남짓한 어머니였다. 달려가서 한 전사가 그의 머리에 인 동이를 받아내렸다. 어머니는 숨을 가라앉히느라고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한참후에야 겨

우 입을 열었다. 와서 물들을 마시라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어찌나 땀을 흘렸던지 온몸이 비를 맞은것처럼 푹 젖어있었다. 신 한짝은 중도에 잃어버리고 한짝만을 신고있었다. 신을 잃어버려 맨발이 된 한쪽 발에서는 살이 찢기고 터져 피가 흘러내렸다. 전투원들은 제가끔 가슴이 뭉클해서 모처럼 어머니가 길어온 물을 앞에 놓고도 마실념을 못했다.

이때 우리의 반땅크포가 전진을 가로막던 적의 중기화점을 까부셨기때문에 보병들과 함께 다시 앞으로 전진하느라고 최경민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그의 머리속에는 전투마당에서 있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일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다.

동두리 남산고지는 이날 저녁녘에야 함락되였다. 최경민은 고지의 마지막 탈취전에서 몸에 경한 부상을 입었다.

동두리가 해방되자 제1제대부대들은 적을 추격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고 그뒤를 미처 따라서지 못한 련대후방부서들만이 마을에 림시 머물고있었다. 최경민은 이때 몸에 입은 부상처를 처치하기 위해 련대군의소를 찾아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에는 어느새 피난갔던 인민들이 모여들어 인민군대를 환영하느라고 들끓고있었다. 마을에는 벌써 인민위원회간판이 나붙고 집집의 처마끝에는 공화국기발이 매달려있었다. 보매 그들은 벌써부터 그 간판과 공화국기발을 미리 준비해놓고 우리 인민군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은 모양이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담벽과 대문짝마다에는 무수한 표어가 나붙고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어려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최경민을 보자 제가끔 팔목을 잡아끌며 자기 집에 가서 쉬라고 권하는가 하면 어린 조무래기들은 낯선 인민군대를 보느라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

였다. 이 복새판에서 최경민은 아까 화선에 나타났던 바로 그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권하는대로 반겨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어머니는 마을 서쪽골짜기에 있는 자기 집으로 최경민을 안내하였다. 세칸짜리 초가집이였으나 뜰안에는 각가지 화초들이 아담하게 가꾸어져있고 향기 그윽한 너울장미가 싸리울타리를 기여올라간 아담한 살림집이였다. 어머니는 최경민에게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라고 권하면서 저녁준비를 서둘렀다.

최경민은 오래 머물러있을 사정이 못된다고 사양하면서 퇴마루에 걸터앉아 가족들이 다 어데 갔느냐고 물었다. 뒤주를 열고 이남박에다 쌀을 퍼내고있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주춤 굳어진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최경민은 어리둥절하여 어머니의 얼굴만을 지켜보았다. 일순간 어머니의 눈엔 물기가 어리더니 이어 불이 이는것 같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어머니는 이를 으드득 갈고나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최경민에게 기막힌 자기 집 사정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정실이라는 외딸을 데리고 살아왔었다. 남편은 골짜기 초입에 있는 어느 한 지주의 땅을 얻어 남새농사를 지어서는 군소재지에 내다가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있었다. 그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였던지 달구지를 끌고 그곳에서 20리가 잘되는 고을에 드나들며 인분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남새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한편 이 어머니는 딸과 함께 골짜기에 밭을 일구어 풋강냉이도 심고 산나물도 캐다가 살림을 보태왔다. 세사람이 이렇게 피땀으로 걷어모은 돈으로 재작년에 그들은 송아지 한마리를 사다가 키웠다. 그리하여 작년봄부터는 손달구지대신에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놈에게 인분통을 실은 달구지를 메워가지고 군소재지로 드나들게 되였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여 이 집안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금년 정초에 있은 일이였다. 남편은 그날도 군소재

지에 가서 인분을 처싣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가파른 고개를 넘어오고있었다. 날이 채 밝기전부터 집을 떠나 수십리길을 걸었기때문에 사람도 어지간히 지쳤지만 더우기 애어린 중송아지는 눈이 녹아 얼음판같이 매끄러운 고개길을 넘어오느라고 맥이 빠져 헐떡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달구지를 멘채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버렸다. 몰이군은 속이 안달아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달구지채를 떠받들어주기도 하였으나 맥빠진 송아지는 혀를 빼들고 숨을 할딱거릴뿐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열바퀴짜리 미제침략군 대형화물자동차가 뒤에 와서 멈춰서더니 길을 비키라고 연방 경적을 울렸다. 몰이군은 당황하여 고삐를 쥐고 이랴! 이랴!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길로 송아지엉뎅이를 사정없이 들이차기도 했으나 기진맥진한 소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제침략군 운전수놈은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꿱꿱 소리를 치더니 부르릉 소리를 내며 차를 내몰았다. 길밑은 아찔한 벼랑이였다. 달구지는 낭떠러지쪽으로 움찍움찍 떠밀리기 시작하였다.

《여보!여보!》

몰이군은 고삐를 손에 쥔채 공포에 질려 자동차에 대고 고함을 쳤다. 그러나 운전대우에 앉은 미군놈은 쾌감을 느끼며 키득키득 웃고있었다. 길손들이 빨리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몰이군은 발을 벗디뎌가며 멍에에 맨 목띠를 풀고있었다. 어떻게든 송아지를 구해보자는 심산인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앗!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달구지와 소와 사람이 한덩어리가 되여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오고가던 사람들이 몸서리나는 이 사고현장으로 몰려들었으나 그때는 이미 미군놈이 차를 몰고 행방을 감춘 때였으므로 그놈이 어느 부대에 있는놈인지 알길이 없었다. 이렇게 되여 녀인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소와 달구지를 함께 잃어버렸다. 두 모녀는 낯선 달구지에 실려온 처참한 시체앞에서 땅을 치고 미제침략군놈들을 저주하며 통곡

을 하였다. 그러나 억울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아침까지 여기에 둥지를 틀고앉아 온갖 만행을 다해온 괴뢰군 민병일련대에는 핸드슨이란 미제침략군고문관놈이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그놈에게 딸까지 잃을줄이야.

두 모녀가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른지 불과 두달이 되나마나한 때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어머니는 밭으로 나가고 딸 정실이는 산나물을 뜯으러 산골짜기로 올라갔었다. 그런데 정실은 공교롭게도 산중에서 핸드슨이란 미제침략군고문관놈과 마주치게 되였다. 그놈은 수렵광이여서 사냥을 하느라고 사냥총을 메고 부근의 수림속을 자주 싸다니군하였었다. 그러다가 그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홀로 있는 숙성한 처녀를 발견하자 수욕을 채우려고 달려들었다. 연약한 처녀는 그놈의 우악한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악을 썼다. 그는 그놈의 얼굴을 할퀴고 꼬집고 물어뜯으면서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이 야수놈은 수욕을 못채우게 되자 권총을 뽑아들었다.

정실의 고함소리와 총소리를 듣고 부근에서 나무를 하던 동네사람들이 사건현장에 달려갔을 때에는 정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핸드슨이란 그 미군놈은 골짜기밑으로 내려가 차를 타고 도망을 치고있었다. 기별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시체를 보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미제야수놈들의 악랄한 이 죄행에 대한 소문은 삽시에 린근마을에까지 쫙 퍼졌다. 소문은 지방주민들뿐아니라 괴뢰군내부에까지 전파되였다. 그러자 민병일이란 련대장놈은 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을 야기시킬수 있다는데로부터 하루는 사병 두놈을 시켜 정실 어머니에게 24시간내에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고 위협까지 하였다는것이였다. 이 얼마나 악착하고 잔인무도한놈들인가.

《여보슈, 군대어른, 이 원쑤를 갚아주슈. 미군놈들이 내 남편과 우리 정실이를 죽였수!》

자신이 겪어온 피맺힌 사연을 들려주고나서 이렇게 부르짖는 어머니의 눈엔 복수의 불길이 타번지고있었다. 이 세상에서 미군놈들을 모조리 족쳐달라고 총알이 비발치는 전투마당으로 물동이를 이고 달려올라오던 어머니의 굳센 모습과 뜨거운 마음이 안겨와서 경민은 눈시울이 후더워졌다. 그는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며 다시한번 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닥노닥 기운 베적삼, 볕에 탄 시꺼먼 얼굴에 깊숙이 패인 주름살들, 고통과 원한에 찬 지난날을 말해주는듯 나이보다 빨리 희여진 머리칼…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뜯어보던 경민의 시선은 불현듯 한곳에 못박혀버렸다. 어머니는 다 빠져 몇오리 남지 않은 머리채를 쪽져얹었는데 거기에는 비녀대용으로 부러진 눕저가락이 꽂혀있었다. 그의 머리우에 꽂힌 눕저가락은 최경민에게 문득 가슴에 맺힌 자신의 지난날을 소생시켜주었다.

최경민이 열살잡히던 해에 아버지를 왜놈에게 빼앗기고 친척집을 찾아가는 어머니를 따라나섰을 때의 일이다. 그때 오래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살길이 막막하여 돈 한푼 없이 길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도중에 병이 덧쳐 오도가도 못하고 어느 정거장대합실에 들어가 눕게 되였다. 철도 채 들지 않은 어린 경민은 어머니가 오한이 나서 덜덜 떠는것을 보고 밖에 나가 가마니를 얻어다가 대합실 콩크리트바닥에 펴고 그우에 어머니를 눕혔다. 그러자 왜놈역장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구두발로 어머니를 툭툭 차며 밖으로 나가라고 욕을 하였다.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갔다.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밤이였다.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한 그들이, 더구나 중병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돈 한푼 없이 어데로 갈수 있었겠는가. 하는수없이 그들은 역장이 안으로 사라지자 다시 대합실안으로 기여들어갔다. 어머니의 병환은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자꾸 헛소리를 하였다. 어린 최경민은 어머니가 잘못될가봐 겁이 더럭 나서 불덩이같

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오돌오돌 떨며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왜놈역장이 그들을 다시 발견하고 와서 또 발길질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신상태에 빠져 헛소리만을 쳤다. 그러자 왜놈역장이 이마살을 찌프리고 잠시 지켜보고섰다가 어데로 사라지더니 얼마후에 역사앞으로 화물자동차 한대가 와서 멎었다. 그러더니 놈들은 어머니를 끌어내다 거적에 말아 자동차적재함에 실었다. 최경민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자 놈들은 어린 최경민을 번쩍 들어 차우에다 같이 쥐여던졌다. 차는 떠났다. 어린 최경민은 이들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가나부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는 덜커덕거리며 한적한 산기슭으로, 들판으로 내달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다 거적채 어머니를 내던지고 차는 돌아가버렸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사람 하나 볼수 없는 쓸쓸한 들판에서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철도 채 들지 않은 어린 최경민을 홀로 남겼다. 어린 최경민은 작은 손으로 락엽을 긁어다가 어머니의 시체우에 덮었다. 그때 그는 어머니의 시체곁에 떨어져있던 비녀를 주어들고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철부지 어린 자식과 함께 남기고 간 어머니의 유일한 유물이였다.

한평생 눈물과 설음속에 지내면서 값눅은 백동비녀 하나 사지 못해 저런 늪저가락으로 머리를 쪽지고 사시다가 한많은 세상을 등진 어머니! 그는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콱 흐려졌다. 같은 피줄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저 어머니를 어찌 남의 어머니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때는 왜놈들과 지주놈들의 등살에 시달리며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였다면 지금은 미국놈, 우리 인민의 백여년의 원쑤 미제침략군놈들이 저 불쌍한 어머니, 아니 온 남녘땅형제들을 괴롭히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있는것이다. 핸드슨이란 그놈은 대체 어떤 탈을 쓴놈인가. 그의 졸개 민병일이란 련대장

놈은 대체 어떻게 생긴 야수인가. 이 원쑤놈들과 어떻게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있단말인가. 경민은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해 몸을 떨었다. 그는 어머니와 작별하고 군의소에 와서도 줄곧 이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런데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핸드슨이란 미군놈과 민병일이란 놈을 바로 여기 와서 다시 만나게 될줄이야…

최경민은 서인규로부터 련대장의 명령을 접수하고 임무를 료해한 다음 우선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주먹으로 대충대충 측정하여나갔다. 그리고나서 야전수첩에다 연필로 시간을 계산하였다. 현지로부터 괴암동까지는 120리나 되는 거리였다. 오현무의 명령서에는 이 120리를 하루밤사이에 극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래일 새벽 4시까지 괴암동에 도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해야 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었다.

명령서에는 또한 일체 주간행동을 금한다는 부대조건이 첨부되여있었기때문에 행군은 더욱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요즘과 같은 한창 짧은 여름철의 밤시간이란 저녁8시부터 새벽 4시사이의 8시간에 불과한데 이 8시간동안에 120리를 돌파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였다. 거기다가 직선으로 지름길을 리용해야 됐기때문에 로정은 거반 소로길이 아니면 길 아닌 골짜기와 수림속을 통과해야 했다. 어두운 밤에 지도 한장과 지남침 하나를 가지고 낯선 골짜기와 수림속을 헤집으며 무거운 장구를 갖춘 전사들을 이끌고 120리를 돌파할수 있겠는가? 최경민은 아까부터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지도상의 거리를 재고 앉았던 군사부대대장의 근심어린 얼굴에서도 바로 그것을 감촉하였다.

《어떻소? 자신이 있소?》

명령을 전달하고나서 최경민의 안색을 살피고 앉았던 서인규가 성급하게 빠른 말로 물었다. 최경민은 대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어둠에 잠긴 험

한 120리의 행군로정이 얼른거렸다. 그 길을 하루밤사이에 극복한다는것은 아무리 타산해봐도 쉽지 않았다. 다음순간 최경민은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여러사람의 시선을 몸으로 느꼈다. 내가 만약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추호도 주저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만약 대대가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놈들을 놓쳐버린다면 놈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 락동강의 하수장애를 리용하여 더욱 발광적으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퇴각하는 적들이 락동강이남에 집결하여 미군놈과 함께 새로운 방위선을 형성하기전에 소멸해버리라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전진을 더디게 할뿐만아니라 핸드슨이란 그 고문관놈도 괴뢰군 련대장놈도 영영 놓쳐버리는것이 아닌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여서는 안된다.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임무를 기어코 완수해야 된다.

《참모장동지! 명령대로 꼭 해내겠습니다.》

경민은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소. 돌아가서 련대장동지한테 그렇게 전하겠소. 내려올 때 련대에서 많이 토의가 있었소. 경민동무가 부임하자바람으로 어려운 이 임무를 해낼수 있을가 하고말이요. 그러나 이젠 주인이 자신이 있다고 하니 마음놓고 돌아가겠소.》

서인규는 이번 임무가 곧 앞으로 진행될 락동강도하작전과 련쇄되여있는 고리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나서 보충적으로 몇가지 주의를 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경민은 서인규참모장을 배웅하고나서 회의장소로 갔다. 구분대장들이 아까부터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9

제1중대장 김봉수는 회의에서 돌아오자 전사들에게 저녁식사전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잘것을 지시하고나서 소대장들과 중대 특무장만을 앉혀놓고 저녁행군준비에 착수하였다.

행군을 앞두고 그는 언제나 힘을 기울여 준비하는 두가지 일이 있었다. 그 하나는 사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하여 행군도중 전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락오자를 내지 않게 하는 일과 또 하나는 물이 켜지 않는 도중식사를 장만하여 전사들에게 휴대시키는 일이였다. 이 두가지 일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 례하면 행군지휘조직에 필요한 일련의 실무적조치들은 거의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여서 그런 일에는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군대내의 엄격한 사업규범이나 형식보다 언제나 전투원들의 실제적생활을 중요시하는 김봉수중대장의 이 텁텁하고 실무적인 사업작풍은 어느덧 하부일군들한테도 물이 들어 그들은 행군이 시작되면 의례히 전사들의 신발과 발싸개에 주목을 돌릴줄 알았으며 먹어도 속탈이 나지 않고 물이 켜지 않는 훌륭한 도중식사를 마련하는데 익숙되여있었다. 그들이 전사들을 재워놓고 중대부가 자리잡은 밤나무그늘밑에 모여앉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있을 때 한편 소대에서는 전사들이 자다말고 일어나서 기쁨에 넘쳐 떠들썩거리고있었다. 김봉수가 전사들에게 행군을 앞두고 무조건 자야 된다고 그렇듯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떠들어댄것은 10여일전에 병원으로 후송되여갔던 1분대장 강호범과 리종활전사가 예고도 없이 뜻밖에 불쑥 나타났기때문이였다. 비록 잠시나마 그리운 전우들과 갈라졌다가 다시 중대로 돌

아온 두사람의 기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를 맞이한 중대 전사들의 심정도 그와 못지않았다. 특히 분대장을 병원으로 떠나보내놓고 허전하고 소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1분대전사들의 기쁨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강호범과 리종활이 골짜기의 나무그늘밑에서 깊이 잠들고있는 전우들의 곁에 나타나고있을 때 맨먼저 그를 발견한것은 분대의 막내동생으로 치부되고있는 장문학이였다. 그는 고중을 다니다 전선을 탄원해나왔기때문에 아는것이 많았다. 그러나 감상적인 학생기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또한 수염대신 아직 코밑에 솜털이 보시시한 올해 열여덟살의 청년이라는 점에서 분대의 막내동생 대접을 받았다.

장문학은 잠이 오지 않아 잠자는 동무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에 나앉아 참대에 구멍을 뚫고있었다. 그는 어렸을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고 학교관악단 성원이기도 하였었다. 군대에 입대한후에 그는 중대오락회때마다 악기반주 하나 없이 노래를 부르군하는것을 못내 서운해하였다. 그러던 그는 어제 난생처음으로 우거진 대나무숲을 바라보다가 그것으로 간단한 휴대용관악기를 만들어보고싶은 유혹을 느꼈었다. 그리하여 혼자 일어나앉아 참대에다 구멍을 뚫고있었는데 뜻밖에도 병원으로 떠나갔던 두사람이 그앞에 불쑥 나타난것이였다.

《분대장동무! 이게 웬일입니까? 종활아바이도 함께 오셨군요.》

장문학은 너무도 반가운김에 곁에서 모두 잠들을 자고있는것조차 잊어버리고 큰소리를 쳤다. 그바람에 잠귀밝은 한택수가 《뭐야?!》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였고 그 곁에 누웠던 김영준전사가 놀라서 깨여났다. 김영준은 잠에서 깨여나서 선잠을 깨였을 때 흔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불쾌한 기분으로 못마땅하게 한택수를 쏘아보았다. 김영준과 한택수는 눈만 뜨면 성난 수닭처럼 맞붙군하였다. 그

것은 한택수로 말하면 어느 제철소의 용해공으로 일하던 강철로동자출신으로서 원래 성미가 급하고 작은 일에도 격하기 잘하고 무슨 일이건 속에 두지 않고 툭툭 내쏘는 성미인데다가 평안도의 어느 산골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김영준은 또한 성미가 꽁하고 잔소리가 많고 무슨 일이건 투덜거리기 좋아하는 성미였다.

두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성미가 대조되는 모순이 있는데다가 또한 공통적인 하나의 벽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두사람 다 제각기 견지하고있는 사업과 생활에서의 독자성이였다. 그들은 행군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지어는 밥을 먹고 잠자리 하나를 보는데서도 제각기 자기나름의 습관과 자기류의 견해와 신조를 가지고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건 자기 견해대로 하고 자기 습관, 자기 식대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남의 간섭이나 개입은 다같이 싫어하였다. 이와 같이 두사람이 견지하고있는 자립성과 독자성으로 하여 그들은 하잘것 없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종종 의견이 대립되였으며 서로 양보할줄 모르는 외고집들로 하여 모순이 격화되군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분대의 익살군으로 또한 《2원론 철학가》로 알려져있는 리종활아바이가 사이에 끼여들어 그들 두사람의 악의없는 론쟁을 판결하군하였다. 그런 경우 리종활아바이는 하나의 원칙성도 없이 두사람의 립장을 다같이 변호하기도 하고 다같이 비판하기도 하면서 대체로 우스개로 끝을 맺아주는것이 보통이여서 장문학이 그에게 《2원론 철학가》의 칭호를 붙인것이였다.

한택수가 일어나는 서슬에 발길에 채여 놀라 잠을 깬 김영준은 처음에는 못마땅해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자기도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키며 《분대장동무!》하고 환성을 올렸다.

김영준의 뒤를 이어 분대의 좌상으로 입대전에 인민학교 교원이였던 부분대장이자 소대초급선동원인 라명훈

과 그리고 또 나머지 전사들이 잠을 깼다. 이리하여 강호범분대장과 리종활전사는 순식간에 거의 모든 분대원들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떠들썩하게 안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 북새판에서 오직 한사람만이 세상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있었는데 그것은 몸집이 억대우같은 전사 림태복이였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고 늘어지고 만사에 무사태평한 사람이였다. 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깊이 잠들수 있는 능력이였다. 그에게는 모기나 빈대가 매달리는것쯤은 전혀 문제로도 되지 않았으며 축축한 맨땅우에서건 달리는 자동차적재함우에서건 머리우에서 비행기가 돌아치건 포탄이 꽝꽝 터지건 상관없이 일단 눈을 붙이려고 드러누우면 아무데서나 코를 골며 깊이 잠들수 있었다.

《허, 이 림서방 보게. 여전히 무사태평일세그려.》

리종활은 깨여일어난 분대동무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악수를 나누고나서 코를 드르렁거리고있는 림태복을 발견하고 한마디 던졌다.

그러자 곁에 있던 김영준이가

《원 사람두… 잠도 분수가 있어야지 눈만 붙이면 그저 등신이라니까. 쯔! 쯔!》하고 못마땅하다는듯이 혀를 찼다.

《등신이고 뭐고 저놈의 코소리에 잠잘수 있어야지. 곁에서 들으면 딱 비행기소리 같다니까. 저 코고는 버릇을 떼놔야지 그대로 둬선 안된다니까.》

한택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아까 그의 곁에 누웠다가 잠들지 못하던 일이 부아가 나서 림태복의 넙적다리를 힘껏 꼬집어뗐다. 그러자 림태복은 잠시 코고는 소리를 멈추고 마치 벼룩이에게나 물린듯이 잠결에 넙적다리를 긁적거리고나서 다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바람에 그의 동정을 살피던 동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깨우지 말고 놔두게. 몹시 피곤한것 같소.》

강호범은 이렇게 말하면서 둘러앉은 자기 분대원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진한 눈섭밑으로 움푹 꺼져들어간 그의 두눈은 글썽글썽 눈물이 어려있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동무들을 보고 감격한 나머지 하마트면 대장부답지 않게 눈물을 보일번하였다. 기실 분대를 떠난 요 며칠사이처럼 그는 절절하게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체험해본적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듯 전우들을 류달리 그리워하는것은 어릴적부터 집을 떠나 외롭게 살아온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떠난지 열흘도 채 못되여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말입니다.》

부분대장 라명훈이 미처 생각못했던 일에 새삼스럽게 주의가 미쳐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러자 강호범은 대답대신에 빙그레 웃어가며 의미있게 리종활을 바라보았다.

리종활은 때를 놓치지 않고 능청스럽게 눈을 끔벅거리며 입을 열었다.

《여보게, 말도 말게, 병원이란 어떤곳인줄 아나?… 일하기 싫은놈들을 잡아다가 한번씩 책벌을 주는곳이야. 사람이 일하지 않고 누워지내는것처럼 힘든 일은 없네. 하루가 지나니 벌써 손끝이 근질근질해나고 이틀이 되니 발바닥에 솜털이 자라나고 사흘만에는 이렇게 머리까지 희였다니까.》

리종활은 정말 자기 머리에 섞여있는 몇오리 흰 머리칼을 손으로 가리켜보이기까지 하였다.

모두 싱글싱글 웃어가며 그의 변함없는 익살과 대포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병원측에 제기하여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네.》

리종활은 시치미를 떼고 병원생활을 과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된것은 전적으로 병원생활이 무료하고 따분한데 기인한것처럼 꾸며대였다. 그러면서 그

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해 락동강으로, 부산으로 내달리고있는 전우들과 함께 자기들도 미군놈들을 통쾌하게 족치려고 후송도중에 간호원을 얼려넘기고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동무들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쩐지 쑥스러웠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동무들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너나없이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분대원들은 싱글벙글 웃어가며 말없이 리종활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는데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악의없는 거짓말을 용서할 때에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관대성이 어려있었다. 이때 오직 한사람, 장문학이만은 두팔로 무릎을 세워안고 마치 옛말을 듣는 아이들처럼 눈도 까딱하지 않고 리종활의 말을 듣고앉았다가

《아바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기하면 아무때나 돌려보내주는가요?》 하고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야 물론이지.》

리종활이 대답하면서 두눈을 능청스럽게 끔벅거리는 바람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원 사람두… 말을 좀 새겨들을줄 알아야지.》

곁에 섰던 김영준이 문학이를 보고 답답하다는듯이 혀를 찼는데 그의 태도에는 어른이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사람을 대할 때에 나타내는 그런 년장자의 우월감이 로골적으로 나타나있었다.

《그 얘기는 차츰 하기로 하고 우선 중대장동무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옵시다.》

강호범분대장이 리종활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중대부로 막 떠나려는참에 마침 김봉수가 덜썩덜썩 나타났다. 그는 방금 중대부에서 토의를 끝마치고 분대를 돌아보는길이였다.

《호범동무! 이게 어찌된 일이요? 종활동무도 돌아왔군그래.》

김봉수는 놀라운 얼굴로 그들앞으로 걸어왔다.

《됐네, 됐어. 됐어!》

그는 보고를 하려고 서두르는 두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자, 앉소. 모두 앉으라구.》

그는 둘러서있는 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나서 자신도 그들속에 끼여앉았다.

며칠전에 련대군의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두사람을 병원으로 떠나보내놓고 한동안 허전한 마음으로 지내오던 김봉수는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걸 보니 거의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강호범과 리종활의 심정도 역시 같은것이였다. 여전히 변함없이 뜨거운 정이 넘쳐흐르는 중대장의 정다운 태도앞에서 두사람은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였다. 중대장과 두 전사는 서로 얼굴을 마주쳐다보았는데 세사람의 눈에는 한결같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글썽거리고있었다.

《상처가 좀 어떤가?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돌아왔나?》

김봉수가 물었다. 강호범은 물론이거니와 중대에서 익살과 우스개군으로 이름난 리종활도 김봉수앞에서는 언제나 성실하게 진담을 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강호범은 중대장앞에서 자기들이 되돌아오게 된 경과를 꾸밈없이 보고하였다. 그가 말을 다 끝내고나서 중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김봉수는 입가에 미소를 띄운채 이마살을 찌프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기쁨과 근심이 한데 어울린 복잡한 표정을 지은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거 야단났군. 어떻게 한다?》하고 근심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두눈은 여전히 웃고있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동무들이 중대로 돌아오니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그런데 일이 참 딱하게 됐소. 오늘저녁에 행군이 있는데 그게 이만저만한 강행군이 아니요. 그러니 어떻

게 한다?》
김봉수는 말을 끊고 묻는듯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없습니다. 근심마십시오.》
강호범은 그런 일쯤은 애당초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는듯이 태연한 얼굴로 말을 했다.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걷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빨리 걷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따라갈수 있습니다.》
《중대장동무,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짐은 되지 않겠습니다.》
곁에 있던 리종활이 아까와는 달리 겸허한 태도로 말하였다.
《안야, 문제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선 안되네.》
김봉수는 오늘저녁의 행군이 여느때와는 달리 적구종심을 뚫고 들어가며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적아간의 혼전이 벌어질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행군과정에 절대로 락오자를 내서는 안되며 강행군에 자신이 없는 성원들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던 깔끔한 대대장의 말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마음이 어질고 약한 그는 투쟁대오에서 떨어지고싶지 않아 되돌아온 그들을 차마 박정하게 굴수 없어 어떻게든 잘 납득할수 있게 설복하여 돌려보내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번 행군과 전투임무로부터 오는 딱한 실정을 설명하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 잘들 생각해보게. 상처도 완전히 치료하는겸, 아무래도 병원으로 돌아가는것이 좋을것 같네. 그러나 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지. 그저 상처가 아물거든 이내 돌아오게나. 그때 가면 사정이 달라질테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강호범과 리종활의 얼굴에는 약간 당황해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말씀하는 의도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야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

떻게 해서라도 행군에는 지장없도록 하겠으니 돌려보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강호범은 진정어린 태도로 이렇게 말하였는데 빛나는 그의 커다란 두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분대원들중에서 한택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지! 우리 전체 분대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달라붙어 두사람을 업고가는 한이 있어도 행군에는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택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마치 동의라도 구하려는듯이 분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옳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전체 분대원들이 책임지겠으니 절대로 근심마십시오.》
김영준이 앞으로 나앉으며 말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분대원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총과 배낭은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저는 업고라도 갈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부상병들을 들것에 싣고 100리길을 걸어본적도 있습니다.》
《그까짓거, 정 힘들면 어데 가서 말이라도 한필 구해오지요.》
《어쨌든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돌려보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겨끔내기로 한마디씩 하였다.
그들의 한결같은 제의앞에서 김봉수는 그만 허허 웃고말았다.
《이거 참, 야단났군…》
그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고 난처하다는듯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는 둘러앉은 전사들에게 힘을 주고 활기를 띠게 하였다. 그것은 이쯤되면 마음이 어질고 인정에 무른 중대장의 결심을 능히 돌려세울수 있다고 저마다 확신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대대장 최경민과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이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저녁행군준비상태를 료해하기 위해 중대에 내려왔다가 우연하게 그들과 맞다들린것이였다. 전혀 예견치 않았던 대대장의 출현은 중대장 김봉수를 포함한 그들모두를 당황하게 하였다.

김봉수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서투르게 보고를 시작하였다. 대대장 최경민은 그의 보고를 다 받고나서 몸을 바로잡고 서있는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어째서 동무들을 재우지 않소?》

최경민은 대뜸 중대장에게 물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취침중에 있습니다. 이 동무들은 병원에 갔던 두 동무가 방금 돌아왔기때문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대대장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다. 최경민은 그제사 전사들속에 섞여있는 두 부상병에게 주의가 미쳤다. 날카로운 그의 눈길은 어느새 그들의 견장과 부상처를 일별하였다.

(이 동무들이 바로 련대군의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동무들이였구나!)

《동무들은 어느 병원에 갔었소?》

그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두 동무는 동시에 몸을 바로잡았다.

《사단군의소까지 갔댔습니다.》

강호범이 대답하였다. 그는 가긴 갔었으나 실은 입원은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된 사연을 더 첨부하고싶으면서도 공연히 낯선 대대장앞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여 그만두었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곁에서 말없이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들은 문화부대대장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들의 내막을 다 짐작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부대대장에 대해서는 마음놓을수 있었다. 그앞

에서는 언제나 속을 다 털어놓고 상론도 하고 떼질도 하고 응석도 부릴수 있는 그들이였다.

《상처는 다 아물었소?》

대대장이 재차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대장동지!》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힘찬 목소리로 동시에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입니다.)하고 자랑이나 하려는듯이 뒤로 자빠질만치 몸을 꼿꼿이 바로잡았다.

그러자 최경민은 그들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상처를 좀 봅시다.》

두사람의 얼굴에는 약간 당황해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그러나 리종활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지혜와 기지로 궁지에서 벗어날줄 아는 그였다.

《대대장동지! 한가지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리종활은 최경민에게 발언을 허락받고나서 말했다. 《군의소에서 미리 주의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부로 붕대를 풀지 말라는 군의동무의 당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곁에 서있는 동무들을 슬쩍 곁눈질하였다. 그것은 이런 신호였다.

(여보게들, 똑똑히 보라구.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대대장동무도 감히 내앞에서는 어쩌는수 없다는것을 기억해두라구.)

그러나 리종활은 자기의 이 잔꾀가 전혀 통하지 않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좋소. 그럼 동무의 퇴원증을 봅시다.》

최경민은 시치미를 떼고 말하였다. 대대장의 이 말은 두사람을 빠져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리종활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한바탕 기침을 깇고나서 병원으로 떠났다가 되돌아오게 된 경과를 하는수없이 실토하였다.

최경민은 그의 말을 다 듣고나서 더 묻지 않고 김봉수를 향해 돌아섰다.

《이 동무들을 병원으로 곧 돌려보내시오.》

《들었습니다.》

김봉수는 몸을 바로잡고 대답은 하였으나 락심한 나머지 거의 울상이 되여버린 두 부상병의 얼굴과 시선이 마주치자 자기자신도 어느덧 침울해졌다.

《한가지 제기해도 좋습니까?》

강호범은 대대장에게 사정해보려고 말을 걸었다.

《제기할수 없소.》

최경민은 칼로 베듯이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돌아서버렸다.

아까부터 말없이 싱글싱글 웃고만 있던 김성태도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춤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문화부대대장동지!》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부르며 김성태의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이 순간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오직 문화부대대장 한사람밖에 없다는것을 일치하게 느꼈기때문이였다.

김성태의 얼굴에는 아까부터 짓고있던 호인다운 그 미소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실망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글썽해진 두 전사의 얼굴과 부딪치자 그의 낯빛도 약간 흐려졌다.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던것이다.

김성태는 오늘저녁 제기된 간고한 전투임무로부터 오는 불가피한 실정을 들어가며 그들을 설복하기 시작하였다.

10

강호범과 리종활은 골짜기를 벗어나자 늙은 소나무 두 그루가 우산처럼 가지를 펴고섰는 그늘밑에 가서 덜썩 주저앉았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지고 온종일 지긋지긋하게 내리쪼이던 해볕은 물러갔으나 찌는듯한 더위는 여전하였다. 어데선가 가까운곳에서 쓰르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쓰르럼…쓰르럼… 처량하게 목청을 돋구는 쓰르라미의 울음소리는 짙어가는 저녁노을의 음영속에서 더한층 구슬프게 울려왔다. 두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어느 한쪽도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리종활은 깍지낀 두손을 머리에 받치고 드러누워 넘어가는 저녁해를 바라보고있었으며 강호범은 강호범대로 이마살을 찌프린채 쓰르라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일이 더럽게 됐군.》

무엇인가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강호범이 혼자말처럼 투덜거렸다.

그러자 곁에 누웠던 리종활이 《허참!》 하고 한탄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분대장동무! 이왕 일이 삐뚤어진걸 자꾸 생각해선 뭘하겠습니까. 어서 떠납시다. 날도 저물어가는데…》

리종활은 이미 쑤어논 죽이 밥이 되랴 하는 생각으로 대범하게 이렇게 말하고나서 강호범의 얼굴빛을 살폈다. 그러나 강호범은 입을 다문채 대답이 없었는데 보매 그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두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호범은 아까부터 쓰르라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에 팔려있었다. 석

양비낀 고요한 골짜기의 정적을 흔들며 신명이 나게 목청을 돋구고있는 구성진 쓰르라미의 울음소리는 어느덧 그로 하여금 강변의 흰 백사장을 벌거벗고 뛰여다니던 어린시절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그의 어린시절은 이 나라 령남벌의 어머니 젖줄기 7백리 락동강의 푸른 물결과 함께 흘러갔다. 그의 고향은 락동강 백사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너머로 멀리 금오산의 푸른 산발이 우련히 바라보이는 풍치좋은 고장이였다. 농사도 잘되였다. 한해에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였으며 콩,팥,삼,목화를 많이 심었다.

땅이 좋고 기후가 온화하기때문에 씨를 묻기만 하면 무엇이건 안되는 곡식이 없었으며 낟알뿐만아니라 감,수박,참외,배,사과… 과실도 없는것이 없었다. 여름이면 동네아이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올적마다 락동강 모래판에 나무지게를 세워놓고 씨름판을 벌리기도 하고 강물에 뛰여들어 미역을 감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남의 집 참외밭에 몰켜가서 참외를 따먹고 나무우에 기여올라가서 매미를 잡았다. 강호범은 그때 매미를 잡는데 남다른 재간이 있었다. 그가 살던 고장의 매미는 여간만 눈치가 빠르지 않았다. 두눈이 개구리처럼 툭 삐여져나온 참매미는 그래도 가끔 잡을수 있었으나 쓰르라미만은 여간만 잡기 힘들지 않았다.

한번은 쓰르라미를 잡으러 아득히 높은 뽀뿌라나무끝까지 살금살금 기여올라갔다가 아버지한테 들켜 저녁에 단단히 꾸중을 들었다. 뽀뿌라나무꼭대기에는 사마귀가 많은데 사마귀가 눈에다 오줌을 싸면 눈이 머니 다시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타이르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눈앞에는 입이고 옷이고 온통 퍼렇게 오디칠을 해가지고 역삼내 풍기는 감나무밑에서 숨박곡질을 하던 어린시절이,허수아비를 콩밭에다 세워놓고 양철통을 두드리며 《진주새야,나박새야,우여!》하고 소리치던 옛일이 자꾸 되살아났다.

락동강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뽀뿌라나무며 우차바퀴 자국이 깊숙이 패인 동네길, 물동이만한 커다란 박이 올라앉았던 고삭은 초가지붕, 해뜨기전에 대숲에 날아들어 지저귀던 참새떼, 뒤뜰에서 들려오던 연자방아소리… 이 모든것들이 되살아난다.

그는 아홉살때부터 민대감네 꼴머슴으로 들어갔다. 민대감은 리조때부터 벼슬을 하던 량반가문의 자손으로서 동네에서는 물론 고을에서도 으뜸가는 부자였다. 뿐만아니라 그의 맏아들은 어느 군의 군수를 지냈으며 둘째아들은 왜놈군대 장교였다.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던 둘째아들놈이 일본군복을 입고 긴 군도를 차고 마을에 나타난 후부터 민대감네 권세는 더욱 어마어마해졌다. 길가에서 민대감을 만나면 마을사람들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비켜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왜놈경찰들도 민대감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민대감의 집에는 머슴만 하여도 10여명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대를 이어가며 머슴살이를 하는 종도 있었다.

그는 머슴군들을 세층으로 나누어 부렸다. 상머슴은 힘꼴이나 쓰는 장정로력을 골라썼는데 그들에게는 먹여주고 가을에 가서 사경으로 쌀 두섬씩을 주었고 중머슴에게는 쌀 한섬을 주었다. 중머슴은 대체로 늙었거나 일을 해도 그리 맥을 못추는 어른머슴들이였다. 세번째층에 속하는 머슴은 대체 꼴머슴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녀종들이였다. 꼴머슴은 주로 나이 어린 미성년로력이였다. 그리고 녀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시켰다. 그들에게는 가을에 가서 옷 한벌이 차례졌다. 머슴들의 밥은 주로 보리밥이 아니면 누런 조밥을 주었다. 민대감은 머슴들에게 이밥을 먹이기가 아까와서 추수가 끝나면 입쌀을 가지고 고을에 나가 잡곡을 바꿔다가 쌓아두고 머슴들과 집짐승들을 먹였다.

강호범이 철도 채 들기전부터 민대감네 집 머슴살이

를 시작하게 된것은 아버지가 민대감의 소작지를 얻어부치다가 가물과 홍수피해까지 입어 많은 빚을 걸머지고 나앉았기때문이였다. 이고장에서는 해마다 홍수와 가물이 농군들을 괴롭혔다. 하긴 홍수나 가물의 피해가 없이 농사가 제대로 잘되여도 농군들의 생활은 별반 다를바가 없었다. 그것은 지주들의 착취가 너무 가혹했기때문이였다. 이고장 지주들은 소작료로 보리는 안받고 그것을 가을에 가서 벼로 환산해 받았다. 때문에 보통 1년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면 벼의 7할을 지주들에게 바치게 되고 나머지 3할이 소작인들에게 차례졌다. 때문에 농민들은 정월달이 되면 벌써 식량이 떨어져서 5~6월달에 햇보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 춘궁기를 그들은 보리고개라고 불렀다. 이때는 거의 모든 농민들이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겨다 먹고 살아야만 했다. 강에 가서 모시조개, 까막조개를 주어다 먹기도 하고 맹아지, 비름, 송기… 못먹는 풀이 없고 이름없는 나무껍질이 없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다가 햇보리가 여물어가면 채 익기도전에 푸렁보리를 베여다가 질척질척한 떡보리밥을 해먹었다.

오래동안 민대감네 소작지에 목숨을 걸고 매해 가물과 홍수와 보리고개에 시달리던 강호범의 아버지는 살일을 궁리하다못해 어느날 뜨락에다 풍구를 걸어놓고 자진하여 이웃집의 호미며 낫을 벼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호범의 나이 여덟살때 일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마을의 대장쟁이가 되였다.

강호범의 아버지는 맏아들을 숯구이로 산에 보내고 어린 호범을 민대감네 집 꼴머슴으로 들여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다만 끼니를 건느지 말고 세때 밥이나 먹이고싶은 안타까운 그 한가지 마음에서였다. 이리하여 강호범은 집에서 밥투정을 해야 될 아홉살나이때부터 꼴망태를 걸머지고 락동강백사장을 오르내리며 고달픈 인생의 첫걸음을 내짚었다.

대감님 밥상엔 옥백미 오르는데
이내야 가슴에는 설음만 차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인생의 험한 고개 날 넘겨주소

저녁이면 민대감네 집 머슴들이 가물거리는 석유등잔 불밑에 모여앉아 짚신을 삼아가며 이런 노래를 조용조용 불렀다. 강호범은 어른들 틈에 끼여앉아 구슬픈 그 신세타령을 따라 불렀다. 그것은 강호범이 세상에 태여나서 배운 첫 노래였다. 그는 열여덟살 잡히는 해 북쪽의 어느 탄광으로 강제징용에 끌려나갈 때까지 10년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고스란히 민대감을 위해서 일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였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분한것은 그가 민대감의 눈에 거슬리게 되여 징용에 끌려가게 되던 때의 일이다.

민대감네 집에는 3대째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를 하던 서로인이 외딸 이쁜이를 데리고 행랑방에서 살고있었다. 강호범과 이쁜이는 나이가 동갑인데다가 한지붕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니 자연 인연이 깊었다. 그들은 철부지시절엔 서로 의가 맞지 않았었다. 이쁜이는 호범이가 심술이 많은데다가 자주 주먹질을 하고 호범은 이쁜이가 큰일,작은일 할것없이 모두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바친다고 종종 싸웠으나 차츰 나이들고 철이 들면서부터 그들은 다같이 주인한테서 천대받는 서러운 처지로 하여 여간만 다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쁜이가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날 자리에 눕게 된 일이 있었다. 대감댁 몸종으로 사는 신세에 약 한첩 써볼리 만무하였다. 호범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날 밤 강호범은 대감집 안채에서 모두 잠들자 뜨락에 나섰다. 며칠째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앓아누워있는 이쁜이에게 감이라도 몇알 따서 익혀두었다가 주자는 심

산에서였다. 민대감네 넓은 뒤뜰에는 복숭아, 포도, 배, 감 등의 철따라 먹을수 있는 여러가지 과실나무들이 있었다. 머슴들에게 해마다 두엄을 주게 하고 전지를 시키고 벌레를 잡게 하고 별의별것을 다 시키면서도 가을에 가서 포도 한알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민대감이였다. 강호범은 민대감이 제일 아끼는 조홍나무로 기여올라갔다. 그 감나무는 민대감이 직접 접을 하고 수종을 개량한것이였는데 감맛이 꿀같다고 그가 늘 자랑하고 애지중지 아끼는 나무였다. 그는 매해 추석, 제사때 이 감나무에서 딴 숫감을 제상에 놓군하였다. 그래서 제집식구들도 이 감나무에서 제사에 쓸 숫감을 따기전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호범은 나무에 올라가자 제일 잘 익은것을 고르기 시작했다. 대낮처럼 달밝은 밤이였으나 호범은 쉽게 감을 골라잡을수 없었다. 그가 감을 몇알 따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참이였다. 난데없이 담장우에서 《도적이야！》하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강호범은 깜짝 놀라 나무에서 뛰여내렸다. 후에 안 일이지만 민대감에게는 호범이보다 나이 몇살 우인 막내아들녀석이 있었다. 그는 서울에 가서 학교에 다니다가 주색에 빠져 학교도 영 걷어치우고 집에 와서 번들거렸다. 그가 집에 와서 하는 짓이란 처녀건 남의 집 유부녀건 술집계집이건 가리지 않고 동네녀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는 일과 멀리 고을에까지 놀음판을 찾아다니는 일이였다. 민대감은 그를 타일러도 보고 두들겨패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으나 막내아들놈의 그 몹쓸 버릇만은 고쳐줄수 없었다. 그는 속을 썩이다못해 하인들을 시켜 저녁마다 대문을 닫아걸게 하고 그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올라치면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막내아들녀석이 무슨 난봉을 피우다 오는길인지 자기 집 담장을 넘어들어오다가 감나무에서 얼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한것이였다.

《도적이야！》하는 소리에 강호범은 질겁을 하여 나

무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들구뛰여 감을 외양간 풀무지속에 감추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척하였다. 마당에서는 도적소리에 놀란 민대감네 일족이 안방, 건너방, 사랑방 할것없이 모두 떨쳐일어나 소동을 일으켰다.

(이놈들, 엿먹어라.) 강호범은 속이 켕기지 않는것은 아니였으나 그래도 배포유하게 드르렁드르렁 빈 코를 골며 헛물을 켜고 돌아가는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 그러나 강호범자신이 어찌나 당황했던지 나무에서 뛰여내려 몸을 피할때 나무밑에 벗어두었던 짚신을 미처 건사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다.

이튿날 아침 민대감은 강호범의 두손을 뒤로 묶어 대청마루밑에 꿇어앉혔다. 그리고 마름을 시켜 곤장을 치게 하였다.

《너 이놈, 하늘소발통에다 못을 박아논 일도 있지, 이놈!》 민대감은 입에다 장죽을 꼬나물고 앉아 무릎을 구르며 호통을 쳤다. 《또 쳐라! 쳐!》

그럴 때마다 곤장이 사정없이 호범의 볼기를 내리쳤다. 이 소식을 듣고 강호범의 아버지가 달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대장간에서 쓰던 쇠망치가 쥐여져있었다. 평소에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하고 샌님처럼 지내온 그였으나 일단 욱하고 성이 날라치면 황소처럼 걷잡을수 없는 성미였다. 그는 쇠망치로 민대감네 대문을 마스고 안으로 달려들어 이놈치고 저놈받고 닥치는대로 후려갈기며 범처럼 펄펄 뛰였다.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이 이 하치않은 감사건을 계기로 폭발한것이였다. 아무도 근접할수 없는 사나운 이 기세에 놀라 민대감은 안방으로 쫓겨들어가고 얕보고 달려들던 그의 아들놈은 대뜰우에 나가너부러져 사람살리라고 아우성쳤다. 그리하여 한평생 대청마루에 도사리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민대감네 집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고말았다. 동네안에는 말할것도 없고 린근 읍에까지 이 소문이 퍼져 민대감은 한동안 머리를 들

고 다니지 못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하여 강호범의 집에 미친 후과는 자못 컸다. 이튿날 군경찰서에서는 강호범의 부자를 잡아들여다 열흘동안이나 고문과 문초를 계속하다가 강호범의 아버지가 반죽음이 되자 민대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밑에 석방하고 강호범은 그자리에서 북쪽의 어느 탄광으로 강제징용을 당하게 되였다. 강호범은 징용으로 끌려갔던 탄광마을에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 호범은 열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있었다. 막장에서 같이 일하던 한 아바이의 지극한 간병이 없었더라면 그는 의지가지없는 객지에서 하마트면 다시 소생하지 못할 신세가 될번하였다. 그가 중태에서 벗어나 다시 땅을 밟고 걸을수 있게 되였을 때는 광복된 이 땅우에 새 질서가 잡히고 천대받던 어제날의 탄부들이 주인이 되여 나라에 보낼 첫 탄을 캐내기 시작할 때였다.

모든것이 달라졌다. 사람도 생활도 일도… 모든것이. 강호범은 자기도모르게 하루 또 하루 벅찬 새생활의 흐름속에 걷잡을수없이 끌려들어갔다. 광복된 조국땅에서 그가 보낸 나날은 실로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찬 나날이였다.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으로 삶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라는것을 알게 된 나날이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북반부에서처럼 고향마을사람들도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용약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러니 그는 집을 떠난후의 고향소식을 전혀 알길이 없다. 경찰서에서 운신을 못해 우차에 실려나간 아버지는 그후 어떻게 되였으며 징용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보겠다고 울며 군에까지 달려나왔던 어머니며 형님은 어떻게 되였는지? 그리고 민대감집에서 같이 고생하던 서로인이며 이쁜이의 신세는 그후 어떻게 되였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그러다가 그는 지난번 《ㅅ》시 해방전투때 뜻밖에도 민대감의 아들 민병일의 소식을 알게 되였다. 그때

《ㅅ》시에는 놈들이 정치범을 수감했던 형무소가 있었는데 괴뢰군 한개 련대가 퇴각하다가 이 감옥에 들려 미군놈들의 지시밑에 감금되였던 수많은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악랄한 대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한걸음 뒤늦게 도착한 인민군대전투원들은 형무소문을 열고 그 몸서리치는 광경을 차마 바라볼수 없을 정도였다. 놈들은 철창안에다 대고 마구 기관총을 휘둘러댔던것이였다. 전투원들은 원쑤들의 이 치떨리는 만행앞에서 저마다 이를 갈고 주먹을 부르쥐였다. 이때 강호범은 살아남았던 애국자들로부터 이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놈들이 바로 민병일이라는 련대장놈이 지휘한 악질적인 괴뢰군부대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강호범은 처음에 그 련대장놈의 이름이 신통히 민대감의 아들놈의 이름과 같았으므로 반신반의하면서 그의 나이며 생김생김을 캐여물었다. 그러나 그놈이 틀림없었다. 강호범은 미군놈을 등에 업고 못하는 짓이 없는 그 원쑤놈을 놓쳐버린 일이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제놈이 뛰면 어데로 뛰겠는가. 어느때건 한번 맞다들릴 때가 있을것이였다. 그가 병원으로 후송도중 중대로 되돌아오게 된것도 한시바삐 그놈을 쫓아가서 잡아치우고 고향마을을 해방시키고싶은 절절한 소원때문이였다. 그런데 병원으로 다시 쫓겨들어가게 된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차라리 걷다가 죽는한이 있어도 고향땅 락동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후방으로 들어갈수 있겠는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처량한 쓰르라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윽히 회상에 잠겼던 강호범은 벌떡 일어나앉으며 리종활에게 말했다.

《종활동무! 수고스러운대로 분대동무들한테 갔다오는것이 좋겠소.》

리종활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가서 저녁식사와 행군도중식사를 마련해가지고 오란말이요. 대대장이나 중대장동무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

럽게말이요. 하긴 중대장동무한테는 들켜도 별일 없지만 공연히 근심시킬 필요가 없소. 그러니 분대동무들한테만 일러주오. 뒤에서 행군대렬을 슬그머니 따라갈테니 그리 알고 행군도중식사를 좀 보장해달라고말이요.》

리종활은 그제사 그의 의도를 리해할수 있었다. 리종활은 딱하다는듯이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종활은 강호범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모한데가 없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로 아까 문화부대대장동무가 말하다싶이 오늘저녁 행군은 정말 적구를 뚫고 들어갈 모양인데 만약 부대의 뒤를 따라가다가 대오를 잃어버리기나 하면 적구에서 공연히 사고가 날수 있을뿐아니라 둘째로 그가 보기에도 분대장의 부상처로 보아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것은 우려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강호범은 뒤잔등에 파편상을 입었었다.

그래서 그새 강호범은 배낭을 질수 없었기때문에 리종활이 그의 배낭을 한데 지고 다녔다. 하긴 그까짓 배낭을 한데 지고 다니는것쯤은 별문제 아니지만 행군을 과로하게 하고난 저녁이면 강호범이 밤에 신음소리를 내며 앓군하는것을 한두번만 목격하지 않았었다.

《내 생각같아서는…》

리종활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계속했다. 《상급의 지시대로 일단 병원으로 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에서도 다 생각하는바가 있어 시키는 일인데 공연히 무리를 하다가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긴 내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분대장동무야 그 몸을 가지고…》

그는 말을 계속하려다가 못마땅하게 상을 찡그리는 강호범을 보자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삼켜버렸다.

《그런 소리가 내겐 싫단말이요. 그런 소리가말이요.》

그는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안타까운듯 숨을 씨근거렸다.

《우리는 지금 락동강을 눈앞에 두고 진격을 다그치고있소. 말하자면 조국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바로 이런 겨…

겨… 결정적순간에 있단말이요.》
그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결정적이란 말을 몹시 힘들게 하였다. 리종활은 그것이 우습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해왔다. 그는 전선을 향해 집을 떠날 때 죽기 전에 부산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을 담아 당부하던 이웃에 사는 경상도집 할아버지의 얼굴이며 성대한 역두환송식에서 앞으로는 제주도의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백두산으로 스키를 타러 오고 북반부의 학생들은 경치좋은 다도해로 해수욕을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 학생대표의 토론이 되살아나는것이였다. 그것이 어찌 고향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소원이며 그들만의 당부이겠는가? 그것은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부탁이다.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3천만겨레들의 절절한 이 숙망을 풀기 위해 부대는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을 족치며 락동강으로, 부산으로 내달리고있다. 이 준엄한 시각에 민족의 넋과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치고 어찌 자기 몸을 아끼고 성스러운 이 싸움터에서 물러설수 있단말인가?
리종활은 분대장의 노여움이 마땅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리종활은 말없이 헤쳐놓았던 단추를 채우고 복장을 바로잡은 다음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갔다오겠습니다.》
그는 분대장을 향해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11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사위는 어둠속에 묻히기 시작하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들어와서 대대의 출발준비가 끝났다는것을 대대장에게 알렸다.
《좋습니다. 떠나도록 합시다.》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혁띠를 졸라매고 군화끈을 동여맨 다음 야전가방을 둘러메고 밖으로 나섰다. 그러자 미리 준비를 갖추고있던 대대지휘부성원들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대대는 구분대별로 골짜기에 대렬을 짓고 서서 출발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어둑어둑 골짜기에 어둠이 깃들었기때문에 군관들이나 전하사들이나 할것없이 어렴풋이 몇개의 검은 덩어리로 바라보였다.

경민은 출발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자 골짜기 여기저기서 지휘관들의 구령소리가 일어나더니 선두대렬이 앞으로 움직이는것이 바라보였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른 한 대렬이 그뒤를 따라 움직였고 또 다음 대렬이 그 뒤를 따라나섰다.

그때마다 조용하던 골안은 저벅거리는 발걸음소리며 물건들이 맞부딪치는 소리, 초급지휘관들의 구령소리로 활기를 띠였다. 대대는 이렇게 련결장치를 절커덩거리며 긴 화물차들을 끌고 앞으로 움직이는 기관차처럼 서서히 골짜기를 빠져 흐르기 시작했다.

배낭을 지고 박격포며 중기를 걸머진 전사들이 줄을 지어 최경민의 앞을 지나갔다. 대대지휘부성원들은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선 대렬 한복판에 끼여들어갔다. 그들은 발밑에서 사각사각 모래가 짓밟히는 골짜기의 시내바닥을 걸어나갔다.

경민은 자기 뒤를 따르고있는 련락병을 돌아다보기도 하고 길역으로 한걸음 나서서 선두대렬의 행방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는 낮에 잠시도 눈을 붙여보지 못했으나 순조롭게 예정한 출발시간에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있는 행군대오를 바라보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고 몸에서 새힘이 솟아나는것을 느꼈다. 대렬의 움직임은 활기를 띠고있으며 전사들의 걸음걸이에서는 넘쳐나는 원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충분한 휴식의 보람이였다.

그러나 행군대렬은 골짜기를 벗어나자 한동안 꾸물거리며 애를 먹었다. 그들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작은 내물 하나를 건너 모래와 자갈이 깔린 강바닥을 지난 다음 발이 푹푹 빠지는 논두렁길을 걸어야만 했다. 행렬은 두어걸음 나가서는 멎고 몇걸음 앞으로 나가서는 다시 멈춰서는 형편이여서 불과 5리 남짓한 골짜기를 벗어나는데 40분이 좋이 걸려서야 겨우 큰길로 빠져나올수 있었다. 큰길에 나서자 전사들은 활기를 띠며 그들에게 애를 먹인 험한 길에다 대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선두대렬을 따라잡기 위해 발자국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내달렸다. 최경민은 행군대렬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명령한 다음 전사들의 행장을 정돈하게 하였다.

하늘에는 어느덧 총총한 별이 여기저기 반짝이고 동쪽산마루에는 둥근달이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주위는 차차 밝아졌다. 어디선지 은은한 폭음소리가 먼 우뢰소리와 같이 어슴푸레 들려왔다. 대렬은 잠시후에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대는 예정된 로정을 따라 최경민이 명령한 행군속도를 유지하면서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전창걸은 대대 행군대렬 맨앞에 서서 행군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행군속도를 조절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전창걸은 지휘관들의 행군지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자기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군대 행군지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와 신념을 가지고있었다. 같은 10리길을 걷는데도 천천히 걸을 때와 급히 걸을 때와는 피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짐을 지고도 신작로를 걷는것과 험한 산길을 걷는것이 엄청나게 다르며 같은 길을 걷는데도 발에 맞는 신을 신었을 때와 불편한 신발을 신었을 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더우기 한사람도 아닌 수백명의 각이한 육체적조건을 가진 큰 무장집단을 하나의 목적지로 신속히 이끌어간다는것은 높은 창조적

인 군사예술을 요구한다.

전창걸은 최경민의 행군지휘에 처음부터 주의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대대가 저녁에 골짜기를 벗어나자 최경민이 대오를 멈춰세우고 잠시 휴식을 선포한 다음 전사들의 행장을 정돈하게 하였을 때 그는 최경민이 결코 행군을 처음 지휘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그것은 숙영지에서 전사들이 아무리 행장을 꼼꼼하게 준비하여도 한 5리쯤 걸어보면 걷는데 불편한 점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이런 경우 대오를 멈춰세워가지고 배낭끈을 조절하게도 하고 신발을 다시 편리하게 고쳐신게도 한다는것은 앞으로 먼길을 계속 걷게 될 전사들에게 극히 필요한것이다. 전창걸은 벌써 이 첫 휴식을 통해 대대장의 능숙한 행군지휘능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행군이 계속되면서 전창걸은 갈수록 대대장의 행군지휘에 끌려들어갔다. 얼핏 보기에 그의 행군지휘는 대체로 규정과 교범의 일반적요구를 그대로 적용하는것 같았으며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능동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행군경계와 규정된 간격과 속도와 행군질서에만 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있다는것 같은 인상까지 느끼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전사들은 오늘 저녁에 피로를 덜 느끼고 속도는 전례없이 빨랐으며 행군대렬은 여느때없이 활기를 띠고있는것 같았다. 전창걸은 오랜 지휘관의 눈으로 그 비결이 어데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생각해보았으나 잘 알수 없었다. 다만 전창걸자신이 여직 진행해온 행군지휘와 좀 다르다면 자기는 행군때마다 대렬선두에 서서 대오를 끌고 앞으로 나갔다면 최경민은 대렬중간위치에 서서 전진하면서 앞뒤에다 신속히 련락병을 띄우고 전달구령을 통해 수시로 명령을 전달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기때문에 행군질서가 훨씬 더 잘 유지되고 선두와 후미의 보조가 거의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있다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비결의 전

부는 아닌듯싶었다. 어쨌든 전창걸은 최경민의 능숙한 행군지휘를 놓고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문뜩 그는 오늘아침 숙영지이동문제가 되살아나서 낯이 뜨거워났다. 최경민이 도착하자바람으로 제때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큰 실책이 아닐수 없었다. 나이는 젊지만 군사실무적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대대장이였다. 전창걸은 생각에 잠겨 산기슭으로 난 소로길을 따라 앞으로 걸음을 옮겨짚고있었다.

《땅! 따땅!》

갑자기 앞에서 몇방의 총소리가 났다. 전창걸은 주춤 걸음을 멈추고 앞을 쏘아보았다. 앞에는 어스름한 달빛아래 검은 산발만이 우중충 일어서있다. 총소리로 미루어보아 첨병구분대가 통과하고있는곳에서 무슨 일이 있은 모양인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었다. 전창걸은 뒤따르는 행군대오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탕탕탕탕 총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총소리는 갈수록 더욱 요란하게 일어났다. 적기관총의 련발사격소리가 밤의 정적을 뒤흔들었다. 혹시 적들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차린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이 여기에다 방어진을 치고있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심상치 않은 정황이였다. 만약 여기서 전투가 일단 벌어진다면 오늘밤의 행동계획은 완전히 파탄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고 놈들과 맞다들린 조건에서 싸움을 피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몇걸음 더 걸어나갔을 때 앞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걸음소리가 났다. 전창걸은 걸음을 멈추었다. 첨병구분대에서 달려온 전사는 군사부대대장과 마주치자 숨을 씨근거리며 나타난 정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전방 약 200메터 지점에서 적과 마주쳤는데 여러곳에서 총질을 하기때문에 적의 력량을 정확히 판단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때 최경민대대장이 재빠른 걸음걸이로 그곳에 다가왔다. 전창걸은 최경민에게 나타난 정황을 간단히 종합해서 보고하였

다. 그러자 최경민은 직접 첨병구분대에서 온 전사에게 짤막짤막한 질문을 하였다.

《우리가 먼저 쏘았소? 아니면 적이요?》

《적이 먼저 쏘았습니다.》

《적아의 거리가 그때 얼마나 됐소?》

《약 50메터사이였습니다.》

《적이 처음에 무엇으로 몇발을 쏘았소?》

《보총으로 두발을 쏘았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걸어가던 길 저쪽에서입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한동안 사이를 두었다가 여러곳에서 탄알이 날아왔는데 자동총과 기관총이 섞여있었습니다.》

《기관총은 몇문이나 되오?》

《두문입니다.》

《적은 그때 어데서 쏘았소? 고지우에서? 아니면 산기슭에서?》

《산기슭입니다.》

《적이 차지한 화력구역은 몇메터나 되오?》

《보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민은 더 묻지 않고 어스름한 산발을 얼른얼른 훑어보았다. 이때 뒤에서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와 김봉수중대장이 나타났다. 그들은 급한 걸음으로 달려온 모양으로 숨소리가 높았다. 앞에서는 적아의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계속되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태가 안심치 않은 불안한 목소리로 대대장에게 물었다. 최경민은 침착한 목소리로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별일 아닙니다. 한개 소대가량의 패잔병들입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듯이 확신성있게 말하고나서 김봉수에게 명령하였다.

《1중대에서 한개 분대를 저 봉우리에 가 붙게 하고 두개 분대는 이쪽 릉선을 차지하게 하시오. 그리고 놈들에게 위협사격을 들이대야 합니다. 오래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행군대렬이 지나가거든 이내 뒤따르게 하시오.》

《들었습니다.》

최경민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전창걸에게 말하였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오. 15분동안이나 여기서 지체했는데 속도를 높여 회복해야겠습니다.》

《들었습니다.》

행군대렬은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보총소리,기관총소리가 요란하게 밤하늘에 메아리치며 쉭—쉭— 류탄이 날아지나는 산기슭을 누비며 기나긴 행군대오는 그냥 앞으로 흘러나갔다.

대대는 야반경에 이르러 60리길을 돌파하고 예정된 목적지를 향해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그사이에 시간당 6키로메터의 행군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뛰다싶이 속보로 행군을 다그쳤기때문에 행군대오는 지칠대로 지쳐 차츰 굼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길이 남아있어 최경민은 조금도 요구성을 늦추지 않았다. 보병총과 배낭과 반땅크수류탄의 무게가 갈수록 전사들의 어깨에 파고들고 기관총과 박격포를 걸머진 그들의 몸을 활등처럼 휘눌렀다. 땀은 사정없이 흘러내려 그들의 온몸을 적시고 물참봉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다 길은 노상 평탄하지만 않았다. 구불구불 산기슭을 끼고도는 언덕길이 한참 계속되는가 하면 발에 채인 돌이 디굴디굴 령밑까지 굴러떨어지는 깎아세운듯한 급경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걸음걸음 조약돌이 달각거리는 내가의 돌바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사들은 부르튼 발바닥을 헤쳐볼 사이도 없이 앞줄이 밀리면 잠시 멈춰서기도 하고 대렬을 잇느라고 다시 내달리기도 하면서 뒤질세라 숨을 헐떡거리며 앞으로 걸었다.

제1중대장 김봉수는 량어깨에다 한쪽에 하나씩 두자

루의 보병총을 걸머지고 걷고있다. 그는 매번 행군때마다 힘겨워하는 대원들의 보총을 빼앗아메고 걷군하였다. 오늘저녁도 그는 련락병의 보병총을 빼앗아멘데다가 아까 2소대의 전사 하나가 다리를 저는것을 보고 보총을 또 빼앗아멘것이였다. 그는 발을 옮겨짚을 때마다 왼쪽 발바닥에서 불이 이는것 같은 모진 아픔을 느끼면서 기계적으로 걸음을 내짚고있었다. 남진의 로상에서 그는 이렇게 발이 부르터본적이 드물다. 출발할 때 제대로 발싸개를 하고 또 비누칠까지 했는데도 발이 부르튼것을 보니 오늘저녁 행군이 여간만 힘든 강행군이 아니였다. 자신이 이렇듯 힘들진대 전사들은 여북하겠는가.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아픔보다 전사들의 아픔에 더 관심을 돌렸다.

군대의 행군,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은 리해할수 없다. 김봉수는 입대초기에 항일빨찌산출신의 어느 한 간부한테서 들은 한토막의 교훈담을 늘 잊을수 없었다. 군대에 갓 입대한 신입병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 간부는 앞으로 군대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은적이 있었다. 한 전사가 서슴없이 그것은 적과의 육박전투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간부는 웃으면서 아니라는 뜻으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모두 의문에 잠겨 대답을 못하자 그 간부는 아까 대답한 그 전사에게 입대전에 직업이 무엇이였느냐고 물었다. 그 전사가 목공이였다고 대답하자 그 간부는 그에게 그럼 목공으로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였느냐고 다시 물었다. 목공출신의 그 전사는 즉석에서 서슴없이 톱질과 대패질이였노라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목수일을 생각할 때 문틀을 짜거나 기둥을 세우고 그우에다 대들보를 올려놓는 일이 제일 힘들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목수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문을 짜거나 대들보를 올려놓는것보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톱질과 대패질이 더 힘들고 맥빠지는 일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렇소, 군대생활도 역시 같소. 전투에 앞서 우선 준비작업을 해야 하오. 행군도 하고 진지도 굴설하고 포탄도 운반해야 하오. 전쟁은 로동중에서도 가장 힘든 로동이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중로동이 행군이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목수에게 톱질과 대패질이 힘들듯이말이요.》

김봉수는 이 진리를 그후 군대생활과 전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였다.

김봉수는 이런 생각에 파묻혀 걸어가다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너덧명의 전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곳에 몰켜서있었기때문이였다. 제1분대의 분대원들이 장문학을 둘러싸고 그의 총과 배낭을 빼앗아내려고 짐을 달라거니 일없다거니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아마 문학이가 몹시 지쳤던모양이다.

《문학동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오.》

김봉수는 명령하다싶이 강제로 장문학의 짐을 빼앗아 분대동무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중대에 힘들어하는 동무들이 몇이나 되오？》

전창걸은 수건을 꺼내 얼굴의 땀을 문대며 물었다.

《거반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뒤에 떨어진 동무는 한동무도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참고 견딜테니 근심마십시오.》

김봉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알겠소.》

전창걸은 뒤따라오는 행군대렬에 지장이 없도록 길역으로 비켜서며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지도를 꺼내 야전가방에다 받쳐들고 전지불로 비쳐가며 지남침과 지도와 달빛에 드러난 어스름한 지형을 대조하면서 대대장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최경민이 김성태와 함께 행군대오에 섞여 걸어오다가 그를 보고 대렬밖으로 나왔다. 전창걸은 지도를 접어 야전가

방에다 넣으면서 대대장에게 말하였다.
《동무들이 몹시 피로한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도록 휴식을 주든가 행군속도를 늦추는게 어떻습니까?》
최경민은 멈춰서서 말없이 전창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곁을 지나가던 3중대장이 대렬속에서 나와 그들앞으로 다가왔다.
《동무네 중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뒤에 떨어진 동무는 없습니까?》
김성태가 그에게 근심스런 어조로 물었다.
《락오자는 한동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성태와 최경민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말하였다. 최경민은 말없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전창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앞서고있습니다. 속도를 좀 늦춰도 날밝기전에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는 대대장의 결심채택을 촉구하려는듯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최경민은 못마땅한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예정시간보다 오히려 지연되고있습니다.》
《네?》
전창걸은 알수 없다는듯이 대대장을 마주보았다.
《늦어도 24시현재로 〈사자골〉을 지났어야겠는데 그렇게 못왔습니다.》
《〈사자골〉이야 금방 지나온 부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형으로 보아 〈사자골〉에는 시내물이 꼭 흐르고있을텐데 우리는 개울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전창걸은 방금 지도를 들여다본 자기보다도 그가 오히려 지형을 더 들고꿰고있는데 놀랐다. 전창걸은 저녁에 행군이 시작된 이래 대대장이 한번도 지도를 들여다보는것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120리나 되는 낯선 초행길의 모든 지형적특징들을 손금보듯 하나하나 들고

꿰고있는것이다. 낮에 지도를 보고 그것을 미리 머리속에 새겨두었을것이다. 전창걸은 더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군사부대대장동무는 이제부터 뒤에 서서 대렬 뒤끝을 돌봐주시오. 나는 대렬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최경민은 곁을 지나가는 행군대렬을 향해 명령하였다.

《앞으로 전달하시오. 행군속도를 더욱 높일것！》

《앞으로 전달！ 행군속도를 더욱 높일것！》

《앞으로 전달！…》

어둠속으로 그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사들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차츰 멀어져갔다.

최경민은 선두대렬을 따라잡기 위해 앞으로 부지런히 걸어나갔다. 김성태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라 걷고있었다. 이때 최경민은 걸음을 옮겨짚을 때마다 육체적고통에 시달리고있었다. 아까부터 오른쪽 륵골밑의 부상처가 쑤셔나는것이였다. 온몸에 진땀이 흐르고 걸음을 옮기는데도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육체적고통에 신경을 쓰고있을 경황이 못되였다. 그는 아까 군사부대대장의 제기가 부당한 의견이 아니라는것을 잘알고있었다. 그자신도 아까부터 이미 대대행군대렬이 몹시 피로해있음을 알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마음이 초조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전투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그의 눈앞에는 괴뢰군 1개 련대를 이끌고 남쪽을 향해 황급히 도망치고있을 핸드슨이란 그 미제침략군고문놈과 민병일이란 련대장놈의 가증스러운 몰골이 어른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들을 놓쳐서는 안되였다. 전투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나 예정된 행군속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어떻게 할것인가？ 최경민은 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사부대대장이 생각하는것처럼 잠시 휴식을 주어 전사들의 숨을 돌리게 하거나 행군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행군대오를 지금 시간당 6키로메터의 높은 행군속도로 앞으로 떠밀고있는 힘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행군서렬을 지배하고있는 전투원들의 정신적긴장성에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것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려는 전투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전투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대오에서 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고도의 자각성이 지칠대로 지친 이 대오를 일떠세우고 앞으로 떠밀고있다. 그런데 지금 중간휴식을 선포한다는것은 고무줄처럼 팽팽히 늘어난 이 정신적긴장성을 끊어버리는것을 의미하였다. 일단 끊어진 고무줄은 제대로 잇기 힘든 법이다. 아니다. 그래서는 결코 아니된다. 계속 긴장성을 견지하면서 대오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최경민은 행군대렬을 스쳐지나면서 구분대장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혹은 전사들에게 규정된 행군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면서 선두대렬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갔다.

최경민이 대렬앞에 이르렀을 때 선두대렬은 앞에 가로놓인 시내물앞에서 잠시 멈춰서있었다. 그가 예견한대로 《사자골》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였다. 최경민은 지체하지 않고 첨벙거리며 물속으로 걸어들어갔다. 잠시 멈춰섰던 행군대렬도 어느덧 그의 뒤를 따라 첨벙첨벙 물을 건느고있었다.

12

김성태는 대대장의 뒤를 따라 시내물을 건느자 1중대 1분대 대렬속에 끼여들었다. 최경민이 대렬 맨선두에 섰기때문에 1중대 1분대는 바로 대대장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대대장이 어찌나 빨리 걸었던지 대대장과 분대전사

들 사이의 거리는 한걸음 두걸음 차츰 멀어지고있었다. 전체 행군대렬이 대대장의 빠른 걸음을 뒤따르느냐 못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1분대동무들에게 크게 달려있었다. 그러므로 김성태는 그들이 힘을 내도록 고무하기 위해 대렬속으로 끼여든것이였다. 김성태는 제1분대전사들속에 끼여들자 그들과 담화를 나누면서 걷기 시작했다. 문화부대대장과의 담화는 행군에 지친 전사들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하였다. 이야기는 저녁에 강호범분대장과 리종활이 되돌아가게 된 문제로부터 시작되였다. 맨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낸것은 한택수였다.

《문화부대대장동지, 제기할게 있습니다.》

한택수는 우정 불만스럽다는듯이 볼멘 소리를 하였다.

《무슨 제기요. 말해보오.》

김성태는 이미 짐작이 갔으나 우정 딴전을 부렸다.

《그래도 우리는 문화부대대장동지만은 언제나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편을 들어줄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영…》

한택수는 말을 맺지 못하고 기가 막히다는듯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렇게 나를 비난만 하지 말고 우선 말을 해야 알게 아니요. 무슨 일인지.》

김성태의 말이였다. 그러자 곁에서 걷던 김영준이 끼여들었다.

《그야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분대장동무와 리종활동무를 병원으로 다시 쫓아보낸 그 문제말입니다.》

《엉!…난 또 무슨 일이라고…》

김성태는 그제야 능청스럽게 알은체를 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소. 동무들이 오히려 나한테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요. 생각해보오. 내가 그때 만약 동무들과 융화를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소?》

김성태는 이렇게 말하면서 동무들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총도 메지 않고 절룩절룩 걷고있는 장문학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문학동무,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오.》

장문학은 당황하여 얼른 대답을 못했다. 그것은 생각해보나마나였다. 성한 사람들도 이토록 힘든 강행군에 그들이 만약 섞여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였겠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였다. 그러나 장문학은 말에 지고싶지 않아 자기 주장을 내놓았다.

《뭐 어떻게 될게 있습니까? 우리들과 같이 여기까지 걸어왔겠지요.》

《그랬을가?》

김성태는 능청스럽게 의문의 꼬리를 길게 늘이면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난 문학동무의 이제 그 말이 잘 믿어지질 않소. 그때 문학동무는 날보고 뭐라고 했소. 분대장동무의 총과 배낭은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같이 오게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문학동무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소? 분대장의 짐은 고사하고 자신의 총과 배낭도 건사 못하여 남의 부축을 받는 그꼴이 됐으니말이요.》

그 소리에 앞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장문학은 얼굴이 벌겋게 되여 더는 대답을 못했다. 분대전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래 끌다가는 갈수록 자신들의 약점만 더 드러낼뿐이라는것과 또한 몰래 뒤따라오기로 약속한 두사람의 비밀을 잘못하다간 문화부대대장앞에서 드러낼수도 있다는것을 일치하게 감촉했기때문에 화제를 딴데로 돌렸다. 그러면서 분대원들은 문화부대대장앞에서 자기들의 절룩거리는 몰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저저마다 은근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분대 행군대렬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이 배가 된듯싶었다. 그들은 문화부대대장의 이야기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며 한마디라도 놓칠

세라 서로 앞을 다투며 걸었기때문에 행군속도도 자연히 빨라졌다. 그리고 김성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정신이 팔려 힘겹던 걸음이 한결 헐해지고 지어는 다리의 아픔을 잊기조차 하였다. 그들은 문화부대대장과의 이야기판에 저저마다 한마디씩 끼여들려고 앞을 다투었다. 그중에서 오직 한사람만은 처음부터 입을 봉한채 말이 없었는데 그것은 부분대장 라명훈이였다. 그는 나이로 봐도 그들중에서 제일 좌상인데다가 몸도 그리 실한 축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 장문학의 배낭까지 한데 걸머지고도 힘겨운 내색도 없이 수걱수걱 지칠줄 모르고 걷고있었다. 김성태는 동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초급선동원인 그가 입을 다물고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를 움직이게 해야 했다.

《명훈동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김성태가 불쑥 그에게 물었다.

《저말입니까?》

라명훈은 이렇게 한마디 반문해놓고도 한동안 말없이 걸어갔다. 그는 소대초급선동원이였으나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말이 적은 사람이였다.

《아까부터 저는 지난번 〈ㅅ〉시에 있는 형무소를 해방시키던 때의 일이 되살아나서 그것을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라명훈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나서 숨을 돌리려고 잠시 말을 끊었다. 지금 그가 꺼낸 《ㅅ》시 공격전투때의 그 형무소이야기는 행군을 앞두고 진행되였던 초급선동원강습에서 김성태자신이 초급선동원들에게 상기시켜준 이야기였다.

《그때 우리 분대는 전기철조망이 달린 높은 그 담장을 뛰여넘을수가 없었기때문에 담장을 에돌아 형무소정문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라명훈은 문화부대대장에게 말을 들려주는척 하면서 실은 분대동무들에게 그때의 일을 회상시켜주고있었다. 김성태는 라명훈이 여간만 능숙하게 선동사업을 하는것이 아

니라고 생각하였다. 말없이 듣고있는 분대전투원들의 눈앞에는 라명훈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따라 땅크부대를 앞세우고 《ㅅ》시에 돌입하여 형무소를 해방시키던 때의 광경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것이였다. 높이 둘러싸인 담장과 가시달린 전기철조망과 무거운 철문이 아직도 그들의 눈앞에 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형무소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있는것은 높은 그 담장이나 두터운 철문때문이 아니였다. 감방으로 돌입하여 철창문을 열어제꼈을 때의 그 몸서리나는 광경때문이였다. 열어제끼는 감방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쓰러져있는데 마루바닥은 말그대로 피바다였다. 부분적으로 구출된 애국자들이 전사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다. 그들은 안타까이 가슴과 땅을 쳤다. 당신들이 30분, 단 30분만 일찍 왔더라면 이들은 모두 살수 있었다는것이였다.

《저는 그때 구출된 그 애국자들이 안타까이 땅을 치며 부르짖던 30분이라는 말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습니다. 그 30분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다리가 아파나던 감각도 없어지고 몸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달이라도 쉬지 않고 내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명훈은 사실 평소에 말이 적었지만 일단 입을 열면 훌륭한 초급선동원이였다. 분대전투원들은 제가끔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옳소. 동무의 말이 아주 옳은 말이요.》

김성태는 감동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뒤를 달았다.

《그러나 명훈동무가 이제 얘기한 그 형무소에 대한 회상은 한개 좁은 형무소 울타리안의 참상에 불과하오. 아직 우리가 해방하지 못한 락동강이남의 넓은 지역에는 그런 감옥이 얼마나 많겠소. 그리고 이 시각에도 미제원쑤놈들이 살판치는 그 인간생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타까이 기다리고있겠소. 그러

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한시바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적들에게 숨쉴 틈을 주지 말고 계속 진격하라고 말씀하시는거요.》

분대전투원들은 한결같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걷고있었다. 김성태는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행군을 할 때면 때때로 자신이 내짚고있는 이 한걸음 한걸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군하오. 사람이 세상에 태여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동안에 얼마나 많은 땅을 밟고 길을 걸어다니겠소. 한사람이 한평생에 걸어다니는 그 총연장거리를 계산해보면 막대한 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오. 그것은 아마 지구주위를 몇바퀴 돌아다니는 거리가 될수도 있을게요. 나도 세상에 태여나서 40년가까이 숱한 길을 걸어왔소.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걷고있는 이 행군길처럼 더 뜻깊은 길을 걸어본적은 여직 없었소.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며 백두령봉에서 시작한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싸움의 길을 우리는 혁명의 무장을 잡고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며 걷고있기때문이요. 지금 우리가 옮겨짚는 이 한걸음 한걸음은 지난날 우리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걷던 출근길이나 바람을 쏘이기 위해서 거리를 소풍하던 길과는 전혀 다르오. 다시말하면 미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힌 원한의 남녘땅을 한치한치 해방시키며 나가는 길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심히 이 발걸음을 옮겨짚을수가 없소. 내가 만약 보폭을 조금 더 넓힌다면 그만큼 조국땅은 더 많이 해방될것이며 한걸음 더 옮겨놓는다면 그만큼 조국땅이 더 빨리 해방될것이요.》

김성태는 말을 맺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장문학이 그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느새 도로 빼앗아냈는지 자기의 보병총을 어깨에 둘러메고있었다. 분대행군대렬은 갈수록 빨라지고있었다.

김성태는 말을 다시 이었다.

《더우기 오늘저녁 우리는 〈ㅅ〉시에서 감방안의 애국자들을 무수히 학살한 바로 그 원쑤놈들과 한걸음한걸음 피어린 싸움을 하고있소. 우리가 만약 그놈들을 앞질러 퇴로를 차단한다면 놈들을 몽땅 포위소멸하고 억울하게 학살된 그 애국자들의 원한을 풀어줄수 있을게구 만약 우리가 곤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놈들보다 늦어진다면 그 원쑤놈들을 놓쳐버리고말것이요.》

《문화부대대장동지!》

한택수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잡고있는놈들이 바로 〈ㅅ〉시형무소에서 학살만행을 한 그놈들이란말입니까? 우리 강호범분대장동무가 잘 안다던 민병일인가 하는놈의 악질적인 괴뢰군련대란말입니까?》

《그렇소. 바로 그놈들이요.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래일아침이면 그놈들과 만나게 될게요.》

전사들은 제각기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있었다. 누구도, 어느 지휘관도 명령한바 없으나 그들은 어느덧 거의 뛰다싶이 내달리고있었다.

최경민은 아까부터 자기의 등뒤에서 주고받는 그들의 이야기소리에 말없이 귀를 기울이며 걷고있었다. 그러다가 방금 문화부대대장이 꺼낸 민병일이란 말에 귀가 번쩍 띄였다. 그리고보니 동두리에서 이름없는 한 어머니의 가슴속에 무서운 상처를 남겨준 그 핸드슨과 민병일이란놈이 《ㅅ》시에서도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야수들인가. 최경민은 원쑤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적개심으로 하여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어느덧 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내달리고있었다. 그러나 한걸음 두걸음 떨어지던 행군대오도 어느덧 그의 뒤를 바싹 조이고있었다. 그는 비켜서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런 속

도로 전진하면 목적지에 넉근히 시간을 앞당겨 도착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멈춰서서 앞을 통과하는 행군서렬을 잠시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도모르게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였다. 방금 1중대 1소대가 그의 앞을 지나가고 제2소대가 그의 앞을 통과하고있었는데 그들 역시 《ㅅ》시 해방전투때의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던것이다.

최경민은 그제사 그 얘기가 지금 김성태의 지도밑에 초급선동원들을 통하여 온 대대행군서렬에서 벌어지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보니 이제는 발을 저는 전사들이 거의 눈에 뜨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행군속도는 아까보다 배로 빨라진듯싶었다.

(선동사업을 멋있게 하는구나!)

최경민은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행군보장을 위한 정치사업을 어느틈에 그렇게 솜씨있게 포치했는지 저으기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임할 때 문화부대대장을 칭찬하던 오현무의 귀띔이 빈말이 아니였다.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아직 경험이 적은것 같았으나 정치사업에 들어가서는 이만저만한 능수가 아니였다.

(앞으로 그의 도움을 받아 본때있게 한번 일해보자.)

최경민은 자기 사업을 뒤받침해줄 든든한 정치일군을 만나게 된것으로 하여 여간만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이 아니였다. 그는 힘차게 앞을 향해 움직이고있는 행군대렬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앞으로 걸음을 옮겨짚었다.

13

강호범과 리종활은 대대가 출발하자 계획대로 곧 그 뒤를 따라나섰다. 날은 이미 어두운데다가 그들이 대대의 후위구분대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기때문에 사람들한테 들킬 우려는 없었다. 다만 행군대렬을 도중에 잃어버릴가봐 그것이 겁이 났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들려오는 행군대렬의 움직임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귀를 도사리며 걸어나갔다. 분대동무들은 약속한대로 갈림길마다 돌로 표시해놨기때문에 길을 헛갈리지 않고 따라갈수 있었다. 강호범의 배낭은 여전히 리종활의 잔등에서 덜렁거렸다. 그것으로 하여 리종활에게 육체적부담이 좀 갔다. 그러나 리종활은 그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병원근방에까지 갔다오는 동안에 내내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행군대렬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대도로에 나선 다음 얼마 못가서 자신들이 감행하고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분별한짓인가 하는것을 차츰 깨닫기 시작하였다. 우선 행군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몸이 성한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들이였다. 거기다 리종활은 강호범의 배낭까지 한데 걸머졌기때문에 피곤도 더했거니와 행군속도도 자연히 떠질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결심을 변경할수는 없었다. 둘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입밖에 먼저 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숨을 헐떡거리면서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본

대와 그들과의 거리는 차츰 더 멀어질뿐이였다. 강호범은 슬그머니 속이 켕겨났다. 이러다간 부대를 잃어버리고 필경 적후에서 헤매게 될것이 뻔하였다.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귀를 도사렸다. 그가 서자 뒤따르던 리종활도 멈춰섰다. 두사람은 앞에다 대고 귀를 강구었다. 그들은 아까부터 행군대렬의 움직임소리를 잃어버렸었다. 그래서 대오를 따라잡으려고 부리나케 달려온 길이였다.

밤은 죽은듯 고요한데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둥근달이 동천에 솟아올라 주위는 대낮처럼 밝았다. 그러나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중충한 달그림자뿐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어딘지 가까운 길가의 논판에서 뜸북! 뜸북! 뜸부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뜸부기의 그 울음소리는 그 어떤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다.

(이젠 부대를 완전히 잃어먹었구나.) 두사람은 일치하게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서로 그런 내색을 밖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말없이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나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헤여날수 없는 그 어떤 깊은 미궁에 빠져들어가는것같은 불안에 사로잡히는것이였다.

(어떻게 한다?) 강호범은 등에서 진땀이 내돋았다. 그는 자신이 리종활을 설복하여 시작한 일이니만치 그만큼 책임을 더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오직 한가지 희망이 그의 초조한 마음을 다소 진정시켜주었다. 그것은 행군대렬이 규정대로 1시간에 한차례씩 10분간의 소휴식을 하게 될것이니 자기들이 쉬지 않고 계속 걷는다면 그사이에 행군대렬을 따라잡을수도 있을것이라는 희망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걷는 속도로써는 크게 기대할수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곁에서 걷고있는 리종활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문뜩 한가지 생각에 부딪쳤다. 그것은 종활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자기의 배낭을 없애버리

면 그의 걸음이 훨씬 빨라지리라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순간 그 생각을 스스로 눌러버렸다. 그 배낭안의 물건을 버린다는것은 참을수 없이 가슴아픈 일이기때문이였다. 배낭을 정리해버린다 해도 군대내에서 공급되는 일체 물건들은 무기처럼 소중히 관리해야 되기때문에 다칠수도 없거니와 병원으로 떠날 때 이미 특무장에게 거반 바쳤기때문에 남은것이란 별로 없었다. 다만 문제로 되는것은 지금 그 배낭안에 들어있는 묵직한 보따리였다. 그 보따리안에는 그가 여직 소중히 건사해오던 갖가지 사품들이 들어있다. 물건들은 그가 집을 떠나 객지에 나와 사는동안에 하나둘씩 축적된, 말하자면 그의 총 재산이였다. 그중에는 강호범이 광복후 탄광에서 받은 첫 로임을 가지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이쁜이에게 갖다주려고 장만한 물건도 들어있었고 군대에서 받은 생활보조금으로 마련한 기념품도 들어있었다.

하여 그 보따리는 탄광독신자합숙의 침상안에서 혹은 군대병영의 사물창고에서, 혹은 강호범의 등에 매달려 먼 행군길을 같이 걸어오기도 하면서 그의 곁에서 항시 떨어져본적이 없는 벗이였다. 그 보따리를 내던진다는것은 자기 살점을 떼내는것과 같이 가슴아픈 일이였다. 그래 그는 그 생각을 눌러버리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한참 걸어나가다가 다시 그 생각에 파묻히지 않을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옮겨짚는 리종활의 걸음걸이가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찌르는것이였다.

(제길! 집에 선물쯤 안가져가면 뭐라나. 인민군대가 고향을 해방시키고 아들이 살아서 떳떳한 인민군대 분대장이 되여 돌아온것만봐도 기뻐 야단들일텐데…) 그러나 다음순간 고향을 해방하고 집에 턱 들어가서 배낭을 풀고 아버지의 담배쌈지며 이쁜에게 줄 옥색고무신이며를 내놓았을 때 그들이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는 광경이 되살아나자 그의 마음은 다시 뒤흔들리고말았다.

(젠장! 어떻게 한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마살을 찌프리며 속으로 꿍꿍거렸다. 이렇게 그는 두 저울대우에서 이리 기울어지고 저리 기울어지며 퍼그나 먼길을 걸어오다가 끝내 걸음을 멈추고 리종활에게 등에 진 배낭을 벗으라고 일렀다. 우유부단하다가는 부대를 영 잃어버리고말겠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어째서 그럽니까?》

리종활은 그의 속을 알리 없는지라 배낭을 처음부터 순순히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강호범은 그에게서 자기의 배낭을 받아들자 땅바닥에 쭈그리고앉아 배낭끈을 풀었다. 그리고 배낭안에서 광목천에 싸인 두툼한 보따리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막상 보따리안의 그 물건들을 정리해버리자고 하니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필요한 물건들이여서 무엇을 내던졌으면 좋을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강호범은 보따리를 앞에 놓고 한동안 주춤거리다가 그럴바엔 아예 깨끗이 결별을 하는것이 마음편할것 같아 보따리채 길바닥에 내던졌다.

《아니 그걸?》

곁에 서있는 리종활은 눈이 휘둥그래지며 입을 딱 벌렸다. 그러나 강호범은 아무 말없이 배낭을 다시 꽁꽁 동여매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사군이 무게나 가늠하듯 한손으로 두어번 추슬러보았다. 보따리를 내놓으니 배낭은 낟알 한되박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다. 강호범은 몸을 털고 일어나서 그것을 부상처가 없는 왼쪽어깨에 걸친 다음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리종활은 그가 내던진 보따리에서 아직 눈을 떼지 못한채 서있었다.

강호범은 리종활이 보란듯이 이렇게 대범한 태도로 몇걸음 앞으로 걸어나갔으나 그도 역시 마음이 안놓이는듯 걸음을 멈추고 다시 보따리 있는데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서는 주위를 두리

번거리다가 그것을 길가에 서있는 나무가지에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게 걸어놓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것을 지켜보고섰던 리종활은 한숨을 내쉬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두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다우쳤다. 아까보다 걸음이 훨씬 빨라진듯싶었다. 그들은 발바닥에서 불이 일도록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퍼그나 멀리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대의 행적을 알수 없었다. 그들은 또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혹시 길을 헛갈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뒤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보니 두대의 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달려오고있었다. 그들은 반가운 나머지 환성이라도 지를 심정이였다. 두사람은 차를 놓칠가봐 길을 막아서듯 신작로 한복판에 나서서 차를 기다렸다.

자동차는 눈부신 불빛을 부채살처럼 내뻗으며 그들의 앞에 와서 멈춰섰다. 승용차였다. 뒤따르던 차도 련달아 멈춰섰다.

《어느 부대 동무들이요?》

차에 앉았던 웬 군관이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며 물었다.

《소백산입니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차렷자세를 하고 대답하였다.

《소백산? 그런데 동무들은 어째서 여기 와있소?》

그의 목소리는 퍽 부드러웠으나 그러면서도 리해할수 없다는듯한 의문에 잠긴 목소리였다.

《병원에서 나와 부대를 따라가다 뒤떨어졌습니다.》

강호범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자동차의 뒤문이 열리면서 젊은 군관 하나가 뛰여내렸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그제사 그가 낯익은 련대장의 부관임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이 차가 바로 련대장의 지휘차가 아닌가. 강호범과 리종활은 련대장의 차를 자기들이 이렇게 멈춰세우게 되리

라고는 천만뜻밖의 일이였다. 그들은 일이 재미없게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련대장이 이제 자기들의 자유주의행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아침에는 새로 부임해온 대대장한테 쫓겨나더니 이번에는 또 련대장한테 그 어떤 꾸중을 받게 될는지 모를 일이였다. 그러나 련대장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그럽고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오는길이란말이지? 그것참 안됐군. 그런데 동무들은 길을 잘못들었소. 오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소로로 가야 했소. 그런데 어떻게 한다?》

련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제 따라갈수는 없소. 그러니 차에 올라앉소. 래일아침이면 대대를 만날수 있소.》

강호범과 리종활은 련대장의 이 부드럽고 따뜻한 환대앞에서 눈물이 날지경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다가 련대장의 독촉을 받고 차에 올라탔다.

자동차는 앞으로 내달렸다. 바위틈에도 용수가 있다지만 막혔던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나갈줄은 정말 뜻밖의 일이였다. 자동차는 높은 속력으로 창밖의 가로수들을 뒤로 휙휙 날려보내다가는 어떤곳에 가서는 속도를 좀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껑충껑충 공중으로 뛰여오르기도 하면서 앞으로 내달렸다.

《분대장동무! 내 뭐라고 합디까. 보따리를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아까운 물건들을 공연히…쯔! 쯔!…》

리종활은 이렇게 편안히 자동차에 앉고보니 아까 보따리를 팽개친 일이 되살아나서 못마땅한듯 혀를 찼다. 강호범은 대답을 못하고 잠자코 앉아있었다.

《보따리를 내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앉았던 련대장이 뒤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리종활은 아까 부대를 따라잡느라고 분대장이 오래동

안 건사해오던 보따리까지 내던지던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련대장은 앞을 내다보며 그의 말을 듣고 앉았다가 다시 물었다.
《동무들은 어느 병원에서 나오는길이요?》
《사단군의소까지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호범이 그 물음에 대답하였다. 강호범은 그렇게 대답해놓고도 너그러운 이 련대장앞에서 사실을 숨긴다는 일이 어쩐지 량심에 께름직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단군의소까지 가긴 갔었으나 입원은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돌아오다니? 어째서?》
련대장이 다시 물었다.
《동무들의 곁을 떠나니 허전해서 영 못견디겠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고향마을을 해방하게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있기도 뭣하고…》
《동무의 고향이 어데요?》
련대장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경상북도 ××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백리쯤 더 가면 고향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락동강근방이로군그래.》
《그렇습니다. 강을 착 넘어서면 마을이 빤히 바라보입니다.》
강호범은 신이 나서 대답하였다.
《그래 고향에는 누가 있소?》
《부모와 형님이 계십니다.》
《집을 떠난지 몇해나 되오?》
《광복되기 전해에 징용에 끌려 북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6년째 됩니다.》
련대장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동무는 참 행복한 동무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 고향마을을 해방시키게 됐으니말이요. 이제 미군놈들을 다 몰아내고 조국이 완전히 통일되거든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을 한번 잘 꾸려보오.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의 령도하에 왜놈들과 싸울 때 이 경상도지방에 고향을 둔 동무들도 적지 않게 있었소. 그 동무들도 늘 자기 고향에 대해 자랑도 하고 꿈도 많았소. 그러다가 그중 적지않은 동무들이 자기 고향마을에 가보지 못한채 이역땅에서 고결한 최후를 마쳤소. 동무들은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소. 그 선렬들이 실현하지 못한 아름다운 꿈을 동무들은 자기 고향마을에 가서 꼭 실현해야 되오.》

련대장의 이 말은 의미심장하게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모두 생각에 잠겨 잠시 말이 없었다. 리종활은 아까부터 련대장과 허물없이 담화를 나눌수 있게 된 이 기회를 리용하여 대대에 무사히 돌아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궁리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에 끼여들었다.

《그런데 우리 대대장동지는 어찌나 딱딱한지…》

그는 이렇게 말을 중도에서 끊고 슬쩍 련대장의 안색을 살폈다.

《딱딱하다니?… 무슨 얘기요? 새로 1대대에 내려간 대대장동무말이요?》

련대장이 반문하였다.

《옳습니다. 새로 배치되여온 우리 대대장동지말입니다. 아 글쎄,어찌나 엄격한지 낮에 중대에 돌아갔는데 글쎄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다시 쫓아보내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의견도 제기할수 없다고 딱 막아버리는것입니다. 허참!》

리종활은 기가 막히다는듯이 능청스럽게 한탄을 하였다. 오현무는 그제사 어제 준의가 와서 보고하던 두 부상병에 대한 일이 퍼뜩 되살아났다.

《그러고보니 동무들은 병원에서 퇴원해오는 동무들이 아니라 반대로 병원으로 가야 될 동무들이군그래.》

련대장은 그제사 사실의 진상을 알아차렸다는듯이 놀란 표정을 하며 그들을 돌아다보았다. 두사람은 그바람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니 내가 규률위반자들을 도와주고있는셈이군. 허참! 후에 대대장을 만나면 뭐라고 한다?》

련대장은 과장기가 확연하게 드러나보이는 딱한 시늉을 해보였다. 그러자 리종활은 더욱 대담해지여 응석과 롱을 섞어가며 익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달빛이 훤한 신작로를 굽이돌며 앞으로 내달렸다.

14

최경민대대는 날이 밝기전에 목적지인 괴암동에 도착하였다. 예정보다도 오히려 30분이나 앞선 시간이였다. 최경민자신도 이 예정보다 빠른 행군결과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대신 전투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휴식구령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너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들의 몸은 땀에 젖어 전신이 물참봉이 되고 온몸이 달아올라 불덩이처럼 확확 열을 내였다. 다리의 아픔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들만은 자못 흐뭇하였다. 어려운 행군임무를 감당해냈다는 긍지에서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다리를 펴고 푹 쉴수 있다는 안도감에서였다. 그래서 전사들은 쾌활하게 롱담들을 주고받고있었다. 김봉수는 전사들곁에 와서 다리를 펴고 앉았다. 김봉수가 방금 땅바닥에 다리를 펴고 주저앉았을 때 대대련락병이 나타났다. 련락병은 급히 대대장감시소에 도착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김봉수는 미처 숨도 돌리기전에 다시 몸을 일으켰다. 마음과는 달리 다리가 휘청거리며 발바닥이 불에 덴것처럼 아파났다. 그러나 그는 급히 대대장감시소로 걸음을 옮겼다.

대대장감시소에는 구분대장들이 이미 모여있었는데 그들 역시 김봉수와 똑같이 피로한 몸들이였다.

그러나 최경민대대장은 그들이 숨돌릴사이도 없이 차지한 계선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부터 진지굴설작업을 진행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나서 구분대별로 공사구역을 할당해준 다음 공병작업에 필요한 몇가지 주의를 주고나서 날밝기전까지 작업을 끝낼것을 명령하였다. 구분대장들이 제각기 자기 구분대로 흩어져갔다.

김봉수는 중대로 돌아왔다. 밤새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전사들은 어느덧 앉은채로 코를 골며 자고있었다. 김봉수는 방금 눈을 붙인 그들을 깨워 작업을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중대전사들을 깨우지 않을수 없었다.

《동무들! 이제부터 공병작업을 시작해야겠소. 피곤하지만 참고 해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전사들에게 작업지시를 주었다. 소대, 분대별로 작업구역이 할당되고 이어 작업이 시작되였다. 비록 행군에 지친 그들이였으나 일단 명령이 내리자 다시 활기를 띠며 일어섰다. 지어 1분대동무들은 일을 다그쳐 끝내고 뒤따라올 강호범과 리종활의 개인점호도 미리 파놓자고 했다. 일이 푹푹 자리가 났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점차 작업속도가 떠지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기를 쓰며 일을 해제꼈으나 차츰 다시 맥이 빠져버린것이였다. 거기다가 너나없이 목이 말라 모두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들 있었다. 땀을 많이 흘렸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고지우에서 더구나 어두운 이 밤에 어데 가서 물을 길어오겠는가. 피로를 이기지 못해 삽질을 하다가 선채로 끄덕끄덕 조는 동무들도 있었다.

김봉수는 작업장을 돌아보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속이 안달아났다.

(야단났군. 어떻게 한다?) 김봉수는 공병삽을 손에 쥔채 졸고있는 장문학의 곁으로 갔다.

《안되겠소. 동무는 앉아서 좀 쉬여야겠소.》

김봉수는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장문학의 손에서 공병삽을 빼앗아쥐고 그가 맡은 점호를 파기 시작했다.

초급선동원 라명훈이 등성이우에 올라가서 전체 중대가 들을수 있는 목소리로 선동사업을 하였다.

《동무들, 이제 날이 밝으면 퇴각하는 적들이 이곳을 통과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전투준비를 튼튼히 한다는것은 그만큼 우리의 손실을 적게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내는 흙 한삽은 곧 앞으로 우리의 귀중한 피 한방울을 대신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하지만 모두 힘을 냅시다. 그리하여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다진 우리의 충성의 맹세를 영예롭게 수행합시다.》

라명훈의 선동사업은 효과를 내였다. 작업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육체적피로가 심했기때문에 공병작업은 여느때보다 굼뜨게 진척되여갔다.

이때 최경민이 나타났다. 그는 중대전투원들의 공사장을 하나하나 돌아보다가 대대장이 온줄도 모르고 점호를 파고있는 1중대장을 발견하고 김봉수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봉수는 그제사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최경민은 어째서 점호의 간격이 규정대로 되여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봉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잠자코 있었다. 최경민은 공사장을 다시한번 휘둘러보다가 우두커니 서있는 문학이한테 시선을 멈추었다.

《동무는 어째서 그렇게 서있소?》

대대장이 그에게 물었다.

장문학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너무 지친것 같아서 제가 쉬게 했습니다.》
김봉수가 그를 대신해서 말했다.
《그래서 중대장동무가 대신해서 저 동무의 점호를 파고있는중입니까?》
최경민이 물었다. 김봉수는 대답대신에 침묵을 지켰다.
《저렇게 지친 동무가 동무네 중대에 모두 몇이나 됩니까?》
대대장이 재차 물었다.
《여라문명 됩니다.》
《그럼 중대장동무가 그 동무들의 점호를 혼자서 다 파줄 작정입니까?》
최경민은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질책이 섞여있었다. 김봉수는 예상치 않던 뜻밖의 추궁에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동무는 자기 위치에 서서 작업을 지휘해야 됩니다.》
대대장은 명령조로 엄격히 말하였다.
《들었습니다.》
김봉수는 대답을 해놓고도 대대장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성을 내는지 얼떨떨하였다. 전사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잠잠해있었다. 최경민은 지적된 시간까지 공사를 끝내고 위장을 잘해야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해놓고나서 자리를 뜨려고 돌아섰다. 이때 어둠속에서 불현듯 사람들의 어수선한 말소리며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일가?)
최경민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리나는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어수선한 그 소리는 차츰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물!》
《물이다!》
《물이 왔다.》

기쁨에 겨운 전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이윽고 최경민은 어둠속에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검은 덩어리가 차츰 자기가 서있는 공사장가까이로 다가오는것을 볼수 있었다.

(물들을 길어왔구나.)

최경민은 그제사 자신도 아까부터 목구멍이 갈라지는것같은 심한 갈증을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을 가져왔으니 와서 한사발씩 드오. 그쪽에서도 어서 물들을 마시고 힘들을 부쩍 내야겠소.》

최경민은 그것이 귀에 익은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전투원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그쪽으로 모여들고있었다.

《물이다!》

《물이 왔다!》

《문화부대대장동지가 물을 길어왔다!》

최경민은 기쁨에 넘친 전사들의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고 흐뭇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2중대 공사구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앞에는 고지우에까지 물을 길어오느라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여 지금쯤은 전사들 틈에 끼여앉아 담배를 붙여물고있을 김성태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였다.

대대장감시소는 산등성이에 있는 큰 바위밑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기때문에 불을 켜고 사업할수 있도록 바위를 의지하여 방수포를 쳐놓았다. 대대서기며 무전수가 그안에서 초불과 마주앉아있었다. 무전수는 련대와의 무선을 결속하느라고 《태백산! 태백산》하고 연신 목청을 돋구었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박격포중대장과 함께 들어섰다. 련이어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와 함께 2, 3중대장과 반땅크총소대장 그리고 중기중대장과 1중대장이 들어섰기때문

에 좁은 대대장감시소는 빼곡이 사람들로 찼다. 그들은 방금 방어공사를 끝마치고 지적된 시간에 대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도착한것이였다.

《군관동무들！》

대대장이 나타났기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최경민은 쥐여짤듯 군복이 땀에 젖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불과 하루밤사이에 눈에 뜨일만치 훌쭉해지고 두눈만이 유난히 빛나보였다. 그는 선자리에서 즉시 구분대장들사이에 섞여있는 김봉수를 눈으로 찾았다. 그리고 물었다.

《1중대에서는 작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대로 다 끝냈습니다.》

김봉수가 선자리에서 대답하였다.

《아까 지적한대로 위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민은 2중대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2중대 반땅크총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대로 앞으로 내갔습니다.》

최경민은 다시 3중대장을 향해 돌아섰다.

《동무네 중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중대장은 몸을 꿋꿋이 세웠다.

《명령대로 자리를 옮기고 규정대로 설치해놓았습니다.》

《박격포중대는？》

《결함으로 지적된 보충작업을 다 해놓았습니다.》

최경민은 아까 진지를 돌아보면서 지적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묻고나서 이번에는 통신소대장에게 련대와의 무선결속이 어떻게 되였느냐고 물었다.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련대는 계속 이동중인것 같습니다.》

통신소대장은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근심어린 눈으로 대대장의 안색을 살폈다. 그러나 최경민은 아무말 없이 시계

를 들여다보고나서 구분대장들을 향해 마주섰다. 모두 숨을 죽이고 대대장에게로 시선을 집중하였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동무들의 완강한 노력에 의해서 행군도 공병작업도 훌륭히 수행됐습니다. 나는 대대장으로서 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돌아들 가십시오. 그리고 몹시 지쳤을텐데 날이 밝아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푹 쉬십시오.》 구분대장들은 최경민이 이렇게 말할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구분대장들이 기대한 한갖 추측이였으며 상상일따름이였다.

최경민은 전혀 뜻밖에도 다르게 말했다.

《동무들, 이제부터 작업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저쪽 릉선에다 허위진지를 굴설해야겠습니다.》

구분대장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대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시간은 이제 날밝을 때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대 전체 력량을 총동원해서 날밝기전까지 이 작업을 해치워야겠습니다.》

대대장의 요구는 도무지 끝이 없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구분대장들은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몸들을 바로잡았다. 그것은 명령대로 하겠다는 말없는 대답이였다.

이때 대대장곁에 서있던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구분대장들에게 이 마지막 돌격작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설하기 시작했다. …

최경민의 계획대로 허위진지굴설작업은 날밝기직전까지 완수되였다. 이 공사를 시간내에 보장하기 위하여 대대부 서기로부터 취사병에 이르기까지 대대의 전체 력량이 인입되였다. 강행군에 뒤를 이어 련달아 진행된 공병작업으로 말할수 없이 힘이 들었으나 대대장의 완강한 요구성과 명령을 집행하려는 전체 전투원들의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작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적의 눈을 기만하기 위하여 가설된 포진지에는 통나무를 베여다 나무대포

를 만들기도 하고 점호에는 그럴듯하게 허수아비들까지 만들어세웠다. 최경민은 허위진지를 돌아보고 공사가 질적으로 잘된것을 확인하고나서 예견된 시간보다 5분앞서 손을 뗄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통신소대장은 련대와 무선을 결속하려고 계속 애를 썼었는데 공사가 방금 끝난 같은 시각에 련대로부터 응답신호를 받게 되였다. 대대의 정황이 지체없이 련대에 보고되였다. 그가 방금 련대장으로부터 보내온 회답전문을 원문으로 변신하고있을 때 때마침 대대장과 같이 작업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감시소에 들어섰다. 그들은 이제 방금 공사를 끝내고 돌아오는길이였다. 통신소대장은 방금 련대와의 무선이 결속되였다는것을 대대장에게 간단히 알리고나서 변신작업을 계속해나갔다. 최경민뿐만아니라 김성태며 전창걸이며 기타 감시소성원들까지 말없이 모두 그를 둘러싸고 서서 그의 변신작업을 주시하였다. 얼굴들이 모두 축갔다. 그들은 땀에 젖은 얼굴을 문댈념도 안하고 긴장하게 련대의 소식을 기다리는것이였다. 이윽고 통신소대장은 변신된 련대장의 전문지시를 최경민에게 넘겼다. 일동의 시선은 전문을 읽고있는 대대장의 얼굴표정에로 옮겨졌다. 그러나 최경민의 안색은 근엄하게 굳어진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전문을 틀어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있다는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 최경민은 전문을 다 읽고나서 그것을 말없이 곁에 서있는 김성태에게 넘겼다. 일동은 다시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전문을 읽어나가는 김성태의 얼굴근육은 긴장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혹은 흥분으로 하여 실룩실룩 움직거리기도 하다가 마침내 환하게 빛났다. 그는 그 어떤 감격과 기쁨의 감정을 누를길 없는듯 두눈을 슴뻑거리기까지 하면서 곁에 있는 군사부대대장에게 전문을 넘겼다. 전문을 받아쥔 전창걸의 꽉 다문 두입귀는 점점 깊이 처지고 두눈은 빛났다. 이렇게 전문은 손에서 손으

로 옮겨지면서 말없는 가운데 감시소를 한바퀴 돌아갔다.
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성과적인 기동을 축하한다. 적은 새벽3시현재 ××계선을 통과하였다. 곧 그곳에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동무들이 한걸음 앞섰기때문에 승리는 이미 결정되였다. 계획대로 자루끈을 조이겠으니 길목을 막으라! 명령을 어김없이, 정확히 집행한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101번》
바로 이때 전화수가 전방감시초소로부터 전화가 왔다는것을 알렸다. 최경민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뭣이? 5키로메터 전방에 적자동차대렬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계속 감시를 강화하고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시오.》
최경민은 전화를 놓고 군사부대대장에게 명령을 주었다.
《각 구분대에 전달하십시오. 적의 선두대렬이 전방 5키로지점에 나타났으니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대기할것. 적의 공중 및 지상 감시로부터 목표를 드러내지 않도록 은밀성을 철저히 보장할것.》
《들었습니다.》
전창걸은 대답하고나서 각 구분대에 련속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최경민은 이때 정황을 처리해놓고도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는 애초에 예견한 모든 일들이 이렇듯 순조롭게 계획대로 착착 진척되여나가는 일이 어쩐지 사실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쌍안경을 꺼내들고 앞을 내다보았다. 날은 이미 환히 밝아 해돋이전의 맑고 푸른 대지가 선명하게 안겨왔다. 그는 푸르른 들판우로 풀어놓은 허리띠처럼 가물가물 뻗어나간 외줄기 신작로를 더듬어나갔다. 길은 멀리 가로놓인 릉선의 지평선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로상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수 없었다. 최경민은 방금 감시초소에서 들어온 보고가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신작로의 한끝이 멀리 사라져버린 그 릉선의 언덕우에

검은 점 하나가 쑥 솟아오르더니 그 점은 검은 댕기오리 모양으로 이쪽을 향해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검은 그 댕기오리는 더욱 길게 늘어나면서 누런 먼지를 연기처럼 공중에 말아올리며 이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퇴각해오는 적의 자동차행렬이 분명하였다. 최경민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의 피가 머리로 충혈하는것을 느꼈다. 그는 얼른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거리와 놈들의 이동속도로 보아 대대의 전초진지까지 놈들이 접근하자면 아직도 10분이 걸릴것이 예견되였다. 그러니 대대는 놈들보다 10분동안 앞서 전투준비를 완료한 셈이다.

10분！ 이 10분을 쟁취하기 위해 온 대대가 지난 하루밤동안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였는가. 이 10분을 앞당기기 위해 동무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는가. 그러나 오현무가 전문에 지적한것처럼 이 10분으로 하여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였다.

최경민은 무엇인지 뜨거운것이 가슴으로 자꾸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15

날이 밝을무렵에 오현무는 전사들과 함께 전진하였다. 최경민대대를 제외한 련대의 나머지 대대들이 한데 움직였다. 달은 아직 서산에 걸려있었으나 이미 빛을 잃어버리고 허옇게 되였다. 날이 차츰 밝아오기때문이였다. 장밤을 행군으로 밝혀온 그들의 얼굴은 모두 눈들이 움푹 꺼져들어가고 해쓱해보였다. 그러나 전사들은 조금도 지친줄 모르고 힘차게 걸어나갔다.

오현무는 멈춰서서 지도를 펼쳐보기도 하고 보고를 가지

고 달려온 련락병들에게 지시를 주어 보내기도 하면서 다시 대렬을 따라 걸었다. 한곳에 이르러 대렬은 두곳으로 갈라져나갔다. 한개 대대는 좌측으로 갈라진 소로길로, 그리고 련대 직속 구분대들과 나머지 한개 대대는 우측으로 굽어든 골짜기를 타고 진출하였다. 련대후방부와 군의소는 골짜기입구에 자리를 잡고 머물렀다. 그리고 한 5리쯤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련대포병들이 자리를 잡았다.

명희는 련대군의소로 지정된 골짜기입구에 급히 전방군의소를 전개해야 했다. 그리고 방금 련대후방부에 왔다가라는 군의장동무의 련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자기의 습관대로 골짜기의 시내가로 달려내려가서 세수를 하고 장화를 닦고 군복의 주름부터 바로잡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는 어려서부터 밥을 짓거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몸을 가다듬고 부엌이나 방안을 깨끗이 거두고야 일에 착수하였다. 그 버릇은 그의 군대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처치실은 저 나무밑으로 하겠어요. 수술도구와 약품들을 그리로 옮깁시다. 구급처치를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서둘러요.》

명희는 춘옥이에게 지시를 주고 돌아서려다가 그들속에 섞여있는 두 부상병에게 시선이 미치자 《저 동무들이 여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잘 통제해요.》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준의동지！》

《준의동지！》

명희가 어데론지 떠날 차비를 하자 강호범과 리종활은 황망히 그를 멈춰세우려고 하였다. 더 듣지 않아도 중대로 곧 돌려보내달라는 소리가 뻔하였다.

《지시있을 때까지 앉아들 있어요. 요전처럼 또 자유주의를 부려서는 안돼요.》

명희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섰다. 명희는 새벽에 행군로상에서 련대장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다.

오현무는 두 부상병을 그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그저께 동무가 말하던 바로 그 동무들이요. 상처를 검토해보오. 본인들은 중대로 돌아가기를 몹시 바라고있소. 그러니 상처를 잘 보고 처리하는것이 좋겠소.》
이리하여 명희는 춘옥의 속을 태우던 강호범과 리종활을 인계받게 되였는데 그들이 상처도 아직 풀어보기전에 벌써 졸라대는것이였다.
명희는 후방부로 떠나가고 위생병들은 전방군의소를 전개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그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그들은 될수록 춘옥간호원에게 잘 보이고 그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춘옥이의 눈치를 슬슬 보아가며 그의 일손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속이 꽁한 춘옥은 아직 성이 풀리지 않아 거의 외면하다싶이 쌀쌀하게 그들을 대했다. 후송도중 자기를 속여넘기고 도망친 그들을 찾느라고 마음 고생하던 일을 생각할수록 속이 불갈구리처럼 꼬부장해지는 춘옥이였다. 그들이 군의소를 전개하느라고 바삐 돌아치고있을 때 아까 보병들이 올라간 골짜기에서 반땅크총을 어깨에 멘 10여명의 전사들이 급히 달려내려왔다. 숨을 헐떡거리며 내달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구별되는 흥분된 심각한 표정들이 지어져있었다.
그들은 군의소를 전개하고있는 위생병들의 곁을 지나 골짜기입구의 도로쪽으로 달려내려갔다. 다른 한패의 전사들이 아까 그들과 같은쪽에서 달려내려왔다. 그들도 역시 어깨에 반땅크총을 메고 얼굴마다 심상치 않은 표정을 하고 내달렸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곁을 지날 때 위생병 한사람이 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없이 달음박질을 계속하였다. 다만 맨뒤에서 달려가던 키작은 전사 하나가 뒤를 돌아다보며 손을 휘두르면서 고지방향을 가리키고 지나갔으나 무슨 뜻인

지 알길이 없었다.
《적이다!》
별안간 위생병중에서 누가 말했다.
《아니요. 그럴수 없소.》
다른 한 동무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강호범과 리종활은 즉시에 고지너머에 적이 나타났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들은 밤에 오현무와 행동을 같이 해오면서 단편적으로 주어들은 예비적지식을 통해 오늘아침에 그런 정황이 벌어질수 있으며 방금 고지에서 달려내려온 반땅크총수들은 보다 유리한 사격진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도로로 바싹 접근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판단할수 있었다. 그들은 마주들었던 약품상자를 내려놓고 고지를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고지에 오르면 전투마당이 한눈에 안겨올것만 같았다. 그들은 억제할수 없는 그 어떤 충격을 몸에 느끼며 춘옥이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고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차츰 빨라지며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다. 밑에서 누가 부르는것 같았다. 춘옥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뒤도 안돌아보고 냅다 뛰였다.
《빨리! 빨리!》
그들은 일치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지를 향해 내달렸다. 그러나 숨을 헐떡거리며 기여오른 첫봉우리에서는 수림이 앞을 가리여 아무것도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카시아와 잡관목을 헤집으며 앞으로 나갔다. 나무에 걸려 옷이 찢어지고 가시에 찔려 살에서 피가 나온줄도 모르고 그들은 한동안 앞으로 더 나갔다. 그러자 눈앞에 광활한 전망이 펼쳐졌다. 넓은 들판 한복판을 동으로부터 서로 가로 쭉 질러나간 신작로가 바라보이고 그 신작로우에 꼬리를 물고 한줄로 늘어선 검은 행군대렬이 안겨왔다.
《적이다!》 그들은 한층 더 세차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확한 거리는 갑자기 판정할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포

를 달아맨 견인차와 포신을 구별해볼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놈들은 아직 우리의 포위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모양으로 별반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서서히 신작로를 따라 움직이고있었다.

쌍안경만 있으면 놈들의 찌프린 상판대기의 주름살까지 손금처럼 들여다보일것만 같았다.

(어떻게 한다?) 강호범은 곁에 있는 리종활을 바라보았다. 리종활은 곧 분대장의 얼굴에 새겨진 뜻을 알아차렸다. 무기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이였다. 리종활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열에 들뜬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수류탄이라도 몇개 구해가지고 올라올걸 잘못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강호범이 일어서자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정신없이 밑을 향해 도로 내리달렸다. 군의소에 내려가서 아무개의 총이라도 하나씩 들고오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숨을 헐떡거리며 전방군의소에 달려내려간 그들은 뜻밖에도 한명희준의에게 붙잡히고말았다. 녀준의는 방금 후방부에서 돌아오자 춘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근심하던 참이였으므로 그들을 보자마자 어데 갔었느냐고 따져물었다. 두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다. 녀준의는 일이 바빴기때문에 그들에게 오래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대신 다시는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엄격하게 경고하였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당장은 어찌할바가 없으므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위생병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그러나 비둘기마음이 콩밭에 가있듯이 그들의 마음은 자꾸 산너머에로 이끌리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시도 진정할수 없었다.

16

최경민은 대대장감시소에서 쌍안경을 손에 들고 각일각 접근해오는 적의 동태를 지켜보고있었다.

날은 이미 훤히 밝아 동녘하늘이 아침노을에 불타고있었다. 감시소후면 산협에는 수풀로 위장한 박격포포신들이 아침이슬에 축축히 젖어 짙은 록색으로 빛나고있었다.

이미 장탄을 끝낸지 오래된 중기관총들은 사격진지에서 산밑을 굽어보며 숨을 죽이고 도로에 가까운 산기슭에는 반땅크총들이 생나무가지에 덮인 사격호에서 적을 노리며 몸을 잔뜩 움츠리고있었다. 산허리를 우불구불 가로질러나간 참호와 전호마다에는 전투준비를 끝낸 보병들이 자신만만한 눈초리로 다가오고있는 적들을 주시하고있었다.

진지상공에는 긴장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아침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수림과 골짜기는 일촉즉발의 무시무시한 긴장에 짓눌린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이 무서운 정적은 각일각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최후의 계선을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1,400, 1,300, 다시 1,200… 적의 행군종대는 점점 더 최경민이 아까 금을 그은 사격계선을 향해 접근하고있는것이였다.

동쪽 산마루에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적행군종대의 포신이며 자동차유리들이 솟아오르는 해빛에 반사되여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적들은 5리도 넘게 길게 늘어섰으나 그 뒤꼬리가 아직 저쪽 산기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이만저만한 행군종대가 아니였다.

련락병 주영훈은 아까부터 이 어마어마한 행군종대와 대대장의 얼굴표정을 번갈아 지켜보고있었다. 말은 한개 련대라고 하지만 한개 사단도 더 되는것 같이 그에게는 생

각되였다. 이 많은 적들이 1개 대대밖에 없는 이 고지로 달려들면 어떻게 될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쌍안경을 눈에 댄채 까딱 움직이지 않는 대대장의 얼굴은 태연자약하였다. 그는 지금 주영훈이처럼 그 어떤 위구를 느끼고있는것이 아니였다. 그의 경험있는 예리한 군사적안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선 이 행군종대가 자기의 편제무기를 절반나마 상실한,이미 여러차례 우리에게 얻어맞고 괴멸된 패잔부대들로 이루어진 2개 대대 남짓한 병력밖에 못된다는것을 간파하고있었다. 그는 이 행군종대가 가지고있는 화력기재와 대렬구성,그의 전투능력과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후에 그들이 취할수 있는 전술적가능성까지를 다 판단하고있는것이였다. 이제 놈들이 첫타격후 우리가 굴설해놓은 허위진지에 겁을 먹고 좌측대도로쪽이 아니라 전방 400메터앞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소로길로만 쏠린다면 우리의 유인전술에 걸려 적들은 뼈도 추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전투란 언제나 시초의 계획대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예견치 않았던 어떤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전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는것이다. 최경민은 이미 발생할수 있는 모든 정황을 타산하였고 모든 준비를 선행시켰다. 그는 대도로 좌측 릉선에다가 필요한 구분대와 반땅크총을 배치하였으며 박격포의 화력봉쇄를 설정하였다.

전투승리를 위해 작은 가능성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적진을 노려보던 최경민의 머리속에는 이젠 오직 한가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소로길로 밀려드는 적들에게 밀집상태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주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시간은 최경민에게 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1,000메터,900메터… 놈들이 미처 최경민이 기다리고있는 사격계선에 접근하기전에 맞은편 고지우에서 황색

신호탄 두발이 공중으로 련속 솟아올라갔다. 때를 같이 하여 으르렁거리는 포성이 들려왔다. 귀에 익은 우리 76미리 련대포의 독특한 음향이였다. 련달아 일어나는 포소리와 함께 적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선 신작로 여기저기서 검은 연기덩어리가 하나하나 수를 배가하면서 피여나기 시작하였다. 적행군종대는 개미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들끓었다. 우리의 포사격은 처음에는 주로 적의 선두대렬과 뒤꼬리에 대고 집중되였다. 그러다가 다시 중간중간을 토막쳐나갔다. 그것은 마치 꿈틀거리며 지나가던 뱀을 칼로 동강동강 토막내는듯하였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적병들은 바퀴무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연기와 불길속에서 포와 자동차와 원쑤놈들이 한데 뒤범벅이 되여 아우성치며 돌아가는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마저 미구에 검은 연기속에 파묻혀 최경민은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게 되였다.

급히 락동강 이남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뜬눈으로 밤을 새워온 피뢰군련대장 민병일은 몰려드는 새벽잠에 취해 지휘차에 앉아 끄떡끄떡 졸다가 이 봉변에 부딪쳤다. 민병일은 황급히 자동차에서 뛰여내려 길녘에 있는 도랑창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질척질척한 도랑창에다 배를 갖다대고 엎드렸다. 그는 될수 있는대로 땅우에다 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특히 머리를 날아드는 탄알로부터 보호하느라고 깊숙이 땅바닥에 틀어박았다. 썩은 감탕내가 코를 쿡 찔렀다. 그러나 지금 민병일에게 있어서 그것쯤은 개의할바가 못되였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는 탄알이 윙윙 날아올 때마다 움질움질 몸을 더욱 감탕속에 파묻으며 숨을 헐떡거렸다. 그러다가 중기탄알 하나가 윙! 하고 귀뿌리를 스치며 감탕을 튕기는바람에 가슴이 선뜻 얼어붙었다. 민병일은 그제사 지금 자기가 엎드려있는 이 도랑창

이 날아오는 탄알을 막아줄 피탄경사를 이루지 못하고있음을 깨닫고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날쌔게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그가 새로 차지한 피신처 역시 안전한곳은 못되였다. 아까 그가 엎드렸던 도랑보다도 오히려 더 불안한 자리였다. 민병일은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앞에 보이는 움푹한 구뎅이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는 어찌나 급히 서둘렀던지 구뎅이안에 먼저 들어간놈이 엎드려있는것도 모르고 그우에 구을러떨어졌다. 순간 두놈은 다같이 흠칫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쳐다보았다. 웬 낯익은 얼굴이 못마땅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민병일은 그제사 그가 아까 자기 뒤에서 차를 타고오던 고문관 핸드슨임을 깨달았다. 핸드슨은 어디에 짓쪼았는지 이마가 터지고 왼쪽 팔소매가 찢어져 거덜거렸다. 그는 민병일을 향해 무엇이라 입을 열려다말고 불현듯 자라목처럼 목을 움츠리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쉬쉬쉭! 하고 포탄 날아오는 소리가 났기때문이다.

포탄은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길한복판에 와서 벼락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터졌다. 구뎅이안에 머리를 처박고있는 민병일의 잔등을 무엇인가 후려갈겼다. 그바람에 그는 허파부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질겁을 한것은 핸드슨이였다. 놈들의 머리말에 와서 철썩 떨어진 그 물체는 금방 어느 한 장교놈의 몸에서 떨어진 팔뚝이였다.

핸드슨은 공포에 질려 그 괴물이 자기 몸에 달라붙기라도 하는것처럼 한걸음 물러앉기까지 하였다. 난데없이 날아든 이 괴물의 출현은 그들 두놈을 놀라게 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은 그들을 어느정도 침착한 평소로 돌아서게도 하였다. 그것은 민병일이와 핸드슨이 너무도 당황실색한 자신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보인데 대한 수치감과 자존심을 느끼도록 만들었기때문이였다.

권력다툼을 위한 암투와 상대방의 약점을 쥐기 위한 권모술수로 허세와 기만과 위선으로 맺어진 그들 사이였다.

하나는 련대장으로 또 하나는 그를 지도하는 고문관으로 두놈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의 자신들로 되돌아가 구린내나는 인분구뎅이에 엎드린채 정황을 판단하였다.
　주위를 삥 둘러싼 봉우리마다에는 인민군부대들이 짝 덮여 갈수록 더욱 맹렬한 기세로 화력을 퍼붓고있다. 포위속에서 벗어나자면 아무데건 돌파구를 뚫어야 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쪽으로 뻗어나간 이 신작로를 따라 돌파구를 뚫고 곧추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였다. 그러나 전방 800메터앞에 진을 치고있는 인민군대의 방어진을 돌파하기란 쉬울것 같지 않았다. 도로 량쪽에 가로놓인 고지로부터 좌우측 측면사격을 받는 날이면 한사람도 살아남을것 같지 않다. 핸드슨은 구뎅이밖에다 대고 무엇이라고 꽥 소리를 쳤다. 그러자 곁의 홈타기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던 그의 련락병이 네발걸음으로 엉금엉금 그들이 있는 구뎅이안으로 기여들어왔다. 련락병은 겨드랑이밑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쌍안경집을 열고 쌍안경을 끄집어냈다. 핸드슨은 쌍안경으로 앞에 놓인 고지를 살폈다. 민병일은 말없이 이마살을 찌프리고있는 핸드슨으로부터 쌍안경을 받아쥐고 자기 눈으로 고지를 직접 관찰하였다. 고지릉선을 세줄로 가로질러간 방어진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지간히 강화된 방어진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최경민이 굴설한 허위진지였다.) 민병일은 그곳으로의 돌파를 단념하고 좌측으로 꺾어진 소로길을 더듬다가 그곳만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직각적으로 판단하였다. 소로길이 빠져나간 좌우측에는 낮은 릉선이 가로질러있으나 방어공사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대도로에로의 기동과 돌파만을 예견하고 이 작은 소로길을 등한히 한것은 자기들을 살수 있게 해준 인민군지휘관의 큰 실책이였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좌측으로 꺾어진 소로길로의 돌파는 핸드슨도 반대할 근거가 없는 승산있는 타당한 방안이였다. 다만 핸드슨은 소로길이 사라진 고지릉선에 이르자면 적어도 오륙백메터의

개활지대를 극복해야 하는바 그것은 보병들의 도보로는 불가능하며 자동차를 리용하여 상대방이 미처 손쓸새없는 짧은 시간에 개활지대를 극복하고 릉선에 가붙어야 된다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 모든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 5분 되나마나한 사이에 그들 둘사이에서 합의된 결론이였다. 민병일은 돌파를 서둘렀다. 사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과 구뎅이에서 아직 머리도 변변히 못쳐들며 떠는 핸드슨에 대한 모멸감은 민병일의 용기를 배가시켰다. 여기저기 홈타기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던 장교놈들과 사병놈들이 그의 뒤를 따라 땅바닥에서 일어섰고 운전사들이 급히 차에 뛰여올라 부릉부릉 발동을 걸었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대오는 벌떼처럼 다시 신작로에 몰켜돌아가고 기관총을 앞에 건 선두차는 벌써 앞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렬은 갈수록 더욱 늘어났다. 혼자 떨어져서는 살길이 없다는 공포심이, 사경에서 벗어나려는 공통한 하나의 심리가 그들을 하나의 행동에로 결합시킨것이였다.

민병일은 권총을 뽑아들고 이렇게 선두대렬을 수습하여 앞으로 내몬 다음 곁을 지나가는 어느 한 대렬차에 뛰여올랐다. 핸드슨도 차에 올라탔다. 요행 발동이 걸린 자동차는 전부 다섯대였다. 놈들은 그 자동차앞에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제법 맹렬한 기세로 기관총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움직여갔다. 보병들이 무질서하게 그뒤를 따랐다. 놈들은 소로길로 접어들자 맞은켠 릉선에 붙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가하며 내달렸다.

숨을 죽이고 긴장하게 적의 동태를 지켜보고있던 최경민은 놈들이 소로길로 꺾어드는것을 보자 자신이 타산한 전술적의도가 그대로 실현된데서 오는 흥분으로 가슴이 높뛰였다. 최경민은 놈들을 소로길로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쌍안경에서 눈을 떼며 곁에 있는 박격포중대장과 신호수에게 사격개시를 알렸다. 대대신호수가 부는 류량한 나팔소리가 맑은 새벽의 대기를 진동시키며 울려나왔다. 그러자 진

지 여기저기에서 그에 화답하는 중대신호수들의 나팔소리가 련달아 울려퍼졌다. 박격포중대장은 전화통에 매달려 화력을 지휘하고있었다. 그들의 등뒤에서 포물선을 그으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첫 박격포탄은 기관총을 휘두르며 앞으로 전진하던 놈들의 선두차를 보기좋게 뒤집어엎었다. 그리고 미처 숨돌릴 사이도 없이 련달아 날아들어 놈들을 사정없이 들이답새다. 중기관총들은 맹렬한 련발사격으로 일정한 화력구역을 형성하면서 밀집된 적을 몽둥이로 후려갈기듯 무리로 쓸어눕혔으며 경기와 보병총들은 아우성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적보병들을 솜씨있게 하나하나 꺼꾸러뜨렸다.

민병일은 그제사 꾀임수에 빠져들었다는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불과 몇분 안되는 짤막한 사이에 돌파구를 열려던 민병일의 전투대렬은 처참한 몰골이 되여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민병일은 뒤걸음치는 사병놈들의 발길에 채워가며 혼란에 빠진 대렬속에서 벗어나자 어느새 껑충껑충 논두렁으로 내닫고있는 핸드슨의 뒤를 따라 내뛰기 시작했다.

신작로상공에는 포연이 자욱하게 서려있었다. 불과 한시간전에만 해도 적 한개 련대의 행군종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있던 도로우에서 지금은 격파된 자동차며 포들이 불타고있었다. 차에 실었던 가소린이며 고무바퀴들이 불타며 시꺼먼 연기를 공중으로 말아올렸다. 탄약들이 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타고있었다. 살아남은 놈들은 자동차와 중무기들을 행길에다 되는대로 내던지고 뿔뿔이 흩어져 발길 닿는대로 골짜기와 산속으로 도망쳐들어갔다. 산기슭과 골짜기와 수림속 곳곳에서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오현무의 지휘밑에 전체 부대가 수색전투를 진행하고있었다.

《한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야 하오.》

오현무는 전투가 개시되자부터 무선으로 최경민에게 명령을 전달하군하였다.

최경민은 소수인원만을 진지에 남겨놓고 대대의 대부분력량을 수색전투에로 돌렸다. 최경민은 자기 손으로 직접 괴뢰군 련대장놈과 핸드슨이란 그 미제침략군고문놈을 잡으러 떠나고싶었으나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감시소에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투는 구분대단위로 수림속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였다.

김봉수중대는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참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수림을 훑어지나갔다. 그들은 전진하다가 수풀속에서 꿩처럼 머리를 틀어박고있는 장교놈의 멱살을 쥐여일으키기도 하고 간혹 총질로 대항하는놈을 쏴죽이기도 하고 혹은 골짜기에 몰켜있는 무리들을 포위하여 사로잡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전투원들은 적련대장이나 미군고문관놈을 찾으려고 눈을 밝혔다.

17

강호범과 리종활은 아까부터 산너머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격소리에 속이 달아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명희준의가 부상병을 운반하러 나간 짬을 타서 다시 고지를 향해 달려올라갔다.

그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아까 올라갔던 고지우에 다시 올라가보니 길게 꼬리를 물고섰던놈들의 행군종대는 이미 간데 없고 지금은 신작로 곳곳에서 검은 연기만이 피여오르고있었다. 그들은 위생병들로부터 하다못해 수류탄이라도 하나 얻어볼가 하고 내려갔다가 공연히 시간만 지체하고 통쾌한 전투장면조차 보지 못하게 된 일이 분하였다. 그러나 사처에서 총소리가 아직 어지럽게 들려오는것으로 보아 전투가 완전히 결속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골짜기를 타고 밑으로 내달렸다. 골짜기는 무성한 나

무로 덮여있었기때문에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지러지는 기관총소리며 기관단총의 련발사격소리가 방향을 가늠할수 없게 사처에서 들려올뿐이였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조바심이 나서 구을듯 밑으로 달려내려가다가 갑자기 못박힌듯 한곳에 굳어져버렸다. 뒤따르던 리종활도 영문을 모르고 주춤 멈춰섰다.

강호범은 자기앞에 돌연히 불쑥 나타난 누런 군복차림의 괴뢰군장교놈을 쏘아보고있었다. 손에 권총을 든 그놈은 어찌나 황급했던지 불과 10여메터밖에 서있는 그를 아직 보지 못하고 허둥지둥 기여오르고있었다.

다음순간 강호범은 자기 몸에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손에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됐기때문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발밑에 있는 돌멩이를 주어들었다. 그리고 그자신도 놀랄만치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손들엇!》하고 고함을 쳤다. 그놈은 깜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목소리나는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놈의 두눈이 올빼미눈깔처럼 뒤번져지고 얼굴의 근육이 공포에 질려 보기 흉하게 이그러졌다. 강호범은 공포에 질려 이그러진 그놈의 얼굴이 어데서 한번 본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언제 어데서 본 얼굴인지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순간 그놈은 어찌나 기겁했던지 자기 손에 권총이 쥐여져있다는것도 잊어버린 모양으로 홱 돌아서며 산밑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서라! 서!》

강호범은 벽력처럼 고함치며 쫓아내려갔다. 그러다가 그만 칡넝쿨에 다리가 걸채여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서슬에 풀숲에 숨어있던 다른 한놈이 놀라서 후닥닥 일어나 내뛰였다. 그놈은 키 큰 미군놈이였다. 강호범은 괴뢰군장교놈을 쫓다말고 코앞에 있는 그놈을 쫓아갔다.

《서라! 서지 않으면 죽인다!》 그는 큰소리를 치며 나는듯 범처럼 펄펄 뛰였다. 그러자 미군놈은 어찌나 바빴

던지 발을 헛디디고 나가넘어졌다. 그놈은 강호범이 곁에 이르자 당장 숨이 넘어가는것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버쩍 추켜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큼직한 나무몽둥이를 손에 든 리종활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내려왔다. 강호범은 단숨에 죽일듯이 돌을 쥔 손을 쳐든채 달려들어서는 한손으로 그놈의 옆구리에 찬 권총부터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그 미군놈이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강호범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러나 그는 잠시후에 이 미군놈이 자기가 손에 들었던 그 돌멩이를 수류탄으로 착각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기가 막혀 웃음이 다 나왔다. 리종활은 그놈이 어찌나 비명을 크게 질렀던지 영문을 모르고 깜짝 놀라기까지 한 일이 분해서 그놈의 엉뎅이를 힘껏 걷어찼다.

《에이, 이 비겁한 자식같으니라구.》

이 모든 일들은 불과 얼마 안되는 짤막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강호범은 포로를 리종활에게 맡기고 놓쳐버린 괴뢰군장교놈을 다시 쫓아내려갔다. 수림속을 헤집으며 내달리던 그는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아까 그놈이 어데선가 꼭 본 일이 있는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였다는 생각이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어데서 봤을가?…) 다음순간 강호범은 펄쩍 뛰였다.

(옳지, 그놈이였구나.) 강호범은 그놈이 바로 민대감의 아들인 민병일련대장놈이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아까보다 더욱 맹렬한 기세로 내달렸다.

얼마 안가서 수림은 이내 끝나고 산기슭에 잇닿은 넓은 콩밭이 나타났는데 그놈은 벌써 콩밭을 지나 산기슭 수림속으로 달려들어가고있었다. 그리고 그놈의 뒤를 따라 키꺽다리 미군놈 하나가 또 노루새끼처럼 발이랑을 껑충껑충 뛰여넘으며 내뛰는것이 바라보였다. 거리가 너무 멀

었기때문에 이제는 어쩌는수 없었다. 강호범은 권총을 몇방 갈기다가 맥이 풀려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호범과 리종활이 미군포로놈을 앞세우고 큰길에 나섰을 때는 전투가 이미 다 끝나고 큰 신작로에는 불탄 자동차며 뒤집힌 포며 피묻은 놈들의 시체만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어떤 자동차에서는 아직 불길이 날름거리기도 하고 타다남은 포바퀴에서는 불은 이미 꺼지고 연기만 푸실푸실 피여오르기도 하였다. 그 곁을 지나가니 독한 화약내와 고무타는 역한 냄새가 났다. 포탄이 떨어졌던 신작로에는 움푹움푹 땅바닥이 패이고 그 언저리는 거멓게 화약연기에 그슬려있었다. 전사들이 포로들을 앞세워가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온전한놈은 하나도 없다. 부상을 당했거나 모자를 쓰지 않았거나 견장도 없이 맨발바람으로 절룩절룩 걸어가는놈도 있었다. 그놈들의 얼굴들에는 방금전에 우리의 포와 날창 앞에서 겪은 공포가 아직도 그대로 어려있었다. 강호범과 리종활은 1중대동무들이 있는가 하여 살폈으나 련대직속 동무들이 아니면 거반 2대대와 3대대 동무들이였다. 자기들의 중대나 대대동무들은 하나도 만날수가 없었다.

리종활은 길바닥에 너부러져있는 장교놈의 몸에서 권총갑을 떼내여 자기 꽁무니에 찼다. 그리고 강호범은 아까 총이 없어 그놈을 놓쳐버린 일이 분해서 놈들이 내던진 보병총을 여라문자루나 수집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미군포로놈에게 걸머지운 다음 중대를 찾아 걷기 시작하였다.

오현무는 전투가 성과적으로 종결되자 제1대대로 나갔다. 대대는 휴식중에 있었다. 최경민이 어제저녁 출발명령을 내린이래 만 12시간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선포한것이였다.

김봉수중대 전투원들은 고지우에 올라앉아 롱담을 주고받거나 혹은 풀밭에 다리를 길게 펴고 담배들을 피웠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겪은 일들을 기쁨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들에게는 지금 주고받는 한마디의 롱담도 류다른 기쁨을

주었으며 담배맛도 각별하였다. 이렇게 즐거운 휴식의 기쁨을 그들은 생전처음 맛보는것 같았다. 그들은 방금전까지 휴식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쓰러져 하루고 이틀이고 내처 잠들것만 같았었다. 그런데 막상 휴식명령이 떨어지고보니 어쩐 일인지 모두 잠이 오지 않았다.

이때 최경민은 풀밭에 나앉아 야전수첩에다 무엇을 적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는 틈시간을 타서 간밤부터 진행해온 전투행동일지를 정리하고있는것이다.

최경민은 스스로 자체 전투총화를 짓느라고 골몰하고있었기때문에 오현무련대장이 불쑥 나타난것도 모르고있었다.

《차렷！》

련대장을 먼저 발견하고 누군지 차렷구령을 쳤다. 최경민은 혁띠끈을 졸라매고 달려나갔다.

오현무는 방금전까지 전사들이 차지했던 전호속에 들어가 군사지휘관다운 실무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호의 깊이를 측정하고있었다. 그는 판에 박은 대대장의 보고는 듣는둥마는둥 하고 전호의 깊이를 다 잰 다음에 밖으로 껑충 뛰여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대대의 전반적인 진지설비체계를 훑어보는것이였다.

최경민은 차렷자세를 하고 그앞에 서있었다. 그는 말없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련대장의 얼굴을 주시하고있었다. 최경민의 얼굴에는 마치 시험답안을 검열하고있는 선생앞에 선 어린 학생과 같은 그런 긴장성이 어려있었다. 오현무는 진지체계를 쭉 훑어보다가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다.

《저건 무엇이요？》

《허위진지입니다.》

최경민은 선채로 대답하였다.

오현무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한동안 그곳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몇시에 여기 도착했소？》

《새벽 4시입니다.》

《공사는 언제 끝났소?》
《날밝기 직전인 5시 5분이였습니다.》
《그러니 한시간동안에 해치웠군.》
《그렇습니다.》
최경민은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대답했다. 순간 오현무의 두눈은 빛났다. 그는 자기 내부에 충만되고있는 그 어떤 만족감을 밖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억제하고있는것이 겉으로도 알려졌다. 오현무는 야전가방에서 담배갑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한대 붙여물면서 최경민에게 권했다.
《해보니 어떻소? 이젠 대대를 지휘할 자신이 생겼소?》
오현무는 최경민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부임한지 이제 이틀밖에 안됐으니까 이제 겨우 이틀밖에…》
오현무는 더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진지에서 무엇인지 심상치 않게 떠들썩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련대장이 최경민에게 물었다. 최경민은 분명히 1중대 진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것을 알았으나 그자신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 딱히 알수 없었다. 그들은 산릉선을 타고 전사들이 몰켜서서 떠들썩거리는 1중대 중대장감시소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김봉수가 달려와서 중대가 지금 휴식중에 있음을 보고하고나서 병원으로 떠났던 강호범과 리종활이 미제침략군 한놈을 포로해가지고 왔다는 사연을 첨부해 말했다.
(무엇이? 미군놈을?) 최경민은 이 뜻밖의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경민은 오늘 전투에서 그가 벼르던 괴뢰군련대장이며 그의 고문 핸드슨이란놈을 사로잡지 못한 일때문에 아까부터 속이 내려가지 않던 참이였다. 최경민은 혹시 그놈들을 다른 대대에서 사로잡지 않았는가 하여 전투뒤끝의

바쁜 짬을 타서 2,3대대며 련대에까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잡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최경민대대는 오늘아침 전투에서 포로만 해도 근 500명을 잡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경민은 그놈들을 놓쳐버린 일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미제침략군놈을 하나 포로해가지고 돌아왔다지 않는가.

(혹시 핸드슨이란 그놈이 아닐가?)

련대장과 대대장이 나타나자 전사들은 모두 몸들을 바로잡고 서있었다.

최경민은 오현무를 따라 그들속으로 들어갔다. 미군 한놈이 머리를 푹 수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엊저녁에 병원으로 돌려보낸 두 동무가 역시 차렷자세를 하고 서있었는데 그들은 쫑무니에다 제법 권총까지 하나씩 차고있었다. 경민은 우선 미군포로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나서 저으기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장교가 아니고 하사관놈이였기때문이였다.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여 강호범분대장이 경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리종활이 곁에서 필요한 대목들을 보충적으로 더 설명하군하였는데 그것이 어찌나 익살스러웠던지 둘러서있던 전사들이 련대장앞에서 웃음을 참느라고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고 혹은 낯을 돌리고 입들을 틀어막기도 하였다.

오현무도 처음에는 정색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차츰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다 마침내 강호범이 돌을 내던지자 포로병놈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던 대목에 가서는 웃음을 더 참을수 없었다. 련대장이 웃는바람에 웃음은 마치 막혔던 보뚝이 터져나가듯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들은 배를 그러안고 눈물이 나도록 웃고 돌아갔다. 경민은 오현무의 질문이 끝나자 그 포로병놈의 직무가 무엇이며 미군고문관 핸드슨이며 련대장놈의 행방에 대하여 심문을 시작했다. 그놈은 핸드슨의 사업을 보조하던 련락병

이였는데 전투가 시작되자 서로 헤여져 행처를 알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곁에서 듣고있던 강호범이 괘씸해서

《뭐야, 이새끼!》하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는바람에 그놈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강호범은 괴뢰군련대장놈과 자기가 맞다들렸다가 무기가 없어 놓쳐버린 사실을 보고하였다.

련대장도 최경민도 모두 심각해진 얼굴로 그의 보고를 듣고있었다.

오현무는 김봉수에게 이놈을 즉시 련대참모부로 호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권총은 어떻게 하랍니까?》

곁에 서있던 리종활이 옆구리에 찬 권총을 어루만지며 능청스럽게 련대장에게 물었다.

《권총이 욕심이 나오?》

오현무가 두눈을 끔벅거리며 반문하였다.

《아닙니다.》

리종활은 련대장의 물음을 부정하였으나 한손은 여전히 권총갑을 슬슬 어루만지며 못내 아까와하는 태도였다. 오현무는 의미있게 경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대대장이 처리하라는 암시였다. 최경민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권총들을 바치고 군의소로 돌아가시오.》

《네?》 두사람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오현무는 두눈을 능청스럽게 끔벅거리며 말없이 히물히물 웃고 서있었다. 잠시후에 경민은 시무룩해서 말없이 머리를 수그리고 섰는 그들에게 덧붙여 말했다.

《군의소에 가서 정식으로 수속을 밟아가지고 오시오. 동무들은 맨손으로 미군놈을 생포해오는 공로를 세웠소. 그렇다고 마음대로 군의소에서 도망쳐나온 무규률적인 행동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군의소에 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비판하고 정식으로 퇴원수속을 해가지고 돌아오시오. 떠날 때 내가 편지를 써주겠소.》

강호범과 리종활은 그제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활기있게 대답을 하였다.

《들었습니다.》

오현무는 최경민에게 동무들을 모두 푹 쉬게 하라고 이르고나서 대대를 떠났다.

18

락동강도하전투의 한고리로 진행된 괴암동포위전투에서 원쑤들을 통쾌하게 소멸해버린 오현무는 그 자리에서 전사들을 휴식시킨 다음 부대를 다시 앞으로 진출시켰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대로 락동강을 단숨에 도하하기 위해서였다.

최경민대대전투원들이 새벽에 그토록 힘을 들여 파놓은 전호들은 주인없이 텅 빈채 뒤에 남았다. 그러나 전사들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전진! 그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전사들에게 항상 기뻤다. 오늘 련대행군대렬은 각별히 활기를 띠였다.

《래일새벽에 락동강을 넘는다.》 전사들속에서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그들은 떠날 때 주민들을 통해 락동강이 불과 80리앞에 있다는것을 듣고 진정들을 못했다.

락동강! 그것은 남해바다와 직접 잇닿아있는 조국의 마지막 장강이다. 락동강! 이 강을 건느면 부산이 코앞이다. 전사들의 가슴은 불타고 혈관의 피는 끓어번졌다.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의 결전장에로! 전사들은 기세충천하여 앞으로 전진하였다.

《래일새벽에 락동강을 넘어선다.》 어데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소문이 퍼지고 전사들은 또 그렇게 알고있었다. 그러나 오현무는 다음날 새벽녘에 이르

러 어느 한 산마루에다 부대를 멈춰세웠다.

하늘은 꽉 흐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위는 깊은 어둠에 잠겨있었다. 구분대장들은 대대부로,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휴식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였다. 강호범은 땀을 들이려고 앞가슴을 풀어헤쳤다. 그는 간밤 행군에서 이고장 지리를 잘 안다고 자진하여 행군대렬의 길안내를 하기도 하고 군관들에게 이 고장의 실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렇게 중대에 돌아와서 중대동무들과 함께 자기 고향땅을 밟게 되는 기쁨으로 하여 잠시도 진정할수 없었다. 하긴 그가 자기 고향마을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려고 이 며칠 동안에 얼마나 복잡한 곡절을 겪었던가. 다른것은 다 내놓고라도 그가 어제낮에 군의소에 가서 녀준의한테 추궁을 받던 일만 생각해도 이마에서 진땀이 흐를 지경이다.

강호범은 대대장의 명령대로 어제낮에 리종활과 함께 공식적인 퇴원수속을 하기 위하여 련대군의소로 갔었다. 그들은 떠날 때 대대장의 편지를 가지고 떠났기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군의소에서 그저 수속을 해주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군의소의 전체 일군들이 그들을 아예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찾아왔어요? 돌아가요. 군의소를 필요할 때 찾아드는 려인숙인줄 알아요?》

맨먼저 그들을 만난 한 간호원의 쌀쌀한 대답이였다. 그들은 여직 한번도 그 간호원동무가 이렇게 노여워하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더우기 춘옥간호원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군의소의 여느 사람들 역시 못마땅한 눈으로 그들을 흘겨보군하였다. 하긴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씩이나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그들이 어찌 노여워하지 않겠는가. 강호범과 리종활은 진심으로 사과도 해보고 비위좋게 빌붙어도 보고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정세를 호전시켜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군의소에서 제일 싹싹한 한명희준의를 만나야 모

든 일이 풀릴것 같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녀준의가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도 바로 그 녀준의한테 편지를 써보냈었다. 그들은 간호원에게 녀준의동무가 어데 갔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간호원들은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잘라버렸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반나절을 시달리다가 저녁녘에 가서야 그들은 후방부에 갔다 돌아오는 녀준의를 만날수 있었다. 대대장의 편지를 보자 퇴원수속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 온순한 녀준의도 그들을 앉혀놓고 이마에서 진땀이 나도록 비판을 주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축축한 바람이 확 밀려왔다. 호범은 이마의 땀을 문대며 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는 습기 머금은 그 바람속에 어딘지 모르게 강비린내가 풍겨있는것을 감촉했다. 비릿한 그 강냄새는 그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련민의 정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다. 그는 아까부터 이 근방쯤이면 락동강이 바라보이지 않을가 하고 가늠하던 참이였다.

《락동강이다!》

어둠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소리는 차츰 대렬속으로 퍼져가며 여기저기서 전사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전사들은 어둠속에서 강을 분간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다. 강은 마치 자기의 크나큰 몸뚱이를 어둠속에 감추고 숨을 죽인듯 아무것도 분간해낼수 없었다.

《분대장동무! 락동강이 옳습니까?》

곁에 있던 장문학의 물음이였다.

《그렇소!》

강호범은 대답해놓고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은것을 참아버렸다. 그 한마디 대답만으로 지금 자기의 고동치는 심장을 눌러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그였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의 말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왔다. 그는 중대장과 소대장들에게 무엇인가 임무를 주면서 구역과 계선을 나누어주고있었다. 강호범은 곧 방어구역을 할

당해주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고보니 오늘아침에 강을 건느는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저앉게 되는 모양이였다. 그의 예견대로 김봉수는 곧 진지굴설을 위한 공병작업을 조직하였다.

전호굴설작업이 거의 끝나갈무렵 먼동이 희밋이 밝아왔다. 그러자 크나큰 검정보자기를 펴놓은것 같던 발밑의 어둠속에서 검은 강줄기와 희끄무레한 백사장이 갈라지고 산발과 구릉들의 륜곽이 어슴푸레 드러났다. 그리고 잠시후에는 검던 강줄기에 푸른 색채를 부여하고 우거진 대나무숲을 산발의 검은 륜곽에서 갈라놓았다. 려명은 마치 시약속에 담근 사진필림처럼 어둠속에서 하나하나 이 모든 대자연의 륜곽을 소생시켜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물체들은 더욱더 자기의 색조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면서 선명하게 바라보였다.

흰 백사장은 큰 광목필을 펼쳐놓은것처럼 하얗게 누워있고 강물은 손을 담그면 금시 물이라도 들것처럼 파랗게 바라보였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을 련결하는 외줄기 신작로가 허리띠처럼 들판우에 놓여있었다. 강을 건너 맞은켠 대안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그 들판의 한끝은 밋밋한 야산들과 잇닿아있었다. 그 산기슭에는 올망졸망한 촌락들과 우거진 대나무숲이 마치 손바닥우에 놓인 장난감처럼 작게 바라보였다. 락동강의 대안 오른쪽 기슭은 바위투성이의 깎아지른듯한 절벽을 이루고있었는데 바위투성이의 그 절벽우에는 우거진 푸른 소나무가 한벌 덮여있었다.

아침노을이 차츰 하늘과 강물을 붉은 빛으로 물들여나갔다. 김봉수중대가 자리잡은 고지의 전호속에서 굽어보이는 락동강반의 황홀한 이 정경은 눈부신 아침해빛에 반사되여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전사들은 황홀한 이 정경앞에서 눈을 뗄줄 몰랐다. 이렇게 진하고 붉게 타오르는 아침노을을 그들은 처음 보는것 같았다. 전사고 군관이고 할것없이 모두 솟아오르는 아

침해돋이에 심취되여있었다. 무엇인가 뜨겁고 숭엄한 감정이 그들의 가슴을 뿌듯이 채워나갔다.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돋이를 지켜보고섰던 장문학이 불쑥 흉장우에 뛰여오르며 엄숙한 목소리로 어느 책에서 본 락동강의 민요 한구절을 읊었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락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넘쳐 흐르네
흐르네—에—헤—야

철렁철렁 넘친 물
들로 벌로 펴지면
만목숨 만만 목숨이
젖이 된다네—
젖이 된다네—에—헤—야

이 벌이 열리고
이 강이 흐를제
그 시절부터
이 젖먹고 자라왔네
자라왔네—에—헤—야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아—하—야

그 민요는 한결같이 전사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

들의 얼굴은 엄숙하게 빛났다. 그들은 말이 없었으나 저마다의 심장속에서 하나의 숭엄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하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가슴을 불태우고있는것은 강호범이였다. 그는 장문학이 랑송하고있는 민요의 참뜻을 음미할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확신하고있었다.

류차가 거의 없어 멎은듯이 흘러내리는 푸른 저 강물속에 담긴 이고장 사람들의 한많은 그 사연들을,가을철이면 쪽빛같이 푸르러지는 저 강기슭의 노란 뽀뿌라나무에서 지저귀는 까치의 사연이며 저녁해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며 흰옷 입은 장군들이 주고받는 세속적인 이야기들… 이고장의 적토질 땅과 구수한 령남사투리에 담겨진 사연을 이고장 태생아닌 타향사람들이 어떻게 리해할수 있으랴! 락동강의 고달픈 세시기(년중행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말로 이 강을 안다고 할수 없다. 강호범의 눈앞에는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다와 같이 넘쳐나 이 주변일대를 휩쓸군하던 몸서리치는 광경이 되살아나는것이였다.

락동강은 증수기와 갈수기의 수량의 차가 심한것으로 이름이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강물은 돌과 모래를 날라다가 강바닥을 메꾸고 높인데다가 대를 두고 치산치수란 말도 모르고 흘러흘러온 강이다. 그러므로 강보다 백사장이 몇곱 넓다. 그리고 홍수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모든것이 물에 잠겨버리고 이고장은 온통 바다로 변해버린다. 큰물은 년 3차에 걸쳐 이고장을 휩쓸고 지나는것이 보통인데 6월에는 복물이 밀려오고 7월에는 처서물이,9월에는 추석물이 진다. 이렇게 해마다 년중행사처럼 큰물이 질 때마다 사람들은 둥둥 떠내려가는 지붕우에 올라앉아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치고 철뚝이 무너져내리고 물에 잠긴 백양나무끝으로 뱀들이 기여오른다. 이러다가 물이 빠지면 오곡이 누렇게 여물어가던 논밭은 황량한 적지가 되고 집과 가족과 한해농사를 잃

은 이고장 백성들의 땅을 치는 통곡소리가 터져나온다. 하지만 이고장 농군들은 철이 되면 무시무시한 이 홍수기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것은 락동강류역의 적지 않은 논들이 천수답이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기때문이다. 가물이 들라치면 이 큰 강줄기를 곁에 두고도 논판은 쩍쩍 갈라지고 밭고랑에서 풀썩풀썩 먼지가 일어난다. 그로부터 이고장에는 4월에는 가재가 락동강 없는 딴고장으로 이사를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어차피 농사를 못지을바에는 무시무시한 그 홍수를 각오하면서도 요행수를 바라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락동강에는 홍수가 나도 죽고 홍수가 아니 나도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 강을 떠나서는 살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그 모든것을 자기들의 타고난 운명에 맡기고 살아왔다. 실로 락동강은 이 나라 령남벌의 수백만 농군들을 먹여살리는 젖줄기나 다름없는 강이였으며 눈물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설음의 강이였으며 운명의 강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천년 내려오던 저주로운 그 운명의 세시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강호범은 생각에 잠겨 낯익은 고향땅에서 눈을 뗄줄 몰랐다.

19

김봉수중대전투원들이 락동강반의 황홀한 해돋이에 심취되여있을 때 련대장감시소에서는 락동강도하전투를 위한 오현무의 예비결심채택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여기에는 부련대장들과 참모부성원들 그리고 각 대대장들과 직속구분대장들까지 함께 참가했다. 한명희도 련대군의장을 대신하여 여기에 참가하였다.

새로 자리잡은 련대장감시소는 전연으로부터 약 2키로메터 후면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고지우에 자리잡고 있어 락동강반의 정경이 손금처럼 눈앞에 굽어보였다.

오현무는 임무를 료해하고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부련대장들과 참모일군들 그리고 구분대장들로부터 조회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그는 특히 대대전투원들의 실정을 료해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는 언제나 자기 사업에서 이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그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서 체득한 고귀한 혁명적사업작풍의 하나였다. 전사, 그것은 오현무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혁명의 밑천이고 재부였으며 자기 몸의 한부분이였다. 때문에 그는 언제나 전투를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우선 전사들의 실정을 진지하게 료해하고 그들의 휴식조직과 그들을 위한 정치사업에 자기의 많은 시간을 돌렸으며 또한 전투후에는 전투성과를 기뻐하기에 앞서 전사들의 손실에 대해서, 그들의 피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제 강행군때 다리를 절던 한 전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사들의 급식문제를 두고 후방일군들을 나무라는가 하면 특무장과 취사병들의 사업에 구분대장들이 관심을 적게 돌린다고 질책하기도 하였다.

구분대장들의 보고를 다 청취하고나서 오현무는 앞으로 진행될 락동강도하작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 다음 최고사령관동지의 락동강도하작전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의 결심을 선포하였다. 차지한 현계선에서 적의 반격을 예견하여 이미 착수한 방어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최단시간내에 락동강을 도하할수 있는 모든 준비사업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오현무는 자기의 결심을 선포하고나서 구분대장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는 구분대장들의 얼굴표정과 시선들

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의 공통한 질문을 감촉하였다. 오현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곧 알아차렸다.

《동무들은 락동강을 눈앞에 굽어보며 무엇때문에 잠시라도 여기에 머무르느냐고 의아해할거요. 나라고 왜 동무들의 심정을 모르겠소. 그러나 정황이 좀 달라졌소.》

오현무는 변화된 전투정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피암동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부대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일거에 락동강을 강행도하할 목적으로 이곳을 향해 급히 내달려왔었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서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황급히 태평양연안에 있는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조선전선에 급급히 투입하는 한편 패주한 괴뢰군병력들을 집결하여 락동강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오현무가 련대를 거느리고 락동강반에 도착하였을 때는 대안에 이미 미제침략군 8야전군으로 편성된 방어체계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고착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반격까지 시도하고있는 형편이였다. 변화된 이런 정세하에서 준비없이 락동강을 도하할수는 없었다. 이에 대처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운 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즉 준비있는 강행도하로 이전할데 대한 명령이였다.

《우리는 후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나왔소. 포탄과 탄약의 예비도 없이 강을 건너갈수는 없소. 도하기재도 마련하고 포탄도 실어오고 든든하게 도하준비를 해야겠소.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닐거요. 락동강을 한시 급히 넘어서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모든 준비사업을 다그쳐 끝내는가에 달려있소.》

회의가 끝나자 군관들은 제각기 자기 위치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대대장 최경민과 군의소의 한명희만은 제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있었다. 련대장이 회의를 끝내며 따

로 지시할것이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기때문이였다. 련대장 오현무는 구분대장들을 다 보내고나서 최경민에게 지도를 짚어가며 보충적인 지시를 주기 시작하였다.

《동무네 대대에서는 이쪽의 이 바위고지계선에 담당 정찰소대동무들을 파견하여 시급히 적정을 장악해야겠소. 이 일대가 앞으로 련대도하작전에서 중요한 전술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명심하고 견실한 동무들을 보내도록 하오.》

《들었습니다.》

《좋소. 그럼 돌아가보오.》

최경민은 거수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대대장을 보내고나서 오현무는 명희를 향해 말하였다.

《어제 동무한테 보낸 1대대 부상병동무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대장동무한테서 가능한대로 퇴원시켜 보내달라는 편지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퇴원수속을 밟아 중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명희는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잘했습니다. 그래 그 동무들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원래 두 동무 다 경상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거반 다 아물어가고있기때문에 그런대로 전투행동에 참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도록 종종 붕대만은 갈아줘야 합니다.》

명희의 대답을 듣고나서 오현무는 시간을 내여 중대에 자주 내려가서 그들의 부상처를 계속 치료해주고 돌봐줘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명희는

《들었습니다.》하고 대답할대신 입을 봉하고 서있었다. 그는 전사들에 대한 오현무의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세심한 관심에 머리가 수그러지면서도 련대장의 그 지시에 대해서는 다소 고려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그것은 두번씩이나 군의소를 도망쳐나간 그 동무들의 자유주의행동을 엄격히 비판하고 필요하다면 책벌이라도 줄대신에 오히

려 중대에까지 찾아나가 그들을 치료해준다면 앞으로 군의소의 치료규률을 세우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전투원들이 련대군의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이였다. 생각에 잠겨 약간 흐려진 얼굴로 대답을 못하고 서있는 명희를 한동안 지켜보고있던 오현무는 의미있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 동무들이 아마 준의동무를 단단히 노엽혔던 모양이로군.》

오현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능청스럽게 두눈을 끔벅거렸다.

《련대장동지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늘 전사들 편만 드시니까 전사들은 군의나 간호원의 말을 귀등으로 듣는것 같습니다. 정성들여 치료를 해주고 밤을 새워가며 따뜻하게 간호를 해주어도 부상병들은 마치 군의소에 와서 치료를 받는것을 범의 굴에나 들어오는것처럼 꺼려하거던요.》

명희는 자기가 평소에 품고있던 생각을 응석을 섞어가며 오현무앞에 털어놓았다.

《내가 공평하지 못하단말이지요? 그리고 부상병들은 련대군의소를 범의 굴보다 더 꺼려하고…》

오현무는 입이 삐쭉 나온 명희의 얼굴을 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나서 무엇인가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군의소의 치료규률을 약화시키고 무질서를 조성할수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엄하게 통제하고 바로잡아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혁명동지에 대해 항상 뜨겁게 대해야 됩니다.》

오현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항일빨찌산투쟁때 우리 유격대의 어느 한 군의동무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부상당한 한 동지를 치료

하기 위해 눈보라치는 천리길을 찾아간 일이 다 있습니다. 혁명동지라는것은 그렇게 귀중한것입니다. 명희동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돌보고있다는것을 명희동무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명희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잘 알았습니다. 련대장동지의 말씀대로 그 동무들을 찾아가서 힘자라는데까지 계속 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오.》

명희는 전사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련대장의 너그럽고 뜨거운 품성앞에서 새삼스럽게 머리가 수그러졌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최경민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경민은 아까 련대장으로부터 담당정찰소대를 통해 대안의 적정을 정찰할데 대한 지시를 받고 이고장에서 태여나 이 부근 지리를 손금보듯 꿰고있는 강호범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부상처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잘 알고있는 준의와 상론해보고싶은 생각으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최경민은 녀준의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의 의사를 물었다.

《알겠어요. 저도 이제 방금 련대장동지로부터 중대에 나가 그 동무의 상처를 치료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나오는길이였어요. 제 생각엔 별일 없을것 같은데 저와 함께 가서 상처를 직접 확인해보고 결심을 채택하는것이 좋겠어요.》

두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되여 같이 대대를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아까부터 대대장이 떠나기를 기다리고있던 련락병 주영훈이 그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20

대대장이 련대장감시소에 올라간후 군사부대대장 전창결은 대대방어공사를 지휘하느라고 바삐 돌아가고있었다. 일은 극히 단순하였다. 참호와 교통호를 파고 감시소를 설비하고 전화선을 늘이며 전연지대에는 지뢰를 묻고 반땅크차단물을 설치하면 되였다. 그러나 대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손에 익은 이 단순한 일들이 오늘따라 그에게는 퍽 힘겹게 진행되였다.

대대장은 련대장감시소로 떠나가면서 그에게 공병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었다. 하루를 머물러있겠는지 아니면 강을 건느기 위해 오늘저녁에 떠나겠는지 모를 림시방어진지였지만 최경민은 상부의 조치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병작업의 규모와 위치들을 지적해주고 시간까지 계산하여 오전중에 작업을 끝낼것을 엄격히 요구하였다. 전창결은 대대장이 돌아오기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작업은 예정보다 굼뜨게 진행되여갔다. 특히 땅크 위험구역에 대한 반땅크차단물 설치작업이 자리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적 항공대들이 새벽부터 끊임없이 상공을 선회하고있었으므로 적의 공중감시로부터 목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위장하고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 사정과도 관련되는것 같았다.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 그는 작업이 이렇게 굼뜨게 진척되는것은 일정하게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있다는것을 차츰 감촉하였다. 전창결은 처음에 그것을 지휘관의 오랜 체험으로써 요즘 계속된 강행군으로 인한 전투원들의 피로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은 속단이였다. 작업을 지

휘하기 위해 중대의 작업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그 원인을 알게 되였다. 반땅크차단물들은 거의 규정의 요구대로 설치되여있지 않았었다. 대체로 그 차단물들은 방어전투를 위해 설치하였다기보다는 공격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통로를 언제든지 손쉽게 개설할수 있도록 타산을 앞세운것이였다. 그는 보병들의 사격진지굴설작업에서도 역시 그런것을 발견하였다. 개인호와 교통호들은 규정이 요구하는 깊이와 흉장의 높이를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군사부대대장동지！ 중대는 지금 휴식중에 있습니다.》

그가 1소대작업장에 나타나자 김봉수가 달려와서 보고를 하였다. 전사들이 분대단위로 여기저기 나무그늘밑에 모여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휴식하기 위해 방금 일손을 놓은 모양으로 전사며 군관이며 할것없이 모두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해별이 어찌나 따가운지 발바닥에서 불이 날 지경이였다. 어떤 전사는 공병삽에다 써레기담배를 펴서 해볕에 말리우고있었다. 작업중에 군복주머니에서 땀에 젖은 모양이다. 한곳에서는 그늘진 나무밑에 10여명의 전사들이 모여앉아 무엇인지 톱으로 썰고 잡아두드리고 하면서 유쾌하게 떠들썩거렸다.

《저기선 무엇들을 하오？》

전창걸은 김봉수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별게 아닙니다. 휴식시간에 그저…》

김봉수는 낯을 붉히며 얼버무려버렸다. 전창걸은 호기심이 생겨 그곳으로 걸어갔다. 어데서 베여왔는지 홍두깨비처럼 굵직굵직한 왕대나무를 갖다놓고 톱으로 썰고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빨래방망이만큼씩 크기로 잘라낸 그 대나무토막들을 무우단을 엮듯이 그것을 쇠줄로 엮어나가는것이였다.

《그것을 어따 쓰려는거요？》

전창걸은 궁금해서 전사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

도 선뜻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리종활이 실토를 하였다.

《군사부대대장동지! 바로 이렇게 하는겁니다.》

리종활은 기관총탄띠처럼 쇠줄에 엮은 그 대나무단을 탄띠를 두르듯 허리에 감아나갔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락동강도하쯤이야 문제없습죠. 우리 분대장동무의 창안입니다.》

리종활은 두팔을 벌리고 제법 헤염치는 시늉까지 해보이며 수선을 떨었다.

전창걸은 오늘 방어공사가 이전처럼 자리를 푹푹 내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전사들은 이 짤막한 휴식시간에도 락동강너머로 마음이 내달리고있는것이다.

대대장이 회의에 떠나면서 림시방어구역이라고 상부의 조치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던 말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옳은 말이였다. 그렇다고 지금 부산으로, 락동강으로 내달리고있는 전사들의 절절한 심정을 또한 잘못이라고 나무랄수도 없는 일이였다. 그는 락동강도하준비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전호굴설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그들을 꾸짖으려다가 말고 다만 김봉수에게 지적된 시간까지 공병작업을 다그칠데 대하여 개별적으로 충고하였다. 이때 맞은켠 락동강상공으로부터 부르릉거리는 적폭격기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

이무렵 최경민은 한명희와 함께 대대를 향해 돌아오고있었다. 대대장련락병 주영훈은 녀준의를 슬쩍 곁눈질하기도 하고 대견한듯 대대장과 녀준의를 번갈아 바라보기도 하면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짚었다. 최경민과 명희는 다같이 말이 없었다.

최경민은 련락병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자기 얼굴을

옆으로 자주 쳐다보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자기에게 말을 걸고싶어하는 눈치였다. 무엇때문일가?

《대대장동지! 곧 출발합니까?》

련락병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최경민이 부임한 이래 그가 이렇게 허물없이 먼저 말을 걸어보기는 처음이였다. 경민은 그제사 그가 회의에서 어떤 새 임무가 제기되였는지 알고싶어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데로말이요?》

최경민은 곁에서 걷는 녀준의의 얼굴에 시선을 돌리며 말뜻을 알지 못하겠다는듯이 반문하였다. 녀준의도 마침 대대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공교롭게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낯을 약간 붉히며 눈웃음을 지었다.

《락동강을 건느기 위해서말입니다.》

련락병의 물음이였다.

《여기서 좀 묵어야겠소.》

최경민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련락병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세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어나갔다. 경민은 보지 않아도 련락병의 얼굴이 침울해졌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경민은 그것이 어쩐지 자기의 잘못이기나 한것처럼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빨리 락동강을 건너가고싶소?》

그는 뒤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그러나 련락병은 대답대신에 한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련락병동무는 고향이 어데예요?》

이번에는 녀준의가 뒤를 돌아다보며 련락병에게 물었다.

《저말입니까?》

련락병은 녀준의의 뜻밖의 이 물음에 약간 당황해진 기색으로 명희의 얼굴을 쳐다보고나서

《강원도 원산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준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듯싶었다. 그러나 말은 한동안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동무는 어떻게 강호범동무를 그렇게 잘 아오?》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최경민이 불쑥 두사람의 말에 끼여들었다. 최경민은 지난번 1중대에 내려갔을 때 그가 강호범과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던 일이 되살아났던것이다.

《저는 원래 대대지휘부에 올라오기전까지 강호범분대장동무와 한분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시 끊어졌다.

《원산에서 살았으면 송도원에도 자주 나갔겠군요. 수영을 할줄 알아요?》

이번에는 명희가 이렇게 물으며 그들의 말을 이어주었다.

《그럼요.》 련락병은 이야기가 자기에게 모두 집중되는것으로 하여 은근히 긍지를 느끼며 활기를 띠였다.

그는 고중때 자기가 한다하는 수영써클원이였다는것과 송도원앞바다에서 진행된 시적인 학생수영경기대회에서 자기가 2등을 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들어가며 신이 나서 수영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녀준의는 가만히 듣고있다가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떠있을수 있어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그거야 얼마든지 떠있을수 있지요. 배만 고프지 않으면야 하루종일이라도말입니다.》

련락병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민물에서도말예요?》

녀준의가 재차 물었다.

《민물에서말입니까?》

련락병은 좀 당황한듯 얼른 대답을 못했다.

《민물에서는 경험이 없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물에서도 같겠지요 뭐.》

련락병은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해놓고나서 녀준의의 안

색을 살폈다. 녀준의는 의미있게 미소를 짓고있었다. 여태까지 신이 나서 수영자랑을 하던 련락병은 한동안 입을 봉해버렸다. 그것은 그가 이미 민물에서만이 수영선수의 진짜실력을 알수 있다는 말을 누구한테선가 들은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녀준의가 수영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눈치챘기때문이였다. 련락병이 입을 봉하는 바람에 한동안 이야기가 끊어졌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갑자기 쥐가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녀준의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바다에서말입니까? 아니면 민물에서말입니까?》

《그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련락병 주영훈은 잠시 생각해보았으나 궁리가 잘 나지 않았다.

《일단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예비운동을 꼭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예비운동을 해야죠. 그러나 예비운동을 하고 들어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런 일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련락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그대로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하는수없이 녀준의에게 물어보는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녀준의는 말하기 쑥스러운 모양으로 잠자코 있었다. 련락병은 궁금증이 나서 한참 걸어가다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준의동무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녀준의는 점적한듯 곁에 있는 최경민의 얼굴을 일별하고나서 말을 꺼냈다.

《그런 때는 물밑으로 푹 가라앉아야 돼요. 수심이 4메터고 5메터고 상관말고 침착하게 물밑으로 쑥 들어가 땅

바닥에 내려가 앉은 다음 마비된 발이 풀리도록 주무르고 다시 솟아오르면 돼요. 그러나 어지간히 물에서 단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힘이 들거예요.》

련락병은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도 바다가에서 자라나 한다하는 수영선수이지만 여직 그런 말을 들어본적이 없었다. 실상 물에 뜨는것보다 물에 가라앉는다는것은 더 힘든 일이였다. 그는 동무들과 간혹 바다밑에 들어가 모래를 한줌씩 쥐여오르기 경쟁을 해본적이 있으나 벌써 3~4메터 물속으로 들어가면 부력으로 인하여 몸이 둥둥 떠오르는통에 땅바닥에 발을 붙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물밑에 내려가 앉아 발까지 주무르고 올라온다는 말을 들어보니 이만저만한 수영선수가 아니였다. 그것은 련락병 주영훈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최경민이도 저으기 호기심이 동하였다. 산골에서 자라 바다나 강물에 경험이 없는 그는 물속에서 고기떼처럼 자유롭게 헤염칠수있는 그가 한없이 부럽기까지 하였다.

《준의동무는 고향이 어딥니까? 어데서 그렇게 수영을 배웠습니까?》

최경민이 명희에게 물었다.

《평양이예요. 학교시절부터 체육써클에 망라되여 대동강물에 좀 친숙해졌을뿐이예요.》

명희는 이렇게 대답해놓고 낯을 약간 붉혔다. 그들의 뒤에서 련락병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바다가에서 태여나 바다가에서 자라난 자기가 평양에서 자라난 녀준의보다 못하다는 일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것 같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어느덧 대대장감시소부근까지 걸어왔다. 명희는 교통호를 따라 걸음을 옮겨짚으면서 문득 자기가 처음으로 최경민을 만나 골짜기를 넘어올 때 그가 자기에게 비옷을 권하다가 거절당하자 어쩔바를 몰라 낯을 붉히며 쩔쩔매던 일이 되살아나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 명희는 그에게서 부자연

스럽고 거북해하는 기색은 별로 느낄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명희에게 퍽 친숙하고 살뜰하게 대하는것이였다. 불과 이틀밖에 안되는 사이에 그와 이렇게 친숙해졌다는 생각은 어느덧 명희의 마음을 가볍고 즐겁게 해주었다. 명희는 최경민과 무엇이건 허물없이 이야기해보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무슨 말을 새로 꺼냈으면 좋을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이 교통호를 따라 금방 감시소에 들어서려는 때였다.

《항공！》

하고 웨치는 감시병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거의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았다. 몇대씩 편대를 지은 적 비행기편대가 하늘의 한쪽 구석을 꺼멓게 덮으며 마치 구름장이 밀려오듯 천천히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잠시후에 그쪽으로부터 비행기의 폭음소리가 들려왔다. 비행기의 발동소리는 점점 요란하게 높아지면서 아츠러운 금속성으로 대기를 꽉 채워나갔다. 다음순간 공중에서 별안간 쏴—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대기를 째며 무엇인가 이쪽을 향해 급속히 날아오는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명희는 몸에 전률을 느끼면서 곁에 있는 최경민의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섬찍해졌다. 최경민의 얼굴은 잠시전에 그가 보던 낯익은 그 얼굴이 아니였다. 최경민은 이때 비행기에서 눈을 떼고 대대가 차지한 방어진지를 재빠르게 쭉 훑어보고있었는데 그의 얼굴의 선들은 험악하게 이그러지고 두눈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무서운 섬광이 번뜩거렸다. 무섭게 변모한 그의 이 얼굴표정은 그 어떤 공포의 표정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감을 뛰여넘은 그 어떤 강의한 의지가 지배하는 침착성과 완강성과 랭혹성이 나타나 있었다.

《엎드렷！》

최경민이 돌연 칼로 베는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

르짖었다. 다음순간 상공에서 바람을 째며 날아오던 그 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졌다.

명희는 뜨거운 열풍에 낯이 확 달아오르고 숨이 콱 막혔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어느새 땅바닥에 엎드려 전호속에 머리를 묻고있었다. 명희는 대대장이 폭발하는 순간까지 땅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버티고서있은것 같은 불안한 착각에 사로잡혀 머리를 추켜들고 사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위에 검은 연기가 안개처럼 콱 서려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었다. 독한 화약내가 코를 쿡 찔렀다.

《준의동무！》

누군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그것이 최경민의 목소리임을 깨닫자 죄여들었던 가슴이 풀어지며 안도의 숨이 후— 나갔다. 그를 찾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명희는 그의 부름에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공중에서 또다시 쏴— 하고 바람 째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였다. 또다시 폭발이 일어나고 파편이 윙윙 울부짖으며 머리우로 날아 지나갔다. 숨을 들이쉴수 없는 괴로운 한순간이 또 흘러갔다.… 명희는 또다시 자기를 찾고있는 최경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어요.》

앞을 분간할수 없는 자욱한 연기속에서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다가 무엇에 부딪쳐 뒤로 주저앉았다. 무엇인지 담벽처럼 앞을 가리우고 서있었다.

《다치지 않았소？》

최경민의 근심어린 목소리였다.

《안요. 일없어요.》

명희는 활기있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다치지 않았느냐구요？ 이까짓 폭격쯤에 내가 혼이 난줄 아는 모양이지？ 나를 어린애로 아나봐.)

명희는 이렇게 롱담이라도 하고싶은 유쾌한 기분이였

다. 그러다가 그만 두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 최경민의 무서운 얼굴과 마주치자 가슴이 뜨끔해졌다. 최경민은 명희가 무사하다는것을 확인하자 더 말하지 않고 성난 사람처럼 급히 그의 곁을 떠나 감시소안으로 뛰여들어갔다. 명희도 그의 뒤를 따랐다. 최경민은 감시소에 들어서자 전화통에 매달려 련속 전화를 호출하여 구분대별로 폭격의 피해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놈들의 항공편대는 진지상공을 스쳐지나면서 여러차례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분대들에서는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다는 대답이였다. 명희는 몸의 흙을 털고 얼굴의 검댕이를 문대며 어지러워진 군복을 손질하면서 대대장의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최경민은 1중대의 전화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이 전화기를 잡아두드리다가 명희를 향해 돌아섰다.

《1중대에 얼핏 나갔다 오겠으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는 혁띠고리를 더욱 바싹 졸라매면서 명희에게 말하였다.

《저도 1중대로 직접 나가보겠어요.》

명희는 그를 따라 나서려고 서둘러 위생가방을 둘러메였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두 동무를 이리로 곧 보내겠습니다.》

최경민은 녀준의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하고나서 급히 밖으로 나갔다. 련락병이 그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명희는 어쩐지 그들이 사라지자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느꼈다.

최경민이 달려갔을 때 1중대 진지에서는 전사들과 군관들이 모두 달라붙어 흙에 파묻힌 탄약상자를 파내고있었다. 참호와 교통호는 폭탄에 맞아 여러 토막 끊어지고 불에 탄 동발목에서는 푸실푸실 연기가 피여올랐다. 중대장이 최경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중대가 피해복구중임을 보고하

였다. 뒤이어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다가왔다. 그들의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화약에 끄슬려 검댕이칠을 하고있었다. 최경민은 서둘러 중대의 피해정형을 물었다.

《별사고 없습니다.》

김봉수는 대대장을 안심시키려는듯 이렇게 먼저 한마디 대답해놓고 탄약상자 몇개가 불타고 작업중이던 축성물이 다소 파괴되였으나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다는것을 첨부해 말했다. 김봉수는 이렇게 보고하면서 다행이라는듯이 미소까지 지어보였다. 그러나 최경민은 어두워진 안색으로 말없이 중대진지를 다시한번 둘러보고나서 못마땅한듯이 김봉수에게 쏘아붙였다.

《그건 사고가 아니란말이요?》

김봉수는 대대장이 갑자기 무엇때문에 저렇듯 못마땅해하는지 잘 리해할수 없었다. 김봉수는 무안을 느끼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앞에 서있었다. 전창걸은 숨을 죽이고 말없이 두사람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대대장이 지금 무엇때문에 저렇듯 성을 내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지정된 시간까지 1중대에서 탄약호를 다 설비해놓고 공병작업을 끝냈더라면 폭격으로부터 탄약 몇상자의 손실이나마 내지 않았을것이라는 비판이였다.

《놈들의 포사격이 다시 시작되기전에 공병작업을 끝내야겠소. 소대장들을 이리로 다 오게 하오.》

최경민은 이젠 자기가 직접 공사를 지휘해야겠다는듯이 중대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소대장들을 부르러 가는 김봉수를 다시한번 멈춰세워놓고 대대장감시소에 준의가 내려와 기다리고있으니 강호범과 리종활을 그곳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

대대장이 직접 공사를 지휘하여 끝내놓고 돌아간 다음

전창걸은 중대장을 앉혀놓고 그가 하부일군들에 대한 강한 요구성이 부족한데로부터 중대관리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도록 충고를 주었다.

전창걸이 김봉수에 대한 이 비판은 곧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비판이기도 하였다. 전창걸은 대대장이 새로 부임해온 이래 최경민으로부터 그새 많은것을 배우고 생각하는바가 적지 않았다. 그가 처음에 생각한바와는 달리 최경민은 군사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특질들을 갖추고있었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높은 군사실무능력, 확고한 자기 신조, 엄격한 요구성과 규률, 완강한 의지… 전창걸은 자기자신이 갖추지 못하고있는 이 모든 장점들을 갖추고있는 최경민대대장을 선망에 찬 경탄의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의 좋은 장점들을 꼭 따라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강행군때에 만약 대대장의 그렇듯 강한 요구성과 능숙한 행군지휘가 없었더라면 이번에 그토록 혁혁한 전과를 달성할수 있었겠는가! 대대장이 부임하자바람으로 예견성있게 주민지대에서 숙영지를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였겠는가! 오늘 중대장에 대한 대대장의 엄격한 지적 역시 전적으로 옳은것이였다. 만약 내가 아까 공병작업을 지휘할 때 대대장이 부임하자바람으로 숙영지를 이동시키듯이 중대장을 독촉하여 공병작업을 끝내놓았더라면 비록 얼마 되지 않는 탄약이라 할지라도 먼 후방에서 인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보내준 귀중한 그 전투물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전창걸은 대대장의 이 높은 군사적요구성에 비해 밑에서 그것을 떠받들어주어야 될 자신의 준비정도가 낮은데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자신뿐만아니라 김봉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사들과 혈연적으로 깊이 결합되고있는 그의 소박하고 인민적인 좋은 품성에 비해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하부일군들에 대한 원칙적인 강한 요구성과 높은 군사실무적준

비가 부족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전창걸은 그와 마주앉아 흥금을 털어놓고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김봉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21

밤은 퍼그나 깊어 초저녁부터 우르릉거리던 야간폭격기의 폭음도 잠잠해지고 전연지대에 어울리지 않게 괴괴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좁은 감시소안은 무더웠다.

오현무는 요즘 깊은 사색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다. 락동강도하의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지금 오현무가 해결해야 될 첫 과제는 련대의 도하력량을 어떻게 편성하여 주공방향을 어느 도하지점에다 지향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제부터 적의 기도와 방어체계를 연구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지형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수 없었다. 그는 이 사업에 정력적으로 달라붙었다. 정찰병들은 벌써 적구에 들어가서 미군놈을 둘씩이나 묶어왔으며 사단정찰과장은 오현무가 제기한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하여 대안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사단장놈의 경력과 취미와 전술적특징을 기록한 통보자료를 만들어보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한편 오현무는 락동강의 너비와 수심, 강바닥의 토질과 대안의 지형을 확정하느라고 침식을 잃었다. 모든 문제를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인 과학성과 실무적인 구체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데 습관된 오현무는 피로를 모르는 기계처럼 정력적으로 일하였다.

련대도하정면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수 있었다. 그 첫째구역은 왼쪽에 마주보이는 여울목이였다. 놈들이 퇴각하기전까지 이 여울목에는 다리가 놓여있었으며 이미 오

래전부터 이 지방 주민들은 이 여울목으로 강을 건너다녔다. 이 구역은 수심이 얕을뿐아니라 대안은 평탄하고 넓은 개활지대를 이루고있어 강을 건는 다음에 보병과 기계화부대들이 능히 대렬을 전개하고 손쉽게 전투에 진입할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였다.

이와 반대로 오른쪽구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배를 대기도 험한 흐름이였다. 뿐만아니라 그 기슭은 깎아세운듯한 절벽을 이루어 설사 보병들이 도하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포나 땅크나 후속부대의 진출이 불가능한 지역이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련대가 강을 건느려면 오직 한곳, 왼쪽 여울목이 유리하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였다. 그러나 이 명백하고 단순한 지형조건이 전술상으로는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그에게 던져주는것이였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격하기 유리한곳에는 그만큼 적이 방어를 강화하고 력량을 집중하게 마련인것이다.

그런데 오현무는 어제 적의 방어체계를 표시해온 참모장의 정찰보고를 들여다보고 뜻밖의 정황앞에서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적들은 우리가 마땅히 건너가리라고 예측할수 있는 여울목방향을 비워두고 좌측 돌바위고지 방향을 강화하고있는것이였다. 시간이 급급했기때문에 놈들의 방어진지는 아직 공병적으로 강화된 방어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화력조직을 위주로 한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놈들의 군사상식을 벗어난 이 행동에는 그 어떤 전술적기도가 숨어있는것이 뻔하였다. 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지대를 공격할것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병,가진지의 기만전술로써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자는것이 분명하였다. 교활한 이 원쑤들을 단매에 때려잡기 위해서는 놈들의 기도를 더 깊이 파악해야 했다.

오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로 제1대대를 찾았다. 최경민이 전화를 받았다. 오현무는 그에게 적구에 들여보낸 정찰병들에 대해서 물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는 대답이였다. 오현무는 대대장에게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 말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타이르고나서 수화기를 놓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좁은 감시소안을 서성거렸다.

×

강호범을 조장으로 한 세 정찰병들은 미제침략군놈들의 전호와 교통호를 타고 넘으며 어둠속으로 기여나갔다. 오른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다. 말소리는 차츰 가까와지더니 이윽고 여라문명의 미군놈들이 그들의 앞을 지나갔다. 거리가 어찌나 가까왔던지 쩝쩝거리며 껌씹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잠시후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앞으로 기여나갔다. 강호범의 움직임을 따라 한택수와 김영준이 소리없이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향방을 돌렸다. 어둠속에서 자동차의 불빛이 번쩍거리고 어데선지 두르륵! 두르륵! 먼 총소리가 들려왔다. 달있는 밤이였으나 구름장이 꽉 덮여 사위를 잘 분간할수가 없었다. 강호범은 야광지남침으로 방위를 판정해가며 어둠을 타고 앞으로 앞으로 기여나갔다.

아침에 련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최경민은 적진으로 들여보낼 정찰병을 선발하기 위하여 적지 않게 머리를 썩였다. 처음부터 강호범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가 몸에 아직 부상처를 가지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강호범을 불러다 앉혀놓고 녀준의와 같이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녀준의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였으며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군사부대대장과 다시 마주앉아 진지하게 토론을 거듭하였다. 전창걸 역시 이고장 지형을 손금보듯 끼고있는 강호범을 보내는것이 좋겠다면서 든든한 전사를 둬명함께 보내면 마음놓을수 있다고 주장해나서는바람에 급

기야 그는 강호범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다. 그리하여 강호범과 함께 갈 동무들로는 김영준과 한택수가 선발되였다. 임무는 락동강대안에 있는 적의 진지체계와 적의 움직임을 주로 감시정찰의 방법으로 정찰해가지고 날 밝기전에 돌아오는것이였다. 최경민은 그들 세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까근까근하게 근 두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들에게 전문정찰일군들이 아니니만큼 적을 생포하려고 한다거나 용감성을 보이겠다고 그 어떤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거듭 강조하는것이였다. 임무를 받고 돌아온 세사람의 기쁨은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온 중대동무들이 한결같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출발준비를 도와나섰다.

날이 저물자 세사람은 매생이를 타고 어둠을 리용하여 맞은켠 벼랑턱에 붙었다. 배는 물에 떠내려보내여 흔적을 감추어버렸다. 그때로부터 세사람은 한치한치의 땅바닥을 조심스럽게 어루더듬어가며 적의 참호를 타고 넘기도 하고 혹은 적의 순찰병을 속여넘기기도 하면서 적 방어종심으로 꿰고들어갔다.

강호범은 흥분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을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낯익은 자기 집의 초가지붕이며 싸리울타리가 눈앞에 바라보이는것처럼 사위를 두리번거리였다. 몇해만에 다시 밟아보는 고향땅인가!

(집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집에서는 아마 내가 객지에서 죽은줄 알고있을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10리밖에 와있으리라고 어찌 꿈엔들 상상하랴!)

그는 땅바닥을 기여나가다가 흙을 손으로 한웅큼 떠서 손에다 쥐여보기도 하고 부드럽게 낯을 건드리는 풀잎에다 코를 갖다대고 향긋한 풀향기를 가슴깊이 들이마시기도 하였다. 그는 당장 고향집으로 달려가고싶은 흥분을 억제하면서 계획된 정찰로정을 따라 어둠속을 기여나갔다.

떠날 때 그들이 듣고온바와는 달리 백사장 여기저기

에서 미군놈들이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다 방어공사를 벌리고있었다. 낮에 고지우에서 볼 때는 개미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던 넓은 백사장이 장마당처럼 법석거렸다. 곳곳에 미군놈들이 몰켜서 욱실거리고 자동차와 포와 땅크들이 사처에 널려있었다. 불현듯 강호범이 멈춰서서 손짓을 하였다. 그들은 모래바닥에 배를 대고 앞에다 온 신경을 집중하였다. 버석거리는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검은 그림자덩어리가 점점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모래를 밟는 어수선한 발걸음소리로 보아 한두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의 걸음소리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하바！ 하바！》 어둠속에서 갑자기 미군놈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아이쿠！》하는 비명소리… 떠들썩한 욕지거리…

《이 원쑤놈들을 그저… 네놈들이 며칠이나 가나 두고보자！… 젊은이 참으소. 인민군대가 이제 곧 강을 건늘게요.》

떠들썩거리던 말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멀어져갔다. 미국놈들한테 억울하게 공사장으로 끌려오는 인민들이다. 강호범은 가슴의 피가 끓어번졌다. 저 가운데 혹시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섞여있을는지 모를 일이였다. 집의 아버지와 형님은 어떻게 되였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놈들이 끌어내온것을 보니 여기서 불과 10리 안팎에 있는 집마을사람들을 그냥 놔두었을리 만무한 일이였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서 비물처럼 흘러내리는 땀을 문댈 사이도 없이 다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머지 않아 동이 틀 새벽녘에야 그들은 정찰임무를 끝마치고 발목이 모래에 푹푹 파묻히는 강반의 모래사장으로 다시 기여나와 무사히 끊어진 다리가 있는 여울목 근방에 이르렀다. 이제 기슭으로 내려가 여울을 건느면 되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고비에서 세사람은 새로운 정황에 부딪쳤다. 끊어진 교각우에 대여섯명의 미군놈들이 몰켜서있는것이였다. 길목이 차단되

여 진퇴량난에 빠진 세 전사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그놈들을 우회하기 위하여 다시 왼쪽으로 돌아섰다. 하늘을 꽉 덮었던 구름장사이에서 새벽달이 얼굴을 내밀고 백사장을 환하게 비쳤다. 갑자기 등뒤에서 요란한 총소리와 기관총소리가 들려왔다. 세사람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한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총소리는 그들이 지나온 그 공사장쪽에서 났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어수선하게 떠들썩 고아대는 고함소리도 들려왔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굳어져있었다. 공사장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였다. 총소리,기관총소리가 더욱 요란해지고 어수선한 고함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차츰 조용해졌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앞으로 걸어나가며 적정을 살폈다.

앞에서 불현듯 인기척이 났다. 세사람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총가목을 틀어쥐였다. 훤한 달빛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들이 있는쪽으로 달려오고 있는것이였다. 뻔뻔한 모래판이여서 몸을 숨길데도 없고 세 정찰병은 불가피하게 그와 마주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손들엇！》

강호범이 벌떡 일어서며 낮게 부르짖었다.

《에크！》

달려오던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흰옷을 입은 로인이였다.

강호범은 로인이 큰소리를 칠가봐 쉬！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켰다.

그러다가 그만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강호범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그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려고 눈정기를 돋구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는 고향마을의 서로인이였다. 민대감네 집 머슴방에서 몇해씩 이마를 맞대고 같이 지내던 이쁜이 아버지였다. 민대감네 집 종으로 3대째 노예살이를 하여온 서로인！ 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로인은 휘둥그래진 눈으로 강호

범과 그 곁에 섰는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불안에 싸여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이쁜이 아버지! 저를 모르겠어요? 호범이입니다. 대장간집 호범이예요.》

로인은 퀭해진 눈으로 그를 한동안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를 알아차리자

《이게 누구냐? 엉!》하고 펄쩍 뛰며 두팔을 벌리고 일어서려고 하였다. 강호범은 로인을 눌러앉히고 로인의 손을 잡았다. 로인의 두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호범은 말소리를 낮추려고 그의 귀에다 입을 갖다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미군놈들은 락동강방어진지를 구축하려고 요 며칠째 저녁마다 수십리 안팎의 마을을 싸다니면서 남자라고 이름붙인 사람들은 늙은이고 젊은이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이곳에 끌어내군하였다. 호범의 고향마을 사람들도 놈들의 총칼의 위협밑에서 저녁마다 진지굴설작업에 끌려나오군하였다.

놈들은 오늘따라 마을사람들뿐만아니라 《ㄷ》시 감옥에 수감했던 수백명의 무고한 인민들인 《죄수》들까지 이곳에 끌어내왔다. 그런데 방금전에 그 《죄수》들이 인민군대가 있는 락동강대안으로 넘어가려고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그러자 미군승냥이들은 그 《죄수》들, 애국자들에게 기관총을 마구 휘두르며 미쳐날뛰였다. 기회를 엿보고있던 마을사람들도 혼란한 이 틈을 타서 뛰기 시작했다. 미군야수놈들은 제가끔 뿔뿔이 흩어져 달려가는 무고한 인민들을 향해 사정없이 기관총을 휘둘러댔다. 무서운 참상이 벌어졌다. 락동강백사장은 순식간에 인민들의 시체로 뒤덮이고 흰 모래불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서로인도 기회를 놓칠세라 삽자루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내뛰기 시작했다. 서로인은 요행 미군놈들의 추격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적지 않은 마을사람들이 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기

도 하고 다시 잡혀서 끌려갔다는것이였다.

로인은 말을 중단하고 피로운듯 숨을 몰아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게, 어서 가보게, 미군놈들이 도망치다 잡힌 사람들을 가만히 둬두지 않네. 요 며칠전에도 숱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었네. 자네 아버지도 저녁에 같이 끌려나왔는데 서로 헤여져 어떻게 되였는지 알수 없네. 어서!》

서로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서 가서 아버지를 구원하라는것이였다. 호범은 로인에게 아무것도 더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로인에게 인민군대가 곧 마을을 해방할것이니 날밝기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나서 급한 걸음으로 앞으로 내달렸다. 한택수와 김영준은 한동안 어리둥절해있었다. 그들은 분대장을 우선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쫓아가서 그의 량팔을 붙어잡았다. 그러나 강호범은 단호하게 그들을 뿌리치고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어떤 힘으로도 그를 멈춰세울것 같지 않았다. 두사람은 하는수없이 그를 따라 발목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놈들의 방어공사장에 미처 이르기전에 중도에서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공사장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어수선한 고함소리가 나고 련이어 보총과 기관총의 련발사격소리가 들려온것이다. 총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멎어버렸다.

강호범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놈들이 방금 공사장에서 도망치다 잡힌 인민들을 끌어내다 총살한것이 분명하였다.

김영준과 한택수도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있었기때문에 그들 역시 엉거주춤 굳어져있었다. 또다시 떠들썩 고아대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까보다 더욱 뚜렷하게 세사람의 가슴을 찔렀다.

《이 백정놈들아!》

《이 미국승냥이놈들아!》

《쏠테면 쏘라! 인민군대가 네놈들을 그냥 둘줄 아느냐!》

강호범은 그 고함소리가 귀에 익은 아버지의 목소리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자기도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다음순간 그는 요란한 기관총소리에 소스라쳐 돌처럼 그 한자리에 굳어져버렸다. 기관총소리는 가슴을 찢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이여 한동안 계속되였다.

강호범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비명속에서 《호범아—》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것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들판에는 총소리도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멎고 쓸쓸한 정적만이 깃들었다.

강호범은 갑자기 아버지가 미칠듯이 그리워났다.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뵙고싶던 아버지던가. 이제 고향마을이 해방되고 북반부에서처럼 땅을 분여받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가 하는 생각으로 몸의 상처도 돌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나온 그였다. 고향에 돌아가서 우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싶은 그 소박한 마음으로 배낭속에 아버지의 고무신을 사서 메고 다니던 그였다. 그 아버지가 영영 돌아가셨다면?… 떳떳한 인민군대군복을 입고 집에 돌아온 아들도 한번 보지 못한채… 모를 꽂을 논 한뙈기를 얻지 못해 한숨으로 한평생을 보내시다가 떳떳한 나라의 주인으로, 땅의 주인으로 될 해방의 시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래 영영 세상을 떠나고말았단말인가? 호범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질것 같았다. 김영준과 한택수는 아까부터 분대장이 떠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강호범은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충혈된 무서운 눈으로 미군놈들이 도사리고있는 공사장쪽을 쏘아보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가슴아프고 억울하고 분한 갖가지 일들이 꿈속에서처럼 갈피를 잡을수 없이 한데 얽혀돌아갔다. 거기에는 민대감네 집에서 천대받던 옛일도, 경찰서에 끌려

가 매를 맞고 허리를 못쓰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징용》에 끌려가 고생하던 일도 한데 얽혀있었다. 다음순간 분명치 않게 뒤얽혔던 그 상념들은 명료한 하나의 격정으로, 미군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머리속에서 번뜩이였다.

《저놈들을 쳐죽여야 한다! 저 인간의 탈을 쓴 미제승냥이놈들을!》 그는 끓어번지는 적개심으로 하여 두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분대장동무! 날이 밝기전에 저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한택수가 독촉을 하였다.

《그럴 필요가 없소. 저놈들을 쳐죽이고 곧바로 강을 건너가야겠소.》 강호범은 바위처럼 땅에 버티고 서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한택수와 김영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22

최경민은 련대장 오현무의 전화를 받은후에도 감시소야전책상앞에 앉아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시계는 벌써 새벽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는 전화로 1중대를 찾았다. 김봉수가 전화를 받았다. 최경민은 그에게 정찰나간 세동무에 대해 물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대답이였다. 전창걸이 전화를 바꾸었다. 최경민은 군사부대대장에게 전연지대 적정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본 다음 밤을 꼬박 새우지 말고 중대장과 교대교대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권고하고나서 전화를 끊었다.

최경민은 갑자기 몸에 심한 피로를 느끼였다. 그는 견딜수 없는 졸음과 피곤을 쫓을길 없어 단 10분만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련락병이 빈 탄약상자를 주

어다가 만들어놓은 《침대》우에 가서 신을 신은채 드러누웠다. 그는 옆구리의 상처가 아파나서 한쪽으로 돌아눕다가 문득 자기가 신고있는 군화에 시선이 미쳤다. 군화는 먼지와 흙탕칠로 말이 아니였다. 바로 며칠전에 병원에서 나올 때 반들반들 윤기가 나게 닦아 신고 나왔던 신이였다. 그는 자기가 부임하자바람으로 구분대장을 모아놓고 외모를 바로잡지 않고 회의에 참가했다고 나무라던 일이 언뜻 되살아났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되는 사이에 자신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는가. 볼을 만져보니 꺼칠꺼칠하게 수염도 자라나서 이미 면도를 해야 될 때가 지났고 군복저고리에 달은 목달개도 어지러웠다. 그때 지적을 받은 군관들이 이 몰골을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대대장도 처음 와서 큰소리를 치더니 한주일도 채 못돼서 자기들과 같은 꼴이 되였다고 웃음거리가 될게 아닌가. 그는 자책으로 낯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였다. 그는 지금부터 30분동안 눈을 붙일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의 외모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날째 쌓이고 쌓인 피곤으로 인하여 생각과는 달리 몸은 말을 듣지 않았으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싶지 않았다. (잠시 눈을 붙이고 보자.) 그는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어지러운 신발이며 목달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그는 문득 며칠전에 부임해올 때 오현무가 일깨워주던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모든 전투원들이 항상 지휘관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지휘관은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전사들이 마음놓고 의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기둥이 되여야 한다던 말씀이였다. 최경민은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다. 그는 짓누르는 피로를 물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물거리는 초불밑에서 면도를 시작했다. 그가 면도를 하고 목달개를 갈아달고 군화에 묻은

진흙을 물로 닦아내고있을 때였다. 불현듯 강건너쪽에서 몇방의 총소리가 들려왔다.

최경민은 문득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혹시 정찰조가 강을 건느려다가 적과 조우한것이나 아닐가.) 그들이 돌아올 때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안돌아오는것을 보니 그 어떤 불의의 정황이 조성되였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그의 불안한 예감을 실증해주려는듯이 잠시 끊어졌던 총소리가 다시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최경민은 급히 쌍안경을 찾아들고 감시구결으로 다가서며 대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기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해낼수가 없었다. 총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뚝 끊어져버렸다. 총소리가 멎은 후에도 그는 감시구결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버티고 서있었다. 어둠은 차츰 가시여지며 검푸른 강물과 흰 백사장을 각일각 드러내놓고있었다. 정찰병들이 이제 강을 건너온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사태는 아까 그가 우려한 불길한 예감을 갈수록 더욱 확증해주는상싶었다. 또다시 적진에서 자동총의 련발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총소리는 보총소리와 뒤섞이여 갈수록 더욱 요란해졌다. 쌍안경을 쥐고 락동강대안에다 시선을 던지고 섰던 최경민은 불시에 피가 심장으로 콱 쏠리는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였다. 세동무가 락동강 여울목을 헤염쳐 건너오고 있었다. 그리고 1개 중대가량의 적들이 강기슭으로 밀려오면서 그들을 향해 총질을 하고있었다.

최경민은 쌍안경을 눈에 댄채 급히 박격포화력을 호출하였다. 곁에 있던 촉기빠른 직일전화수는 지체없이 날쌔게 전화기의 돌리개를 잡아돌렸다.

《사격목표 №3 이동하는 적보병 !》

최경민은 박격포진지를 향해 웨치다십이 단숨에 이렇게 화력을 호출하고나서 한손에 쌍안경을, 다른 손에 수

화기를 틀어쥔채 전방을 감시하였다. 세동무는 머리까지 물에 잠그기도 하고 때로는 물우에 불쑥 솟아오르기도 하면서 보기 안타까울만치 느린 속도로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미군놈들은 기슭을 향해 달려오면서 그들에게 되는대로 총질을 하였다. 수화기에서는 다급한, 그러나 언제나 침착성을 잃지 않는 박격포중대장의 화력지휘구령이 들려왔다. 잠시후 박격포의 조준을 시험하는 첫 발포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대대장이 화력을 호출한 때로부터 불과 몇십초 되나마나한 짤막한 사이였다. 그러나 최경민은 그것이 한나절이나 걸린것처럼 느껴졌다. 적진을 향해 날아간 제1포의 첫발은 신통하게 기슭으로 달려오던놈들의 산개대렬 한복판에 떨어지면서 몇놈의 적을 단꺼번에 꺼꾸러뜨렸다. 방금 강기슭에 사격진지를 차지하려던 적들은 바퀴무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쏘앗! … 쏘앗!》

최경민은 열에 들떠 다시 수화기에다 대고 고함을 쳤다. 때를 같이 하여 쿵쿵거리는 발포소리와 함께 달아오른 박격포탄들이 포물선을 그으며 련속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세동무를 추격해오던 적들은 삽시에 구름장같은 연기속에 파묻혔다. 연기속에 파묻힌 놈들의 동태를 좇고있던 최경민의 시선은 불현듯 다른 한곳에 가서 못박혀버렸다. 그의 심장은 다시 세차게 고동치고 이마에서 진땀이 내돋았다. 강기슭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다른 한무리의 적들이 총을 쏘아대며 강기슭으로 밀려오고있는것이였다. 경민은 급히 박격포화력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송화기에다 입을 대였다. 그러다가 주춤 굳어졌다. 지금 한창 왼쪽의 적을 답새기고있는 박격포가 손을 빼내여 화력을 이전하기에는 너무도 긴박한 정황인것이다. 그는 손에 들었던 수화기를 내던지고 급히 감시소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교통호와 전호를 뛰여넘으며 날듯이 밑으로 달려갔다. 그의 동작이 어찌나 빨랐던지 련락병이 그의 뒤를

따르려고 감시소에서 뛰쳐나왔을 때는 그를 볼수 없었다. 그는 이미 감시소에서 제일 가까운 중기좌지에 뛰여들었던것이다. 최경민은 눈이 둥그래진 중기사수로부터 빼앗듯 기관총을 받아쥐자 숨을 가라앉히며 목표를 겨누기 시작했다.

중기가 몸부림치며 불을 토했다. 그가 퍼붓는 맹렬한 중기화력에 위압되여 적들은 전진을 멈추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맹렬하게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그와 보조를 맞추어 진지 여기저기서 보병총의 발사소리가 터져나왔다. 중기와 보병총의 맹렬한 화력에 위압된 적들은 달팽이처럼 땅바닥에 달라붙어 더는 머리를 추켜들지 못하였다.

×

세사람은 즉시적인 화력엄호밑에 무사히 강을 건너 부대로 돌아왔다. 한택수가 왼팔에 부상을 입었으나 상처는 극히 경했다. 군사부대대장 전창걸과 김봉수가 전연에까지 나가 그들을 맞이해 들여왔다. 그리고 물에 젖은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한택수의 상처를 처치해주면서 그들로부터 적과 조우하게 된 경과를 들었다.

강호범은 원쑤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적개심으로 하여 끝내 미군놈들을 요정내고 강을 건느기로 결심하였었다. 그리하여 세사람은 은밀히 공사장 한끝에 몰켜있는 미제야수놈들의 배후에 접근한 다음 불의에 달려들어 자동총을 휘둘러 여러명의 적을 쓸어눕혔다. 그러자 강기슭에 있던 10여명의 적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단 뒤로 물러서면서 달려드는 적들과 백사장에서 총격전을 벌렸다. 이 화력전투에서 그들은 몇명의 적을 더 꺼꾸러뜨린 다음 기회를 엿보다가 강물에 뛰여든것이였다. 이때 적들이 기슭으로 모여들며 총질을 하는바람에 한택수는 팔에 부상까지 당하고 사태는 위급하게 되였다. 부대로부터 즉

시적인 화력엄호가 없었더라면 그 어떤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을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중대장동무! 대대장동무가 기다리고있으니 이 동무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오.》

《들었습니다.》

김봉수는 세동무를 데리고 대대장감시소로 떠났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동무들이 분별없이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선을 헤치고 돌아온 그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한마디도 그런 내색을 겉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중대에서 또다시 이런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이 대대장감시소에 도착하자 최경민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해 들여갔다. 그는 한택수가 부상을 입은것을 알자 련락병을 시켜 급히 위생지도원을 오게 한 다음 그의 상처부터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세사람을 앉혀놓고 그들의 정찰경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그러다가 강호범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자 그의 얼굴은 엄격한 표정으로 바뀌여져버렸다. 그는 강호범에게 말하였다.

《떠날 때 내가 동무들에게 무어라고 주의를 주었소?》

강호범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을 못하고있었다.

《말해보오.》 대대장이 재차 그에게 따져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강호범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소?》

《…》

강호범은 무엇이라 변명할 여지가 없어 입을 봉하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이 동무들을 련대지휘부에 올려보내시오. 련대장동지가 이 동무들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아까부터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무들이 돌아오거

던 중대장의 권한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시오. 내 생각같아서는 강호범동무를 앞으로 아무런 전투에도 참가시키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근무도 경리근무를 제외한 다른 근무는 시키지 마시오. 이 동무는 총을 쥐고 적과 싸울 자격이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김봉수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앉아있는 세동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나가자 최경민은 전화로 군사부대대장을 찾아 아까 세동무를 엄호하느라고 적앞에 화력위치를 폭로시킨 중기좌지를 다른곳으로 옮길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23

김성태는 두툼한 배낭을 걸머지고 산등성이를 톺아올라오고있었다. 그의 군복은 땀에 푹 젖어 살에 달라붙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물처럼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사단문화부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이틀만에 대대로 돌아오는길이였다. 그는 등성이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락동강을 감개무량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대대장감시소를 찾기 위해 교통호를 따라 아무데고 가까운 전호를 향해 걸어갔다.

《문화부대대장동지가 오신다!》

여기저기서 전사들이 마주 달려나왔다. 김성태는 마주 달려오는 전사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제1중대동무들이라는것을 알았다. 앞을 다투어 달려온 전사들은 경례를 붙이고는 제가끔 김성태의 배낭을 먼저 받으려고 싱갱이를 하였다.

뒤를 이어 김봉수며 전창걸이며 기타 군관들까지 그가

온줄 알고 달려나왔다.

《회의에 갔다오십니까?》

《무슨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는 전사와 군관들에게 둘러싸여 발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김성태는 그만 1중대동무들에게 붙잡혀 반나절이나 그곳에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배낭을 풀어 초급선동원들에게 출판물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전투원들에게 후방소식이며 새로운 국제정세를 들려주는가 하면 새 권연갑을 터쳐 한대씩 나누어주면서 자기는 독한 담배가 더 좋다고 써레기담배를 두툼하게 말아 깊숙이 들이빨기도 하였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의 출현은 중대를 갑자기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했다. 전사며 군관이며 할것없이 모두 일치하게 그것을 느끼고있었다. 전사들은 그가 지고온 전선신문을 펼쳐들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군관들은 모여앉아 그새 벌어졌던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우에서 받아가지고온 지시들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군관이건 전하사건 할것 없이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유쾌해지고 그가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였다. 그는 대대의 전체 군무자들과 떼여낼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기체의 한 구성부분이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당일군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야 하며 그들이 당을 어머니처럼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허물없이 자기 속을 털어놓고 의지할수 있는것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한몸을 돌보지 않으며 추울세라 더울세라 그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그들의 응석을 들어주며 때로 성을 내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 매도 들지만 그것이 곧

사랑이기에 그 매는 아프지도 않으며 노엽지도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어머니처럼 다정한 이름은 없다.

김성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바로 그렇게 사업하며 그렇게 어머니심정으로 전사들을 돌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어떤 일에서나 성을 내고 어성을 높여 부하들을 질책하는 일이란 없었으며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혹은 은근하게 때로는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타일렀다. 설복과 교양, 그것이 그의 기본사업방법이였다. 그는 자기 생활의 대부분을 중대에 나가 전사들과 같이 지냈다. 그는 군대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자기 대대에 있는 수백명 전사들의 이름이며 나이며 그들의 고향과 입대전 직업이며 개성까지도 환히 알고있었다. 김성태는 항상 전사들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들의 기분이 어떤가를 일상적으로 관심하였으며 전사들과 늘 담화를 하고 정치상학과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담화나 해설사업은 늘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박식하거나 말을 잘하는 편은 못되지만 생각하는바를 힘있고 알기 쉽게 표현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있었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전사들과의 일상적인 접촉과 담화를 통하여 전사들의 심정을 일일이 료해하였으며 그들의 애로가 무엇이며 풀어줘야 될 고리는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알아내였으며 그런 연후에는 당회의도 소집되고 때로는 예견치 않던 구분대장들의 모임도 있게 되며 후방일군들을 분주히 뛰여다니게도 만드는것이였다.

김성태는 제1중대에서 나와 대대지휘부로 가려다말고 1중대 취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1중대로부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벌어졌던 강호범의 규률위반사건과 그가 받은 처벌전말을 들었다. 그래서 강호범을 만나보려고 했더니 그는 취사장에 내려가있다는것이였다. 김성태는 그를 만나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 직접 취사장에 가서 그를 만나보고 가려는것이였다.

1중대 취사장은 고지밑의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맑은 산골물이 졸졸 흐르는 골짜기를 한동안 걸어내려가자 아름드리 밤나무가 몇그루 서있었다. 밤나무들은 골짜기에 뿌리를 박고 퍼그나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모양으로 나무줄기는 군데군데 벌통처럼 구새먹고 곱지 않게 속을 드러내놓고있었다. 그러나 잎새만은 제법 푸르싱싱하여 우산처럼 무성한 가지를 펼쳐들고 넓은 그늘을 던져주었다. 중대취사장은 바로 그 밤나무밑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큰 가마가 두개 걸려있고 그 곁에는 물통이며 칼도마며 밥식기가 든 궤짝이 놓여있었다. 김성태가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 취사장에서는 세동무가 점심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그러다가 문화부대대장이 나타나자 걷어붙였던 팔소매를 내리우기도 하고 복장을 바로잡기도 하면서 마주달려나왔다.

《회의에 갔다 오시는길입니까?》

《중대에 들렀다 오십니까?》

그들은 제가끔 한마디씩 인사를 하고 배낭을 부여잡았다.

《일없으니 어서 일들을 하시오, 어서.》

김성태는 그들과 악수를 나눈 다음 그들의 일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서둘러 자기 손으로 배낭부터 벗었다. 그러자 그중 한동무가 빈 궤짝을 그늘밑에 갖다놓으며 앉으라고 고집스럽게 권하였다. 그는 얼굴에 약간 얽은 자리가 있는 나이많은 중대취사원이였다. 강호범은 김성태에게 어줍게 인사를 하고나서 오이를 썰던 식칼을 만지작거리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문화부대대장을 보고 반색을 하며 어쩔바를 몰라할 례절바르고 붙임성있는 그였다. 더구나 적구정찰을 들어갔다온 그로서 문화부대대장을 만나자마자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꺼내고 자랑할 그였다. 그러나 지금 강호범은 수심에 잠겨 머리를 푹 수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다.

《강을 건너갔다가 오늘아침에 돌아왔소?》

김성태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강호범은 짤막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입을 다시 봉해버렸다.
《정찰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했소. 그래 상처는 어떻소?》
《일없습니다.》
강호범은 이렇게 단마디 대답을 하고 또다시 입을 봉해버렸다. 풀이 죽은 강호범의 이 우울한 태도로 하여 자리는 점직한 분위기에 잠겨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곁에 서있던 중대취사원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문화부대대장동지! 도하전투가 언제 시작됩니까?》
《글쎄…》
김성태는 모호하게 말끝을 흐려버렸다. 그러자 취사원은 정색을 하며 다시 물었다.
《2～3일내로 곧 시작되는가요?》
김성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난처하였다.
《그런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상급에서 하는 일을.》
김성태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였다.
《그런데 그건 어째서 자꾸 묻소?》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대취사원이 당황하여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곁에 서있던 다른 한 취사원이 한숨을 내쉬였다. 김성태는 도하전투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공통한 관심사로 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것을 눈치챘다. 강호범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인지 말들을 하오. 하긴 나도 알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더 묻지 않겠소만…》
김성태는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제사 나이 많은 중대취사원이 김성태에게 사연을 설명하였다. 그는 문

화부대대장이 강호범의 책벌문제를 모르는줄 아는 모양이였다. 그는 오늘래일 락동강도하전투가 곧 시작된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는데 강호범분대장이 과오를 범하고 대대장으로부터 전투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근신처벌을 받았으니 필경 이번 전투에 참가 못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자기 고향마을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할수 있게 어떻게 좀 풀어줄수 없겠느냐고 자기의 의견까지 첨부해 말했다. 그러자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김성태는 어처구니없다는듯이 취사원에게 말하였다.

《허허… 그러니까 취사원동무는 나한테 과오를 융화묵과하고 옹호해달라는 말이군요.》

김성태는 능청스럽게 두눈을 끔벅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취사원은 당황하여 자기의 말을 변명하려들었다.

《어쨌든 그것은 과오를 범한 혁명동지에 대한 원칙적태도가 아닙니다. 그때 만약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대대장동지한테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겠소.》

취사원은 말문이 막혀 더 말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그러자 여태까지 말없이 머리를 파묻고 앉아있던 강호범이 김성태를 향해 돌아앉았다.

《제가 범한 과오는 물론 엄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렇게밖에는 달리 행동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참지 못한건 다른것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떳떳하게 인민군대 군복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것을 아버지가 잠시라도 보시였더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실 한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왔죠. 발 한뙈기 없이 지주놈의 별의별 천대를 다 받아가며말입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북반부에서처럼 나라의 주인이 되고 토지를 분여받고 제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나깨나 늘 그 생각을 하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왔

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쑤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찢어지는것 같아서…》

강호범은 목이 메여 말을 못했다.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돌아앉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먹거렸다. 곁에 서있던 두 취사원들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한숨들을 내쉬였다.

《죽일놈들 같으니라구!》

나이 많은 취사원이 돌아서서 코를 풀며 이렇게 말했다.

《문화부대대장동지! 이 원쑤들을 내가 그대로 둬야 옳단말입니까? 저를 차라리 영창에나 걷어넣는다면 저는 의견이 없겠습니다. 제가 무엇때문에 두번씩이나 군의소에서 뛰쳐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기를 써가며 여기까지 와서 자기 고향마을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도하전투에도 참가 못하게 됐으니 제 속이 왜…》

강호범은 주먹으로 안타까이 자기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흐려진 얼굴로 묵묵히 강호범의 하소연을 듣고 앉았던 김성태가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더니

《탄내가 나오. 밥이 타는것 같소.》하고 말하였다.

《에크! 이 정신봐라!》

두 취사병은 황망히 가마목으로 내달렸다.

김성태는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자신이 한대 붙여물고 강호범에게도 권했다. 그리고나서 강호범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

김성태는 강호범과 담화를 끝마치고 대대장감시소를 향해 걸어가다가 나무가지를 꺾어 우산처럼 받쳐들고 걸어오는 련대군의소의 준의와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명희가 그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다.
《어데로 가는길입니까?》
김성태는 반색을 하며 땀투성이가 된 녀준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명희는 강호범과 리종활을 치료해주러 내려왔다가 중대취사장에 찾아가는길이라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마침 잘됐습니다. 준의동무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성태는 녀준의를 보자 문뜩 생각나는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예요?》
명희는 김성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다른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 대대부에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대대장동무의 상처를 보고 치료해주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네? 대대장동무의 상처라니요? 그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녀준의는 두눈이 휘둥그래지고 안색이 달라졌다.
《아니, 그런게 아니라…》
김성태는 뜻밖에도 녀준의가 크게 놀라는것을 보고 당황하여 다음 말을 서둘렀다. 실은 김성태도 이번에 사단문화부에서 조직된 회의에 올라갔다가 이전부터 안면있는 사단군의소의 군의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것은 대대장 최경민이 사단군의소에 입원했다가 몸의 상처가 채 아물기전에 생억지를 써가며 거의 도망치다싶이 돌아갔다는 사실이였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군의는 김성태에게 대대장의 상처가 그리 중한것은 아니나 그것을 악화시키면 후과가 좋지 않으니 곁에서 잘 돌봐주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다. 김성태는 그 말을 듣고 시름이 생기지 않을수 없었다. 대대장이 부임해서 그런 내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나 그의 성미로 보아 자진하여 남

에게 그것을 내보일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부일군들과 달리 김성태가 대대장의 상처를 보자고 말하기도 거북한 일이였다. 이래저래 김성태는 그 문제때문에 머리를 쓰고있던 참에 녀준의를 만나게 되니 여간만 반갑지 않았다. 김성태는 준의에게 이상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알겠어요. 취사장에 갔다가 대대부에 꼭 들리겠어요. 근심마세요.》

녀준의는 믿음성있게 말하였다. 김성태는 그와 갈라져 다시 감시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무더운 골짜기를 톺아오르는 그의 머리속에는 착잡한 여러가지 생각이 얽혀돌아갔다. 그것은 주로 최경민대대장과 관련된 문제들이였다.

사단문화부에서 조직된 문화부대대장들의 회의에서는 이번에 진행한 《피암동》포위전투에서 달성한 오현무가 지휘하는 련대의 혁혁한 전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 최경민대대의 신속한 기동과 능숙한 차단전투에 대하여 높이들 평가하였다.

김성태는 최근에 대대가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결코 대대장 최경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최경민이 대대에 부임하자바람으로 숙영지를 이동시키던 일이며 구분대장회의에서 군풍기를 바로잡던 일이며 강행군을 지휘하던 모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김성태는 이번에 그가 자기 몸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있었음에도 어려운 그 강행군의 앞장에 서서 그렇듯 완강하게 대오를 이끌고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 저으기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는 정녕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수 있는 광복후 우리 당이 키워낸 충직한 당원이며 패기있는 새형의 군사지휘관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성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또한 부족점이 없지 않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높은 군사적자질과 준비정도에 비해 사람과의 사

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아직 서툴은 사업방법이였다. 만약 그의 높은 군사실무능력에 사람과의 사업,능숙한 정치사업방법까지 겸비한다면 참말로 그는 얼마나 훌륭한 군사지휘관으로 될것인가. 김성태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본인에게 귀띔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4

김성태가 대대장감시소에 들어서자 최경민은 련대참모부에다 전화를 걸고있었다. 최경민은 통화가 끝나자 김성태의 손을 잡아흔들며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다. 두사람은 마주앉아 지난 이틀동안의 자기 생활을 말하기도 하고 서로 묻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에 대대장감시소는 김성태의 도착을 알고 달려온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김성태는 그들에게 사단에서 알고 온 새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배낭속에서 부탁받은 물건을 꺼내주기도 하면서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 최경민은 그동안에도 여러곳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한 볼일이 있어 몇차례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되였다.

최경민은 동무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 조용한 틈을 타서 김성태에게 강호범의 규률위반사건경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정세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수 있는 조건하에서 대내질서를 약화시킬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완강하게 바로잡아나감으로써 구분대안에 강철같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김성태에게 말하였다.

《옳습니다. 저도 대대장동무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문화부일군대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론의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대규

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요구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치사업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최경민은 쾌히 그것을 시인하였다. 김성태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저는 대대장동무가 아시다싶이 군대생활년한이 짧고 따라서 군대내 당정치사업에 대한 경험이 아직 어립니다. 때문에 그것이 늘 근심이 됩니다.》

최경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없이 김성태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번 강행군때 전사들속에 들어가 능숙한 정치선동사업으로 피로한 행군대오를 앞으로 떠밀던 일이며 구분대장들을 힘겨운 진지굴설작업에 조직동원하던 일들이 언뜻 되살아났다.

《그것은 지나치게 겸손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지만 문화부대대장동지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고있습니다. 그 이상 더 능숙한 정치사업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있습니다.》

최경민은 김성태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이 어려있었다. 그러나 김성태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그것을 부인하였다.

《아닙니다. 저도 물론 일하려고 뛰여다니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이 서툴고 일을 잘못하기때문입니다. 능숙한 정치일군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일이 저절로 척척 잘되여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바삐 뛰여다니지요. 이것이 벌써 서툰 방법입니다. 대대의 모든 군관들을 자기 사업에 아직 인입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군사간부들중에는 정치사업은 정치일군들이나 하는 일로 알고 자신들의 사업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사람과의 사업, 특히 전사들과의 사업에서 아직 이러저러한 빈구석이 드러나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점에서 저는 대대장동무도 생각할바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민은 아까와는 달리 정색을 하고 그의 얼굴을 지

켜보고있었다.

김성태는 대대장에게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의견을 나누려고 다음 말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땀에 흠뻑 젖은 오현무련대장이 감시소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이물은 련대장의 젊은 부관이 들어섰는데 그는 등에다 두툼한 배낭을 지고있었다. 오현무는 대대장의 보고가 끝나자 수건으로 땀을 문대가며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몸을 바로잡고 서있는 김성태에게 회의에 갔다 언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김성태는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최경민은 련대장에게 의자를 권하며 련락병에게 물이라도 떠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현무는 그것을 말렸다.

《그만두오. 잠시 숨을 돌리고 현지로 떠나갑시다.》

오현무는 오늘 낮에 1대대 대안의 지형과 적방어체계를 보충적으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여 현지에 나가 관찰하기로 되여있었다. 락동강도하작전을 위한 그의 결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군사부대대장동무는 어데 갔소?》

《1중대장 감시소에 나가있습니다.》

최경민은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명령대로 현지정찰과 관련한 준비를 끝내고 대기상태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좋소. 그럼 떠나도록 합시다.》

오현무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도로 주저앉으면서 불쑥 최경민에게 오늘아침 정찰갔다 돌아온 강호범분대장을 책벌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경민은 의자에서 다시 일어나 몸을 꼿꼿이 바로잡으며 대답하였다.

《네! 중대장의 권한으로 처벌하되 지시 있을 때까지 그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동무를 전투에도 참가시키지 말라

고 했단말이지…》

오현무는 이 말을 무겁게 외우며 그를 앉힌 다음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그래 본인이 그것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것 같소?》

《시간이 없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현무는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최경민은 저도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거기 대해서 무슨 반영이 있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최경민은 이렇게 물으며 낯을 약간 붉혔다.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지휘관들은 하부일군들한테서 결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방임해두지 말고 즉시 바로잡아야 하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융화묵과해버릴 권한이 없소. 왜냐 하면 우리 지휘관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기때문이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백수천명 전사들의 운명을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그리고 그들 전사들앞에서,후방에 있는 그들의 부모처자들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오. 그렇기때문에 우리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뿐만아니라 부하들의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도 묵과하거나 스쳐버릴 권한이 없소. 과오를 범한 한 분대장을 비판하고 필요에 따라 책벌을 준다는것은 전적으로 대대장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요. 련대장도 그것에 간섭할 권한이 없소. 다만 앞으로 사업에서 혹시 참고가 될가 하여 동무에게 보여주고싶은게 있소.》

오현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관이 벗어놓은 배낭을 풀고 그 안에서 광목천에 싼 보따리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다시 풀어 그 안에 든 물건을 야전책

상우에다 꺼내놓았다.

최경민은 의문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았다. 최경민뿐아니라 곁에 앉아있는 김성태도 호기심 가득찬 시선으로 그것을 지켜보고있었다.

맨먼저 그들의 관심을 끈것은 보따리안에서 나온 파란 녀자 옥색고무신이였다. 아직 한번도 땅을 디뎌본 일이 없는 새 신이였다. 커다란 남자고무신 한켤레도 있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담배쌈지, 물부리, 실토리, 가죽띠, 공책, 참빗… 마치 잡화상점의 진렬대처럼 잡다한 갖가지 물건들이 야전책상우에 널려졌다.

그것을 바라보는 두사람의 얼굴에는 의문의 그림자가 더욱 깊어갔다. 련대장이 어째서 배낭속에서 이런 물건들을 꺼내놓는지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김성태는 말없이 자기앞에 놓인 커다란 남자고무신을 손에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최경민은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오현무의 시선을 몸에 느끼면서 자기앞에 놓여있는 그 물건들중에서 담배쌈지를 집어들었다. 보매 그것은 흔히 농촌 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류의 가죽쌈지였는데 퍽 쓸모있고 맵시있게 만들어진것이였다. 그러나 그 담배쌈지는 송곳으로 뚫고 실로 꿰맨 자리로 보아 그것이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공업제품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수공업제품이라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었다. 그리고보니 이 물건들중에 적지 않은것들이 다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진것이였다.

최경민은 이 물건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며 어떻게 되여 련대장의 배낭속에 들어가있는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최경민뿐아니라 김성태도 같은 얼굴표정이였다. 오현무는 의문에 잠겨있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을 시작했다.

《이 보따리는 방금 동무가 말한 그 강호범분대장동무의 보따리입니다.》

최경민은 점점 더 알지 못할 미궁에 빠져들어갔다. 오현무는 련대가 강행군을 하던 날 밤에 차를 타고 오다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부대의 뒤를 따라오고있는 강호범과 리종활을 만나 차에 태워가지고오던 경과를 이야기하였다.

《그들을 군의소에 보낸 다음에도 나는 부상당한 몸으로, 마감에는 걸머지고오던 보따리마저 내던지면서 끝끝내 부대를 따라오던 두 동무에 대해서 잊을수 없었소. 나는 그길로 후방부에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나올 때 그 동무가 길가에 내던지고온 이 보따리를 찾아오게 하였소. 그리고 이 보따리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풀어보았소. 그리고 나는 이 물건들을 앞에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소. 우리 전사들이 일상적으로 어깨에 메고다니는 평범한 한 배낭에 대해서, 우리 전사들의 꿈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때문에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귀중한 생명과 청춘을 서슴없이 다 바치는가에 대해서말이요.》

오현무는 잠시 말을 끊고 아까 김성태가 손에 들고 들여다보던 커다란 남자고무신을 주어들었다.

《이 분대장으로 말하면 광복전에 동무들처럼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억압밑에서 시달리다가 눈물로 락동강을 건너온 동무였소. 그는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자기 고향을 그리며 살아왔으리라고 보아지오. 이 물건들로 보아 그의 고향에는 늙은 부모도 사랑하는 처녀도 있는것이 분명했소.

그는 여러해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소박한 이 선물들을 마련했소. 물론 우리 군대내에서는 규정상 이런 물건들을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것이 금지되여있소. 그러나 다른 한측면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 조선사람들이 객지에 나왔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어찌 빈손으로 돌아갈수 있겠소. 우리 조선사람들의 풍속대로 한다면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갈 경우에는 아버지의 저녁밥상앞에 술 한잔 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소.

그러나 우리 지휘관들은 자기 고향을 눈앞에 두고있는 한 전사의 그런 심정을 리해하지 못했소. 그의 꿈과 그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의 배낭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나도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소. 이런 심정을 가진 동무가 어째 강호범동무 한사람뿐이겠소. 우리 부대내 수많은 전사들가운데 그런 동무들이 왜 또 없겠소. 경민동무! 강호범동무가 무엇때문에 자기 몸의 상처도 돌보지 않고 두번씩이나 군의소를 뛰쳐나갔는지 깊이 생각해본적이 있소?》

오현무는 말을 끊고 대대장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최경민은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오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가 말을 다시 계속했다.

《내가 생각컨대 그것은 한시바삐 자기 손으로 자기 고향을 해방시키고 그리운 부모형제들과 고향사람들을 만나보고싶은 안타까운 그 한마음에서였다고 보아지오. 만약 우리 지휘관들이 그의 이 절절한 심정을 리해하였더라면 혁명동지로서 그를 고무해주고 그를 도와주어야 했을것이며 하다못해 상처입은 그의 몸의 배낭이라도 메다주어야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관심했기때문에 그가 부상당한 몸에다 배낭을 지고 몰래 부대를 찾아오게 만들었으며 마감에는 하는수없이 자기의 꿈이 담긴 귀중한 이 보따리마저 길바닥에 내던지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소. 뿐만아니라 그가 적구에 들어가서 그렇듯 그립던 아버지가 미제침략군놈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당하는것을 목격하고 참지못해 분별없이 원쑤들을 족쳤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를 자기고향 해방전투에도 참가시키지 말라고 책벌을 주었소.》

오현무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잠시 최경민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김성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문화부대대장동무도 강호범분대장을 그렇게 처벌하는데 동의했소?》

오현무는 김성태에게 물었다.

《네! 제가 대대장동무의 사업을 잘 돕지 못한데 있습니다.》

김성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앉소! 앉소.》

오현무는 서둘러 그를 자리에 앉혔다.

최경민은 생각에 잠긴 심각한 낯이 되여 앉아있었다. 오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짐을 지고 좁은 감시소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최경민에게 물었다.

《정찰을 들여보내기에 앞서 그 동무의 가정형편이며 오랜만에 고향땅을 밟게 되는 그 동무가 무엇을 생각하며 심리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화를 나누고 주의를 주어보냈소?》

《그렇게 못했습니다.》

최경민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될수 있소. 그렇기때문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군사지휘관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거요. 지휘관들은 언제나 단순한 군사실무적립장에만 서지 말고 모든것을 계급적눈으로 보고 항상 정치적으로 사고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해야 된다고말이요. 정치사업이라는것을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소. 우리가 지금 마주앉아 얘기하듯이 하부일군들한테 임무를 줄 때 알기 쉬운 말로 사전에 차근차근 잘 일깨워주는것이 곧 정치사업이요.》

오현무는 담배를 꺼내 자신이 한대 붙여물고 두사람도 피울수 있게 야전책상우에다 밀어놓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떻소.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되지나 않았소?》

오현무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김성태는 자기에게로 옮겨진 오현무의 묻는듯한 시선에 부딪치자 앉은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최경민은 말이 없었다. 련대장도 김성태도 속으로 은근히 그가 무엇인가 말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현무를 향하여 몸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현무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담배를 불여무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좋소, 이만하고 곧 떠납시다.》

오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5

오현무는 최경민을 데리고 1중대진지로 나갔다. 련대장의 부관과 대대장련락병 주영훈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바깥날씨는 몹시 더웠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고 해볕은 산과 들을 불처럼 내리지졌다. 전호마다 생나무를 찍어다 덮고있었다. 그것은 위장도 되고 지붕처럼 그늘도 지어주었다. 그리하여 감시병을 내놓고 나머지 전투원들은 거의 그속에 들어박혀있었다. 교통호를 오고가는 련락병들은 나무가지들을 꺾어 양산처럼 들고다녔다.

일행은 모두 땀에 푹 젖어 교통호를 따라 걸어나갔다. 중대부가 자리잡은 은폐부안에서는 군사부대대장과 중대장이 련대장의 도착을 기다리고있었다. 날씨가 그렇게 더웠음에도 그들은 규정대로 군복을 차려입고 혁띠를 질끈 동여매였다. 련대장이 중대부에 도착하여 보고를 받고 잠시 숨을 돌리고있는 사이에 주영훈은 밖으로 나가 물병에다 물을 길어가지고왔다. 그리고 련대장에게 랭수를 권하였다. 그러자 오현무는 물병을 들고 한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물을 어데서 길어왔느냐고 련락병에

게 물었다. 그리고나서 곁에 서있는 김봉수에게 전사들에게 요즘 공급되는 물이 하루 몇리터나 되느냐고 물었다. 김봉수는 생각지 않던 이 물음에 얼떨떨해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다.

《그러면 오늘 낮에는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련대장이 재차 물었다. 그러나 김봉수는 점점 더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고 낯을 붉혔다. 그는 상급앞에서 언제나 당황해하고 아는 일도 제대로 말못하는 타고난 성미를 가지고있었지만 오늘 그를 더욱 당황하게 한것은 다른데 또한 원인이 있었다. 아까 김봉수는 대대장으로부터 련대장이 내려온다는 통지를 받고 그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련대장은 필경 현지정찰후에 도하전투를 앞두고 중대실정을 료해하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김봉수는 중대의 대원명부며 전투일지를 정리하기도 하고 전사들의 외모를 단정히 하기 위해 해당한 대책도 취했으며 무기기술기재들을 정비하고 통계를 맞추느라고 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련대장이 도착할 림박에는 모든 준비사업이 끝나 련대장의 그 어떤 물음에도 다 대답할수 있다고 자신심까지 가졌었다. 그런데 오현무는 도착하자마자 전혀 뜻밖의 질문을 제기하는바람에 그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다만 김봉수의 경우만이 아니였다. 곁에 있는 군사부대대장 전창걸도 대대장 최경민도 역시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중대장을 대신하여 련대장의 물음에 대답하고싶었으나 그들도 관심밖에 있었던 물에 대해서 묻는바람에 대답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입을 봉한채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전사동무들을 좀 만나봅시다.》

오현무는 대답을 못하고 서있는 중대장에게 더 물으려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봉수가 앞에 서서 길안내를 하고 나머지 성원들이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진지에서는 때마침 중대취사병동무가 점심밥을 가지고 올라

왔는데 전사들은 그가 메고온 물초롱을 둘러싸고 기뻐 야단들 하고있었다. 그들은 앞서 마시라거니 후에 마시겠다느니 서로 물을 권해가며 떠들썩거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련대장이 나타나자 걷어붙였던 팔소매를 내리운다 복장을 바로잡는다 하며 그를 맞이하려고 서둘렀다.

《괜찮소, 괜찮소. 어서 식사들을 하오.》

오현무는 그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말렸으나 그중 한 동무가 앞으로 나서며 고집스럽게 격식을 차려가면서 식사중이라는것을 련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것은 중대특무장이였다.

《낮에 무슨 음식을 준비했소?》

오현무는 취사병이 메고 올라온 음식그릇을 열어보며 특무장에게 물었다.

《오이랭국을 했습니다.》

특무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오현무는 음식그릇을 닫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어째서 하필 랭국을 했소?》

련대장이 의문스럽게 묻는바람에 특무장의 자랑스럽던 얼굴은 어느덧 긴장해졌다.

《동무들이 모두 그것을 요구하기때문입니다.》

그는 변명이나 하듯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특무장은 아무때나 동무들이 요구하는것을 만족시켜주면 되겠군.… 례를 들어 부상병이 물을 달라고 보챌 때 랭수를 떠다주듯이 말이요.》

오현무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두눈을 끔뻑거렸다.

《아닙니다. 동무들의 의견을 듣되 특무장은 자기의 립장과 타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랭국을 많이 만든것도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데 말해보오.》

오현무는 그의 대답을 재촉하였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덥다나니 동무들은 고지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있습니다. 만일 사람몸에서 배설된만큼 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과 함께 소금을 비롯한 무기염류가 몸밖으로 많이 나가기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무들이 요구하는대로 랭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답을 듣고있던 오현무의 두눈은 갑자기 생기를 띠며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기쁨을 참지못해 손으로 특무장의 어깨를 다정하게 툭 쳤다.

《옳소. 동무는 자기 사업을 많이 연구했소.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모든 동무들이 그렇게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고 능수가 되여야 하오.》

특무장은 과분한 칭찬에 얼떨떨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그런데 특무장동무! 동무들이 요즘 고지에서 물이 모자라는것 같지 않소?》

련대장이 다시 물었다.

《하긴 음료수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밥을 올려와도 저렇게 밥보다 물초롱에 먼저 매달려 좋아들 합니다.》

오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물었다.

《고지에 물을 충분히 올려오자면 무엇이 필요하오?》

《그릇이 걸립니다. 물을 여유있게 올려오재도 물초롱이 부족하고 또한 물을 많이 올려와도 그것을 저장해둘 그릇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현무는 중대부에 돌아오자 곧 전화로 후방부련대장을 찾았다. 그리고 물을 저장할수 있는 물독이나 도람통을 구해서 진지마다 하나씩 내올것과 물을 운반하는데 편리한 용기를 구해서 오늘중으로 매 진지에 공급할것을 명령하였다. 첨부해서 그는 전사들에게 시원한 랭국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 오이를 비롯한 신선한 남새들과 식초를 떨

구지 않게 확보해줄것을 지시하였다. 최경민은 곁에서 자기 생각에 깊이 파묻혀있었다. 그는 아까 오현무와 담화를 나눈이래 불과 며칠 안되는 사이나마 대대에 부임해와서 진행한 자기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것은 다 내놓고라도 자신은 어째서 여러날째 이곳에 나와 살면서도 전사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물문제 하나 풀어주지 못하였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문득 강행군 뒤의 힘겨운 전호작업때 김성태가 물을 길어다 전투원들에게 공급하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최경민은 그것이 세심한 정치일군만이 돌릴수 있는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느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오현무가 그렇게 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자신은 어째서 그런데 관심이 돌려지지 않았는가. 최경민은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후방부련대장과의 전화가 끝나자 오현무는 쌍안경을 들고 1중대 대안의 층암절벽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

이때 한명희는 대대장감시소에서 최경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아까 문화부대대장과의 약속대로 강호범과 리종활의 부상처를 치료하고나서 최경민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대대장감시소로 달려올라왔다. 감시소는 비여있고 대대서기가 그에게 대대장은 얼마전에 련대장과 함께 1중대쪽으로 나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명희는 련대군의소에 전화를 걸어 일이 생겨 좀 지체된다는 사연을 알리고나서 대대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는 감시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었다. 명희는 아까 문화부대대장으로부터 대대장이 상처를 감추고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놀라왔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한걸음 더 나가서 그 사실이 리해되지 않았다. 때로 조급성에 사로잡혀 분별없이 처신할수 있는 어린 전사들의 경우라면 그것은 별개 문제였다. 그러나 수백명 전사들을 거느린 대대장, 자신과 하부일군들에게 누

구보다 엄격한 요구성을 가지고있는 최경민한테서 드러난 이 사실을 그는 어떻게 리해해야 좋을지 몰랐다. 명희는 여직 자기 사업에서 때로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흔히 야전규정의 군의사업질서의 눈으로 보고 실무적머리로 판단하는데 습관되였으며 그에 따라 유익한 대책도 세우고 필요한 충고도 주었었다. 하지만 날을 따라 더욱 벅차오르고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거창한 전쟁의 현실은 그가 야전규정에서도 외과학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갈수록 더욱 어렵고 난해한 생활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는것이였다.

그가 나타나면 무슨 말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낼것인가? 그리고 만약 상처가 중하면 어떻게 한다? 명희는 복잡한 생각에 얽혀 초조하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최경민은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최경민은 현지정찰이 끝나자 곧바로 련대지휘부로 떠난 오현무를 바래우고나서 한낮이 기울어서야 나타났다. 아까부터 그를 기다리기에 지친 명희는 그가 감시소에 들어서자 인사를 나눈 다음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를 끄집어냈다.

《대대장동무의 부상처를 보러 왔어요.》

《부상처라니요?》

금방 야전책상앞에 가서 이마의 땀을 문대고앉았던 최경민은 놀라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한테까지 숨길 필요는 없어요. 문화부대대장동지한테서 이미 다 들었어요.》

명희는 싸움이라도 걸듯이 그를 마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경민은 시치미를 떼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순간 명희는 문화부대대장동무한테서 들었다는 말을 공연히 했다고 속으로 후회가 됐다. 그러지 말고 사단군의소에서 직접 통보가 왔다고 을러댔어야 할것을 잘못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까짓것쯤 문제가 아니였다. 명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상처를 풀어보지 않고서는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든든히 마음먹고 주인이 권하기도 전에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때 련락병이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를 하였다.

《2대대에서 대대장동지가 오셨습니다.》

《2대대에서? 좋소, 이리 안내하오.》

최경민은 심상한 태도로 우정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련락병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준의의 령리하게 반짝이는 두 시선도 그 말을 할 때 풀이 죽었던 최경민의 얼굴에서 갑자기 생기가 되살아나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명희와도 이미 안면이 깊은 몸이 뚱뚱한 2대대장이 련락병의 안내를 받아가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운 길을 걸어오느라고 몸이 땀투성이가 되여있었다. 그는 최경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곁에 있는 명희에게도 알은체를 하였다. 그는 의자에 앉자 수건을 꺼내 얼굴을 문대면서 오늘 날씨가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푸념을 하였다.

두 대대장은 잠시후에 지도를 꺼내놓고 적정에 대한 통보자료를 서로 교환해가며 앞으로 진행될 락동강도하전투를 위한 협동동작방안들을 토론하고있었다. 2대대장은 쉬이 자리에서 일어날것 같지 않았다. 거기에다 명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것이 끝나면 현지로 같이 나가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명희는 일이 불리하게 되였음을 알았으나 어찌할수 없었다.

(어떻게 할가?)

명희는 생각에 잠겼다.

《후에 다시 오겠어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최경민은 그를 바래기 위해 감시소입구까지 따라나왔다. 그리고 무엇인가 말하려다 말고 그대로 들어가버렸다.

×

련락병 주영훈은 아까부터 점심식사를 준비해놓고 린접부대에서 찾아온 군관동무와 함께 현지에 나간 대대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최경민은 2대대장과 함께 현지를 돌아보고와서도 한동안 그와 더 마주앉아있었다.

주영훈은 요즘 무엇보다도 최경민에게 하루 세끼 식사를 권하는것이 큰일이였다. 기회를 엿보다가 제때에 식사를 권하지 않으면 끼니를 번지기가 일쑤였다. 최경민은 요즘 그만치 바삐 돌아갔다. 식사뿐만아니라 잠도 영 자지 않았다. 부임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사이에 벌써 그의 두눈은 움푹 꺼져들어가고 얼굴이 상하는것이 확연하게 알려졌다. 밤에 자다가도 가끔 신음소리를 내였다. 주영훈은 이러다가 대대장이 쓰러지지나 않을가싶어 겁이 덜컥 나기까지 했다. 그는 이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의 사생활에 마음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주영훈은 대대장이 손님을 바래우러 나간 짬을 타서 얼른 점심밥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최경민이 밖에서 들어오자 마침 련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주영훈은 통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야전책상우에다 점심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대대장은 전화가 끝나자 식사는 할념도 않고 어데론지 또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련대장으로부터 급히 올라오라는 전화련락을 받았던것이다.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영훈은 대대장의 앞을 막아서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최경민은 주춤 굳어져서 말없이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다가 점적하게 웃어보였다.

《참 안됐소. 자꾸 내 일만 생각하다나니…》

그는 두손을 련락병의 량어깨우에다 얹고 방금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 그를 눌러앉혔다.

《어서 식사를 하오. 그리고 내가 련대장감시소에 가

있겠으니 그리로 와주오.》
주영훈은 낯을 붉히며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튀여일어났다.
《아닙니다. 저는 먼저 했습니다.》
경민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식사전이라는것이 그의 얼굴에서 뻔히 드러났다.
《정말이요?》
최경민이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주영훈은 고집스럽게 우겨댔다.
《정말입니다.》
경민은 한숨을 내쉬고 하는수없이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럼 이렇게 하기요. 줴기밥을 만드오. 가서 먹읍시다.》
이리하여 두사람사이에 타협이 성립되였다. 주영훈은 밖에 나가 가둑나무잎을 뜯어다 줴기밥을 꿍졌다.
잠시후 최경민은 련락병을 데리고 급히 련대장감시소로 향하였다. 련락병 주영훈은 그의 뒤를 따르면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대대장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나서 앞으로 달려나가 가둑나무잎에 싼 줴기밥을 대대장앞에 불쑥 내밀었다.

×

최경민은 련대장의 부름을 받고 련대장감시소로 걸어가면서 락동강도하가 곧 시작되나부다 하고 생각하였다. 요 며칠동안에 련대장은 도하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었다. 사단으로부터 명령이 내렸다면 필경 대대장들이 다 불리워 올라왔을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감시소는 조용하였다. 그가 감시소안에 들어서자 오현무가 기다렸다는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경민은 명령대로 도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거기 앉소!》
오현무는 무엇인가 못마땅한 기색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최경민은 그제사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녀준의의 새침한 얼굴을 발견하고 가슴이 뜨끔해졌다. 말없는 그 녀자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그것봐요. 아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젠 할수 없어요. 련대장동지한테 단단히 혼나봐요.)
《거기 앉소!》
오현무는 머뭇거리고 섰는 최경민에게 다시한번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의자에 가앉은 최경민에게 저고리를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최경민은 아까 2대대장이 오는 바람에 일이 잘됐다고 생각한것이 오히려 이렇게 난처해질줄을 몰랐다. 그는 하는수없이 군관혁띠를 풀고 순순히 군복저고리를 벗었다.
《내의도 마저 벗소!》
오현무의 엄한 목소리였다. 최경민은 하는수없이 또 내의를 벗었다. 그러자 녀준의가 다가앉으며 그의 옆구리에 감았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나갔다. 그리고 오현무와 함께 옆구리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경민은 자기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상처를 보고있는 녀준의의 얼굴이 대번에 울상이 되고 오현무의 량미간이 찡그려지는것을 보았다. 녀준의는 깐깐스럽게 그의 상처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어떻소?》
조급하게 그에게 묻는 오현무의 근심어린 목소리였다. 준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원 발조는 그리 대단한것이 아니였어요. 그러나 퍽 좋지 않아졌어요. 이대로 사흘만 더 지냈더라면…》
녀준의는 다음에 계속해야 될 자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차마 입에 담을수 없다는듯이 잠시 말을 끊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상급의 물음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지 않을수 없었다.

《…사날만 더 경과했더라면 생명까지 위험할번 했어요.》

명희의 이 말은 오현무를 노엽게 하였다.

《어째 그렇소?! 엉! 세살먹은 어린애요?!》

오현무는 웃통을 벗은 최경민을 앉혀놓고 근엄한 얼굴로 꾸짖기 시작했다. 최경민은 여직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은 오현무를 본적이 없었다. 명희는 아까 최경민이 들어섰을 때 련대장이 그를 단단히 혼을 내주었으면 하고 바랐었다. 그런데 오현무가 정말 노여워하는것을 보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련대장을 진정시키려고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다.

《아직은 아무일 없어요. 이제 약간 수술을 하고 처치를 하면 당장 전투도 지휘할수 있고 아무일 없어요. 다만 악화되는 상처를 보이지 않고 싸두었기때문에 큰일날번했을뿐이예요.》

련대장을 진정시키려는 명희의 이 말은 오현무를 더욱더 노엽혔다. 그러나 오현무가 음성을 높일수록 최경민은 더욱더 가슴속으로 련대장의 뜨거운 정이 스며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서 때로 욕을 먹던 일이 생각났다. 부모들이 돌아간후에 내가 누구한테서 내 몸을 걱정해주는 이런 꾸지람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최경민은 가슴이 후더워지고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슴벅거리며 태연하게 지어는 히죽히죽 웃어가며 앉아있었다. 대대장이 뜨끔해하지 않는것을 보자 오현무는 더욱더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대대장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전에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말해보오. 무슨 리유로 상처를 감추고있었소? 동무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것을 생각해봤소? 엉?!… 어디 말해보오.》

최경민은 여전히 대답을 안하고있었다.

《왜 대답이 없소? 내 기어코 대답을 받아내고야 말겠소.》

최경민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응?!…》

오현무는 뜻밖이라는듯이 최경민을 바라보았다.

《제가 부임할 때 련대장동지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수백명의 전사들이 항상 대대장의 얼굴을 주시하고있으며 대대장의 얼굴표정을 보고 용감해질수도 있고 반면에 사기가 떨어져 불안해할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장의 이 상처를 알면 전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오현무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우에 있는 주전자를 들어 물을 고뿌에 부은 다음 꿀꺽꿀꺽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셨다. 그리고 감시창앞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대장과 외면한채 여전히 근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명희동무, 어서 처치를 하오!》

그러나 명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있었다.

×

최경민은 오현무가 지켜보고섰는 가운데 명희로부터 수술처치를 받았다. 그리고 잠시 쉬면서 숨을 돌리고 가라는 오현무와 녀준의의 권고를 물리치고 대대에 돌아가서 쉬겠다고 하면서 이내 련대장감시소를 나왔다. 그러나 그는 대대장감시소가 아니라 련대후방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수술하고난 자리가 쑤시고 아파났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심장은 수술자리에서 오는 고통에 못지 않은 그 어떤 가슴아

픈 자책과 무거운 책임감에 지배되여 그의 발걸음을 후방부로 떠옮기는것이였다. 련락병 주영훈은 앓고난 사람처럼 해쓱해진 대대장의 얼굴을 근심어린 눈길로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여태까지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비록 얼마 안되는 짤막한 기간이나마 자기가 대대에 부임하여 진행해온 사업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부임한 첫날 구분대장회의에서 규률을 바로잡겠다고 날을 세우던 일이며 강행군때 행군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지칠대로 지친 전투원들에게 강한 군사적요구를 제기하던 일이며 강행군뒤끝에 전사를 대신하여 전호를 파주고있는 김봉수를 보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지적하던 일이며 피로한 구분대장들에게 새로 허위진지를 굴설하라고 명령하던 모든 일들이 되살아났다. 돌이켜보면 자기가 제기했던 그 모든 요구들은 전투승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들이였다. 그러나 그 정당하고 원칙적인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자신은 한번도 전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해본적이 없었다. 지금 대대내에는 준비정도가 각이한 수많은 전사들이 있다. 그들의 준비정도와 그들이 처한 실정에 맞게 그들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줄대신에 덮어놓고 명령 하나로 사업하려 하였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에게 의거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놓고 생각해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그릇된 생각이였다. 자나깨나 오직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하고 숨쉬려던 자신이 어째서 이 문제만은 이렇게 소홀히 하였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속에 정치사업은 정치일군이나 할 일이라는 그릇된 견해가 은연중 작용하고있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최경민은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며 가슴아픈 자책에 모대기였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

은 부족점을 시급히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최경민은 련대장감시소에서 오현무가 그렇듯 꾸짖고 나무라도 오히려 그의 육친적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가슴속으로 스며들던 순간 자신은 어째서 강호범의 상처 한번 따뜻이 보살펴주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저미는것이였다. 어째서 한 전호속에 같이 있는 전사들에게 물 하나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아파나는것이였다.

그는 후방부를 향해 걸음을 재우쳤다. 아까 련대장이 전화로 후방부에 지시한 물초롱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자기가 메고 돌아오자는것이였다.

26

요즘 락동강으로 뻗어내린 신작로들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법석거렸다. 낮동안 여기저기 골짜기마다 들어박혔던 무수한 자동차들이 해가 떨어지기 바쁘게 사방에서 신작로로 흘러나와 길게 꼬리를 물고 움직였다. 탄약과 여러가지 군수품들을 실은 화물차들이였다. 그리고 각종 구경의 포를 달아맨 견인차들이며 도하기재를 실은 공병차들도 섞여있었다. 길 한쪽으로는 도하장근방에 물자를 부리고 돌아가는 자동차대렬이 굵다란 쇠바줄처럼 줄을 지어 천천히 밀려나왔다. 보병들은 신작로 량켠에 비켜서서만 간신히 걸을수 있었다. 그것도 자동차때문에 자주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언뜻언뜻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눈부신 불빛으로 앞을 밝힐 때마다 신작로우에 피여오른 누런 먼지와 대렬을 잇기 위해 내달리는 전투원들의 그림자가 드러나보였다. 불빛에 드러난 그 그림자속에는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선 인민들의 행렬도 바라보였다. 인민

군대를 돕기 위하여 포탄상자를 짊어진 남녀의 형제들이였다. 그중에는 탄약상자를 머리에 인 녀인들도 나이 많은 로인들도 섞여있었다.

부릉거리는 자동차의 엔진소리, 운수마차의 덜거덕소리, 말울음소리, 보병들의 노래소리, 인민들이 주고받는 말소리, 무슨 고함소리… 이 모든 소음으로 하여 신작로는 소란스러운 도회지의 밤거리를 련상시켰다.

신작로가 갈라지는 길어구는 더욱 혼잡하였다. 조절근무를 서는 경무원들이 기발을 손에 들고 호각을 연신 불어대며 질서를 바로잡아나갔다. 그래도 좀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운전수들은 차를 멈추고 서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길을 내달라고 독촉을 했고 보병들은 길 한쪽에 멈춰서서 자동차가 길을 막는다고 원망들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 하고 항공 신호총소리가 나면 무수한 그 불빛들은 일시에 깜박 죽어버렸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불빛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서 번화한 밤거리처럼 번쩍거렸다. 이렇듯 락동강전선으로 밤마다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그들을 도와나선 인민들의 행렬 그리고 운수기재들이 움직이고있었다.

오현무네 련대도 바싹 도하준비를 서둘렀다. 도하준비는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여갔다. 련대의 정찰병들은 저녁마다 강을 헤엽쳐 넘어가고 날밝기전에 다시 강을 건너 돌아왔다. 그들은 대안의 지형적특성들과 화점들을 연구하고 배를 대는데 유리한 도하지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강기슭을 기여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물에 젖은 군복을 쥐여짜 입고 련대참모부로 가군하였다.

진지후면의 수림속에서는 한창 도하기재를 조립하는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한쪽에서는 통나무를 주런이 깔아놓고 떼를 뭇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참대를 엮어 참대떼를 무었다. 공병들의 손이 모자랐기때문에 이런 작업은 주로 각

구분대에서 동원된 보병과 인민군대의 락동강도하작전을 돕기 위해 달려온 인민들이 감당하였다. 도로에 가까운 골짜기마다에는 쇠로 만든 배들이 큰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실린채 위장을 하고 대피호안에 들어박혀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포며 땅크며 자동포며 기타 중무기들을 락동강대안으로 날라다줄 중도하기재들이였다.

강호범분대는 한낮이 기울자 나무찍으러 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대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매 중대에서 한개 분대씩 떼를 뭇는데 필요한 나무를 찍기로 된것이다. 도하장 근방의 수림을 채벌하다가는 적 항공대로부터 도하장을 폭로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나무는 도하장에서 멀어진 골짜기들에 가서 찍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출발을 앞두고 분대에는 뜻하지 않던 경사가 생겼다. 그것은 중대련락병이 련대에 갔다 돌아오던길에 보고수집소에 들렸다가 분대로 오는 편지를 단꺼번에 두장씩 전해주었던것이다. 한장은 리종활앞으로, 다른 한장은 림태복앞으로, 둘 다 먼 후방에서 온 편지였다.

그들은 남진이래 후방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기는 이번이 두번째였다. 첫번은 약 두주일전에 중대가 ××계선에 있을 때 한택수가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온 중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는 중대에 내려와서 종종 집에 편지를 써보내라고 타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전선생활의 바쁜 짬을 타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고수집소에 보내군하였다. 그러나 후방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일이 드물었다. 그리운 후방소식을 머나먼 이 락동강기슭에서, 그것도 단번에 두장씩 받게 되였으니 그것은 분대의 큰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아침에 다소 소침한 분위기에 잠겼었다. 그것은 정찰을 나갔다 새벽에 돌아온 분대장이 근신처벌을 받게 된데다가 한택수까지 부상을 입고 련대군의소로 떠나갔기때문이였다. 그런데 후방에서 날아온 두장의 편지는 우울해진 그들의 기분을 가

시여주었다.

림태복은 채벌장으로 걸어가면서 안해의 편지를 뜯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그의 성미나 체대에 어울리지 않게 붉어지기도 하고 혹은 긴장하게 굳어지기도 하면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다가 마침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동무들 보기 쑥스러워서 웃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웃음이 저절로 미여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한 동무가 참다못해 그의 편지를 가로채서 큰 소리로 독보를 시작했다.

《그리운 분에게 전합니다. …》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분대원들이 모두 앞뒤의 간격을 좁혀가며 발걸음소리를 죽이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그만 한대목에 가서 와— 하고 함성을 터뜨렸다. 림태복은 분대원들앞에서 여직 자기집 내막을 입밖에 내놓지 않았었다. 원래 성미가 과묵한데도 있겠지만 집일을 내놓기 좀 쑥스러운데가 있었던것이다. 그는 그새 큼직한 그 체대에 어울리지 않게 이따금씩 속으로 집근심을 하였다. 그것은 그가 전선으로 떠나올 때 안해가 해산을 앞둔 무거운 몸이였기때문이였다. 그의 집은 읍에서도 20리나 떨어진 산골이였기때문에 크게 근심할바는 아니였으나 그래도 미제공중비적들이 후방깊이 들어가서 농촌마을에까지 무차별폭격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근심스럽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던것이 오늘 편지를 받아보니 다 무사할뿐만아니라 안해가 순산을 했으며 그것도 생남을 했다는것이다.

분대원들의 관심은 림태복으로부터 리종활에게로 옮겨졌다. 리종활은 대렬꽁무니에서 걸었기때문에 동무들의 단련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다만 그의 앞에서 걷고있는 김영준이 편지를 다 읽었으면 넘기라고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리종활은 귀치 않은듯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김영준은 더욱더 애를 먹였다. 리종활은 참다가 마침내 역정을 내였다. 그러나 김영준은 굴하지 않고 비위좋게 계속

성화를 들이댔다. 앞서 나가던 장문학이 멈춰서서 리종활을 기다렸다.

《아바이, 저야 봐도 일없지 않습니까. 아바이!》

리종활은 어린 문학이까지 못살게 구는바람에 성을 낼수는 없고 그저 허허 웃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편지만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있었다.

벌목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저마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 침을 뱉아가며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둘씩 조를 짜고 경쟁을 걸었다. 수림속 여기저기에서 쿵! 쿵! 도끼소리가 울려퍼지고 사방에서 도끼날이 번쩍거렸으며 흰 도끼밥들이 사방으로 튀여올랐다.

라명훈은 장문학과 조를 짰다. 라명훈은 도끼를 추켜든 첫순간부터 쉬임없이 맹렬한 기세로 나무를 찍어나갔다. 그의 육체는 남보다 약하고 그의 손바닥은 부드럽고 연약하였다. 전쟁전까지 손에 백묵을 쥐고 칠판에다 글을 써오던 그였지만 그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장섰다. 그것은 부분대장이라는 그리고 어깨에는 조선로동당의 당증이 걸메워져있다는 높은 자각성에서였다. 항시 높은 정치적자각성과 무거운 당적책임감을 온몸에 느끼고 사는 그였다. 그는 동무들의 거듭되는 권고를 물리치고 고집스럽게 맹렬한 기세로 나무를 찍고 또 찍어나갔다. 빨리 찍자! 더 많이, 더 빨리! 그리하여 떼를 뭇자. 한시라도 더 빨리 강을 건느자! 그는 이를 악물고 나무를 찍었다.

장문학도 만만치 않은 속도로 나무를 찍어넘겼다. 그는 도끼를 손에 쥐자 얼마 못가서 손바닥이 꽈리처럼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픔을 참아가며 도끼질을 계속했다. 그것은 부분대장과의 경쟁에서 기어코 이기고말겠다는 야심을 품고있었기때문이였다.

분대동무들은 그를 아직도 어린 학생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장문학은 그것이 늘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는 손바닥의 아픔을 참아가며 더욱더 이악스럽게 나무를 찍었다.

김영준은 오늘 한택수가 없었기때문에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최근에 분대에 배치되여온 동무와 한조를 무었다.

그들 두사람의 경쟁은 처음부터 치렬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 경쟁조보다 맹렬한 기세로 작업능률을 올리고있는것은 림태복과 리종활의 작업조였다. 림태복은 솥뚜껑같은 큰 손아귀에다 그의 장대한 체구에 어울리는 툭한 도끼를 거머쥐고 별반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나무를 찍어나갔다. 그가 도끼를 머리우에 추켜들었다가 윽! 하고 소리를 칠 때마다 아름드리 장송이 움직움직 몸을 떨다가 마침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와스스 하고 곁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쾅! 하고 요란하게 나가넘어지군 하였다. 그는 남이 열번 찍어넘길 나무라면 불과 다섯번의 도끼질로써 충분하였다. 오늘 그의 온몸에는 일찌기 보지 못한 힘과 정력이 충만되여있었다.

그것은 삶의 행복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투신하는데서 나오는 그 어떤 내부적힘의 발현이였다. 올해 27살나는 삶의 화창한 성년기에 들어선 림태복은 광복전까지 남에게 눌리우고 짓밟히던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아들이였다. 그러나 광복후 지난 5년간의 생활은 그에게 삶이 무엇이라는것을 일깨워주고 눈앞에 보여주었다. 모든것이 흡족하였다. 분여받은 기름진 논배미는 말할것도 없고 새로 지은 두칸짜리 기와집, 부지런하고 마음어진 안해, 개버들을 베다가 새로 엮어세운 울타리, 그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흡족하였다. 오늘 뜻밖에도 안해한테서 받은 기쁜 소식은 전쟁으로 한동안 잊었던 그 모든 추억들을 그의 가슴속에 소생시켜주었다.

(빨리 락동강을 건너 하루속히 부산으로 밀고나가자. 온 나라가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날

을 앞당겨야지.) 그는 새로 골라잡은 밋밋한 나무허리에다 힘차게 도끼날을 쪼아박았다.

그와 한조를 무은 리종활은 아까부터 잠시 숨도 돌리지 않고 누가 곁에서 말을 걸 사이도 없이 한 나무로부터 다른 나무로 자리를 옮겨가며 쉬임없이 도끼질을 계속하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두눈에서는 퍼런 불꽃이 튀여올랐다. 여느때 같으면 이런 장소에서 의례히 너스레를 피우며 동무들을 웃기기도 하고 남의 일에 끼여들어 해학과 익살로써 훈시를 하고 간참을 했을 그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 동무들에게 곁을 주지 않고 성난 사람처럼 얼굴이 퍼래서 줄곧 나무를 찍는데만 열중하였다. 작업에 착수한지 벌써 3시간이 넘었으나 그는 한번도 담배를 피우거나 손에서 도끼자루를 놓아본적이 없었다. 모두 한결같이 작업에 몰두했기때문에 남의 일에 관심을 돌릴 경황이 없었으니말이지 만약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동무들이 여느때와 다른 리종활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것이다. 그는 아까부터 도끼자루를 거머쥔 손바닥에서 무엇인지 끈적끈적한것을 감촉하였다.

리종활은 그것이 손땀만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짜리처럼 부풀어올랐던 손바닥이 터지고 쓰려난지도 이미 오랬다. 그러나 종활은 손아귀에 더욱 힘을 주어 으스러지게 도끼자루를 틀어쥐였다. 그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도끼를 놓지 않으려고 속다짐하고있었다. 그는 지금 손바닥의 아픔에는 비길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고있었던것이다.

광복전에 그가 걸어온 반생은 락천적인 그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슬픔과 불행의 탁류속을 헤염쳐 건너온 가슴아픈 반생이였다. 가난한 도시수공업자의 외아들로 태여난 그는 불행하게 일찍 량부모를 여의고 열한살때부터 아무데도 의지할데 없는 고아가 되였다. 어린시절부터 그는 남의 집 심부름군으로, 촌학교의 급사로, 상점의 배달

부로 여러번 직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구해 떠돌아다니다가 광복을 맞이했다.

천대와 구박과 배고픈 설음만이 뒤따르던 숨막히는 생활속에서 30이 넘을 때까지 성가를 못하고 살아오던 그였다. 광복이 되여 비로소 그는 어느 군소비조합의 사무실 일을 맡아보게 되면서부터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그는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인민들과의 접촉에서 작풍이 좋고 맡은 일에 충실한것으로 하여 항상 직장의 모범일군으로 년간총화때마다 주석단에 올라앉거나 표창장을 받군하였다. 광복된 이듬해에 그는 장가를 들어 친구들의 놀림거리로 되였던 늙은 총각소리를 면하게 되였다. 철도 채 들기전부터 의지가지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안해는 더없이 귀중한 존재가 아닐수 없었다. 부부간의 정은 각별하였다. 두해전에 그들에게는 귀동녀가 태여났다. 딸의 생일 한돌을 기념하는 날 안해는 딸애에게 색동저고리를 곱게 해입힌 다음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세워놓고 수령님께 절을 시켰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앉았던 종활의 가슴은 흐뭇하게 부풀어오르고 두눈굽에는 눈물이 괴여올랐다. 그것은 철없는 어린 아이가 드리는 절이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 두 부부가 자기들에게 그토록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절이였다.

그들은 그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었다.(그 기념사진은 지금 그의 군복주머니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그 안해도 귀여운 그 딸애도 다시 볼수 없게 되였다. 그는 함께 일하던 친구의 편지를 통하여 미제승냥이놈들의 폭격에 안해며 딸이 무참하게 학살된 소식을 알게 된것이였다.

리종활은 불이 펄펄 이는 무서운 눈으로 나무를 찍어나갔다.

그의 눈앞에 서있는것은 나무가 아니였다. 그것은 안해와 딸을 죽인 미제승냥이놈의 저주로운 상판이였다. 그는 흉악한 원쑤놈의 그 상판을 향해 날이 시퍼런 도끼날을 부쩍 추켜올렸다가 힘껏 쪼아박군하였다.

×

적의 《F—80》형전투기들은 골짜기의 수림우를 스쳐지나면서 무턱대고 따르륵! 따르륵! 기관총사격을 퍼부었다.

《개새끼들!》

벌목장에서 나무를 찍던 전투원들은 공중을 쳐다보며 제가끔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공중에다 대고 주먹을 흔들기도 하였다. 그중에는 보병총에다 장탄을 하고 대공사격을 준비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나무가 콱 우거졌기때문에 대공사격은커녕 적의 비행기조차 바라볼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전투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견디였다. 그것은 적의 비행기를 볼 때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일어서는 참을수 없는 적개심때문이였다.

잠시 그들은 일손들을 멈추고 담배를 한대씩 붙여물었다. 평소에 별반 말이 없던 림태복이 오늘따라 맨먼저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리종활은 처음부터 말이 없었다. 여느때 같으면 의례히 이야기판에 선참으로 끼여들어 동무들을 웃기고 돌아갈 그였다.

분대원들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의 눈치만 흘끔흘끔 살피고있는데 갑자기 적기 한대가 귀청을 째는 아츠러운 금속성으로 대기를 채우면서 그들의 머리우를 스쳐지나갔다. 때를 같이 하여 쿵당쿵당, 따따따 하는 우리 고사화력들의 요란한 발사소리가 들려왔다.

《잘한다! 잘해!》

그들은 모두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바로 이때였다. 수림 저쪽에서 뭐라고 어수선하게 떠들썩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일가?》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숨을 죽이고 심상치 않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촉기빠른 장문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행사놈을 잡아라! 락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누구의 입으로 어떻게 전달되였는지 전사들은 제가끔 이렇게 웨치면서 수림속으로 내달리고있었다.

리종활은 시퍼런 도끼를 손에 든채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수림을 헤집으며 앞으로 내달렸다. 수림이 우거져 하늘을 덮었기때문에 방향을 가늠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방대고 아까 소리나던쪽을 향해 달리고있는것이였다. 수풀이 허리를 치고 칡넝쿨이 발에 휘감기며 초조한 그의 발걸음을 방해하였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부옇게 흐려지고 목구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오는바람에 그 자리에 멈춰서버렸다. 불쑥 폭격에 죽은 안해와 딸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치밀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손에 쥔 도끼를 추켜들어 앞에 서있는 나무에다 힘껏 내리박았다. 그래도 속이 내려가지 않아 다시 도끼를 뽑아들고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앞을 향해 내달렸다.

최경민은 밖에서 어수선하게 떠들썩거리는 소리를 듣고 락하산으로 떨어진 미제침략군 비행사놈을 끌어왔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감시구결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전사들이 포로를 둘러싸고 떠들썩 고아대고있었다.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놈은 마땅히 때려죽여야 돼. 미군놈들은 종자를 없

애야 된다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런놈을 살려둬? 저놈을!…》

전사들은 법이 없으면 정말 달려들어 그 비행사놈을 밟아죽일 그런 험악한 기세였다. 대대직일관이 달려들어와서 포로를 데려와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최경민은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잠시후 키가 껑충하고 두눈이 움푹 꺼진 젊은 비행사놈이 직일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최경민은 그놈을 의자에 앉힌 다음 곧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출입구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최경민은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열고보니 대대직일관이 출입구에 모여든 전사들을 밀어내느라고 밀치닥거리고있었다.

《뭐요?》

대대장의 엄한 물음에 전사들은 대번에 잠잠해졌다. 최경민은 그들을 향해 자기 위치로 당장 돌아가라고 꾸짖고 나서 문을 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출입구쪽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경민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쪽을 지켜보았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더니 리종활이 한손에 도끼를 들고 들어오고있었다.

《대대장동지! 전사 리종활 만날수 있습니까?》

리종활은 최경민앞에 와서 몸을 바로잡았다.

《무슨 일로 왔소?》

경민은 좋지 않은 예감에 사로잡혀 무뚝뚝하게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리종활은 이어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우물거리다가 주머니를 들추더니 편지 한장을 끄집어내여 최경민에게 내밀었다.

《우리 집에서 온 편지입니다.》

경민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것을 받아쥔채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집에는 처와 네살먹은 딸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편지를 받아보니 미국놈들의 폭격에 둘다 죽었다고 합니다.》
최경민은 그제사 그가 포로병에게 행패를 하려고 들어왔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곁에 앉아있던 비행사놈은 그들의 대화에서 무엇인가 자기와 관련된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진행되고있음을 예감하였음인지 낯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대대장동지! 저놈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리종활은 불이 펄펄 이는 무서운 눈으로 비행사놈을 쏘아보며 말하였다.
최경민은 편지를 쥐고있는 자기의 손이 푸들푸들 떨리고있는것을 감촉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동두리에서 피맺힌 원쑤를 갚아달라고 당부하던 한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섰는 리종활의 얼굴과 한데 얽혀돌아갔다.
최경민은 약해지려는 자기 마음을 꾸짖기라도 하려는듯 리종활에게 엄하게 말하였다.
《돌아가시오.》
리종활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대대장동지!》
리종활의 두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핑 돌고있었다. 최경민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 눈물은 마침내 왈칵 솟아오르면서 그의 량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 자기 처자를 죽인 이 원쑤놈을 그대로 놔두어야 한단말입니까? 네? 대대장동지!》
리종활은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는 안타까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다. 그러자 최경민은 아까보다 더욱 높아진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명령을 들을것!》
대대장의 이 추상같은 호령앞에서 리종활은 그제사 풀이 죽어 량어깨를 축 드리운채 돌아섰다. 순간 최경민은 문득 그 어떤 생각에 부딪쳐 주춤거렸다. 바로 이럴 때 정치사업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그는 오현무가 강호범의 배낭을 펼쳐놓고 하던 말들이 되살아나 얼굴을 붉혔다.
확실히 정치사업이라는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알기쉬운 말로 리해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주면 그것이 바로 정치사업이 아니겠는가!
최경민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리종활을 다시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련락병을 시켜 포로병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리종활과 단 둘이 마주앉았다. 그리고 그에게 보다 큰 복수를 위하여, 인민군전투원들이 지닌 크나큰 사명에 대하여 그가 알아들을수 있게 차근차근 해설하기 시작하였다.

27

최경민은 련대참모장으로부터 급히 올라오라는 련락을 받고 련대장감시소로 찾아갔다. 감시소출입구로 련대참모부성원들이 분주히 드나들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여느때와 다른 긴장성이 느껴졌다. 경민은 대뜸 안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있음을 알았다. 련대참모장 서인규가 감시소에서 나오다가 최경민을 보자 기다리고있으니 어서 들어가보라고 특징적인 빠른 말씨로 귀띔하였다.
《무슨 일입니까?》
최경민은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다.
《들어가보면 아오. 보조지휘소 군사위원동지가 내려와계시오.》
서인규는 속삭이듯 말하고나서 급히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몹시 바쁜 모양이였다.

경민은 감시소안으로 들어갔다. 감시소안에는 여러명의 낯선 고급군관들로 꽉 차있었다. 맨먼저 최경민의 주의를 끈것은 낯선 그 군관들속에 둘러싸여있는 몸이 뚱뚱한 장령동지였다. 그는 오현무가 쓰던 야전책상을 앞에 놓고 지도를 들여다보고있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은 모양으로 눈에다 돋보기안경을 끼고있었다. 오현무는 그 장령과 마주앉아 무엇인가 설명을 해가며 손으로 지도상의 지점들을 가리키고있었다. 낯선 여러 고급군관동지들도 묵묵히 오현무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군사위원동지! 대대장 최경민 련대장동지를 만날수 있습니까?》

최경민이 보고를 하자 장령은 낯을 들어 경민을 힐끔 쳐다보더니 허락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약간 끄덕여보였다. 그러자 오현무는 잠시 말을 끊고 경민에게 거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눈짓을 하고나서 설명을 다시 계속했다. 경민은 둘러선 그 고급군관들 틈에 섞여 몸을 바로잡고 서있었다.

잠시후 그는 오현무가 지금 자기의 도하계획을 군사위원에게 설명하고있다는것을 알았으나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때문에 말을 들어도 그의 계획이 어떤것인지 잘 알수 없었다. 그러나 군사위원은 오현무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말을 중단시키고 보충적인 질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옳소! 옳소!》하고 공감과 감탄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보매 그는 오현무의 도하계획에 퍽 만족해하는 기색이였다. 이윽고 오현무의 설명이 끝나자 군사위원은 지도에서 눈을 떼고 안경을 벗어놓았다. 그리고 오현무에게 말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동무들은 이번에 적의 익측과 후방으로의 대담한 기동과 정면타격을 배합하니만치 작전의 의도를 알고 잘 싸워야겠소. 특히 적의 정면에서 도하를 하게 되는 오현무동무네 련대는 전투가 가

렬해질수 있소. 련합부대의 전반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각오해야 되오. 그러나 나는 동무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면 이번 작전에서 반드시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해서 우리는 여직 실패한적이 없소. 현무동무도 생각나겠지만 우리가 항일빨찌산투쟁을 할 때 장군님께선 얼마나 령활한 전략전술로 적들을 족치셨소. 나는 이번에 대전해방전투를 진행하면서 다시한번 장군님의 높은 령군술에 경탄을 금치 못했소.》

군사위원은 한동안 말을 끊고 깊은 감회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속히 금강을 도하하여 미제침략군24사가 있는 대전을 포위하려고 압축해 들어가고있었소. 그런데 이때 일이 중도에 참 딱하게 되였었소. 주타격방향의 좌익에서 행동하던 부대들이 청주 남쪽계선에서 괴뢰군제2군단과 마주쳤는데 놈들이 어찌나 발악을 하는지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치렬한 전투를 계속하게 되였소. 우리는 그때 몹시 안타까왔소. 그 동무들이 계획대로 남쪽으로 진출하여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의도를 실현할수 없었기때문이였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안타까이 청주 남쪽방향만 지켜보고있었소. 그런데 이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판단하시더니 청주방향에서 전투를 진행하고있는 동무들의 대전 남방에로의 진출이 지연되는 조건하에서 그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이미 론산계선에 진출한 부대들을 대담하게 대전 남방으로 우회시켜 적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새 방안을 제시하시였소. 그것은 상상외의 일이였소.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능동적이고 령활무쌍한 전략전술앞에서 정말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소.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동무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대담한 우회기동작전계획을 빛나게 감당해낼수 있을가 하는 우려가 생겨났소. 그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방침을 관철하자면 최소한도 1.5정량의 탄약과 3주야분의 식량과 한두발의 박격포탄을 비롯한 무거운 장구를 걸머지고 2주야를 계속하여 적의 경계망을 뚫고 은밀히 길없는 험한 산발과 계곡을 강행군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였소.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전사들의 힘을 믿으시였소.

〈해낼거요. 그들은 꼭 해낼거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소.

최고사령관동지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전사동무들은 일떠섰소. 론산계선에 진출하였던 우리 련합부대들은 7월 18일 급히 대전방향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소. 그리고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자기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소. 우리의 한개 련대는 낮에 밤을 이어 강행군으로 은밀히 대전 남방에 진출하여 대전—금산간, 대전—대구간 대도로를 차단하였고 또 다른 한개 부대는 대전서쪽지역에 진출하였소. 이리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의도대로 적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7월 20일날 우리는 대전시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한것이였소.》

군사위원이 말을 끝내자 모두 한결같이 벅찬 흥분에 싸여있었다. 감시소안은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들만 높았다. 군사위원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오현무에게 아까 얘기하던 1대대장이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현무는 눈으로 최경민을 찾았다. 순간 최경민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자기에게 쏠리는것을 느꼈다. 그는 덤비지 않으려고 마음을 진정하면서 군사위원앞으로 걸어나갔다.

군사위원은 최경민의 얼굴과 책상우의 지도를 번갈아보며 말했다.

《동무가 차지하고있는 현 위치가 여기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역에는 적이 전부 얼마나 있소?》

《미제침략군 두개 련대와 괴뢰군 한개 련대가 있습니다.》

《옳소.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한개 사단가량의 적이 있는셈이지.》

《그렇습니다.》

《동무는 자기의 한개 대대를 이끌고 이 지점에서 강행도하하여 강을 건너 계속 성과를 확대하면서 이 고지를 점령할수 있겠소?》

군사위원은 묻는 얼굴로 최경민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경민은 처음에 군사위원이 자기에게 묻는 진의도가 무엇인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보병 한개 대대를 가지고 적 한개 사단이 방어하는 락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란말인가?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는 물음이였다. 경민은 군사위원에게 물었다.

《사단 선견대로서 진출하란 말씀입니까?》

군사위원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그렇소. 그러나 사단은 아니고 련대의 나머지 2개 대대가 동무의 뒤를 따를뿐이요. 포의 지원도 크게 바라지 마오. 이런 조건하에서 대대를 이끌고 강행도하를 할수 있겠느냐말이요?》

그는 군사위원의 물음속에 무엇인가 깊은 뜻이 암시되여 있음을 감촉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생각해보았다. 최경민이 선자리에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것을 보자 군사위원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동무는 금강도하전투에 참가했소?》

《참가했습니다.》

경민은 대답하였다. 다음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실머리가 번뜩이였다. 그것은 공주 정면에서 강력한 포의 지원하에 적극적인 시위도하를 진행함으로써 적의 주의

를 그곳에 총집중시킨 다음 량익측에서 불의에 강을 건너 성과적으로 대안을 점령한 금강도하장면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그는 군사위원이 지금 무엇때문에 우리의 한개 대대를 적 한개 사단과 비기며 말하는것인지 그 의도를 충분히 알수 있었다. 최경민은 꺼리낌없이 의젓한 눈으로 군사위원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믿음직한 포화력의 엄호도 없이 귀중한 자기 대원들을 1개 사단의 적앞으로 이끌고 간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것을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군사위원은 말없이 최경민의 얼굴을 지켜보고있었다. 경민은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꼭 해내겠습니다.》

군사위원은 의미있는 시선으로 곁에 앉아있는 오현무의 얼굴을 일별하고나서 최경민에게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말이요?》

《만약 저에게 선견대대의 임무를 주신다면…》 최경민은 이 며칠동안 계속 머리속에서 무르익혀오던 대대의 도하전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그리하여 저는 항일빨찌산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적을 유인한것처럼 적의 모든 관심과 화력을 우리 대대에다 총집중시키면서 놈들을 맞받아나가겠습니다.》

군사위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빛나는 두눈으로 오현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현무도 말없이 그의 얼굴을 마주쳐다보았다. 말하지 않는 그의 얼굴에도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부하들을 데리고있다는 은근한 자랑과 행복감이 물결치고있었다.

이때 야전책상우에 놓였던 전화기에서 요란한 신호소

리가 났다. 수화기를 든 오현무의 안색이 불현듯 긴장한 낯빛으로 변하였다. 전선사령부에 나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사위원동무를 친히 전화로 부르시였다는 소식을 전해왔기때문이였다. 지휘감시소안은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군사위원은 꼿꼿이 몸을 바로잡은채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통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성과 엄숙성이 나타나있었다.

이윽고 수화기에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최경민의 귀에 익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그리운 목소리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위원에게 친히 전선형편을 물으시고 그의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민은 바로 군사위원의 곁에 서있었기때문에 수화기를 진동시키는 수령님의 친근하신 음성을 똑똑히 가려들을수 있었다. 들을수록 감격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최경민은 후방을 멀리 떨어져 이곳 락동강전선에 나와있는 부대와 련합부대들의 작은 하나의 움직임과 전투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손길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미치고있다는 생각으로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졌다. 우리 인민군대가 남진의 길에서 거둔 빛나는 그 모든 성과들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령도와 구체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이루어진것이였다. 경민은 이번에 진행되는 락동강도하작전도 바로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진행된다는 크나큰 감격과 함께 자신도 바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영예로운 임무를 집행하게 된다는 긍지와 영예감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올랐다.

군사위원은 각 사단의 실태를 순차적으로 보고해나가다가 마감으로 오현무련대가 속한 사단의 도하준비정형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하였다.

최경민은 군사위원의 보고를 통해 아까 자기의 추측이 옳았다는 생각과 함께 오현무련대장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임무가 얼마나 영예롭고 무거운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새삼스럽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이번에 오현무련대는 적의 주의를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정면으로부터 락동강도하를 개시하여 대안을 점령하게 되여있었다. 그리하여 적의 모든 관심이 오현무련대에 집중되였을 때 사단의 기본집단은 좌우익으로부터 불의에 강을 건너 놈들의 배후를 들이치는 동시에 적의 기본집단들을 분할소멸하게 되여있었다.

《정면도하를 맡은 오현무련대의 선견대 지휘관은 어떤 동무입니까?》

최고사령관동지의 물으심이였다. 최경민은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로 자기에 대해서 물으시는것이였다.

《오현무련대에서 지난번 퇴각하는 1개 련대의 적을 녹여낸 〈괴암동〉포위전투때 1개 대대를 이끌고 120리적구를 뚫고 들어가 적의 퇴로를 차단했던 대대장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감시소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한 가운데 한동안 수화기의 전류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윽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들에게 포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물으시였다.

《련대포병군과 함께 사단포병의 일부 력량을 주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듯 군사위원은 서둘러 대답하였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대답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시였다.

《아닙니다. 한개 사단의 적과 맞서야 될 그 동무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적습니다. 사단포병군을 몽땅 그 동무들에게 주시오.》

최경민은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군사위원은 잠시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죄스러운듯 그렇게 되면 기본 도하집단을 지원할 포가 없어진다는 사정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말씀드렸다.

《알겠소. 후방에서 멀리 떨어져나왔기때문에 모든것이 곤난할것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귀중한 우리 전사들을 포의 충분한 지원도 없이 놈들의 포화속에다 내몰길수는 없소. 사포군을 동원하여 전적으로 그 동무들을 지원하게 하시오. 사단의 나머지 도하집단에는 내가 전선사령부 포병예비군을 내보내도록 하겠소.》

《수령님,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안놓이시는듯 군사위원에게 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부 구분대를 적진에 들여보내여 불의에 적을 들이쳐서 적을 혼란시킴으로써 아군의 손실을 내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타이르시였다.

경민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올라왔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최고사령관동지! 근심마십시오. 저는 련포군의 지원만해도 충분합니다. 포 한발 쏴주지 않아도 일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저는… 저는 불속에라도 뛰여들겠습니다.)

군사위원과의 통화가 끝나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현무동무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이르시였다.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오현무의 안면근육은 푸들푸들 떨리고있었다. 오현무는 목멘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현무에게 요즘 건강이 어떠하며 포탄과 후방물자들은 다 보충받았는가, 최고사령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중도하기재들이 도착하였는가 등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 요즘 전사들의 사기가 어떠냐고 물

으시였다.
오현무는 몸을 더욱 꼿꼿이 세우며 확신성있게 말씀드렸다.
《지금 전사들의 사기는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요즘 며칠간의 휴식을 통해 행군의 피로를 회복하고 새 전투를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전투원동무들은 한결같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기어코 강을 건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새 전투임무를 빛나게 실행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고있습니다. 저는 우리 련대 전체 동무들이 자기들의 결의를 반드시 실천하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듯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좋습니다. 나도 동무들이 지난날과 같이 이번에도 꼭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해내리라고 믿고있소. 그럼 성공을 바라오. 다른것이 없소?》
《최고사령관동지!》
오현무는 이렇게 말해놓고 목이 메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련대 전체 전투원들의 소원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올릴 때 오현무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현무뿐만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감사하오. 부대내 전체 군무자동무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수화기를 놓으시였다. 통화는 끝났으나 모두 벅찬 감격에 휩싸인채 그 자리에 굳어져 움직일줄 몰랐다.

28

김성태는 대대부를 향해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오늘아침 도하전투를 앞두고 3중대에서 진행된 민청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이였다. 그는 대대감시소로 걸어오다가 급한 걸음으로 마주오고있는 련락병 주영훈과 마주쳤다. 련락병은 숨을 헐떡거리며 대대장이 그를 급히 찾는다는것을 알렸다. 김성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으나 그도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련락병은 그와 같이 걸으면서 대대장이 련대지휘부에 가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파견하신 군사위원을 만났는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그곳에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자기가 알고있는 범위의 사실들을 이야기하였다. 김성태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대대장감시소로 걸음을 다그쳤다. 감시소에는 숱한 군관들이 모여앉아 흥성거렸다. 김성태는 감시소에 들어서면서 대대장이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런것이 아니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련대에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였다는 소문을 듣고 흥분하여 달려들온것이였다. 그들은 대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모두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김성태가 나타나자 최경민은 몹시 기다렸다는듯이 그와 군사부대대장을 한쪽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나서 조용히 자기가 련대에 올라가서 받고온 임무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련대에 전화를 걸어주신 경과를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최경민은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있었으며 이야기를 듣는 그들 두사람 역시 그와 못지않게 흥분하고있었다. 김성태는 최경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즉시 착수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있었다. 그것은 지금 전 대대를 격

동시키고있는 이 높은 정치적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당면한 락동강도하전투의 성과적수행에로 조직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였다.

최경민의 얘기가 끝나자 김성태는 대대군무자총회를 소집하고 이 내용을 전달한 다음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할것을 제기하였다. 그의 제기는 즉석에서 최경민과 전창걸의 일치한 지지를 받았다. 김성태는 또한 지난번에 상급에서 보내온 공화국기발을 이번 락동강도하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해 기수를 선정하고 그에게 이번 군무자총회에서 수여하자는것을 제기하면서 이 기발을 누구에게 수여하는것이 좋겠느냐고 대대장에게 물었다. 최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화부대대장동무의 생각은 어떠냐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김성태는 그것을 강호범에게 주는것이 어떠냐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급적처지로 보아 강호범이 누구보다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는것과 또한 그의 고향이 락동강대안에 있으니만치 그가 자기 손으로 공화국기발을 락동강대안에 꽂는다는것은 정치적으로도 의의가 있을것이라는 조건을 첨부하여 말하였다.

김성태의 이 제기는 곁에 앉아있는 전창걸을 복잡한 생각에로 몰아갔다. 그는 최경민이 며칠전에 강호범을 처벌한 일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문화부대대장은 지금 대대장이 처벌한 그 강호범을 누구보다도 믿고있으며 자기의 가장 큰 신임의 표시인 기수의 영예를 그에게 주자는것이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존심이 강한 최경민대대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전창걸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대대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경민의 태도는 전혀 뜻밖이였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민은 짤막한 한마디 대답으로 김성태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해나섰다. 그들은 마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전

에 합의라도 본 사람들처럼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전창걸은 리해할수 없는 심정으로 그들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놈들의 항공폭격이 우심했기때문에 회의는 감시소뒤에 있는 골짜기의 수림속에서 날이 어슬어슬 저물어갈 무렵에 시작되였다. 김성태의 사회하에 맨먼저 대대장 최경민이 보고를 하였다. 그의 보고는 처음부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과 충성의 열정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이께서 전투력강화를 위해 취해주신 현명한 제 조치들과 뜨거운 배려와 보살핌에 대해서 말한 다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직접 전선에까지 나오시여 련대전투원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고무해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대하여 감격적으로 말하였다. 군관이고 전하사고 할것없이 모두 한결같이 감격에 휩싸여 열렬한 박수로써 그의 보고를 중단시키군하였다.

특히 대대장이 자기의 보고에서 우리 전사들의 안전을 위해 포의 지원을 강화해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회의장소는 물을 뿌린듯이 조용해졌다. 최경민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이와 같은 육친적사랑과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번 락동강도하전투에서는 모두다 영웅적위훈을 발휘하자고 제기하자 전투원들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오래 계속되면서 좀처럼 멎지 않았다. 대렬속에서 누군가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그 만세소리에 화답하여 박수소리는 우렁찬 만세소리로 바뀌여졌다.

《**김일성**장군 만세!—만세!—만세!—》

전투원들은 목이 터지게 련달아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들이 부르는 폭풍같은 만세소리는 골짜기를 뒤

흔들며 오래동안 메아리쳤다.
김성태는 멎을줄 모르는 열광적인 이 만세소리앞에서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곁에서는 최경민이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있었는데 그의 두눈에는 이슬이 맺혀 번뜩거렸다. 김성태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 두손을 버쩍 추켜들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회의에서는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전체 군무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심을 담아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엄숙히 채택되였다.
회의뒤끝에 공화국기수여식이 있었다.
김성태가 이번 락동강전투에 참가하는 우리들에게 영웅적위훈을 세우라고 상급에서 보내준 공화국기발을 전달하겠다는것을 선언하자 미리 준비를 갖추고있던 대대선동원이 기발을 들고 주석단앞으로 나왔다.
김성태는 제1중대 제1소대 1분대장 강호범동무에게 이번 전투에 참가하는 전체 군무자들을 대표하여 이 기발을 수여하게 된다는것을 알리면서 강호범동무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때 대렬속에 서있던 강호범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는 휘둥그래진 눈으로 주석단과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꿈만 같아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김봉수가 곁으로 다가와서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하여서야 비로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주석단앞에 와서 멈춰서자 문화부대대장이 무엇인지 보따리에 싼 물건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그는 보따리를 헤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체 전투원들이 볼수 있도록 머리우에다 추켜들고 말을 시작했다.
《동무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 강호범동무가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여기까지 가지고온 물건입니다.》

강호범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그것을 쳐다보고있었다.
(이 보따리가 어떻게 되여 여기 와있을가? 병원에서 나와 부대를 따라오다 짐이 무거워 길바닥에 내던진 그 보따리가 아닌가?…)
김성태는 보따리의 래력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강호범은 오늘저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꿈같이만 느껴졌다.
김성태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동무들! 강호범동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미군놈들의 손에 의해 이미 학살된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이 속의 고무신이며 담배쌈지는 주인 없는 물건으로 남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분한 일입니까.》
대렬속에서 웅성웅성 반응이 일어났다.
《동무들! 이런 억울한 일이 어찌 강호범동무 한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놈들은 저 리종활동무의 온 가족도 무차별폭격으로 학살하였습니다. 피에 주린 20세기의 야수,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바로 며칠전에만 해도 락동강 저 기슭에서 우리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무수히 학살하였습니다. 저 강기슭 모래판에는 무고한 우리 인민들의 피가 스며있으며 락동강의 저 물결속에는 우리 동포형제들의 피와 눈물이 한데 섞여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어찌 한시인들 미제승냥이놈들을 우리 강토에 그대로 남겨둘수 있겠습니까?》
김성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렸다.
《…강호범동무의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동포형제들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모두 앞으로 진격합시다. 강호범동무! 이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락동강을 건너 앞으로 나갑시다.》
김성태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최경민은 선동원으로부터 기발을 넘겨받아 그것을 강

호범에게 수여하였다.
강호범은 기발을 받아쥐고나서 무엇인가 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목이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최경민은 그의 눈에 괴여오른 눈물을 보고 그의 손을 꽉 움켜쥐였다.
《호범동무! 이번 전투에서는 원쑤놈들을 절대로 용서치 맙시다!》
《들었습니다!》
강호범은 가슴이 세차게 뛰였다.
무엇인가 자꾸 가슴에서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는것 같아 그는 꿀꺽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돌아서버렸다. 그러나 기발을 두손에 꽉 움켜쥐고 제자리로 돌아오고있는 그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29

아침부터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끼더니 오후부터는 비가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했다.
비오는 이 흐린 날씨는 우리의 도하작전을 유리하게 만들어주었다. 놈들의 지상 및 공중감시로부터 부대행동을 은폐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대신 적들은 오후부터 아군진지를 향해 무턱대고 눈먼포탄을 쏘아댔다.
김봉수중대는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이번에 최경민의 지시에 의하여 1개소대를 데리고 은밀히 강을 건너 돌바위고지 벼랑밑에 붙었다가 새벽에 벼랑을 기여올라 고지를 불의에 들이쳐 점령함으로써 여울목으로 건너가는 대대의 도하를 화력으로 엄호하고 대대가 도하한후 302고지 점령에 합세하게 되여있었다. 이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적극적인 전술방침의 구현이였다.
날이 어두워질무렵 최경민은 문화부대대장과 함께 김봉수중대의 출발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검열하고 그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1중대로 나갔다. 김봉수는 지정된 시각에 출발지점에로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사들을 거느리고 강변에 있는 무성한 갈밭속에 미리 들어박혀있었다. 갈밭속은 드나드는 전사들의 구두발에 짓이겨져 발목까지 푹푹 빠져들었다.
최경민과 김성태가 나타나자 김봉수가 진탕을 튕기며 달려와서 서둘러 보고를 하였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얼굴에서는 굵은 비물이 흘러내렸다.
김봉수의 뒤를 이어 전창결이 나타났는데 그의 몸도 비에 푹 젖어있었다. 전창결은 김봉수가 담당한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1중대에 나와있으면서 김봉수의 출발준비를 도와주고있었다.
《식사들은 다 했습니까?》
최경민은 동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절도있게 몸을 바로잡았다.
중대서기가 방금전까지 자기가 앉아 일을 보던 빈 탄약상자를 들고왔다.
《여기 앉으십시오, 대대장동지!》
그는 질벅질벅한 땅바닥에다 조심스럽게 탄약상자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권했다.
최경민은 그들의 다정한 얼굴표정들이며 살뜰한 태도들에서 무엇인가 여느때와 다른 은근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느꼈다.
《동무가 앉소. 앉아서 하던 일을 계속하시오.》
최경민은 중대서기에게 이렇게 말하며 곁에 서있는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군관들이며 전사들이 한결같이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있었다. 모두 면도를 하고 목달개를 갈아달

고 옷은 비에 젖었으나 주름을 잡은것이 알려졌다. 최경민의 눈앞에는 대대에 처음 부임해와서 조회보고를 받던 때 수염을 깎지 않은 김봉수를 엄격히 비판해주던 일이 되살아났다.

최경민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온 대대가 무엇인가 몰라보게 달라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긴 그사이에 자기자신에게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았는가. 바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직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과 완강한 군사적요구로써 구분대를 일층 강화하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는 결코 부족하였다.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전사대중을 발동시키고 전사들에게 의거하지 않고 부대규률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강화한다는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였다. 그는 일군들이 모든것을 계급적눈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사고하며 정치사업을 선행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새삼스럽게 가슴속깊이 파고드는것이였다.

김성태가 초급정치일군들과 담화를 하는동안에 최경민은 대렬검열을 하기로 하였다.

날은 채 저물지 않았으나 비오는 갈밭속은 어둑시근하였다. 최경민은 군사부대대장과 함께 김봉수가 갈밭공지에다 정렬시켜놓은 대렬앞으로 갔다.

《전렬 10보 앞으로 갓!… 뒤로 돌앗!》

김봉수는 힘찬 구령으로 대대장이 대렬검열을 진행할수 있도록 대렬을 지휘해나갔다. 대원들도 만만치 않은 능숙한 제식동작으로 김봉수의 구령에 따라 서슴없이 절도있게 움직였다.

최경민은 대렬앞으로 나섰다.

《전사동무, 나의 앞으로!》

《네! 2소대 1분대 전사 박봉철, 당신의 명령대로 나왔습니다!》

그는 대렬앞에 나와서 대대장의 지시대로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공중 뛰였다. 그의 행장은 여간 복잡하지 않았다. 탄띠를 어깨에 두르고 꽁무니에는 보병삽과 수류탄을 차고 그 우에다 또 대나무통을 엮어 포수의 탄띠처럼 허리에 감았다. 그러나 이 모든것들이 어찌나 가뜬하게 몸에 달라붙었던지 아무리 뛰여도 너덜거리거나 서로 부딪치지 않았다.

《됐소! 자기 자리로!》

최경민은 숨을 헐떡거리고 섰는 그에게 대렬에 들어설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전사앞으로 다가섰다.

《동무는 은밀히 강을 건느다가 놈들에게 발견되여 포탄에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겠소?》

전사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당황하지 않고 헤염쳐 건너가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참대를 허리에 둘렀기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념려는 없습니다.》

《만약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항일빨찌산투사들처럼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힘자라는데까지 헤염쳐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맥이 다 빠지면?》

《그때는?…》

그는 갑자기 궁리가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으로 낯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그 이상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대대장이 재차 물었다. 그제야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오른 모양으로 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의 방조를 받겠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무들의 방조를 받을뿐만아니라 동무들을 방조하기도 해야 합니다. 알겠소?》

《들었습니다.》

최경민은 그를 깨우쳐주고나서 기관총수곁으로 갔다.

《동무는 기관총이 강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자맥질로 물속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기어코 찾

아내겠습니다.》

《동무는 헤염을 칠줄 압니까?》

최경민이 다시 물었다.

《저는 헤염을 잘못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분대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동무와 한조를 무었습니다.》

최경민은 다른 한 전사에게 강을 건너 적의 턱밑에 가 잠복하고있을 때 만약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전사는 수건을 입에 틀어막겠노라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전사들은 대대장이 제기한 정황들을 막히지 않고 모두 능숙하게 처리해나갔다. 최경민은 이번에 군사부대대장이 김봉수를 도와 전투준비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짜고들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믿음직하고 름름한 대렬을 한바퀴 훑어보고나서 대렬검열을 끝마치였다. 최경민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예정된 행동시간까지는 아직도 30분이 남아있었다. 최경민은 대렬을 해산시킨 다음 출발시간까지 모두 푹 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이미 충분하게 휴식하였다고 하면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김봉수중대장이 아까 중대서기가 앉았던 탄약상자를 다시 들고와서 최경민에게 앉으라고 권하였다. 최경민은 오늘저녁 새삼스럽게 김봉수와 전하사들의 다정하고 살뜰한 정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도 어쩐지 이 자리를 뜨고싶지 않았다.

최경민은 전선에 나와서 종종 이런 감정을 체험한바 있다. 흔히 출전을 앞두게 되면 사람들은 평소와는 달리 다정다감해진다. 모든 동무들앞에서 자기 속을 툭 털어놓게도 되며 혹은 하치않은 일에 잔신경을 쓰던 지난 일들이 후회도 되고 혹은 동무들의 결함을 대범하게 용서하게도 된다. 지금 어려운 락동강전투를 앞두고 대대장과 전투원들은 바로 그런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다.

대대장이 탄약상자우에 걸터앉자 전사들도 되는대로 그

자리에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최경민은 담배를 꺼내 동무들에게 권하고 자신도 한대 붙여물었다. 누기찬 성냥은 불이 잘 붙지 않았다. 한 전사가 라이타를 켜서 그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동무의 고향은 어딥니까?》

라이타를 켠 전사를 보고 최경민이 물었다. 대대장과 전사들과의 담화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담화는 한동안 계속되였다.

《동무들이 다시한번 명심해야 될것은 오늘저녁에 동무들이 수행하게 되는 이 임무가 바로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직접 집행하는 영예로운 임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련대에까지 친히 전화를 걸어주신 감격적인 사실을 그들앞에 다시 상기시키면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우자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자기가 《동두리》해방전투때 목격한 한 어머니의 피맺힌 사연을 들려주고 그의 간절한 복수의 부탁도 전하였다. 전투원들은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대대장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는 여전히 부실부실 내리면서 그들의 몸을 축축히 적셔들어갔으나 전사들은 기침하나 깇지 않고 그의 말을 놓칠세라 숨들을 죽였다.

《어제 련대참모부로부터 받은 정찰통보자료에 의하면 그 핸드슨이란 미제침략군놈이 ×련대 련대장으로 새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놈은 요새 자기 련대 방어진지를 싸다니면서 방어공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강행군뒤에 있은 포위전투에서 그놈을 놓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락동강에서 그 원쑤놈들과 다시 대결하게 되였습니다. 이름없는 남녘의 한 어머니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ㅅ〉시 감옥에서 놈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된 수많은 우리 애국자들의 복수

를 위하여, 유구한 세월 저 락동강물결우에 사무친 남녘 형제들의 눈물과 고통의 한많은 원한을 영원히 가셔주기 위하여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 앞에 다진 충성의 맹세를 빛나게 실행합시다!》

비는 부슬부슬 그치지 않고 내리고있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예정된 출발시간이 되여갔다. 시간이 되자 우리의 포병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김봉수가 인솔하는 잠복소대의 행동을 은페하기 위한 허위사격이였다. 어느덧 김성태가 곁에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최경민은 김봉수에게 출발을 명령하였다.

전사들은 출발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떠났다. 그들은 나란히 서있는 대대장과 문화부대대장 그리고 군사부대대장의 앞을 지나 하나하나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은 래일아침이면 락동강대안에 가서 다시 만날 동무들이였다. 그러나 최경민은 그들과 잠시나마 갈라져있게 되는것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느꼈다.

《떠나겠습니다.》

김봉수가 대대장앞에 와서 몸을 바로잡았다. 최경민이 그의 손을 잡았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돌바위기슭에 붙은 다음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은밀성을 잘 보장해야겠소.》

《들었습니다.》

최경민은 김봉수의 손을 거머쥔채 오래동안 놓지 않았다. 따사로운 손의 온기가 오고가면서 무엇인지 뜨거운 것이 뿌듯하게 그들 두사람의 가슴을 채워주었다.

《부탁합니다.》

최경민은 무엇인가 더 친근하고 더 뜨거운 말로 그와 작별하고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근심말고 들어가십시오.》

김봉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최경민에게 이렇게 한마디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성태와 전창걸과 차례

로 악수를 나눈 다음 대렬뒤를 따라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어둠속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대간부들은 선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그들의 마음도 멀어져가는 그 발걸음소리와 함께 어둠속으로 자꾸 이끌려가는것이였다.

최경민은 김봉수를 어둠속으로 바래우고나서 김성태와 같이 대대부로 돌아가고있었다. 걸어오면서도 그들은 줄곧 강기슭 어둠속에 시선을 보내군했다. 무사히 강을 건넜으면 하는 간절한 념원이 그들 두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있었다.

갑자기 《쾅! 쾅!》하고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어두운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포탄은 김봉수가 지금 도하를 하고있는 바로 그쪽에서 터진것이 분명했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대안에서 내리비치는 탐조등의 창백한 불빛이 어둠을 헤가르며 강바닥을 어루더듬었다. 탐조등의 눈부신 불빛을 쏘아보고 섰는 두사람의 가슴은 안타까이 죄여들었다. (놈들에게 발견된것이 아닌가?)

두사람은 오래동안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방향에서 또다시 포탄이 작렬했다.

《아닙니다. 놈들이 무턱대고 쏘아대는 피로사격입니다.》

최경민은 김성태를 돌아보며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어둠속으로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김봉수가 인솔한 습격소대원들은 강기슭 모래판우에 엎드려 기회를 보고있었다. 그들은 강기슭에 와서 배에 막 오르려다가 불의에 날아온 포탄세례를 받았었다. 포탄은 그들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졌다. 뒤이어 놈들의 탐조등이 모래판을 내리비치는바람에 그들은 더욱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김봉수의 지시에 의하여 그들은 한동안 모래불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놈들에게 발각된것이 아닌가 하여 가슴들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잠시후에 그들은 놈들이 소경막대질하듯 무턱대고 쏘아대는 피로사격이였음을 알게 되자 저마다 안도

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대원들은 방금 우연하게 겪은 그 포사격으로 김봉수중대장이 왼쪽 옆구리에 심한 파편상을 입었다는것만은 아무도 모르고있었다.

김봉수는 어둠속에서 붕대를 꺼내 대원들이 감촉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처를 동여맸다. 피가 축축하게 옷을 적셔들어갔다. 상처가 모질게 쑤셔나고 메슥메슥한게 자꾸 구역질이 났다. 그는 강도 채 넘어서기전에 출발진지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한 일이 분하였다. 하지만 지금 김봉수는 자기 상처의 아픔보다도 이러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을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슴이 죄여들었다. 락동강도하작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이 단독임무를, 더우기 최고사령관동지 앞에 엄숙히 맹세를 다진 이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더없는 치욕이였으며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였다. 그는 아까 떠나올 때 손을 잡으며 믿음에 찬 은근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하던 최경민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자꾸 되살아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모래불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동무들에게 《승선!》 명령을 내렸다.

×

근 2시간에 걸쳐 여러차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며 무사히 강을 건너 강기슭 절벽밑에 가붙은 대원들은 김봉수의 지시에 의하여 돌바위고지 벼랑밑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있었다. 적 제1참호로부터의 거리가 불과 70～80메터밖에 안되였기때문에 놈들의 말소리며 땅을 파는 삽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미군놈들은 야간을 리용하여 진지굴설작업을 하고있었다. 놈들이 비오는 밤에 이렇게 공사를 들이대고있는것을 보니 어지간히 바빠맞은 모양이였다. 전투원들은 한자리에 엎드린채 죽은듯 숨을 죽이

고있었다. 돌이라도 굴려 소리를 낼가봐 마음대로 움직일수도 없었으며 총알이 살을 꿰고 지나가도 소리 한마디 쳐서는 안되였다. 그들은 이렇게 래일아침 대대의 공격이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다섯시간 이상을 참고 견디여야 했다. 그들의 군복은 비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무릎이며 얼굴이며 할것없이 온몸에 흙탕칠을 하고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들의 사지는 마비되여 차츰 저려나고 쑤셔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감각마저 잊어버린듯싶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것은 머리우에서 뜨문뜨문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돌벼락이였다. 고지가 암석투성이로 되여있었기때문에 놈들은 전호를 파다가 불필요한 암석이 나올 때마다 낑낑거리며 그것을 들어서는 산밑으로 굴려버렸다. 그럴 때마다 주추돌만큼씩한 큰 바위돌이 와르르… 지끈! 굴러내려오다가 그들의 머리맡에 와서 쿵! 하고 떨어지군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머리끝이 곤두서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놈들의 제1참호 전체가 공사를 하고있기때문에 은밀히 자리를 옮겨앉는다고 해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더우기 자리를 옮기다가 놈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었기때문에 하는수없이 그들은 강의한 의지와 희생적인 참을성으로 그 모든것을 극복하는수밖에 없었다.

대원들곁에 아무 기척도 없이 엎드려있는 김봉수중대장은 무서운 고통속에서 헤매며 의식이 가물거리다가도 쿵! 하고 굴러떨어지는 돌소리에 놀라 정신을 가다듬군하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엄혹한 시련을 참고 견디며 우리의 포병들이 놈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퍼부을 시각을 안타까이 기다리고있었다.

×

최경민은 1중대를 어둠속으로 바랜다음 대대부로 돌아와

서 초조하게 출발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적들은 오늘따라 여러갈래의 탐조등을 내리비치며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있었다. 우리의 포병들은 적 종심에다 대고 뜨문뜨문 피로사격을 계속했다. 우리의 포사격에 대답하여 적들도 반포사격을 해왔다. 어둠속에서 교차되는 적아의 포화가 번개불처럼 번쩍거렸다.
이따금씩 탐조등의 불빛이 칼로 어둠을 베듯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눈부신 그 불빛이 수면을 어루더듬을 때마다 최경민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빛에 드러난 수면으로, 락동강대안의 절벽으로 시선을 던지군하였다. 김봉수가 인솔한 잠복소대의 형편은 무엇으로도 알길이 없었다. 다만 아무런 총소리조차 없는것으로 보아 사고없이 적진에 들어박혀있음을 추측할뿐이였다. 오현무는 전화로 정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예정된 출발시간을 엄수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3대대장들한테서도 체결된 협동동작시간을 다시 확인해왔다.
최경민은 출발을 앞두고 그외에도 예견치 않던 몇가지 일들을 더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따라 시간이 몹시 더디게 흐르는것처럼 느껴졌다. 김성태는 아까부터 대대서기가 일하고있는 초불밑에서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최경민은 김성태가 요즘 짬짬이 저렇게 책을 읽고있는것을 여러번 보았다. 그는 일단 책을 펼쳐들라치면 재미있는 소설책에 미친 사람처럼 책에 파묻히군하였다. 그가 요즘 탐독하고있는 그 책들은 군대내 전투규정들과 교범들이였다.
아까부터 최경민은 련락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련대장앞으로 련락을 띄웠었는데 돌아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있었다.
준의도 아직 오지 않았다. 최경민은 낮에 명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번에 련대장의 명령으로 자기가

1대대와 같이 행동하게 되였으므로 예정된 시간까지 출발지점으로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서 최경민은 한편 기쁘기도 하였으나 무엇인가 무거운 부담을 느끼였다. 명희는 자기가 련대장의 명령으로 이번에 1대대와 같이 행동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최경민은 그가 선견대대와 함께 도하전투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오현무에게 조르고있더라는것을 낮에 련대에 올라갔다온 련락병으로부터 들은바 있었다.

누군지 어둠속으로 급히 달려오는 발걸음소리가 났다.

《대대장동지가 어데 계셔요?》

귀에 익은 련락병의 목소리였다.

《여기 있소. 이리 오시오.》

경민은 그쪽에다 대고 소리쳤다. 검은 그림자가 급히 경민의 앞으로 달려왔다.

《련대장동지를 모시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련대장동지가 저기 와서 대대장동무를 찾고있습니다.》

련락병은 숨찬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최경민은 련락병을 따라 련대장을 맞으러 갔다. 어둠속에서 마주 걸어오는 거뭇거뭇한 그림자들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서면서 최경민은 련대장과 함께 나타난 련대작전참모와 공병장 그리고 녀준의를 차례차례 가려볼수 있었다. 오현무는 대대장의 공식적인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김봉수의 잠복소대소식을 물은 다음 최경민에게 입수된 새 적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것은 미제침략군들이 락동강방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1개련대의 기갑부대를 급히 공중으로 날라다 락동강전선에 투입했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그놈들이 련대 도하정면에 불의에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고였다. 최경민대대는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계속 성과를 확대하면서 벌판을 지나 련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전술적고지인 302고지를 점령하기로 되여있었다. 오현무는 이 과정에 최경민이 선참으로 극복해야 할 약 800메터구

간의 넓은 개활지대에서 적의 기계화부대에 조우할가봐 몹시 신경을 쓰고있었다.

《불의에 적 땅크와 조우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반땅크 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겠소.》

오현무는 최경민에게 지시를 주고나서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뒤를 따라 작전참모며 공병장도 사라지고 최경민과 녀준의만이 남게 되였다.

《수술한 자리가 어때요?》

녀준의가 물었다.

《일없습니다. 군의소에서 전부 몇동무 나왔습니까?》

최경민은 서둘러 딴데로 말을 돌렸다.

《위생병 일곱명을 데리고 왔어요.》

명희가 대답하였다. 최경민은 그들을 어느 배에 태울것인가 속으로 잠시 망설였다. 그러자 녀준의가 그의 심중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먼저 입을 열었다.

《근심마세요. 배는 아까 군사부대대장동무한테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대장동무의 그 상처말입니다. 이번에는 제때에 붕대를 바꾸어야 해요. 처치를 한지 이틀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갈아야 되겠어요. 강을 건너 전투가 끝나거든 붕대를 꼭 갈아야겠어요.》

명희는 고집스럽게 그 얘기를 계속했다.

최경민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어둠속에서 소독약내와 향수내가 한데 섞인 녀준의의 독특한 체취가 느껴졌다. 최경민은 그제사 녀준의가 몸에 비옷을 걸치지 않고 비에 젖어있는것을 감촉했다. 최경민은 자기의 비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다.

《이것을 걸치시오.》

녀준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몸에 걸쳤다. 그러면서 아까 오다가 적 포탄에 부상을 입어 후송하는 한 부상병에게 자기의 비옷을 덮어준 사실을 이야기했다.

야광시계의 초침은 각일각 예정된 새벽 4시를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드디여 우리의 포병준비사격이 시작되였다. 요란한 폭음이 대기를 잡아흔들고 포탄이 윙윙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연신 그들의 머리우를 넘어 락동강대안으로 날아갔다. 어둠에 잠겼던 락동강대안은 삽시에 이글거리는 불바다로 변해버리고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에 솟아올랐다. 우리 포병군의 맹렬한 포격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불현듯 숨을 죽였다. 불의적인 이 맹렬한 포격앞에서 적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잠잠해있었다. 그러다가 적진지에서 발포소리가 났다. 한발… 또 한발 점차 수를 늘이며 차츰 되살아난 적포병들은 우리쪽에다 대고 포사격을 계속하였다. 그들이 포화력을 집중하고있는곳은 우리의 도하를 예견한 여울목의 강기슭이였다. 놈들은 탐조등으로 강바닥을 훑어가며 얼마후에는 자못 맹렬하게 포를 쏘아댔다. 그러나 그들은 속고있었다. 최경민대대는 아직도 고스란히 출발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의 갑작스런 포격에 혼쌀이 났던 적보병들이 전호에서 일어나 안심하고 옷의 흙을 털고있을무렵이였다. 한동안 숨을 죽였던 우리의 사포군이 불의에 보다 맹렬한 제2차 포격을 개시하였다. 달아오른 무수한 불덩어리들이 맹렬한 기세로 놈들의 전연지대 지뢰원과 전호와 포진지를 답새겼다. 적의 방어진지는 또다시 이글거리는 불바다로 변했다.

우리의 포격은 적의 제1진지로부터 종심으로 이전하였다. 그것은 적의 턱밑에 가있는 우리 1중대동무들의 돌격을 의미하였다. 최경민은 맞은켠 대안의 돌바위고지로 시선을 옮겼다.

이때 돌바위고지 벼랑밑에서 대기하고있던 김봉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어둠속에다 대고 웨쳤다.

《돌격앞으로！》

전투원들은 마치 팽팽하게 당겼던 활시위의 화살마냥 일제히 절벽으로 기여올라갔다. 그러나 김봉수는 돌격구

령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육체와 정신을 지탱하고있던 마지막 힘마저 진해버린것이였다. 그는 잠시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다. 일어서다가 그는 다시 고꾸라졌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추스르며 한걸음한걸음 천천히 산으로 기여올랐다. 자국자국을 피로 물들이며…

돌바위고지우에 배치되였던 적들은 우리의 두차례에 걸친 맹렬한 포격에 넋을 잃은데다 계속되는 포소리로 습격대원들이 그들의 턱밑에 기여오를 때까지도 눈치를 못차리고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전투원들이 불의에 따바리를 휘두르며 전호속에 뛰여드는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내뛰기 시작했다. 고지는 잠시간에 점령되였다.

김봉수가 고지우에 기여올랐을 때는 전투원들이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고있을 때였다. 김봉수는 고지우에 오르자 소대장에게 신호탄을 발사하라고 명령하였다.

두발의 붉은 신호탄이 련이어 공중으로 솟아올라갔다. 어둠을 헤치고 날아오르는 붉은 신호탄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김봉수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어코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였다.

30

최경민은 예정된 시간에 돌바위기슭에 오른 두발의 신호탄을 확인하였다. 오늘밤의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히 딱딱 맞물려 돌아갔다. 어둠에 덮인 공간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연한 질서가 그들을 지배하고있었다.

《도하기재 앞으로！》

어둠속에서 최경민의 구령이 내렸다. 강반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그의 구령을 동강내며 알아 못듣게 하였다.

그러나 전사들은 대대장의 첫 구령이 무슨 뜻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여기저기 갈밭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시에 쏟아져나오며 강기슭을 향해 급히 움직여갔다.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맞들고 쿵쿵 내달리는 발구름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강기슭은 보이지 않는 전투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긴장한 호흡으로 가득차있었다.

《승선!》

최경민은 어둠속에다 대고 두번째 구령을 쳤다. 그러자 아래우기슭에서 철썩! 철썩! 물튀는 소리가 련이어 일어났다. 전투원들은 무거운 떼목을 띄우느라고 허리까지 물에 잠그고 첨벙거렸다. 배들은 어느새 미끄러지듯 물속에 날아들어 날쌔게 기슭을 떠나고있었다. 그러나 떼목조들은 강기슭에서 아직 얼른거렸다.

최경민은 마지막 떼목꼬리가 물우에 철썩 내려앉자 강기슭에 남은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하고나서 대기하고있던 배우에 껑충 뛰여올랐다. 중심을 잃은 배는 뒤집힐듯 한동안 끼우뚱거리다가 차츰 속도를 가하면서 강 한복판으로 돌진해들어갔다. 경민은 숨을 돌리며 배에 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노를 젓는 전사들 틈에 녀준의가 끼여앉아있었다.

배전에 부딪치는 물결소리, 수면을 때리는 노들의 철뗙소리로 주위는 소란하였다. 강바람이 쐐— 하고 스쳐지났다. 캄캄한 수면은 가볍게 몸을 뒤척이며 배를 이리저리 흔들어놓았다. 그러건말건 배는 쏜살같이 점점 강복판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시꺼먼 수면이 무슨 거대한 괴물의 잔등처럼 발밑에서 넘실거렸다.

명희는 아까 위생병들을 데리고 쏘구역을 지나오다가 부상을 당한 한 위생병이 자기 손을 꽉 그러잡으며 제발 후송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일이 되살아나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준의동무!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나를 후송하지 말아주세요. 락동강에 손이라도 한번 잠가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던 그 위생병동무

의 목소리가 자꾸 되살아나는것이였다. 명희는 그의 소원을 대신 풀어주기라도 하려는듯 배전에 몸을 기대고앉아 두손을 강물속에 담그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오무리고 푹푹 물을 끌어당기면서 손노를 저었다. 강물은 그의 손을 어루만져주었다.

락동강! 사람들은 이 강을 두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력사를 전설처럼 이야기하였던가. 태백산줄기의 험준한 골짜기마다에서 샘솟아나온 물줄기들이 한데 합쳐져 령남벌 7백리를 적시며 도도하게 남해로 흘러내리는 이 땅의 장강 락동강! 수천년의 유구한 세월을 두고 눈물과 한숨 속에 흘러흘러오던 력사의 강 락동강아! 그러나 오늘은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여기 왔다. 그대 물결우에 드리운 암운을 헤치고 은혜로운 **김일성**장군님의 해빛을 그대 품에 안겨주기 위하여, 치욕과 원한만이 서리던 그대 력사의 흐름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수륙수천리를 걸음걸음 피로 물들이며 장군님께서 보내신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여기 왔다!

락동강! 락동강! 아, 력사의 강아, 기뻐해다오. 반겨해다오 쾅쾅 소리치며 웃고 울어다오, 락동강아!

명희는 손을 푹푹 물에 잠그며 손노를 저었다.

강호범은 분대원들과 함께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탄 배에 같이 올라앉아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공화국기발을 달아맨 기대를 바른손에다 꽉 움켜쥐였다가 그것을 다시 왼쪽손으로 바꿔쥐기도 하고 손바닥을 오무리고 물을 떠선 마구 얼굴에 끼얹기도 하였다. 그는 잠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고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배가 앞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뒤걸음질치고있는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군했다.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 락동강아!

그의 머리속엔 문득 장문학이 랑송하던 민요구절이 되살아났다. 락동강! 아, 얼마나 그립던 강인가! 아, 얼마나 보고싶던 강인가!

우리의 포사격은 아직도 계속되고있었다. 포탄이 윙윙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상공을 스쳐 적진으로 날아갔다. 적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밤새 눈을 밝히던 놈들의 탐조등도 우리의 맹렬한 포사격에 질겁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 최경민은 쿵쿵거리는 요란한 포성사이로 포격소리와는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음향을 감촉하였다. 그것은 야간폭격기의 발동기소리였다. 비행기소리는 그들의 머리우에서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크게 갈수록 요란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그들의 등뒤에서 쿵쿵거리는 발포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덩이들이 련달아 금을 그으며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도하를 엄호하는 우리의 고사포 화력이였다.

《규정된 간격을 유지할것!》

최경민은 컴컴한 강바닥을 휘둘러보며 고함을 쳤다. 그의 구령소리는 이 배에서 저 배에로 전달되면서 삽시에 넓은 강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적 비행기소리와 함께 어느덧 한곳으로 몰켜들고있던 배와 떼목들은 다시 사방으로 쭉쭉 흩어지면서 앞을 향해 움직였다.

《빨리! 빨리!》

련락병 주영훈은 노를 잡은 전사들 틈에 끼여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초조하게 노를 저어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더 나가지 못했을 때 어두컴컴한 상공에서 작은 한점의 불꽃이 나타났다. 불꽃은 별찌처럼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확! 눈부신 백광을 뿌리며 공중에 매달렸다. 일순 먹물을 부은것 같던 어둠속에

서 크고 작은 배며 뗴목들로 뒤덮인 파도치는 넓은 강바닥이 환히 드러났다. 조명탄은 두개,세개로 차츰 수를 더 늘이면서 강상을 대낮처럼 밝혔다.

《노를 어서! 더 세게 어서!》

주영훈은 마음이 더욱 초조해져 숨을 헐떡거리며 더욱 맹렬한 기세로 노를 저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상공을 선회하던 놈들의 비행기는 굶주린 짐승처럼 수면을 향해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곧추내렸다.

《쐇!》

등뒤에서 대대장의 날카로운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때를 같이하여 기관총의 자지러지는 발사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적기는 이미 검은 그림자로 수면을 내리덮었다가 어느덧 크게 원을 그리며 공중으로 다시 솟아오르고있었다. 다음순간 그들이 탄 배전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수면에서 물기둥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강바닥이 깨지는듯한 요란한 폭음이 일어났다. 배들은 심한 충격을 받고 뒤집힐듯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주영훈은 자빠지지 않으려고 한손으로 배전을 꽉 움켜쥐였다. 그러다가 불식간에 《앗!》하고 외마디소리를 쳤다. 그의 눈앞에서 배 한척이 뒤집힌것이였다. 뒤집힌 배밑에서 물에 빠진 전사들의 머리가 불쑥불쑥 수면으로 솟아올라오고있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들이 모여들었다. 물에 빠진 전투원들은 배에서 내미는 손이며 노대를 잡고 배우에 기여오르고있었다. 그런데 전사 하나는 물우에 불쑥 솟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기도 하면서 아래로 둥둥 떠내려가고있었다.

주영훈은 자기도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를 구원해야겠다는 충격에서였다.

《앉앗!》

누군지 등뒤에서 소리를 쳤다. 주영훈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물속에서 첨벙거리고있는 그 전사에게서 떨어질줄 몰랐다.

바로 이때였다. 누군가 손에 노대를 쥔채 날쌔게 그 전사를 향해 헤염쳐가고있었다. 그는 능숙한 수영동작으로 물을 가르며 그 전사앞으로 가더니 손에 쥔 노를 그에게 내밀었다. 전사는 첨벙거리며 한손으로 노대를 거머쥐였다. 배 한척이 그들의 곁으로 급히 다가갔다. 물에 빠졌던 전사는 동무들의 손을 잡고 배우에 기여올랐다. 주영훈은 그제사 그의 한쪽손에 경기관총이 쥐여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물에 빠졌던 전사는 배우에 올랐으나 그를 구원하러 갔던 사람은 웬일인지 배에 오르지 않고 그냥 이쪽을 향해 헤염쳐 건너오고있었다. 주영훈은 그제사 그가 녀준의임을 알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는 자기뒤에 앉았던 그 녀준의가 언제 물속에 뛰여들었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있었다. 녀준의가 다가오자 배에서 여러개의 손길이 그에게로 뻗어졌다. 명희는 누군가의 억센 팔에 이끌리여 배우에 기여올랐다.

그는 배우에 올라와서야 최경민의 억센 손이 자기의 한팔을 틀어쥐고있음을 알았다. 그는 한팔을 최경민에게 맡긴채 숨을 돌렸다. 그가 물에 흠뻑 젖은 군복우에 위생가방을 다시 메고있을 때 등뒤에서 갑자기 요란한 기관총소리와 함께 눈부신 불줄기가 공중으로 뻗어올라갔다. 명희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최경민이 어느새 배머리에 나가 기관총으로 적기를 쏘아대고있었다. 조명탄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명희에게 더없이 미덥고 친숙해보였다.

지휘기를 뒤따르던 놈들의 두번째 비행기는 강에다 대고 기관총사격을 퍼부으며 지나갔다. 명희는 적기의 주둥이에서 화광이 번쩍이는것을 목격한 순간 자기가 타고있는 배에서 무엇인지 쪼개져나가는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적기를 향해 쏘아올린 우리의 기관총의 불줄기가 비행기의 동체를 엇비듬히 스쳐지나갔다. 명희는 불을 토하고있는 건너편 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키가 장대한 웬 전사 하나가 불을 내뿜는 중기관

총을 자기의 어깨우에 올려놓고있었다. 그는 뜨거운 총신을 두손으로 거머쥔채 사수가 마음대로 적기를 쏠수 있도록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불을 토하며 내려꼰지는 적기를 쏘아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는 림태복전사였다.

적기는 마주 날아오르는 세찬 불줄기에 질겁하여 어둠속으로 황망히 꼬리를 뺐다.

공중과 지상의 화력이 서로 교차되는 이 긴장한 순간에도 전사들은 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빨리！ 빨리！ 빨리！》

전사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다. 세번째 적기가 수면으로 달려들었을 때에는 이미 떼목과 배우의 여기저기에서 무수한 불줄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저공을 단념한 적기는 어방대고 폭탄을 내던지고는 황급히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바로 이때였다. 먼데서 들려오는 은은한 포성과 함께 멀리 마주바라보이는 왼쪽 강기슭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좌익에서 강을 건느는 도하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포병들의 준비사격이였다.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먼 우익에서도 일제히 포격을 개시하였다. 최경민은 얼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모두 계획에 미리 예정되였던 시간이였다. 노를 쥔 전사들은 넓은 전선에서 벌어지는 장쾌한 이 광경을 바라보느라고 노를 저어가며 좌우로 자주 머리를 돌리군하였다.

최경민은 대안기슭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초조해졌다.

(이젠 머지 않았다.… 이젠 금방이다.… 조금만 더…) 그는 열에 뜬 사람처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금 그의 온 신경과 몸은 오직 앞에 마주보이는 시꺼먼 대안에 쏠리고있었다. 그의 눈엔 마주보이는 그 대안기슭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멀어졌던 적기의 폭음이 또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차츰 커지면서 아까보다 더 요란한 금속성으로 밤하늘을 가득채우며 어딘가 높이 그들의 머리우를 날고있었다.

불현듯 공중에서 쏴 —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시꺼먼 물체들이 철썩! 철썩! 강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수면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사방으로 쭉 퍼졌다가 확! 확!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서며 하늘을 삼킬듯이 넘실거렸다. 어마어마한 그 불길은 상공에서 내리비치는 조명탄의 푸른 빛을 뚫고 배전과 떼목우에, 마주보이는 대안절벽에 눈부신 반사광을 던졌다. 고무타는것 같은 역한 냄새가 코를 쿡 찔렀다. 놈들의 두번째 항공편대도 지나가면서 여러개의 나팜탄을 투하하였다. 강바닥은 잠시동안에 이글거리는 시뻘건 불바다로 변하였다. 벌써 여러척의 배와 떼목이 불타고있었다. 전사들은 불타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여들기도 하고 어떤 배들은 불타는 떼목우의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여태까지 숨을 죽이고있던 대안의 적진에서 포사격과 기관포사격을 개시하였다. 놈들의 중곡사포탄이 날아와서 물기둥을 일으키며 쾅쾅 터져오르기도 하고 쉭쉭 머리우를 날아넘어가기도 하였다. 강은 타오르는 불길과 번쩍이는 섬광, 터지는 소리, 울리는 소리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놈들이 투하한 나팜탄의 불무데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흐르는 물결을 타고 곧바로 그들을 향해 밀려내려왔다. 어둠을 삼킬듯이 넘실거리며 밀려내려오는 험악한 불길앞에서 전진하던 배들은 한동안 머뭇거렸다.

명희는 가슴이 안타까이 죄여들었다. 강을 거반 다 건너와서 이렇게 된 일이 분하였다. 그는 안타까이 대대장을 눈으로 찾았다. 최경민은 이때 배전에 버티고서서 무엇이라고 고함을 치고있었다. 그러나 련속되는 요란한 폭음으로 귀가 멍멍해진 명희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배와 떼목들은 여전히 전진을 멈춘채 한곳에서 안타까이 맴돌이치고있었다. 바로 이때 배 한척이 그들의 배전을 스치며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미끄러져나갔다. 그 배의 한 복판에는 바위처럼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있었는데 그의 머리우에서는 폭풍을 헤집고 나가는 새의 나래처럼 무엇인지 바람에 펄럭이고있었다. 그것은 한폭의 기발이였다. 그것은 공화국기발이였다. 명희는 그제사 기발을 들고있는 사람이며 그 배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일별하였다. 강호범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있었다. 그 밑에서는 전사들이 한쪽에 두셋씩 달라붙어 맹렬한 기세로 노를 젓고있었다. 명희는 그 전사들속에 섞여있는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의 얼굴이며 노를 젓고있는 리종활의 얼굴도 알아보았다. 타오르는 불길로 주위가 대낮처럼 밝았기때문에 멀리서도 그들을 똑똑히 바라볼수 있었다. 삼단같은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들을 한입에 삼킬듯이 배를 향해 곧추 밀려오고있었다. 그러나 배는 그 불길을 맞받아 돌진해나가고있었다.

강호범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었다. 그의 심장은 지금 머리우에서 펄럭이는 그 기발처럼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그의 귀전을 때리는것은 지금 강심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발소리가 아니였다. 억울하게 미군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며 웨치던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것은 지금 대대의 전진을 가로막고있는 삼단같은 불길이 아니였다. 천대와 학대 속에서 눈물을 뿌리며 이 강을 건너오던 가슴아픈 옛일들이 어른거리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영원히 과거지사로 되고말았다. 그는 지금 착취받고 압박받던 어제날의 머슴군이 아니였다. 지난날 민지주네 집 나무지게를 지고 지게작대기를 쥐였던 바로 그 손에 그는 지금 로동자, 농민의 주권인 성스러운 공화국기치를 하늘높이 휘날리면서 원쑤들을 무찌르며 앞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이였다. 강호범은 기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그의 머리우에서 펄럭이는 그 기발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불새마냥 나래를 펄럭이며 불바다를 향해 돌진해나갔다. 그것은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로, 전투위훈에로 전사들을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그 기발은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서 펄럭이며 피를 끓게 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이 성스러운 기발을 안겨주셨는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주권을 찾아주시고 이렇듯 떳떳하게 사람구실을 하게 만들어주신분은 다름아닌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강호범은 갑자기 목구멍이 뜨거워났다.

《**김일성**장군 만세!》

강호범은 소리높이, 목청껏 웨쳤다. 그 소리에 화답하여 여기저기에서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세—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지며 강바닥을 뒤흔들었다. 만세소리는 장엄한 노래소리로 바뀌여졌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노래소리는 요란하게 터져오르는 폭발소리를 뚫고 강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전사들은 저마다 목청껏 이 노래를 부르며 노를 틀어쥔 두팔에 힘을 주었다. 한척 또 한척 배들은 기발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갔다. 잠시 한자리에서 맴돌이치던 수많은 배들이 어느덧 앞을 다투며 쏜살

같이 불길을 맞받아 전진하고있었다. 심장을 격동시키는 장엄한 이 광경앞에서 명희는 눈앞이 흐려졌다.
최경민은 불바다를 헤치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맞은켠 대안을 불과 사오십메터 앞에 두고 적들의 무질서한 저격화력에 부딪쳤다. 뚫고 기슭에 가서 붙어야 했다. 그는 떼목에서 첨벙 물속으로 뛰여내렸다. 련락병도 명희도 그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뛰여내렸다. 강물이 허리에 휘감기며 사정없이 그들을 한쪽으로 떠밀었다. 최경민은 전진사격을 지휘하기 위해 권총을 뽑아들고 첨벙첨벙 앞으로 걸어나갔다.
《전진사격준비！》
날카로운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째며 강기슭에 울려퍼졌다. 전사들도 어느덧 떼목에서 뛰여내려 간격을 넓히느라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첨벙첨벙 앞을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절커덕거리는 장탄소리가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쏘앗！》
최경민은 웨쳤다. 순간 강바닥이 뒤집힐듯 어마어마한 총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요란하게 밤하늘을 진감시켰다. 명희는 지휘관의 구령소리 하나가 이렇듯 장엄한 위력을 가지고있을줄 몰랐다. 그것은 수백명의 호흡과 심장과 의지가 하나로 뭉쳐진 무서운 힘의 발현이였다.
《쏘앗！》
최경민이 다시 웨쳤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한 무시무시한 총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오면서 강바닥을 뒤흔들고 멀리 밤하늘로 번져나갔다.
전진하는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 떼목과 배우에서도 중기와 박격포가 맹렬히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대안의 돌바위고지우에서도 도하집단을 엄호하기 위하여 적들에게 맹사격을 퍼부었다. 강변으로 모여들던 적들은 도도한 이 위력앞에서 머리를 못쳐들고 뒤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쏘앗！》
《쏘앗！》

그들은 맹렬한 전진사격으로 적을 위압하면서 먼동이 희 밋이 밝아오는 락동강기슭을 향해 전진하고있었다.

31

춘옥은 군의장으로부터 명희준의에게 전달해야 될 의약품과 련락임무를 받고 도하장으로 갔다. 그는 준의를 만나 군의장의 지시를 전달한 다음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눌러앉아 명희준의와 같이 부상병들을 처치하며 후송하는 사업을 하기로 되여있었다. 그토록 바라던 최전선에 나가게 된다는 기쁨과 긍지로 하여 춘옥은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는 소문만 들었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한 락동강을 건느기 위하여 도하장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나 그는 도하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얼굴이 심술궂게 생긴 경무원동무한테 붙잡혔다. 경무원은 춘옥이 무슨 일로 어데로 가느냐고 꼬치꼬치 따져묻더니 그를 도하장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도하장뒤 수림속에 있는 도하대기소로 보냈다. 대기소에는 여러명의 군관들과 하전사들이 안타까이 자기들의 통신련락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사람뿐만아니라 수림속 골짜기에는 포와 자동차와 운수마차들도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춘옥은 근 한시간나마 경무원이 시킨대로 대기소에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한정없이 기다리다가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강을 건너갈것 같지 않았다.

련대참모장 서인규는 도하장에서 급히 돌아치고있었다. 보병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한 중무기들을 빨리 락동강대안으로 넘겨보내야 했다. 련대장이 1제대 보병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한 다음 자질구레한 뒤일들이 항상 그에게 차례지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에 나가

싸움 한번 못해보고말겠다고 때로 푸념도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서인규는 그런 생각은커녕 날밝기전부터 아직 담배 한대 피워볼 짬이 없었다. 도하장은 말 그대로 전투장이였다. 적의 포탄이 쉴새없이 날아와서 모래불에서 쾅쾅 터졌다. 공중에서는 놈들의 비행기가 쉬임없이 떠돌았다.

서인규는 대안을 점령한 보병들이 빨리 포의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다. 련대장은 강을 건너가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반땅크포만이라도 이내 뒤따르게 해야 된다는것을 거듭 강조하고 떠나갔던것이다. 그런데 중무기의 도하는 예견보다 퍽 힘들게만 진행되였다. 날이 밝자마자 쌕쌔기들이 달려들어 도하장을 폭격한데다가 떼목을 끌고다녀야 될 발동선들의 가동이 폭격과 고장으로 이사이 절반으로 감소되였기때문이였다. 서인규는 발동선에만 의존하지 않고 45미리 포들은 발동선 없이 떼목수송을 조직하였다. 몇척의 발동선과 여러조의 떼목이 넘어가고넘어오며 련속적으로 포를 실어날랐다. 그러나 적항공대의 장애로 화력기재도하는 자주 중단되군하였다. 적기가 나타날때마다 도하장을 엄호하는 고사포들이 불을 토했다.

남다르게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타고난 급한 성미로 하여 서인규는 잠시도 한곳에 멈춰서있지 못했으며 그의 동작과 말은 더욱 빨라졌다. 련대공병장은 벌써 여러차례 서인규에게 꾸물거린다고 지적을 받고 그가 나타날때마다 기를 못폈다. 도하보장을 위하여 련대에 배속된 공병중대장 역시 같았다. 공병들은 배를 손질하고 짐을 싣느라고 허리까지 물속에 잠겨 돌아갔다.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강물우에 떠있는 떼목이며 발동선이며 도선장에 끌어내온 포들이 아침해빛에 반사되여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서인규는 필요한 공병성원들외에는 아무도 도하장에 접근시키지 않았다. 적의 포사격과 폭격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도하를 기다리는 병종구분대장들은 제가끔 기회를 엿보다가 먼저 건너가

려고 도하장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다가 서인규에게 욕을 얻어먹고 대기소로 쫓겨가군하였다. 그러나 발동선이 저쪽 대안에다 짐을 부리고 와서 기슭에 닿을 때마다 질서는 다시 혼란되군하였다. 그들은 서인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라치면 제가끔 선참으로 전선으로 나가기 위해 도하장으로 밀려들었다. 서인규는 그때마다 승인없이 배에 실었던 탄약상자며 통신피복선이며 후방부에서 실은 화물들을 도로 끌어내리고 76미리 반땅크포와 반땅크수류탄 궤짝을 올려싣게 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배를 떠나보낸 다음 승인없이 배에다 짐을 실었던 짐임자를 찾아 한바탕 닦아세우고 처벌로써 그들의 짐을 계획의 맨 마감에 돌려놓겠다고 으르는것이였다. 강너머 대안에서는 간단없이 먼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렇듯 바쁜 가운데서도 서인규의 눈과 귀와 온 신경은 줄곧 강을 건너간 련대에로 쏠리고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판단할수 있는 모든 징후로 보아 련대는 지금 간고한 전투를 진행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있는데 련대는 아직 302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얼마전부터 련대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들려오는 포성과 기관총소리의 거리판단으로 알수 있었으며 부상병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것으로 보아도 전투가 치렬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배들은 짐을 대안기슭에다 부려놓고 돌아올 때 부상병들을 날라왔다. 서인규는 부상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들에게 강을 건너간 련대의 형편을 캐여물었다.

《벌판한가운데 있는 동뚝밑에 아직 있습니다. 놈들의 반돌격을 이미 세번이나 물리쳤지요. 놈들의 땅크때문에 더 나가지 못합니다. 반땅크수류탄과 반땅크포들을 빨리 넘겨보내주십시오.》

부상병들은 자신들의 상처보다도 놈들의 땅크를 까부실 포가 미처 다 넘어가지 못하는것을 더 가슴아파하였다. 서인규는 더욱 등이 달아 방금 부상병들을 내리우고 포

를 싣고있는 떼목곁을 떠나 아까부터 고장난 발동선을 고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있는 공병들곁으로 달려갔다.

대기소에서 기다리다 못해 아까부터 부상병을 시중하는척하며 련대참모장의 눈치를 살피고있던 춘옥은 바로 이 짬을 타서 포를 싣고있는 떼목우에 살짝 뛰여올랐다. 떼목우에서는 포병들과 공병들이 포를 싣는데 정신을 파느라고 편제에 없는 이 간호원처녀가 떼목에 오르는것을 보고도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춘옥은 어떻게 할가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미 떼목우에 고정시켜놓은 포 있는데로 가서 포가밑으로 기여들어갔다. 짐을 싣느라고 떼목이 출렁일 때마다 밑에서 강물이 튀여올라왔다. 춘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할가? 그는 포가밑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궁리하다가 이번에는 포를 덮어놓은 방수포를 들고 그안으로 기여들었다.

춘옥은 떼목이 강기슭에 닿았을 때 방수포를 헤치고 나와 곁에 앉았던 포수들을 깜짝 놀라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춘옥은 그들이 미처 붙들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이 날쌔게 떼목에서 뛰여내렸다. 강을 건너서니 한숨이 나갔다. 흰 모래판은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백사장은 솟아오른 아침해빛에 반사되여 눈부시게 빛났다. 춘옥은 방향을 가늠하느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벌판에서 도하장을 향해 걸어오는 군인들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마주걸어갔다. 백사장은 포탄에 움푹움푹 파헤쳐져 벌의 둥지를 련상시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끊어진 전화선이 칡넝쿨처럼 발을 휘감고 미군놈들의 철갑모며 찢어진 천쪼박이며 알루미니움 쇠쪼박들이 발길에 채였다. 춘옥은 마주걸어오는 그 군인들과 가까와지면서 그들이 부상병들임을 알아차렸다. 련대군의소에 같이 있는 위생병동무가 낯선 웬 전사동무와 부상병을 들것에 싣고 걸어오고있었으며 그들과 같이 오는 나머지 세동무도 자기 발로 걸어오는 부상병들이였다. 춘옥은 그들을 향해 마주달려갔다. 위생병은 춘옥을 보자 들

것을 쥔채 잠시 멈춰서서 강을 건너올 때 도하장형편을 물었다. 춘옥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고나서 준의동무가 어데 있느냐고 위치를 물었다.

앞으로 나갈수록 포사격소리가 가까와졌다. 포탄도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에서 터졌다. 하늘에는 놈들의 포지휘기가 떠돌아다녔다. 온 들판이 포탄 터지는 소리로 방아간처럼 쉴새없이 드르릉거렸다. 해빛이 눈부신 환한 대기속에는 아지랑이같이 투명한 엷은 연기가 서려있었다. 춘옥은 갈수록 더욱 소란해지는 포사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차올랐다.

춘옥은 자기가 어느덧 보병들의 제1화선까지 걸어나왔다는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몰라 주춤거리다가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간 동뚝밑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자 그쪽으로 달려나갔다.

《춘옥동무！》

누군지 자기를 부르는것 같았다. 춘옥은 앞에 보이는 뚝밑에 서있는 명희를 발견하고 반가와서 그리로 달려갔다. 명희는 춘옥의 손을 잡아 뚝밑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춘옥이, 너 정신 있니？ 여기가 어딘줄 알고 그렇게 허리를 펴고 다녀요？》

명희는 수고했다는 말에 앞서 철부지동생을 나무라듯 그를 꾸짖었다. 어제 갈라질 때만 해도 깨끗이 세면을 하고 옷에 주름을 잡았던 명희의 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얼굴은 검댕이로 얼룩지고 옷은 땀과 흙탕에 뒤범벅이 되여있었다. 춘옥은 여직 한번도 이런 모습을 한 준의의 얼굴을 본 일이 없어 그만 웃음이 나왔다. 웃는 춘옥을 보고 섰던 명희는 더 나무랄수도 없고 따라 웃을수밖에 없었다. 춘옥은 군의장이 주던 쪽지편지를 전하고 군의장의 구두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폭풍같은 맹렬한 폭음소리에 그는 하던 말을 삼켜버렸다. 그들은 일시에 땅바닥에 엎드렸다. 춘옥은 전선에 나와서 포사격을

여러번 겪어보았으나 이렇게 숨막히는 맹렬한 포사격을 겪어보기는 처음이였다. 벼락치는듯한 요란한 폭발소리가 련달아 귀청을 째고 공중에 솟아올랐던 흙덩이와 파렬된 무쇠덩이가 우박처럼 끊임없이 땅바닥을 때렸으며 땅이 흠칫흠칫 뒤흔들리고 대기가 무섭게 울부짖었다. 숨막히는 포격은 잠시도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짜르릉! 짜르릉!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소리, 가열된 무쇠덩이의 으르릉거리는 소리로 춘옥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으며 할딱거리는 그의 가슴을 조여들게 했다. 놈들의 포사격은 오래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 잠잠해졌다. 춘옥은 숨을 돌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몸은 땀에 푹 젖어있었다. 준의는 이미 그의 곁에 없었다. 춘옥은 방금 자기곁에 있던 준의가 어느덧 연기속을 헤집으며 부상병을 찾아다니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춘옥은 그의 뒤를 좇았다. 여기저기 동뚝밑에서 전사들이 롱담을 주고받으며 총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있었다.

아무도 방금 지나간 무시무시한 그 포사격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고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들의 범상하고 태연한 얼굴들은 마치도 그들이 이미 겪은 수많은 포사격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한 그런 표정들이였다.

춘옥은 방금 준의가 스쳐지나간 동뚝밑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련대장이였다. 그는 전사들처럼 따바리를 손에 쥐고 웬 군관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있었다.

잠시후 명희가 되돌아왔다. 그렇듯 맹렬한 포사격이 있었는데도 부상자 하나 없었다는 준의의 말을 듣고 춘옥은 속으로 놀라왔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포탄이 파헤집어놓은 들판이며 자기곁을 스쳐다니는 전사들의 볕에 탄 거밋거밋한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는것이였다.

×

반생을 포연탄우속에서 살아온 오현무에게 있어서도 오

늘 전투는 여간만 힘겨운 싸움이 아니였다. 도하를 개시한 뒤의 몇시간동안은 공격이 계획대로 진행되였었다. 최경민이네 대대에 의하여 교두보가 성과적으로 점령된 다음 오현무는 후속부대들을 데리고 쉽게 강을 건너올수 있었다. 파도처럼 련달아 기슭에 닿은 그들은 우측 돌바위고지를 점령한 김봉수와의 화력련계밑에 저항하는 적을 짓부시면서 계속 앞으로 성과를 확대하여나갔다. 오현무는 개활지대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련대를 잠시도 지체시키지 않고 앞으로 전진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302고지기슭에 미처 닿기전에 벌판한복판에서 적 땅크의 불의적인 측면공격을 받았다. 놈들은 익측으로부터 맹렬한 땅크포화력을 퍼부으면서 련대를 다시 락동강대안으로 떠밀어버릴듯이 돌진해왔다. 정황은 바야흐로 오현무가 어제저녁부터 줄곧 신경을 쓰던 그 최악의 사태가 조성된것이였다. 그러나 오현무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방금 그들이 지나온 들판한복판의 동뚝밑에 부대를 철수시켜 급속한 방어진을 쳤다. 그리고 즉시 76미리 련대포와 45미리 반땅크포와 련대의 모든 박격포화력을 땅크와의 투쟁에 동원하였다. 치렬한 반땅크투쟁이 벌어졌다. 이 첫 전투에서 적들은 여섯대의 땅크를 들판에 내버린채 황망히 산굽이로 물러갔다. 그러나 놈들은 반공격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항공의 엄호하에 아까보다 더 많은 땅크를 몰고 달려들었다. 또다시 치렬한 반땅크투쟁이 벌어졌다. 놈들이 상공에다 포지휘기를 띄워놓고 우리의 포진지를 공중으로부터 제압하려고 발악했기때문에 사태는 더욱 불리해졌다. 오현무는 서인규가 급히 건너보내주는 포의 지원밑에 힘에 겨운 다섯차례의 반돌격을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손실이 있었다. 오현무는 강을 등뒤에 두고 개활지대에서 항공의 엄호를 받는 적 땅크와 맞선 이 전투가 갈수록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부대의 손실을 피하려고 만약 이

곳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이 련합부대의 전반적작전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었다. 어떻게든 견지해야만 했다. 그리고 놈들의 이목을 이곳에 집중시켜 지금 놈들의 배후에서 움직이고있는 련합부대의 행동을 유리하게 만들며 그들과 배합해야 했다. 오현무는 또한 이 과정에 영웅적 우리 전투원들이 자기들이 흘리는 피가 조국해방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성스럽고 영예로운것인가를 잘 알고있을것이니 추호도 동요없이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우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따발총을 가슴에 안은채 뚝밑으로 걸어다니며 전사들을 고무하기도 하고 구분대장들에게 반땅크투쟁에 필요한 유익한 교훈을 깨우쳐주기도 하였으며 때로 포병들이 동뚝우로 포를 끌어올리는 곁을 지나가다가는 어깨를 들이밀어 떠밀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원손실은 늘어나고 전투는 더욱 어려워져갔다. 어떻게 할것인가? 정황은 바야흐로 오현무에게 주저없이 결단성있는 그 어떤 행동으로 넘어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땀에 젖은 얼굴로 적진을 쏘아보고 섰던 오현무의 머리속에 번개처럼 그 어떤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것은 일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언제나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이였다.

오현무의 가늘게 쪼프려졌던 두눈에서 그 어떤 전술적영채가 번뜩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302고지 후면에 우중충 솟아있는 무명고지로, 그 고지에서 한쪽으로 뻗어내린 릉선으로 그리고 그와 잇닿아있는 우측의 구릉지대로 재빨리 줄달음쳤다.

(그렇다. 무엇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속에서 302고지에다 두팔을 얽어매놓겠는가. 대담하게 우측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를 치자, 그렇게 되면 302고지는 저절로 떨어질것이 아닌가!)

오현무의 머리속에서는 대담한 작전계획의 실제적가능성 여부를 타산하는 주판알이 튕겨졌다. 한쪽으로 302고지를 계속 때리면서 한팔을 빼내여 무명고지를 친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벌판동뚝에서 항공의 지원을 받는 적 땅크부대와의 불리한 대결에 비하면 몇배의 리득이 있는것이였다. 불과 10분 되나마나한 짤막한 사이에 무르익은 오현무의 결심은 지체없이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포병대들은 벌써 화력의 절반이상을 302고지로부터 무명고지로 이전하였으며 련대 반땅크화력과 최경민이 지휘하는 1대대를 제외한 련대의 나머지 2개대대는 동뚝을 따라 급히 오른쪽 릉선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오현무는 련대의 기본집단들을 자신이 직접 지휘하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그는 최경민대대장을 자기앞으로 불렀다. 오현무는 지금까지 1개련대가 감당했던 긴 동뚝을 이 젊은 대대장에게 맡기고 떠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최소한도 3시간이상 이 동뚝을 견지해야겠소. 어떻소? 자신이 있소?》

그는 온몸에 땀이 푹 배이고 포연에 그슬려 검댕이칠을 한 최경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최경민은 련대장이 지금 말하는 3시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느끼고있었다. 3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못가서 온 대대가 괴멸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마디로 대답하였다.

《자신있습니다.》

최경민은 확신성있게 이렇게 대답해놓고도 무엇인가 자기의 대답에서 부족점을 느끼며 련대장을 더 안심시키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동뚝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필요하다면 3시간이 아니라 옹근 하루라도 지켜내겠습니다.》

최경민은 결연한 태도로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오현무는 감동된 눈으로 잠시 최경민의 얼굴을 유심

히 지켜보고있었다. 이런 부하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는 적 땅크와의 투쟁에서 필요한 몇마디 보충적인 지시를 주고나서 최경민의 손을 꽉 움켜쥐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동뚝을 따라 옆으로 빠져나갔다.

잠시후 련대가 차지했던 산병선은 텅 비여버렸다. 동뚝의 보병산병선은 이미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전투원들을 더욱 긴장시켰으며 싸움의 슬기와 용맹으로 전투원들의 심장을 불태워주었다.

강호범은 분대원들을 뚝밑에 앉혀놓고 새삼스럽게 그들이 가지고있는 수류탄의 보유량을 조사하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일찌기 보지 못한 준엄하고 견결한 빛이 어려있었다.

리종활과 림태복은 말없이 담배를 피워물고 날창을 벼리고있었다. 그리고 그곁에서는 김영준이 장문학의 끊어진 신발끈을 고쳐매주며 아직도 제구실을 하기에는 멀었다고 장문학을 나무라고있었다. 그 한토막의 신발끈은 김영준의 배낭속에 마지막으로 건사해두었던 락하산끈이였다.

이때 최경민은 동뚝에 의지해서 적 땅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있었다. 방금전까지 오현무가 지키고있던 긴 동뚝의 무게가 지금 자기 량어깨를 짓누르는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에 지배되여있는것이였다.

김성태는 뚝밑에 둘러앉은 초급선동원들과 담화를 나누고있었다. 그는 지금 동뚝을 지배하고있는 허전한 빈구석을 메꾸기 위해 정치사업을 하고있었다.

의례히 그러리라고 예견한것처럼 적들은 여섯번째의 포병준비사격이 끝나자 산굽이에서 또다시 여러대의 땅크를 출동시켰다.

여태까지는 놈들이 주로 넓은 전선에서 일거에 달려들군 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투서렬이 종전과 달랐다. 놈들은 산굽이에서 나타나자 점차 정삼각형의 종심깊은 예리한 제대대형으로 땅크대렬을 편성하면서 마치 날카로운 칼끝으로 가슴을 찌를듯이 밀려드는것이였다. 여러대의 전

투기들이 공중으로부터 그들을 엄호하고있었다. 놈들의 포병대들은 포탄으로 부단히 그들을 호송하고있었다. 그 규모로 보나 어마어마한 그 기세로 보나 여태까지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잡도리였다. 최경민은 오늘 전투의 모든 운명이 바로 눈앞으로 밀려오고있는 저놈들과의 대결여하에 달려있는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곁에 서있는 구분대장들과 전투원들의 얼굴마다에서도 그것을 눈치챘다.

우리의 반땅크포들이 포문을 열었다. 적아간의 교차되는 맹렬한 포사격으로 대기는 노호하고 들끓었다. 우리의 반땅크포는 마침내 다가오는 적 선두땅크를 면바로 답새겼다. 땅크는 전진을 멈추고 불길에 휩싸였다. 적들은 선두땅크를 잃었으나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뒤를 따르던 두번째 땅크가 녹아난 선두땅크의 위치에 나서고있었다. 하지만 놈들의 앞이 하나를 보기좋게 뽑아던진 우리 반땅크포병들의 솜씨는 뚝에 늘어서있는 모든 전투원들과 포병들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의 포사격은 갈수록 더욱 맹렬해졌다. 적의 포병지휘기가 머리우에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놈들의 전투기들이 낮추 떠서 그들의 머리우를 스쳐지나갔다. 바로 이때 적 땅크서렬중간에서 또 하나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련달아 또 한대…

《잘한다, 잘해！》

뚝 전체가 흥분으로 술렁거렸다. 그러나 우리의 포사격은 아까보다 현저히 약화되였다. 놈들의 전투기들이 포진지에 달려든것이였다. 등뒤에서는 우리 고사기관총과 포진지를 향해 달려든 적 항공대와의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적땅크대렬은 잠시도 멈춰서지 않고 그들이 늘어서있는 뚝을 향해 곧바로 밀려오고있었다. 전사들은 한결같이 반땅크수류탄과 수류탄묶음을 앞에 꺼내놓고 각일각 접근해오는 적 땅크를 불붙는 적개심을 안고 노려보고있었다. 동뚝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최경민은 아까부터 적 땅크의 전진방향으로 곧추 뻗

어나간 발고랑들을 눈으로 더듬고있었다. 그는 아까 오현무가 떠나면서 귀띔해주던 반땅크투쟁의 유익한 교훈이 머리에서 되살아난것이였다. 그것은 적 땅크와의 투쟁에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전사들이 우선 적 땅크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겉보기에 어마어마한 이 괴물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깨달을수 있게 깨우쳐주고 정신적 고무를 주는것이였다. 최경민은 지금 침묵으로 적을 기다리고있는 그리고 방금 련대가 떠남으로 하여 허전한 감정에 사로잡혀있는 전투원들앞에서 뚝을 깔아뭉갤듯이 밀려오는 저 땅크대렬을 맞받아나가 다만 한대라도 까부신다면 그리고 지휘관인 자신이 직접 나가 전사들앞에 시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대대 전체 전투원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힘과 고무로 될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곁을 돌아보며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였다.

《나가서 저 땅크를 까부실 자신이 있는 동무가 있소?》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강호범이였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대장의 곁에 서있던 리종활이였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림태복과 장문학이였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전사들은 꼬리를 물고 제가끔 대대장앞으로 나섰다.

《좋소. 다 갈수는 없소.》

최경민은 지원의 순서대로 네동무만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들을 쭉 훑어보다가 맨 끝에 서있는 나어린 장문학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동무는 이리 나오. 다른 동무와 바꾸어야겠소.》

최경민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교체하기 위하여 곁에 서있는 다른 전사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자 장문학은 펄쩍 뛰며 대렬곁으로 더욱 바싹 다가섰다.

《대대장동지! 저도… 저도 꼭 가겠습니다.》

자기를 떼여놓을가봐 겁에 질려 울상이 되여버린 장문학의 얼굴은 최경민을 당황하게 하였다. 최경민은 아까 동뚝밑을 지나다가 바로 이 꼬마전사가 포탄이 들씌워논 흙무지를 털고 일어서며 유쾌하게 롱담을 하던 일이 피뜩 되살아났다. 작렬하는 적의 포탄앞에서 눈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장문학은 선발된 네명의 대오에서 떨어질가봐 질겁하여 거의 울상이 되여있다. 최경민은 더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땅크수류탄을 2개씩 준비시키고 자신도 떠날 차비를 하였다.

서둘러 준비를 갖춘 최경민은 곁에 서있는 전창걸에게 눈길을 보내고 동뚝으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그는 동뚝을 넘어서지 못한채 전창걸의 억센 손아귀에 팔을 잡혀 제자리로 굴러내려왔다. 그는 량손에 반땅크수류탄을 쥐고 있었기때문에 마음대로 몸을 가눌수 없었다.

《대대장동무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전창걸은 대대장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뚝밑으로 밀어낸 다음 량손에 반땅크수류탄을 쥐고 동뚝으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그 역시 동뚝에 미처 올라서지 못한채 밑으로 굴러내려왔다. 최경민이 일어서며 그를 다시 끌어내린것이였다.

《왜 이렇게 덤비오.》

최경민은 숨을 헐떡거리며 군사부대대장에게 말하였다.

적 땅크들은 그사이에도 퍼그나 가까이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최경민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땅크습격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전투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방금 피를 흘리며 락동강을 건너왔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놈들의 땅크를 짓부셔버려야겠소. 저 땅크들을 짓부셔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련합작전에 큰 손실을 미치게 되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영예롭게 맡겨주신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오. 우리의 조

국강토를 짓밟고 우리의 부모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려고 덤벼드는 저 원쑤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시도 살지 못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겠소.》

최경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렸다. 그가 미처 다음 말을 잇지 못하며 동뚝에 뛰여오르려는 순간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앞질러 내달렸다. 최경민은 어쩔수없이 땅크습격조원들의 손을 억세게 잡았다놓으며 차례차례 동뚝너머로 그들을 떠나보냈다.

최경민은 맨 마지막으로 아직 처녀의 손같이 부드러운 장문학의 손을 꽉 쥐였다. 그리고 솜털이 보시시한 그의 얼굴을 지켜보며 말하였다.

《덤비지 마오. 조심해야겠소.》

《들었습니다.》

장문학은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의 손을 잡은채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대대장동지! 안심하십시오. 저는 조선인민군전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비호같이 앞으로 내달렸다. 최경민은 문득 자기가 아까 오현무련대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던 말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최경민과 김성태는 나란히 서서 긴장한 얼굴로 밭고랑을 타고 앞으로 기여나가는 그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김성태는 방금 전투원들과의 담화를 끝마치고 돌아온 참이였다. 그들뿐만아니라 동뚝에 늘어선 온 대대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밭고랑을 지켜보고있었다. 적 땅크들은 해빛에 번들거리는 강철덩이로 땅을 짓누르면서 동뚝을 단숨에 깔아뭉갤듯이 질주해왔다.

200메터… 150메터… 다시 100메터… 수십대에 달하는 집채같은 적 땅크들의 사나운 몸부림으로 하여 동뚝이 뒤흔들렸다. 어마어마한 이 괴물에 비해 지금 밭고랑으로 기여나가는 다섯명의 전투원들은 보잘것없이 작아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별반 서두르지도 않고 침착하게 앞으로 기여나갔다.

그들은 기여나가면서 한결같이 동뚝에서 하던 대대장의 말을 생각하였다. 맨앞에서 전창걸이 기여나갔다. 그는 천대와 가난 속에 시달리던 어제날의 배군을 오늘과 같이 떳떳한 나라의 주인으로, 민족간부로 키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강호범의 머리속에서는 대대장이 말하던 락동강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있었다. 아, 얼마나 애타게 그리며 다시 건너온 강인가! 이 한몸이 백번 죽어 가루가 될지언정 저 원쑤들을 단매에 요정내야 한다.

그의 뒤를 따르던 리종활은 놈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된 처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여나갔다. 억울하게 죽은 처와 딸애의 복수를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녀인들과 귀여운 자식들을 다시는 원쑤놈들이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다가오는 적땅크를 노려보며 한걸음 한걸음 기여나갔다.

림태복은 분여받은 땅에 대해서, 그리운 안해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세상에 태여난지 며칠 안되는 어린것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던 새살림이던가! 분여받은 그 땅, 그 살림을 다시는 원쑤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발고랑을 타고 뒤질세라 앞으로 기여나가는 장문학이며 그들 네사람은 한결같이 착취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자기들에게 나라와 주권, 땅과 집과 새살림을 마련하여주신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의 일념으로 발고랑을 타고 앞으로 앞으로 기여나갔다.

놈들의 선두땅크는 어느덧 맨앞에 엎드려있는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의 앞으로 접근하고있었다. 최경민은 전창걸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반신을 일으키며 땅크밑에다 수류탄을 내던지는것을 알아보았다. 다음순간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선두땅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동뚝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선두땅크 한대를 까부신 전창걸은 날쌔게 몸을 일으키며 두번째 땅크를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 그놈의 땅크를 향해 하나 남은 반땅크수류탄을 마저 던졌다. 동뚝에서 또다시 환성이 터져올랐다. 두번째 땅크 역시 다리 부러진 짐승처럼 벌판에 주저앉은것이였다.

적의 땅크서렬은 련달아 두대의 선두땅크가 물러앉았으나 전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왔다.

이번에는 강호범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사자처럼 앞선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는 량손에 거머쥔 두개의 반땅크수류탄을 련달아 무한궤도밑에다 내던지고 날쌔게 몸을 피하였다. 련달아 터져오르는 강한 충격에 땅크는 숨을 멈추고 옆으로 뒤집힐듯 한쪽으로 기울어져버렸다. 또다시 동뚝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뒤를 이어 리종활과 림태복은 둘이 달려들어 땅크 한대를 녹여냈는데 련달아 폭발하는 반땅크수류탄에 기관부가 터진 이 땅크에서는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순식간에 넉대의 땅크가 녹아나자 적의 땅크서렬은 잠시 혼란에 빠져 주춤거렸다. 땅크 한대가 주춤거리는 저들의 땅크대렬을 고무하듯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동뚝을 향해 질주해왔다.

그놈은 마치 앞에 가로놓인 동뚝방어선을 단숨에 깔아뭉갤듯한 험한 기세였다. 밭고랑 맨뒤에 엎드려있던 장문학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그놈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러자 앞장서서 달려오던 땅크가 불현듯 주춤 멈춰서버렸다.

동뚝에 서있는 전투원들은 그 다음에 벌어진 괴이한 그 현상앞에서 모두 한결같이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방금 동뚝을 깔아뭉갤듯한 기세로 달려온 그 땅크가 나어린 한 전사앞에서 움질움질 몸을 떨며 뒤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기때문이였다. 땅크는 뒤걸음질을 치면

서 장문학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나 장문학이 너무도 바싹 땅크앞에 기여들었기때문에 탄알은 그의 머리를 지나 헛되게 땅바닥에 내리꽂혔다. 땅크가 뒤걸음질을 칠때마다 장문학은 탄알을 피하느라고 더욱 바싹 앞으로 기여들었다. 동뚝의 전투원들은 한결같이 손에 땀을 쥐고 반땅크수류탄을 손에 쥔 열여덟살의 나어린 전사 장문학과 수십톤의 무게를 가진 집채같은 땅크를 타고있는 미군놈과의 전대미문의 이 대결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은 차츰 이 땅크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뒤걸음질을 치고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땅크의 오만한 조종사놈은 시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체소한 장문학을 단숨에 깔아뭉개려고 덤벼들었을것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렇게 되면 그의 량손에 쥐여진 두개의 반땅크수류탄이 자기에게 어떤 대답을 줄것인가 하는것을 그는 깨달은 모양이였다. 자기앞에서 내달리던 4대의 땅크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는 몸서리를 치며 뒤걸음질을 시작했을것이다.

장문학은 비굴한 이 땅크조종사놈을 단단히 혼을 내주기라도 하려는듯이 앞으로 기여나가며 기회를 엿보다가 반땅크수류탄을 무한궤도에 틀어박고 날쌔게 옆으로 빠져나왔다. 다음순간 들판을 들었다놓는듯한 요란한 폭발소리와 함께 땅크는 불길에 싸여 땅바닥에 코를 박고 주저앉았다. 동뚝이 무너질듯 환성이 터져나왔다. 장문학과 땅크와의 대결은 동뚝을 들끓게 하였으며 전투원들의 사기를 끝없이 고무하고 격동시켰다.

그것은 매개 전투원들에게 자기들도 땅크를 까부실수 있다는 신심을 주었으며 영웅적인 전투위훈에로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동뚝 이쪽에서 웬 전사가 수류탄묶음을 쥐고 뚝을 넘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뚝 저쪽에서도 다른 한 전사가 땅크를 향해 달

려나갔다. 그다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마침내 동뚝이 밀려나가듯 수많은 전투원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탄알처럼 땅크를 향해 맞받아나갔다. 이제는 땅크사냥군들이 몇사람인것이 아니라 모든 전투원들이, 말 그대로 온 대대가 땅크사냥군이였다.

이상의 모든 일들은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이 땅크습격조원들을 데리고 동뚝을 넘어선 때로부터 불과 10분 되나마나한 짤막한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였다.

그러나 이 짤막한 사이에 벌어졌던 이 사변들로 하여 들판에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전투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땅크습격조원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놈들의 땅크를 둘러싸고 그를 요정내고있었다. 넓은 들판에서 땅크와 사람들이 한데 얽혀돌아갔다. 도처에서 반땅크수류탄이 요란하게 튀고 곳곳에서 땅크가 불타올랐다. 사정없이 날아드는 수류탄벼락앞에서 땅크들은 몸뚱이를 흠칫흠칫 떨며 뒤걸음질을 치고있었다. 그러다가 놈들은 마침내 총퇴각을 개시하였다.

전투원들은 도망치는 적 땅크를 따라가며 손에 남은 수류탄을 쥐여던지고 땅크를 뒤따라오던 적 보병들에게 따바리를 휘둘렀다.

최경민은 전투원들의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를 리용하여 단숨에 개활지대를 극복하고 302고지기슭에 가서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는 군사부대대장으로 하여금 동뚝에 남아서 대대박격포와 중기관총으로 보병들의 전진을 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체없이 권총을 뽑아들고 대렬앞으로 달려나갔다.

《302고지를 향해 앞으로!》

들판에서 돌아치던 수백명의 대오는 삽시에 그를 따라 움직였다.

《돌격! 302고지를 향해 돌격!》

《고지를 향해 구보로!》

강호범은 땅크습격조원들과 함께 도망치는 적 땅크를 추격하다가 동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누가 이 명령을 내렸는지 알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동뚝에 늘어섰던 온 대대가 파도처럼 벌판으로 밀려오고있었다.

맨 선두에는 최경민대대장이 서있었다. 강호범은 뒤질세라 그들을 따라 벌판으로 내달렸다. 302고지의 적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놈들이 미처 어쩔수 없게 잠시간에 이 개활지대를 극복해야만 했다.

최경민은 갈수록 심장이 뛰고 숨이 차올랐으나 잠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발을 쾅쾅 구르며 결승전에 오른 단거리선수마냥 맹렬한 기세로 벌판으로 내달렸다.

《빨리! 빨리!》

그는 앞으로 내달리면서 자주 이렇게 소리를 쳤다. 산기슭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발이 갈수록 말을 듣지 않았다.

갑자기 쉬익— 쉬익— 하고 바람을 째는 소리가 그들의 귀전을 스침과 동시에 따따따 하는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명의 전사들이 거의 동시에 땅바닥에 쓰러졌다. 최경민은 뒤를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달리고있었으나 자기 등뒤에서 벌어진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있었다.

《멈춰서지 말고 구보로!》

대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판을 위압하였다. 잠시 흩어지며 주춤거리던 전사들의 발걸음은 소스라치듯 아까보다 더욱 맹렬한 기세로 공간을 날았다. 302고지의 적들은 당황하여 더욱 요란하게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대오는 잠시도 멈춰서지 않고 그냥 내달리고있었다. 총소리,기관총소리가 갈수록 더욱 요란하게 들볶았으나 그

때는 이미 동뚝의 우리 중기관총들이 대대의 전진을 엄호하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적의 화점들을 답새기고있었다.

그들은 드디여 다복솔 우거진 산기슭에 다달아 숨을 헐떡거리면서 차례차례 걸음을 멈추었다. 모두 한결같이 온몸이 물참봉이 되고 숨이 턱에 닿아 한동안 진정들을 못하였다. 적들은 여전히 사격을 계속하고있었다. 그러나 대대는 이미 산기슭에 바싹 붙었기때문에 놈들의 탄알은 헛되게 땅바닥을 잡아두드리고있었다.

최경민은 큰 손실없이 성과적으로 개활지대를 극복했다는 안도감으로 숨을 몰아쉬였다. 최경민은 지체없이 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전투를 조직하였다. 상공으로 록색 신호탄 두발이 발사되였다. 대대장이 동뚝에 있는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에게 대대의 진출계선을 알리는 신호였다. 고지의 릉선을 따라 좌우측 2개 방향으로 갈라진 전투원들은 벌써 돌격출발진지를 차지하기 위해 산으로 기여오르고있었다. 최경민은 김성태와 같이 제2중대가 담당한 좌측릉선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정오의 뜨거운 해별이 대지를 불처럼 내려지졌다. 고지를 향해 앞서 기여오르던 제2중대장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대장을 찾아내려오고있었다. 그는 별반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기여왔으나 해쓱하게 질린 그의 낯빛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였음을 말하고있었다.

2중대장은 새로 나타난 정황을 보고하였다. 최경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자기 귀를 의심했다. 1개 련대로 추산되는 적들이 대대를 포위하기 위해 좌측으로 우회해오고있다는것이다. 최경민은 목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따라나서는 련락병이며 기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지시키고 혼자 산등성이로 기여올라갔다. 자기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기전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산으로 급히 기여오르며 허리에 찬 쌍안경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는 쌍안경을 눈에 갖다대지 않고 그대로 손에 쥔채 한자리

에 굳어져버렸다. 적들은 이미 산굽이를 돌아오고있었는데 육안으로도 놈들의 보병총을 식별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과 무질서하게 벌판을 덮으며 굽이쳐나오는 보병들의 철갑모와 금속장구류들이 해빛에 반사되여 끊임없이 번쩍거렸다.

(포위！ 포위다！ 대대는 포위되였다！)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 그의 눈앞에는 대대의 중기와 박격포로부터 분리된채 고지와 들판의 량익측에서 날아드는놈들의 화력앞에서 피흘리며 쓰러질 전투원들의 참상이 어른거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나 정황은 그에게 더 사색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에게로 날아온 놈들의 첫 포탄이 바로 근방에 와서 작렬한것이였다.

《대대장동지！》

주영훈은 검은 연기속에 파묻혀버린 대대장을 부르며 위험을 무릅쓰고 고지로 달려올라갔다.

《대대장동지！》

그는 재차 대대장을 불렀다. 그러나 최경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으며 포연이 천천히 가시여지면서 방금 그가 서있던 자리에는 깊숙이 패인 포탄자리만을 드러내놓았다. 김성태를 비롯한 군관들과 주위에 있던 전투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눈앞에 적이 밀려들고있다는것도 잊어버린듯 비통한 눈으로 대대장을 찾고있었다.

《대대장동지！》

주영훈의 목소리에는 거의 울음이 섞여있었다.

이때 최경민은 혼미한 의식속에서 자기를 찾는 주영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무엇인가 자기 몸을 내리누르는 천근같은 무게에 짓눌려 가슴이 답답해났다. 눈앞이 캄캄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몸을 꽁꽁 묶이여 그 어떤 심연속에 빠져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대대장을 찾는 련락병의 목소리는 최경민을 한걸음 더 현실로 접근시켰다. 그는 자기 몸을 짓누르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최경민은 그제사 그 어떤 물건이 자기의 얼굴을 내리덮고있었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 머리에 썼던 철갑모였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겨우 얼굴만을 내놓고 온몸이 흙속에 파묻혀있음을 알았다. 그는 흙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온몸을 결박당한것처럼 꼼짝할수 없었으며 련락병을 찾으려고 입을 벌려도 말이 나가지 않았다. 갈수록 가슴은 답답해졌다. 다음순간 그의 머리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지금 대대가 놈들의 포위속에 들어있다는 잠재의식이였다. 그의 눈앞에 또다시 놈들의 포위속에서 피흘리며 쓰러져가는 수많은 전사들의 모습이 어른거리자 온몸에 기적적인 힘이 솟구쳤다. 그는 천근무게를 떠받드는 무쇠기둥처럼 거연히 일떠섰다. 그리고는 소리를 쳤다.

《련락병동무!》

주영훈이 달려왔다. 그리고 김성태와 2중대장이 또 안타까이 그를 찾던 전투원들이 모두 그에게로 달려왔다.

《대대장동지!》

주영훈은 어찌나 반가왔던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대대장의 몸에 매달렸다.

최경민은 눈물이 글썽해서 웃고있는 김성태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2중대장의 얼굴도, 제가끔 안도의 숨을 몰아쉬는 구분대장들과 전사들의 얼굴도 보았다. 그 얼굴들은 최경민으로 하여금 또다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침착한 리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최경민은 그들을 은폐시킨 다음 좀더 앞으로 기여나가서 침착하게 적진을 노려보았다. 최경민의 리지적인 침착한 눈

은 아까 처음 보던 그때 눈이 아니였다. 그는 벌써 어마어마해보이는 그속에서도 자동차와 보병이 뒤섞여 허둥거리는 무질서한 적들의 몰골을 꿰뚫어보고있었다. 최경민은 여직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어떤 착각을 물리치려는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놈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놈들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얻어맞고 쫓겨오는놈들이였다.

최경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물러나 동무들이 있는곳으로 갔다. 군관들과 전투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의 낯빛을 주시하고있었다. 최경민은 자기를 지켜보는 불안스런 그 얼굴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 저놈들은 우리를 포위하러 오는놈들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얻어맞고 도망쳐오는놈들이요.》

의혹에 찬 시선들이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최경민은 확신을 가지고 짤막하게 자기가 판단한 정황의 진상을 그들앞에 설명하였다. 그를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의혹과 불안의 빛이 사라지고 걷잡을수 없는 흥분속에 휩싸이는것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믿음에 찬 시선을 대대장에게 보냈다.

최경민은 곧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중대는 이 자리에 남아서 저놈들을 막는것이 좋겠소… 아니요, 한개 중대까지 남을 필요가 없소. 한개 소대면 충분하오.》

모두 힘차게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적색신호탄이 발사되였다. 동뚝에 보내는 대대장의 화력호출신호였다.

32

최경민이 김성태와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는 전투원들이 벌써 적의 1참호근방에까지 기여올라 놈들과 화력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전투원들은 고지의 경사각과 바위와 의지할수 있는 모든 지형지물을 리용하여 적을 쏘아눕히면서 한걸음한걸음 기여오르고있었다. 그러나 놈들의 제1참호에 설치된 2개의 토목화점이 집요하게 그들의 전진을 방해하고있었다. 구분대장들은 대대장이 도착하자 전투정황을 보고하였다. 놈들의 그 화점을 까부시기 위하여 전사들이 이미 여러차례 화점으로 기여오르다가 몸에 부상들을 입고 굴러내려왔다는것이였다. 발을 붙일수 없는 심한 경사지우에 설치된 화점들이였다. 최경민은 대대의 중무기들이 이 자리에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는 방금 고지밑에 배치하고 올라온 반땅크총을 1문이라도 올려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대장의 지시는 곧 밑으로 하달되였다. 그러나 기다리는 반땅크총은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상론하려고 문화부대대장을 눈으로 찾았다. 늘 자기곁에 있군하던 김성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최경민은 련락병에게 문화부대대장의 행처를 물었다. 주영훈은 그에게 아까 김성태가 당원들만을 불러놓고 바위밑에서 무엇인가 토의를 하고있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최경민은 초조하게 산밑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련달아 일어나는 요란한 폭발소리와 함께 대대의 전진을 가로막던 놈들의 2개의 화점이 거의 동시에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최경민은 뜻하지 않은 이 장쾌한 현실앞에서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의문에 잠

긴채 지체없이 전투원들을 이끌고 돌격로에 올랐다.

그는 고지를 향해 달려올라가다가 화약내가 채 가셔지지 않은 화점밑에 쓰러져있는 김성태를 발견하고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성태는 곁으로 달려온 최경민을 보자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대대장에게 무슨 잘못이나 저질러놓은 듯한 미안한 기색이였다.

《경상입니다. 안심하시오. 대대장동무, 빨리 고지로 빨리!》

김성태는 눈으로 고지쪽을 가리키며 최경민을 독촉하였다. 최경민은 련락병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고지를 향해 달려올라갔다.

적의 제1참호에서는 적아간의 치렬한 육박전투가 벌어졌다. 최경민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적들을 닥치는대로 쏘아눕히면서 미군놈들의 시체를 짓밟으며 앞으로 전진했다. 적과 우리가 뒤섞여돌아가는 긴장한 격전속에서도 최경민의 눈과 귀는 부단히 놈들의 제2참호로 쏠리고있었다. 그것은 이쯤되면 의례히 놈들의 예비대가 반돌격으로 넘어올 때라는것을 타산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놈들의 예비대는 제1참호에서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제1참호는 잠시간에 점령되였다.

최경민은 즉시 놈들의 제2참호에로 전사들을 진출시켰다. 그는 펄펄 뛰는 날쌘 동작으로 대원들을 이끌고 앞으로 돌진해나갔다. 그러나 제2참호에는 이미 적이 없었다.

이때 302고지너머 무명고지에서는 두발의 록색 신호탄이 공중에 솟아오르고있었다. 최경민은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무명고지점령을 알리는 오현무의 신호였다. 최경민은 그제사 이 302고지의 적들이 어째서 반돌격도 없이 이 고지를 포기하고 도망치고있는가를 깨달았다.

갑자기 그의 등뒤에서 떠들썩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편이다! 우리 땅크다!》

최경민은 소리나는쪽을 돌아다보았다. 아까 적 1개련대가 밀려나오던 왼쪽 산기슭으로 미제침략군 땅크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보다 진한 초록빛 땅크대렬이 물결처럼 밀려나오고있었다. 들판을 덮으며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그 강철의 대렬은 혼란에 빠져 벌판에서 갈팡질팡하는 적들에게 맹렬한 포화력을 들씌우면서 놈들을 사정없이 족쳐대고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 땅크였다. 련대와 협동하고있는 좌익련대에 배속된 땅크부대였다.

《우리 땅크다! 우리 땅크다!》

전투원들은 목이 터지게 부르짖으며 미칠듯이 기뻐 날뛰였다. 포연에 끄슬리고 해별에 타서 거뭇거뭇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최경민은 갑자기 그 어떤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다. 그는 앞으로 내달리며 목청껏 부르짖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 소리에 화답하여 그의 등뒤에서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세! 만세! 만세!…》

그들은 달려나가면서 끊임없는 만세소리로 고지를 뒤흔들며 도망쳐가는 적들을 추격해나갔다.

×

302고지의 적들은 오현무가 차지한 무명고지로부터 불의적인 배후타격을 받고 포위에서 벗어나려고 이미 도망치고 있었기때문에 적의 제2참호근방 수림속에서는 처음부터 추격전과 소탕전이 벌어졌다.

강호범은 고지우에 기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맨선참으로 고지를 향해 내달리고있었다. 분대원들은 그가 어찌 빠른 속도로 산으로 달려올라가는지 아무도 그의 뒤를 바

싹 따라잡지 못하였다. 오늘 그의 맹렬한 육체적동작에는 누구도 감히 따를수 없는 힘과 탄력이 깃들어있었다.
리종활은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덤불속에 숨었던 키큰 미군놈 하나가 내뛰는것을 발견하였다. 리종활은 그놈을 따라잡자 생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멈춰서라고 소리를 치며 그놈의 뒤덜미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놈은 멈춰서기는커녕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내달렸다. 리종활은 손에 든 총창으로 그놈을 푹 찔러버렸다. 그놈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버렸다.
《저놈 잡아라!》
수림속에서 누군지 웨쳤다. 림태복이가 미군 하나를 쫓아가고있었다. 리종활은 그쪽을 향해 달려가다가 무엇에 걸채여 엎어지면서 산비탈에서 굴러내렸다.
그가 일어나서 아까 소리나던쪽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림태복이 이미 미군놈을 깔고앉아 총탁판으로 그놈의 대가리를 짓이기고있었다. 그들의 곁으로 라명훈과 장문학 그리고 김영준이 숨을 헐떡거리며 스쳐지나가고 기관단총을 손에 틀어쥔 김봉수중대장이 범처럼 펄펄 뛰며 지나갔다. 리종활은 그들의 뒤를 따라 또다시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들고 땅을 쿵쿵 구르며 돌진해나갔다.
302고지는 잠시간에 점령되였다. 강호범을 선두로 한 강호범분대 전투원들이 맨먼저 고지정점에 달려올라갔다. 강호범은 고지에 올라가면 공화국기발을 락동강반의 온 들판이 볼수 있도록 마음껏 휘둘러보이리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고지정점에 올라가보니 머리우에 수림이 우거져 그럴수가 없었다. 분대원들이 련달아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올라왔다.
소대초급선동원 라명훈이 강호범에게 그 기발을 제일 높은 나무꼭대기에다 매다는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럴듯한 의견이였다. 그렇게 되면 락동강반의 먼 들판에서까지 그것을 바라볼수 있을것이였다. 한치라도 더 하늘높이 한걸음이라도 더 먼데서 바라볼수 있게 하고싶은 그

들이였다. 분대원들이 제가끔 나무밑에 등을 갖다대였다.
강호범은 기대에 단 기발을 들고 분대원들에게 떠받들려 나무우로 기여올라갔다. 그리고 나무꼭대기에다 기대를 잡아매였다. 밑에서 쳐다보고있던 분대원들이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그 만세소리에 화답하여 어데선지 가까운 수림속에서 만세! 소리가 일어났다. 만세소리는 차츰 멀리 번져가면서 마침내 골짜기와 산등성이 여기저기에서 련달아 터져나왔다. 눈부신 아침해발아래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머리에 인 산발이 그대로 일어서서 만세!를 부르는듯싶었다.
그런데 이때 강호범은 나무우에서 급히 기여내려오더니 자기의 보병총을 찾아들고 산밑으로 내달렸다. 내달리면서 그는 분대원들에게 소리를 쳤다.
《나를 따랏!》
분대원들은 처음에 영문을 모르고 급히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골짜기밑으로 적 한놈이 내뛰고있었다. 강호범은 나무우에서 그를 발견하였었다. 리종활과 림태복이 그놈을 앞지르기 위하여 산등성이를 타고 가로질렀다. 그놈은 산중턱에서 리종활과 림태복에게 길을 앞질리우자 산등성이로 기여오르다가 이번에는 강호범과 정면에서 마주쳤다. 그놈의 얼굴과 마주친 강호범의 두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그놈은 민병일이였다. 그도 강호범을 알아보았다. 민병일은 손에 든 권총을 앞으로 내대고 쏘았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바람에 탄알은 헛되게 맞은켠 바위돌을 튕겼다.
그는 재차 목표를 겨누었다. 그러나 그가 방아쇠를 당길 여가도 없이 서슬푸른 날창이 그의 가슴을 꿰고 들어갔다. 그놈은 비명을 지르며 날창이 몸에 꽂힌채 펄떡펄떡 뛰였다. 민병일은 자기 몸에 꽂힌 날창을 뽑아내려고 두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몸부림을 쳤다.
괴암동 자루목에서 1개 련대를 몽땅 잃었지만 그래도 운수가 펴느라고 바로 이틀전에 패잔병으로 편성된 새 련대를

인계받은 그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군상전의 부름을 받고 오늘저녁에 인계받게 될 이 302고지를 돌아보러 나온 그였다. 민병일은 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온 차디찬 이 물체가 진짜 인민군의 날창인지 아니면 밤마다 꿈에 보던 괴암동신작로밑의 구뎅이에서 잔등을 때리던 끊어진 팔뚝에 대한 악몽인지 잘 분간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그는 차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영원한 그 악몽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강호범은 어찌나 날창을 깊이 틀어박았는지 그놈의 몸에서 날창을 뽑느라고 한동안 애를 먹었다.

최경민은 적을 추격하면서 수색전투를 지휘하다가 어느새 따라왔는지 자기곁에 와있는 련락병 주영훈을 발견하였다.

《문화부대대장동무가 어떻게 됐소?》

최경민은 아까부터 줄곧 근심해오던 김성태에 대해서 먼저 물었다. 두사람은 걸으면서 말했다.

《고지우에 올려다 눕혔습니다.》

주영훈의 대답이였다.

《고지우에?》

(전투가 끝나는 즉시 밑으로 내려다 병원으로 후송해야 될게 아닌가?)

《문화부대대장동지가 자꾸 고지우에 올려다달라고 우겨서 할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영훈은 대대장의 의아해하는 반문앞에서 변명이라도 하려는듯이 이렇게 말했다.

《상처는 어떻소?》

최경민이 재차 물었다. 련락병은 이내 대답을 안하고 잠시 우물거렸다.

《상처는 좀 심한 편입니다.》

최경민은 불안한 예감에 싸여 그이상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였다. 뒤따르던 련락병이 불현듯 《대대장동지!》하고 소리를 치며 그를 떠밀고 막아서는바람에 최경

민은 한쪽으로 비틀거렸다. 다음순간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총소리와 함께 련락병 주영훈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풀숲에 숨어있던 미군놈 하나가 내달리고있었다.

최경민은 권총을 손에 쥐고 그놈을 쫓아가다가 멈춰서서 침착하게 그를 겨누었다. 그리고 호흡을 조절한 다음 단방에 그놈을 꺼꾸러뜨렸다. 가서 보니 미군장교놈 하나가 자빠져서 뻐드럭거리고있었다. 련대장놈이였다. 그리고보니 바로 이놈이 핸드슨이란놈이 아닌가. 며칠전에 이리로 부임해왔다니까 그놈이 틀림없었다. 최경민은 련락병마저 이놈의 피해를 입고 쓰러진 일을 생각하니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누를길 없었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들어 그놈에게 연방 《탕! 탕! 탕!》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다. 그의 눈앞에는 동두리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최경민은 다시한번 쏘았다. 그리고 이놈에 의해 감옥에서 살해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복수를 위하여,그놈들에게 여직 짓밟히며 살아온 남녘의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쏘고 또 쏘았다. 그는 권총에 재웠던 일곱발의 탄알이 다 떨어져서야 새 탄창을 갈아끼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련락병 주영훈은 풀밭우에 고요히 누워있었다. 마치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듯이 살아있을 때처럼 말없는 미소를 얼굴에 지은채.

최경민이 고지우에 올라갔을 때 김성태는 큰 소나무그늘밑에 야전가방을 베고 누워있었다. 군관들과 전하사들이 그의 주위에 말없이 둘러앉아있었다. 최경민은 백지처럼 창백해진 김성태의 얼굴과 부딪치자 갑자기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대대장이 나타나자 김성태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야전가방속에 있는 서류들을 끄집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속에서 10여매의 표창내신서를 최경민에게 인계하였다. 표창문건을 인계하고나서 김성태는 무엇을 변명이나 하려는듯이 말하였다.

《저는 아마 당분간 대대와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 책은 군사부대대장동무에게 전해주시오. 이제 서너장만 더 보면 다 읽을것을 채 읽지 못했소만…》
그것은 바로 어제 저녁때까지 그가 읽어오던 보병전투규정 2부였다. 김성태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한것이 못내 서운한듯 한동안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가방안에는 집에 보내려고 써놓았던 편지도 들어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수집소에 보내달라고 하다가 이내 그 말을 취소해버렸다.
《이건 그만두시오. 병원에 가서 내 손으로 부치지요. 하긴 병원에 갔다가 오래 있지 않고 이내 돌아올테니까 당분간 둬둡시다.》
최경민은 그가 당분간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는 차츰 숨이 차서 괴로와하였다.
《나는 동무들과 같이 저 남해까지 가려고 했소.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열병식에도 같이 가고. 그러던것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소. 만약 열병식에 내가 참가 못하거들랑 **김일성**장군 만세를 한번 더 불러주오. 내 몫까지 말이요… 하긴 아무데 가있거나 매한가지지. 어데 가있거나 우리모두 최고사령관동지앞에 충실하게 일합시다.》
김성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최경민은 오열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대로 아무데고 동무들이 없는 숲속으로 찾아들어갔다. 그리고 두손으로 관목을 꽉 움켜쥐고 울음소리를 죽여가며 몸부림을 쳤다.

한명희는 부상병들을 운반하느라고 뒤늦게야 고지로 올

라갔다. 전투는 이미 끝나고 고지에는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새벽부터 끊임없는 요란한 폭발소리와 총소리로 귀가 멍멍해 지내오던 명희에게는 솨— 하고 나무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며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조는듯 모든것이 까딱 움직이지 않는 고지우의 정적이 오히려 괴이한 느낌을 주었다.

산봉우리 수림우에 한폭의 공화국기발이 펄럭이고있었다. 그리고 그 기발주위를 수리개 한마리가 나래를 펴고 유유히 감돌고있었다.

수리개,그도 아마 오늘새벽 포소리에 놀라 공중높이 날아오른 이래 땅에 내려앉을념을 감히 못했을것이였다. 저 기발을 이 고지우에 꽂기까지 동무들이 얼마나 간고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는가. 하늘높이 솟아올라 들판우에 떠있던 저 수리개만은 그 광경을 낱낱이 굽어보았을것이였다. 고지우에서는 전투원들이 나무그늘밑에 자리들을 잡고 앉아 휴식을 하고있었다.

명희는 강호범분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분대장을 둘러싸고 서서 키돋움하며 분대장이 가리키는 그의 고향마을쪽을 바라보면서 떠들썩 고아대고있었다. 그러다가 명희를 발견하고는 우— 밀려와서 그를 둘러쌌다. 그리고 제가끔 한마디씩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부상을 입은 김봉수중대장에 대한 안부였다. 명희는 그들에게 그의 상처가 좀 중하기는 하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쉬이 회복되여 머지않아 중대로 돌아올수 있노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나서 명희는 내려올 때 다시 들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과 헤여져 대대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명희는 락동강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산등성이우에 앉아있는 최경민을 발견하고 그의 곁으로 갔다.

최경민은 방금 전투에서 희생된 동지들을 안장하고나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여기와 있었다. 락동강의 푸른 강줄기를 지켜보고있는 그의 생각은 깊었다.

피암동으로의 120리 강행군을 거쳐 저 강을 건너오기까지 대대는 얼마나 간고하고 피어린 전투를 전개해왔는가.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된 영예를 안고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인민군전투원들의 영웅적인 투쟁로정이였으며 걸음걸음 미제원쑤들의 렬가슴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온 일당백 영웅전사들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몸에 상처를 입고도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사코 뒤쫓아와서 락동강물결우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불바다를 헤쳐 앞장서 돌진하던 강호범의 모습이며 불을 뿜는 중기관총을 어깨우에 떠받들고 내리꼰지는 적기를 무섭게 노려보며 바위처럼 버티여선 림태복전사며 군사부대대장 전창걸의 인솔하에 량손에 반땅크수류탄을 거머쥐고 발고랑을 타고 기여나가던 땅크습격조원들, 나이는 어려도 수령님의 참된 아들, 조선인민군전사의 존엄을 떨치며 수십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미군놈의 땅크와 당당히 맞서싸우던 장문학전사며 리종활, 김영준 등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투쟁모습이 지울수 없는 거대한 형상으로 안겨오는것이였다.

당원들을 발동하여 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다가 쓰러진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와 몸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임무를 수행하기전엔 물러설 권리가 없다며 끝끝내 돌바위고지를 점령하고 붉은 신호탄이 오르는것을 보고서야 의식을 잃었다는 김봉수중대장은 또 얼마나 수령님께 충직한 지휘관들이였던가. 이들은 모두가 소박하고 수수한 보통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수령님의 명령앞에선 산을 떠옮기고 바다를 가를 힘을 지닌 사람들이였으며 그 어떤 원쑤도 맞설수 없는 영웅전사들이였다.

최경민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다. 그러나 이런 참되고 훌륭한 동무들과 함께 싸우고있다는 무한한 자랑과 궁지를 가슴깊이 안을수록 꼭 곁에 있어야 할 동지들이 없

는것으로 하여 그의 마음이 저려드는것이였다.

그는 련락병 주영훈이가 대대장이 식사를 안한다고 근심하면서 줴기밥을 싸가지고 따라다니던 일이며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운명하는 최후순간까지 동무들을 위훈에로 부르며 병원에 갔다가 이내 돌아오겠노라고 거듭 말하던 일이 자꾸 가슴에 맺혀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명희는 멋모르고 적당치 않은 기회에 그를 찾아왔음을 후회하였으나 그냥 돌아가기도 무엇하여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대장동무의 붕대를 갈아매고 저는 이젠 련대로 돌아가야겠어요.》

최경민은 대답대신에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그리고 웬일인지 불이 잘 켜지지 않는 성냥갑에다 대고 두번세번 성냥을 그어대고있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저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 전투가 끝나면 붕대를 갈겠다고말예요.》

최경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명희는 그의 고집스런 성미를 이젠 잘 아는지라 지금이 자리에서 그이상의 권고가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붕대를 갈아대자면 앞으로 또 새로운 방책을 궁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심중을 알아차린듯 최경민이 금방 붙여물었던 담배를 비벼끄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희는 대대장이 이제야 마음이 풀렸나부다싶어 위생가방을 끄당기며 한걸음 다가섰으나 대대장이 꺼낸 말은 전혀 다른 말이였다.

《와서 수고많았소. 군의소에 가거든 우리 김봉수중대장동무를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될수록 속히 대대로 돌려보내주시오.》

최경민은 이렇게 말하면서 명희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무엇인가 한마디 더 말하려고 머뭇거리다

가 그냥 돌아서버렸다.

출발준비를 갖춘 대대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피어린 결전장을 뒤에 남긴채 앞으로 전진하였다. 대대장의 뒤를 장문학이 바싹 따라 걷고있었다. 골짜기를 벗어난 선두대렬은 이미 신작로에 나섰다. 명희는 멀어져가는 대렬을 눈으로 바래고 서있었다.

(아까 대대장동무가 무슨 말을 더 하려다말았을가?)

그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려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락동강을 도하한 부대는 남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